

발 간 등 록 번 호

72-6420127-000002-01

1970 - 2020

50 years history
of Wonju fire station

원주소방

50

년사
SINCE 1970



원주소방서
WONJU FIRE STATION



119



평화와 번영 강원시대

강원도 소방안전본부

발간사

지나간 50년을 기억하고 다가올 100년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 원주 소방인의 사명이자 책무



원주소방서는 개서 50주년에 즈음한 2019년 10월, 혁신도시 신청사 이전을 시작으로 더 큰 성장과 도약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970년 문을 연 원주소방서가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오늘날 강원 제1의 소방서로 성장한 것은 원주시민의 변함없는 사랑과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책을 집필하는 동안 흠어져 있던 지난 50여년의 기억과 추억을 찾고, 소중한 역사의 한 조각 조각을 맞추면서 원주시민의 안전을 위한 선배 소방인들의 땀과 노력, 지혜와 헌신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원주소방 50년사는 그들의 역사 스토리에 원주소방만의 색을 입히고 맛을 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반세기 발자취와 주요성과를 기록하고 100만 광역 미래도시, 원주시의 안전을 책임질 원주소방서의 열정과 염원, 도전과 비전을 담았습니다. 역사는 단순히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가치를 만들어가는 성장동력 발굴의 중요한 블루오션이 될 것입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지나간 것을 복습하고 새로운 것을 알면(溫故而知新)
다른 사람의 스승이 될 수 있다.(可以爲師矣)’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책을 통해 원주소방서의 지난 50여년 과거를 돌아보고 재조명하여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 모습을 찾아 대한민국의 안전문화를 선도하는 전국 최고의 소방서가 되기 위해 원주소방인 모두는 노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과거·현재·미래를 담은 「원주소방 50년사」가 교육·홍보·역사의 소중한 자료가 되길 기원해 봅니다.

끝으로 「원주소방 50년사」 발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집필진과 자료수집에 관심과 도움주신 원주 소방가족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25대 원주소방서장 **소방정 이 병 은**

축사

원주소방서의 반곡동 이전은 100만 광역도시 원주로의 도약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소방대원 여러분, 원주소방서 개서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난 50년간 원주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헌신해 오신 소방대원 여러분의 노고 덕분에 원주시가 강원 최고의 안전도시로 자리매김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35만 시민과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 안전이란 화두는 안전불감증으로 대변되던 사회의 구석구석에 들어와 시민 생활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켰습니다. 시민의 안전의식이 급격히 높아졌으며, 질 높고 다양한 소방안전 서비스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방관의 국가직화로 시스템을 개선하고, 재난재해 사전예방과 시민 안전보장에 대한 사회적 책임도 그만큼 강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원주시 또한 재해예방분야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막대한 피해가 예상 되어 원주천댐 및 저류지 건설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시민이 안전한 도시를 조성해 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내 사건·사고의 최소화를 위해 소방서와의 협업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원주를 만들기 위해 원주소방서가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소방안전 분야에서 끊임없는 혁신의 역사를 써 가고 있는 원주소방서는 1970년 소방서가 개서된 이후, 강원도 최초로 구급 서비스를 개시, 전국 최초로 인명구조견을 운영, 전국 최초의 안전 앰블럼 제작·활용 등 혁신의 성과물을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최우수 소방서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특히 원주소방서 청사의 반곡동 이전은 50만 인구를 넘어 100만 광역도시 원주로의 도약에 소중한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소방대원 여러분께서 안전도시 원주의 주역으로서 다함께 열정을 모아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원주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소방대원 여러분들을 위한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소방서와의 협력사업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 분야의 선두주자이자 중부권 제 1도시 원주의 일원으로써 상호 원활한 협조체계를 유지·강화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원주소방서 개서 50주년을 축하드리며, 소방대원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원주시장 **원 창 목**

축사

「원주소방 50年史」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궤도영입니다.

원주소방서 개서 50주년을 강원도의회 한금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함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원주소방서 이병은 서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11월 5일 반곡동 혁신도시에 신청사 준공식에 이어, 2020년 5월 7일이면 원주소방서 개서 50주년을 맞이합니다. 어려웠던 반세기를 뒤로하고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출발선에 섰습니다. 외형적 변화와 동시에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올바른 소방의 위상 재정립을 위한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는 소방공무원 여러분들께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존경하는 소방가족 여러분!

올 한해 강원소방에서는 많은 일들을 해냈습니다. 국가적 재난이라 할 수 있는 동해안 산불, 태풍,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을 일사분란한 대응체계를 가동,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재난대응 컨트롤타워로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또한 소방공무원과 국민들이 바라던 소방 국가직화 전환도 2020년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앞으로 전국 어디서나 공정한 소방서비스 제공으로 국민들의 안전불감증 해소와 안전만족도 향상을 기대하면서 더욱 부지런히 준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행복한 강원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안전한 강원도가 필요하며, 그 중심에는 소방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헌신·노력하고 계신 소방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원주소방서의 무궁한 발전과 소방가족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궤도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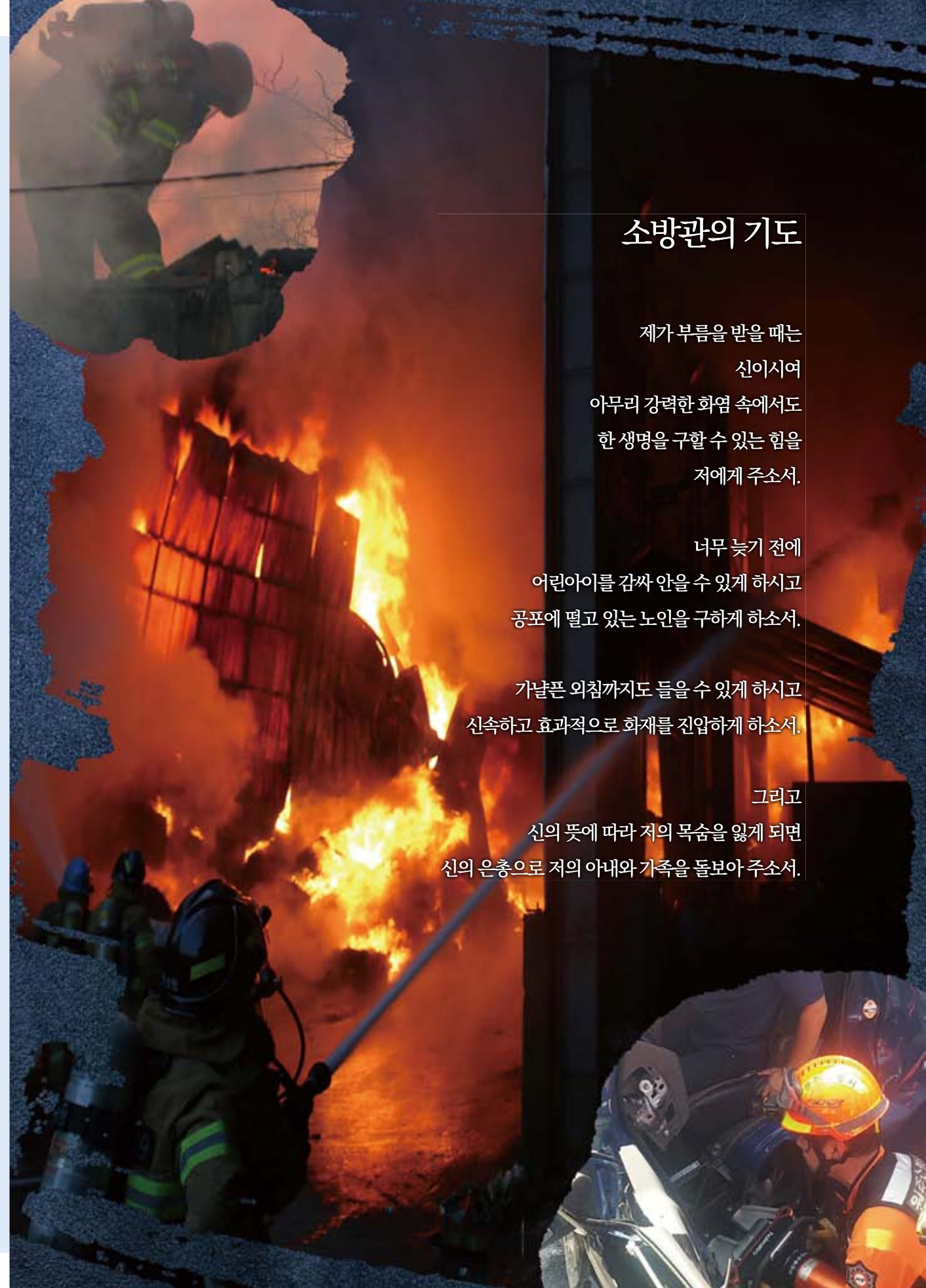
소방관의 기도

제가 부름을 받을 때는
신이시여
아무리 강력한 화염 속에서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소서.

너무 늦기 전에
어린이를 감싸 안을 수 있게 하시고
공포에 떨고 있는 노인을 구하게 하소서.

가냘픈 외침까지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화재를 진압하게 하소서.

그리고
신의 뜻에 따라 저의 목숨을 잃게 되면
신의 은총으로 저의 아내와 가족을 돌보아 주소서.



함께한 50년 SAFE WONJU

함께한 50년

지난 50여년간 재난현장 최일선에서 원주시민의 안전을 위해 많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었던 데에는 시민들의 격려와 박수 그리고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①	②	③
---	---	---

- ① 중앙동 소방청사 (1970~1991)
- ② 명륜동 소방청사 (1991~2019)
- ③ 반곡동 소방청사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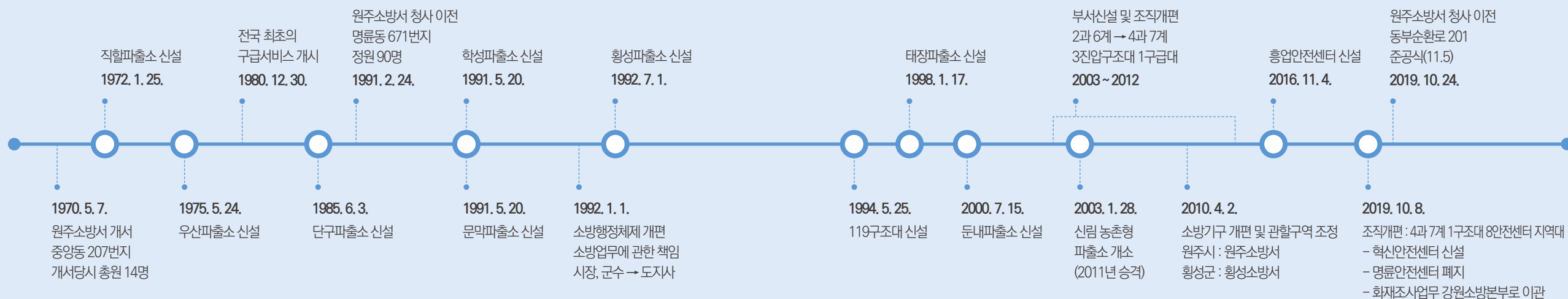
함께할 100년 GO TOGETHER

도내 제1의 소방서, WONJU FIRE STATION “소방환경 변화, 우리가 먼저 변해야 대응할 수 있다.”

1970. 5. 7. 국가직 5명과 유급상비대원 9명으로 시작한 원주소방서는 50여년이 지난 2019년 11월, 287명(정원 306명)의 강원도 제1의 소방서로 성장하였다.

원주시는 혁신·기업도시와 부론국가산업단지 등 성장동력을 바탕으로 인구 35만명을 넘어 2030년 50만 2045년 100만 광역도시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우리는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대비하고자 안전센터 증설과 제2구조대를 비롯해 나아가 제2의 원주소방서 신설 등 소방 인프라 확충에 선제적·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CONTENTS



00 INTRO

- 10 · 함께한 50년, SAFE WONJU
- 12 · 한 장으로 보는 소방조직의 변천과정
- 13 · 사진으로 보는 원주소방의 발자취

01 원주소방의 역사와 환경

- 68 · 제 1장 원주소방서 개서 이전
- 74 · 제 2장 원주소방서 개서 이후
 - 제 1절 기초자치소방 체제(1970.5.7.~1991.12.31.)
 - 제 2절 광역자치소방 체제(1992.1.1.~2004.5.31.)
 - 제 3절 소방방재청 체제(2004.6.1.~2014.11.18.)
 - 제 4절 국민안전처 체제(2014.11.19.~2017.7.25.)
 - 제 5절 소방청 체제(2017.7.26.~현재)
- 93 · 제 3장 원주소방의 환경과 여건
 - 제 1절 원주시 자연환경과 인문환경
 - 1. 자연환경 2. 인문환경
 - 3. 소방활동에 미치는 영향
 - 제 2절 원주지역 사고발생 현황 분석

02 원주소방의 변천

- 104 · 제 1장 변화와 도약
 - 제 1절 시작 - 중앙동 시대(1970~1991)
 - 1. 소방환경
 - 2. 도내 최초의 본격적인 구급업무 개시
 - 3. 소방파출소 신설
 - 4. 각종통계(1970~1990)
 - 5. 주요연혁(1970~1990)
 - 제 2절 발전 - 명륜동 시대(1991~2019.10월)
 - 1. 소방환경
 - 2. 본서 청사 신축·이전
 - 3. 전국 최초 안전앰블럼 제작·활용
 - 4. 구조대 발대·전국 최초의 인명구조견 운영
 - 5. 소방훈련탑 준공
 - 6. 소방공무원 3교대 근무체계 시행
 - 7. 소방파출소 신설
 - 8. 각종통계(1991~2019)
 - 9. 주요연혁(1991~2019)
 - 제 3절 도약 - 반곡동 시대(원주소방서 소개)

- 1. 일반현황
- 2. 관할구역
- 3. 부서현황 및 업무소개

152 · 제 2장 소방보조조직의 변천

- 제 1절 의용소방대
 - 1. 의용소방대 발족
 - 2. 의용소방대 관련 법령의 변천과정
- 3. 일반현황
- 4. 교육훈련
- 5. 장비
- 6. 활동사항
- 제 2절 의무소방대
 - 1. 설치배경
 - 2. 선발 및 양성
 - 3. 복무기간 및 계급
 - 4. 임무

03 지나온 50년 꿈꾸는 100년

- 188 · 제 1장 한눈에 보는 원주소방 변천사

197 · 제 2장 50대 뉴스

229 · 제 3장 원주시민의 안전파수꾼

- 제 1절 원주소방의 24시간 365일
- 제 2절 원주시민과 호흡하고 소통하는 원주소방
- 제 3절 원주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다

268 · 제 4장 혁신과 도약, 100년 미래를 품다

- 제 1절 메가 트렌드 - 소방환경이 변하다
- 제 2절 100년 미래를 설계하다

285 · 제 5장 시대별 사진첩

04 부록

- 344 · 1. 역대 소방서장 현황
- 346 · 2. 원주소방 연표
- 353 · 3. 각종 통계
- 371 · 4. 시민들의 감사편지
- 389 · 5. 참고문헌(자료출처)
- 390 · 6. 편집후기

한 장으로 보는 소방조직의 변천과정

미군정시대
(1946 ~ 1948)

자치소방체제

- 중앙 : 소방위원회(소방청)
- 지방 : 도 소방위원회(지방소방청)
시읍면(소방본부)

정부수립이후(1차)
(1948 ~ 1970)

국가소방체제

- 중앙 : 내무부 치안국 소방과
- 지방 : 경찰국 소방과, 소방서
※ 소방법 제정(1958. 3.)

2차 개편
(1970 ~ 1992)

국가
+
기초자치소방체제

- 중앙 : 내무부 소방국 설치
- 지방 : 민방위국 소방과, 소방서
※ 1972년 서울·부산, 1983년 인천·대구,
1988년 광주·대전, 1992년 9개도 소방본부 설치

3차 개편
(1992 ~ 2004. 5.)

광역자치소방체제

- 중앙 : 행정자치부 소방국 설치(1998)
- 지방 : 소방본부, 소방서
※ 구조조정으로 구조구급과 폐지(1998)
※ 서울, 광주, 충남, 제주 등 재난관리업무 통합

소방방재청 개청
(2004. 6. ~ 2014. 11.)

소방방재청체제

- 중앙 : 소방방재청 신설(2004. 6. 1.)
- 지방 : 소방본부, 소방서
※ 인천 재난관리업무 통합(2006)
※ 제주는 특별자치도로 구분(2006)

국민안전처 개청
(2014. 11. ~ 2017. 7.)

중앙소방본부체제

- 중앙 :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2014. 11. 19.)
- 지방 : 소방본부, 소방서

소방청 개청
(2017. 7. 26. ~ 현재)

소방청체제

- 중앙 : 소방청 신설(2017. 7. 26.)
- 지방 : 소방본부, 소방서

※ 출처 : 강원도소방본부 '강원소방 100년사', 경상북도 소방본부 '경북소방 행정사'

사진으로 보는 원주소방의 발자취

고문서

발령일	발령사상	부령	발령처	비고
1970. 5. 7	원주소방서 방호과장 직무대리	소방장	방호과	
"	원주소방서 근무	소방장	방호과	
"	"	소방장	방호과	
"	"	소방장	방호과	
"	원주소방서 소방과 근무	소방장	방호과	
"	"	소방장	방호과	
1970. 7. 11	원주소방서장 직무대리	소방장	방호과	
"	원주소방서장 직무대리 (방호과장)	소방장	방호과	
1970. 7. 31	원주소방서 근무	소방장	방호과	
"	"	소방장	방호과	
"	"	소방장	방호과	
"	"	소방장	방호과	
"	"	소방장	방호과	

인사발령대장(1970년)

발령일	발령사상	부령	발령처	비고
1970. 5. 7	원주소방서장 (직무대리)	소방장	방호과	
"	"	소방장	방호과	
"	"	소방장	방호과	
"	"	소방장	방호과	
"	"	소방장	방호과	
"	"	소방장	방호과	
"	"	소방장	방호과	
"	"	소방장	방호과	
"	"	소방장	방호과	
"	"	소방장	방호과	
1970. 7. 11	원주소방서장 (직무대리)	소방장	방호과	
"	원주소방서장 (직무대리)	소방장	방호과	
1970. 7. 23	원주소방서장 (직무대리)	소방장	방호과	
1970. 7. 27	원주소방서장 (직무대리)	소방장	방호과	

인사발령대장(1970년)

[illegible]

인사발령대장(1974년~1976년)

연월일	출발지	목적지	출발시간	도착시간	비고	출발인원	도착인원	비고
19. 1. 1	서울	부산	08:00	12:00	부산과 여수개항 근무	1	1	
"	"	"	"	"	경. 중앙선상한 다문도강 근무	"	"	
"	"	"	"	"	명. 방호아 방호개항 근무	"	"	
"	"	"	"	"	명. 중앙선상한 다문도강 근무	"	"	
19. 1. 30	"	신방교	08:00	12:00	당상근무 근무	1	1	
"	"	"	"	"	명. 방호아 근무	1	1	
19. 1. 10	"	신방교	08:00	12:00	중앙선상한 근무	1	1	
19. 1. 10	"	신방교	08:00	12:00	신방교에 임함	"	"	
"	"	"	"	"	태백선상한 근무	"	"	
19. 1. 10	"	신방교	08:00	12:00	원구신방서 근무	"	"	
"	"	"	"	"	명. 신방개항 근무	1	1	
"	"	신방교	08:00	12:00	방. 방호아강 근무	"	"	
19. 1. 10	"	신방교	08:00	12:00	방. 방호아강 근무	"	"	

인사발령대장(1985년)

[illegible]

인사발령대장(1977~1978년)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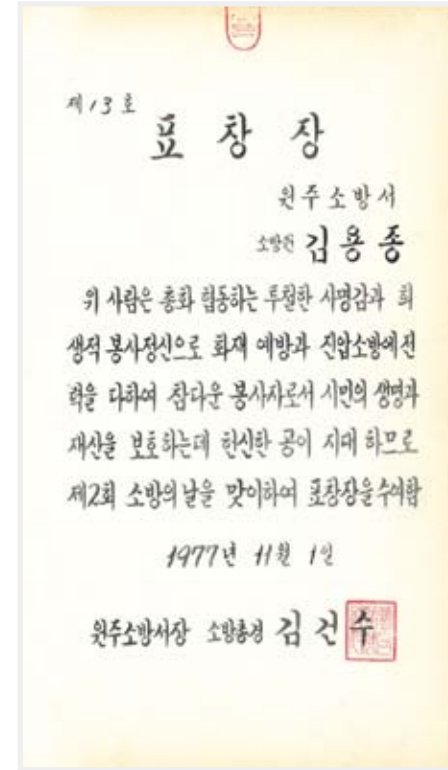
인사발령대장(1991년)

포 상 대 장 (내무부 장관)							
번호	연월일	포상명	포상내역	수상자	비고	비고	비고
1279	70.8.15	표창	내무부장관	소방장	· '70년도 정기포상		
3945	· 10.21	"	"	기원장	· 제25주년 경찰의날 기념포상		
4209	· · ·	"	"	원주의청장	· " " " " " "		
	71.10.21	"	"	소방장	· 제26주년 경찰의날 기념포상		
4976	72.10.21	표창	"	소방장	· 제27주년 경찰의날 기념포상		
2594	72.12.31	"	"	소방장	· '72년도 정기포상		
	73.10.21	"	"	소방장	· 제28주년 경찰의날 기념포상		
5583	74.10.21	"	"	소방장	· 제29주년 경찰의날 기념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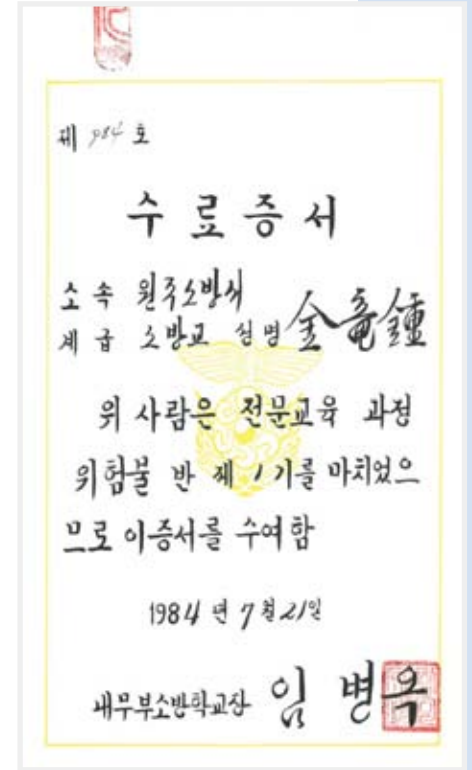
소방공무원 포상대장(1970년~1974년)

포 상 대 장 (내무부 장관)							
번호	연월일	포상명	포상내역	수상자	비고	비고	비고
1844	79.11.1	표창	내무부장관	소방장	· 소방의날 기념		
5952	80.12.31	"	"	원주의청장	· '80년말 우수소방관제인		
6069	· · ·	"	"	부내청장	· " " " " " "		
6112	· · ·	"	"	중부청장	· " " " " " "		
5518	81.11.1	"	"	소방장	· 소방의날 기념		
5520	· · ·	"	"	지방소방장	· " " " " " "		
2029	82.8.15	"	"	소방장	· 내무행정 발전 기념		
3177	82.11.1	"	"	박창수	· 소방의날 기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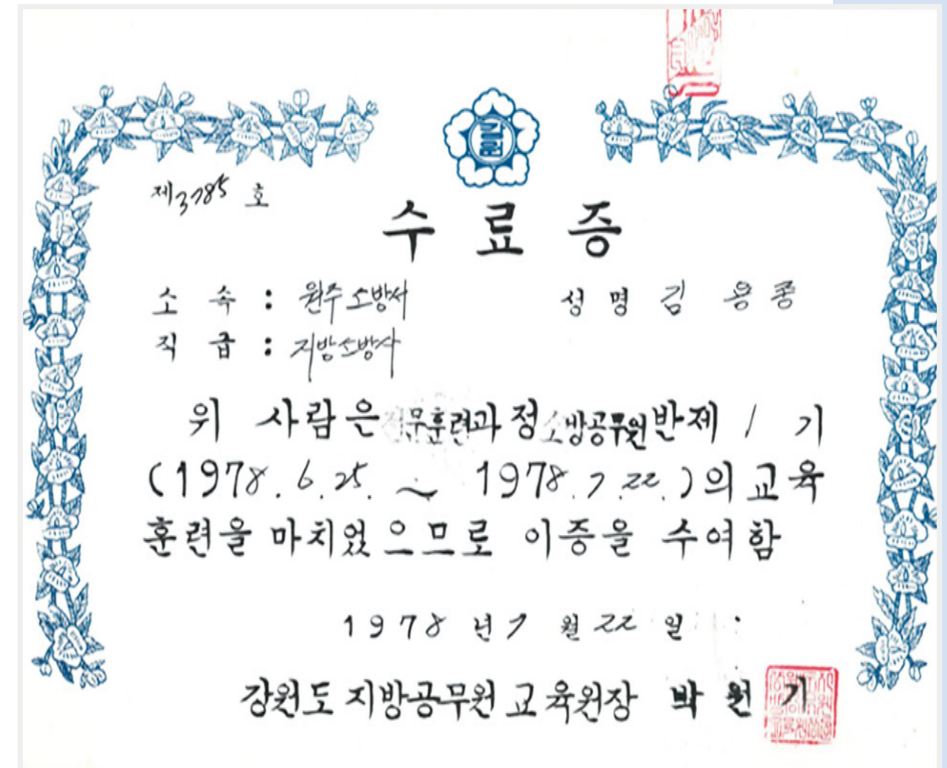
소방공무원 포상대장(1979년~198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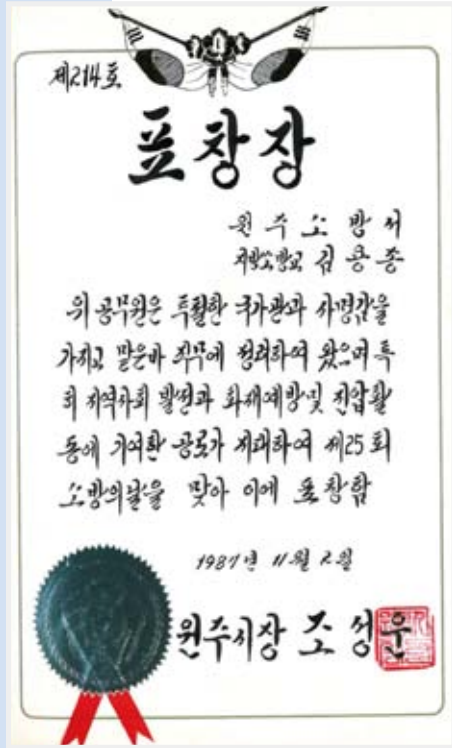
원주소방서장 표창장(197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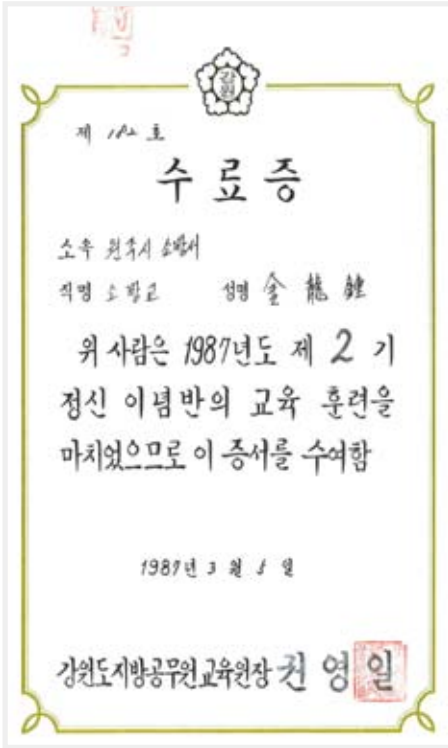
제1기 위험물반 수료증(1984년)



소방공무원반 제1기 수료증(197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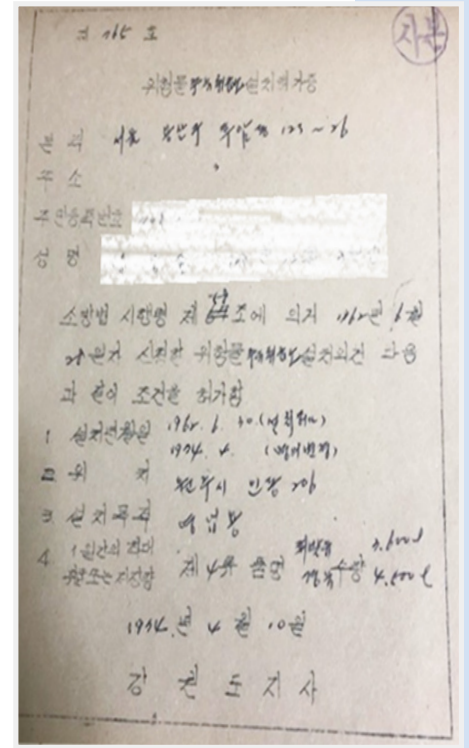
원주시장 표창장(1987년)



정신이념반 수료증(198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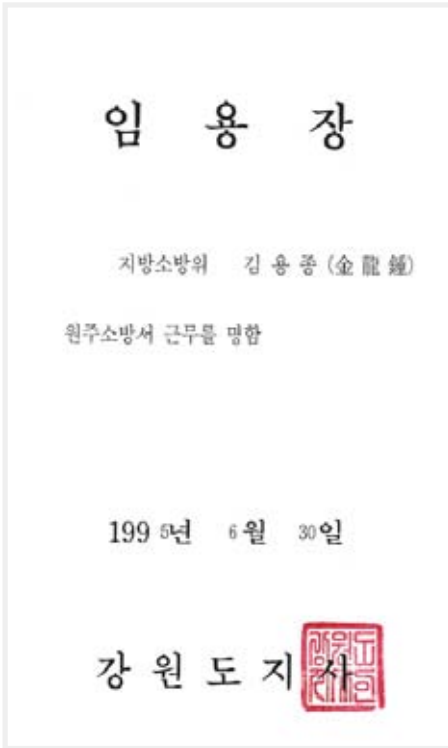
위험물 제조소 등 허가대장(1969년~1974년)



위험물(주유취급소) 설치 허가증(197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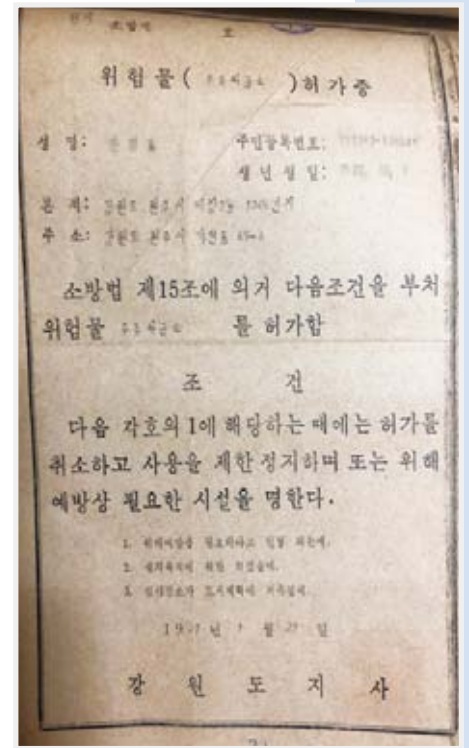
원주소방서공 제1호(1988년, 조달문자 구매 입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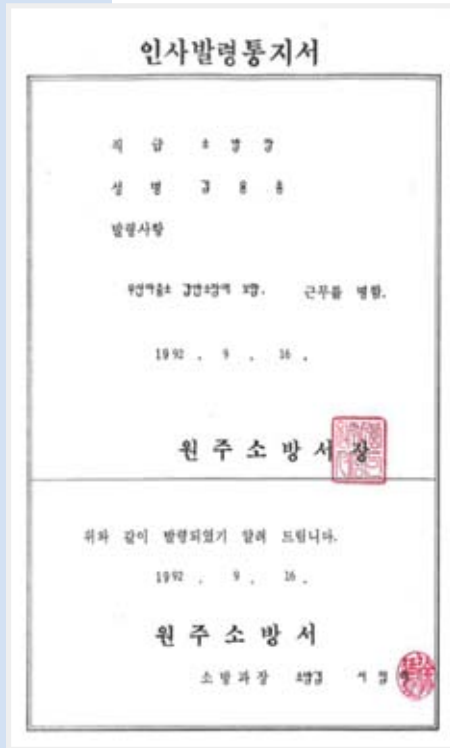
소방공무원 임용장(199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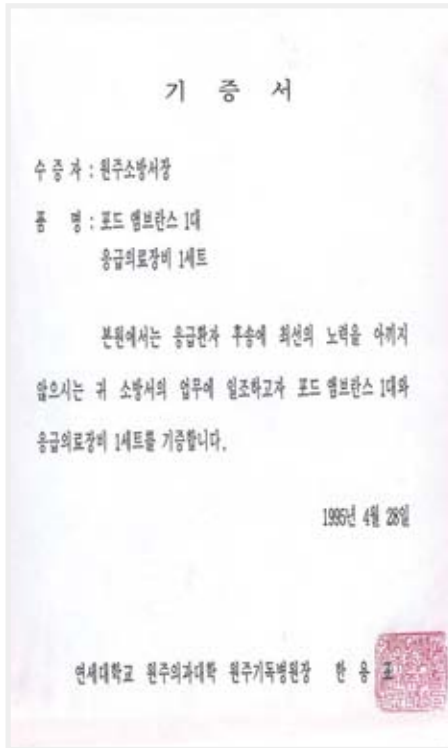
소방공무원 징계처리 내부결재 문서(197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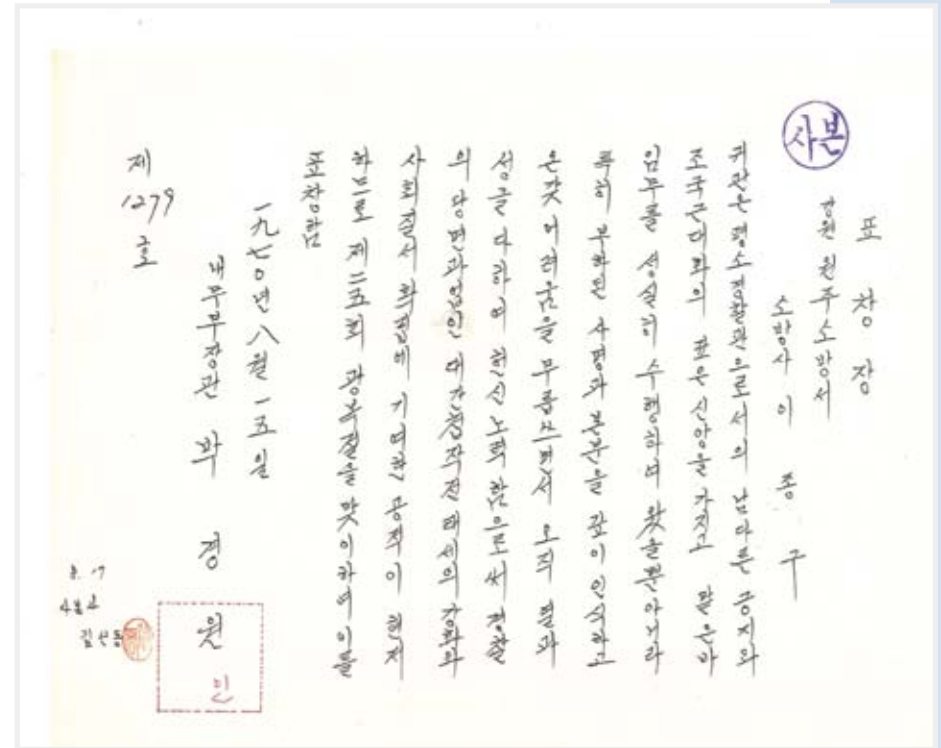
위험물(주유취급소) 허가서(198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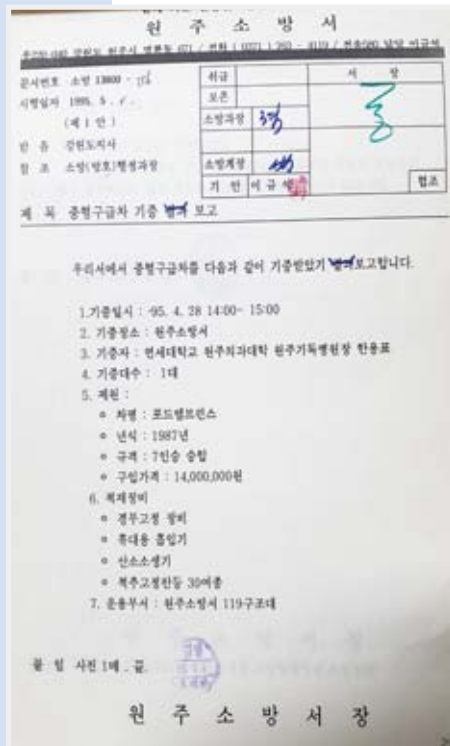
인사발령통지서(199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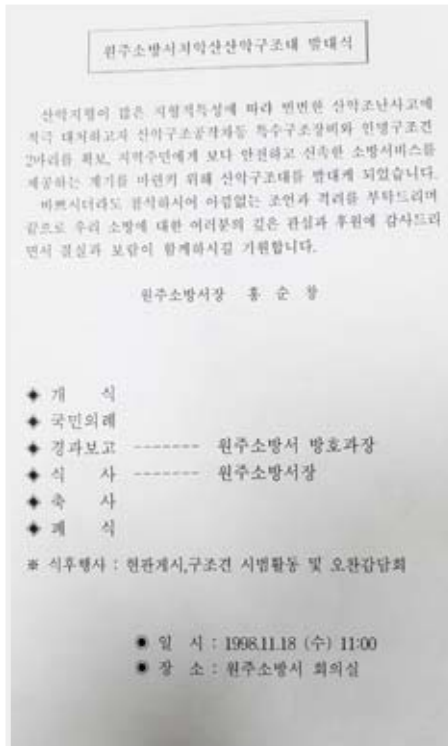
원주세브란스병원 구급차 기증서(1995년)



표창장 사본(1970년)



구급차 기증 결과 보고문서(1995년)



산악구조대 발대식 초청장(1998년)



보전카드(1972년)



군무상항카드(1972년)



군무상항카드(1972년)

검 거 사 건 표											
일	시	소	구	구	구	구	구	구	구	구	구
일	시	소	구	구	구	구	구	구	구	구	구
일	시	소	구	구	구	구	구	구	구	구	구
일	시	소	구	구	구	구	구	구	구	구	구
1	2월	2월	2월	2월	2월	2월	2월	2월	2월	2월	2월
2	1월	1월	1월	1월	1월	1월	1월	1월	1월	1월	1월
3	1월	1월	1월	1월	1월	1월	1월	1월	1월	1월	1월
4	1월	1월	1월	1월	1월	1월	1월	1월	1월	1월	1월
5	1월	1월	1월	1월	1월	1월	1월	1월	1월	1월	1월
6	1월	1월	1월	1월	1월	1월	1월	1월	1월	1월	1월

소방사범 검거사건표(1984년, 원주소방서)

기안용지	
제1차	제2차
제3차	제4차
제5차	제6차
제7차	제8차
제9차	제10차
제11차	제12차
제13차	제14차
제15차	제16차
제17차	제18차
제19차	제20차
제21차	제22차
제23차	제24차
제25차	제26차
제27차	제28차
제29차	제30차
제31차	제32차
제33차	제34차
제35차	제36차
제37차	제38차
제39차	제40차
제41차	제42차
제43차	제44차
제45차	제46차
제47차	제48차
제49차	제50차
제51차	제52차
제53차	제54차
제55차	제56차
제57차	제58차
제59차	제60차
제61차	제62차
제63차	제64차
제65차	제66차
제67차	제68차
제69차	제70차
제71차	제72차
제73차	제74차
제75차	제76차
제77차	제78차
제79차	제80차
제81차	제82차
제83차	제84차
제85차	제86차
제87차	제88차
제89차	제90차
제91차	제92차
제93차	제94차
제95차	제96차
제97차	제98차
제99차	제100차

인사발령 기안지(1986년)

발 생 사 건 표											
일	시	소	구	구	구	구	구	구	구	구	구
일	시	소	구	구	구	구	구	구	구	구	구
일	시	소	구	구	구	구	구	구	구	구	구
일	시	소	구	구	구	구	구	구	구	구	구
1	2월	2월	2월	2월	2월	2월	2월	2월	2월	2월	2월
2	1월	1월	1월	1월	1월	1월	1월	1월	1월	1월	1월
3	1월	1월	1월	1월	1월	1월	1월	1월	1월	1월	1월
4	1월	1월	1월	1월	1월	1월	1월	1월	1월	1월	1월
5	1월	1월	1월	1월	1월	1월	1월	1월	1월	1월	1월
6	1월	1월	1월	1월	1월	1월	1월	1월	1월	1월	1월

소방사범 발생사건표(1984년, 원주소방서)

기안용지	
제1차	제2차
제3차	제4차
제5차	제6차
제7차	제8차
제9차	제10차
제11차	제12차
제13차	제14차
제15차	제16차
제17차	제18차
제19차	제20차
제21차	제22차
제23차	제24차
제25차	제26차
제27차	제28차
제29차	제30차
제31차	제32차
제33차	제34차
제35차	제36차
제37차	제38차
제39차	제40차
제41차	제42차
제43차	제44차
제45차	제46차
제47차	제48차
제49차	제50차
제51차	제52차
제53차	제54차
제55차	제56차
제57차	제58차
제59차	제60차
제61차	제62차
제63차	제64차
제65차	제66차
제67차	제68차
제69차	제70차
제71차	제72차
제73차	제74차
제75차	제76차
제77차	제78차
제79차	제80차
제81차	제82차
제83차	제84차
제85차	제86차
제87차	제88차
제89차	제90차
제91차	제92차
제93차	제94차
제95차	제96차
제97차	제98차
제99차	제100차

인사발령 기안지(1991년)

[illegible][illegible]

인사서류 등 이관 기안문(1987년)

[illegible]

민원 및 소방검사 담당자 인성검사표(1991년)

[illegible]

민원 및 소방검사 담당자 인성검사표(1991년)

[illegible]

	1980. 10. 16
	친구들 반갑습니다.
(계좌)	
원	강릉여자
장	노병자랑
재목	14번선 보스
	새 연금 여름과 겨울에 나눠 보냅니다.
	아 글
(계좌)가	함은
(계좌)	
원	외우사랑
장	중우자랑
재목	신대발성 중년
	새 신상 이혼자 회 회회로 정정 합니다.
	아 글
(계좌)가	함은

신규임용자 서내인사 기안문(1990년)

원 주 소 방 서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679번지 전화: (031) 703-4119 담당: 김정림

문서번호: 소방 12130-1004
 시행일자: 1997. 12. 20. (목)

위급	제 1호	서 장
보존		
과 장	정경	
제 장	이영희	
가인	김민	필로

제 목: 소방물류원 인사기록 변경 보고

소방물류원임용시험영시규칙 제4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소방물류원 인사 기록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기 보고합니다.

소방공무원 인사기록 변경 보고(1997년)

공무원 새마을 교육과정 수료증(1980년)



고속도로 구급대 차고(1990년)



고속도로 구급대 사무실(1990년)



단구파출소 개소식(1986년)



명륜동 청사 준공식(1991년)



원주소방서 명륜동 청사(1991년)



학성파출소 준공식(1993년)



신림 농촌형 파출소 준공식(2002년)



흥업안전센터 개소식(2016년)



반곡동 원주소방서 준공식(2019년)



반곡동 원주소방서 준공식(2019년)

2018. 4. 11. ~ 2019. 10월

반곡동
소방청사
공사



반곡동 원주소방서 청사 기공식(2018년)



조감도



부지 전경(붉은색 선)



지하터파기 작업



지하층 매트 콘크리트 타설



1층 기초 및 슬래브 철근배근작업



2층 벽체 거푸집 설치



3층 벽체 거푸집 설치



옥상 및 지붕 작업



완공된 모습



원주소방서 준공식

합동소방훈련
·
긴급구조
종합훈련



의용소방대원 합동 소방훈련(1960년대)



소방의날 민방공 합동훈련(1975년)



소방의날 민방공 합동훈련(1975년)



합동 소방훈련(1980년대, 강원 감영(당시 군청))



대형공장 합동소방훈련(1980년)



유류저장소 합동소방훈련(1980년)



합동 소방훈련(1982년, 구 분수대 오거리)



대형목욕탕 합동 소방훈련(1990년대)



긴급구조종합훈련(강원도중소기업지원센터, 2005년)



합동소방훈련(2007년, LIG NEX1)



긴급구조종합훈련(치악체육관, 2008년)



긴급구조종합훈련(2014년, 경동대학교)



긴급구조종합훈련(한국관광공사, 2016년)



긴급구조종합훈련(2018년, 영강교회)



긴급구조종합훈련 인명구조(한국관광공사, 2019년)



긴급구조종합훈련 대량사상자처리(한국관광공사, 2019년)



긴급구조종합훈련 환자분류(한국관광공사, 2019년)



긴급구조종합훈련 긴급구조통제단 가동(한국관광공사, 2019년)



긴급구조종합훈련 2인 들것구조(한국관광공사, 2019년)



긴급구조종합훈련 일제방수(한국관광공사, 2019년)



긴급구조종합훈련 고가사다리 인명구조(한국관광공사, 2019년)

공단
파출소
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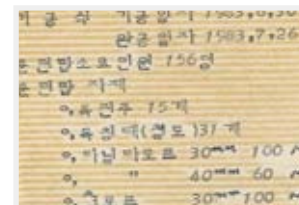


공단파출소 개소식(1975. 5. 24.)



공단파출소 현판식(1975. 5. 24)

공단
훈련탑
공사



공사 개요



안전기원제



훈련탑 4전주중 1, 2, 3번 전주 옮김



4개 전주를 세움



지주들 제작



외나무다리 전주 세움



외나무다리 건너기



고정사다리 오르기



85° 급경사 오르기



보수 명세서

A handwritten ledger titled '보수 명세서' (Insurance Statement) for the Bongdu branch in 1976. It lists various insurance items and their corresponding amounts in a simple, handwritten format.

1976년, 봉두

A handwritten ledger titled '매월 25일은 "저축의 날"' (The 25th of every month is "Savings Day") for the Bongdu branch in 1986. It lists various insurance items and their corresponding amounts, with a header indicating it's for the month of June.

1986년, 봉두

A printed ledger titled '보수 지급 명세서' (Insurance Payment Statement) for the Eunhyang branch in 1996. It features a structured table with columns for various insurance items and their amounts, with a total amount of 27,456,000.

1996년, 은행 명세서

A printed ledger titled '보수 지급 명세서' (Insurance Payment Statement) for the Eunhyang branch in 2006. It shows a more detailed and organized list of insurance items and their amounts, with a total amount of 2,000,000.

2006년, 출력물

A printed ledger titled '보수 지급 명세서' (Insurance Payment Statement) for the Eunhyang branch in 2016. It displays a comprehensive list of insurance items and their amounts, with a total amount of 1,000,000.

2016년, 행정망으로 조회

불조심대회
·소방의 날



제1회 소방의 날 행사(1976년)



소방의 날 행사(1977년, 원주역)



소방의 날(1981년)



불조심 대회(1982년)



소방의 날 탁구대회(1982년)



소방의 날 다과회(1983년)



소방의 날(1983년)



불조심 대회 결의문 낭독(1989년)



불조심 대회(1990년)



소방의 날(1992년)



소방의 날 기념식 및 미래소방비전 선포 119
대장정 성화 봉송(2006년)



소방의 날(2007년)



소방의 날 원주시립합창단 공연(2007년)



소방의 날 가족 노래자랑(2012년)



소방의 날(2013년)



소방의 날 대통령 단체표창 수상(2018년)



소방의 날 가두행진(1976년)



소방의 날 가두행진(1976년)



소방의 날 소방차량 퍼레이드(1980년대)



소방의 날 소방차량 퍼레이드(1983년)



소방의 날 소방차량 퍼레이드(1989년)



불조심 대회 가두행진(1990년)



소방의 날 소방차량 퍼레이드(1990년대)



소방의 날 소방차량 퍼레이드(2018년)

과거의
장비



지휘차량(1970년대)



물탱크차(1970년대)



물탱크차(1970년대)



물탱크차(1970년대)



물탱크차(1970년대)



펌프차(1970년대)



펌프차(1970년대)



지휘차 자체 수리모습(1977년)



지휘차량(1980년대)



구급차(1980년, 신흥 기증)



구급차(1980년대)



구급차(1980년대)



펌프차(1980년대)



펌프차(1980년대)



물탱크차(198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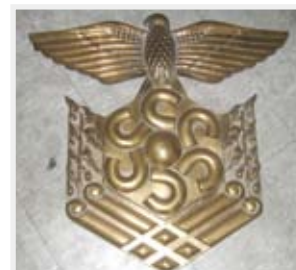
화재경보용 동종



화재경보용 경종



수동식 사이렌



구) 소방상징 마크



119 수보전화



가족물통(1950년대)



가족방수복(1950년)



헬멧(1960년~1980년)



헬멧(1970년~1980년)



수보대(1970년~1980년)



소화기(1970년)



소화기(1970년)



다기능 방수포(1970년대)



무인방수포(1970년대)



방수관창(1970년대)



분무형 관창(1970년대)



소방펌프(1970년대)



파괴기구(1970년대)



무전기(1980년~1990년)



출동용 차인벨(1980년~1990년)



이동형 소방펌프(1980년)



공기호흡기(1980년대)



소방서 기자국(1980년대)



차량무전기(1980년대)



헬멧과 렌턴(1981년)



비디오 녹화기(1985년)



공기호흡기 충전기(1988년)



286컴퓨터(1990년)



구급대원 헬멧(1990년)



구조대원 헬멧(1990년)



모사전송기(1990년)



전동타자기(1990년)



케녹스 카메라(1990년)



방수복(1990년대)



헬멧(1990년대)



화재진압용 헬멧(1990년대)

소방서
견학



어린이집 원생 견학(황성파출소, 1970년대)



유아원 원생 견학(1970년대)



새마을 자매 부락 어린이 견학(1975년)



유치원생 견학(1980년대)



유치원생 견학(1980년대)



어린이집 원생 견학(1980년대)



중국 강소성 소방관 견학(2002년)



유치원생 견학(2005년)



어린이집 원생 견학(2006년)



아동복지시설 어린이 소방안전체험(2006년)



어린이집 원생 견학(2008년)



유치원생 견학(2016년)



어린이집 원생 견학(2018년)



어린이 소방안전교육(2019년)



어린이 농연탈출 안전체험(2019년)



우간다 응급의료진 견학(2019년)

시무식
·
종무식



종무식(1982년)



종무식(1982년)



시무식(1983년)



시무식(1983년)



종무식(1987년)



시무식(1988년)



시무식(1993년)



종무식(1994년)



종무식(1994년)



종무식(1994년)



종무식(1994년)



시무식(2007년)



종무식(2018년)



종무식(2018년)



시무식(2019년)



시무식(2019년)

수상실적



도 소방기술경연대회
단체전 장려상(1989년)



도 소방기술경연대회
단체전 장려상(1990년)



도 소방기술경연대회
단체전 장려상(1991년)



도 소방기술경연대회
단체전 최우수상(1990년)



소방의 날 기념 친선
체육대회 우승(1998년)



강원도 소방관서
축구대회 준우승(1999년)



강원소방 119체육대회
축구 감투상(1999년)



강원도지사기 119체육대회
축구 준우승(2000년)



강원도지사기 119체육대회
줄다리기 우승(2000년)



강원도지사기 119체육대회
축구 준우승(2000년)



강원도지사기 119체육대회
종합 준우승(2001년)



강원도지사기 119체육대회
축구 우승(2003년)



강원도지사기 119체육대회
종합우승(2003년)



강원도지사기 119체육대회
줄다리기 우승(2003년)



강원도지사기 119체육대회
축구 우승(2003년)



강원도지사기 국민생활체육
축구대회 1부 준우승(2003년)



소방 안전대책 추진 최우수
기관 국무총리 표창(2003년)



강원도지사기 119체육대회
계주 우승(2004년)



강원도지사기 119체육대회
축구 우승(2004년)



강원도지사기 119체육대회
종합 우승(200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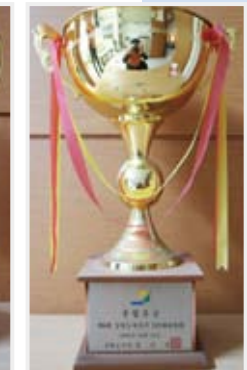
도 소방기술경연대회
종합 3위(2005년)



도 소방기술경연대회
화재진압분야 3위(2005년)



강원도지사기 119체육대회
계주 우승(2005년)



강원도지사기 119체육대회
종합우승(2005년)



강원도지사기 119체육대회
줄넘기 우승
(2005년)



강원도지사기 119체육대회
줄다리기 우승
(2005년)



소방안전대책 추진 우수기관
행정자치부장관 표창
(2005년)



도 소방기술경연대회
응급처치분야 2위
(2007년)



도 소방기술경연대회
인명구조분야 3위
(2009년)



도 소방기술경연대회
화재진압분야 1위
(2009년)



도 소방기술경연대회
종합 준우승
(2009년)



도 소방기술경연대회
소방가족화합분야 1위
(2010년)



도 소방기술경연대회
인명구조분야 1위
(2007년)



도 소방기술경연대회
화재진압분야 1위
(2007년)



도 소방기술경연대회
종합우승
(2007년)



도 여성의용소방대 응급처치
경연대회 삼각건 응급처치
2위(2007년)



도 소방기술경연대회
화재진압분야 1위
(2010년)



도 여성의용소방대
응급처치 경연대회 종합우승
(2010년)



도 화재방어 우수사례 및
맞춤형 활동기법 발표대회
최우수상(2010년)



도 화재진압전술 선진화
발표대회 최우수상
(2010년)



도 여성의용소방대 응급처치
경연대회 종합준우승
(2007년)



소방공무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최우수상
(2007년)



도 소방기술경연대회
소방가족화합분야 1위
(2009년)



도 소방기술경연대회
응급처치분야 1위
(2009년)



강원 119어울 한마당 우승
(2011년)



반부패 청렴시책 추진
우수기관 도지사 표창
(2011년)



도 소방기술경연대회
화재진압분야 1위
(2012년)



도 소방기술경연대회
종합준우승
(2012년)



도 소방기술경연대회
구급부문 2위
(2013년)



도 소방기술경연대회
화재진압부문 2위
(2013년)



도 소방기술경연대회
종합준우승
(20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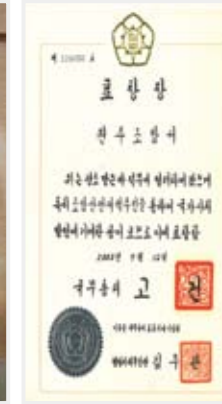
소방력 현장대응체계
연구발표대회 장려상
(20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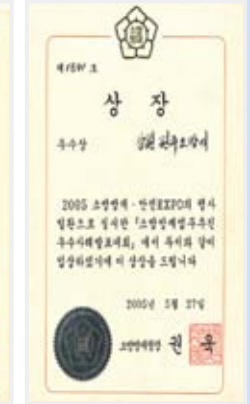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수관연장하고 방수자세'
1위(2017년)



평창동계올림픽 전진대회
수관연장 방수자세 1위
(2018년)



소방 안전대책 추진
최우수기관 국무총리 표창
(2003년)



소방 방재업무 추진
우수사례 발표대회 상장
(2005년)



강원도 소방본부장기
축구대회 준우승
(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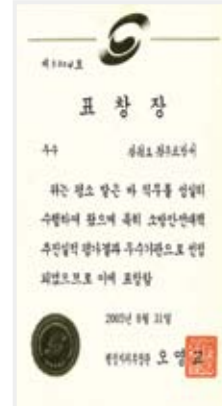
강원도 119어울 한마당
준우승
(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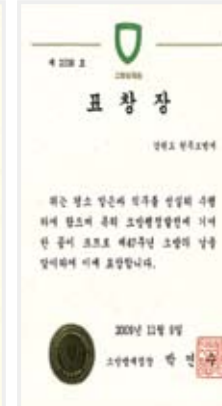
강원도 소방공무원
축구대회 준우승
(2015년)



강원도 119어울 한마당
준우승
(2015년)



소방안전대책 추진 우수기관
행정자치부장관 표창
(2005년)



제47주년 소방의 날 기념
소방방재청장 표창
(2009년)



소방행정평가
우수 도시자 표창
(2010년)



화재진압작전전술 연구개발
발표대회 최우수
행정안전부장관 표창(2012년)



도 소방기술경연대회
구급부문 2위
(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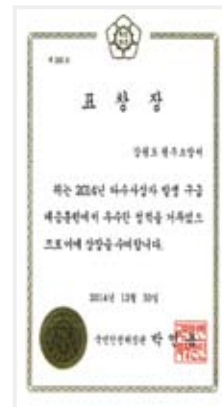
도 소방전술경연대회
우수상
(2015년)



도 소방기술경연대회
구급부문 2위
(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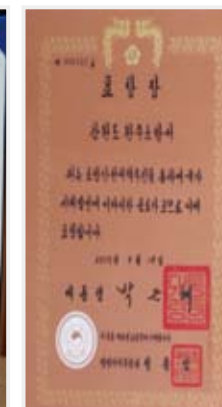
도 소방기술경연대회
종합 3위
(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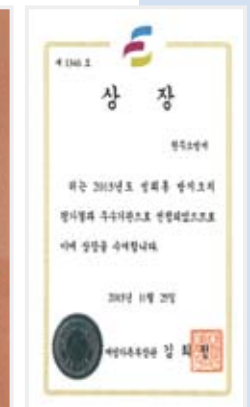
다수사상자 발생 구급대응훈련
우수 국민안전처 장관 표창
(2014년)



현장대응역량 강화 방안
연구발표대회 우수상
(2014년)



소방안전대책 추진
우수기관 대통령 표창
(2015년)



성희롱 방지조치 평가결과
우수기관 선정
여성가족부장관 상장(2015년)

소방서
이모저모



소방행정종합평가
장려 도시사 표창
(2015년)

긴급구조훈련 종합평가
우수 도시사 표창
(2015년)

소방행정종합평가
우수 도시사 표창
(2016년)

도 소방기술경연대회
구급부문 2위 도시사 표창
(2016년)



도 소방기술경연대회
종합 3위 도시사 표창
(2016년)

현장소방활동 안전사고
예방연구 발표대회 최우수
도시사 상장(2017년)

소방행정평가
최우수 도시사 표창
(2017년)

현장대응역량 강화방안 연구
발표대회 최우수
도시사 표창(2017년)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우수기관 표창
(2018년)

강원소방본부장기 119
즉구대회 준우승
(2018년)

소방의 날 우수관서
대통령 표창
(2018년)

도 소방기술경연대회
구급부문 2위
(2018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업무 평가결과
최우수 장관 표창(2019년)



원주소방서 개서 기념 단체사진(1970년)



육군소방대 위문(1982년)



간현 임시파출소 개소(1994년)



직원 소양교육(1996년)



스키강습(2006년)



아침 좌담회(2006년, 명륜안전센터, 구조대)



강원도민 프로축구단 유치를 위한 결의대회(2006년)



퇴직 소방공무원 초청 간담회(2007년)

소방
홍보물



제25대 이병은 서장 취임식(2018년)



소방본부장 원주소방서 방문(2018년)



칠봉에서 직장체육대회(2018년)



직원 대상 4대 폭력 예방교육(2018년)



힐링을 위한 템플스테이(2019년)



지역인사 초청 강연(2019년)



정동진에서 직장체육대회(2019년)



1가정 1소화기 비치
차량부착 자석 스티커(2011년)



겨울철 화재예방
전자파 차단 스티커(2012년)



비상구는 생명의 문
차량부착 자석 스티커(2011년)



겨울철 불조심 관련 차량용
스노우커버 제작 시안(2012년)



소화기 1개 경보기 1개는 생명을
9합니다 홍보 저금통(2015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홍보물품
소방차 길터주기운동 홍보 전단지(2016)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어린이용 물총 (2016년)



화재예방 홍보
커피컵 홀더(2017년)



외출전 안전확인 스티커
(2017년)



화재안전특별대책 홍보 계획 관련 불나면 대피먼저
의식전환 홍보용 폼보드 및 X배너(2019년)



어린이 불조심 작품 공모 홍보용
무릎 담요 텀블러(2018년)



어린이 홍보용
소방관 종이접기 만들기(2018년)



위생용품 세트 소방차 길터주기
소방통로 불법 주정차 금지(2018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소방안전 홍보용
접이식 연필꽂이(2018년)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용
전단지(2018년)



어린이날 화재안전 VR체험
(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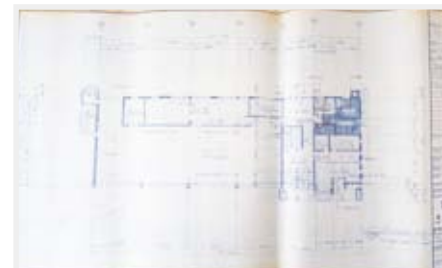
추석 명절 맞이 안전캠페인 홍보용
반짓고리세트(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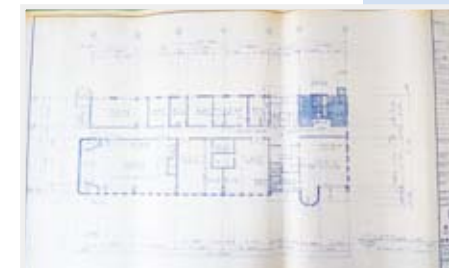
설계도면(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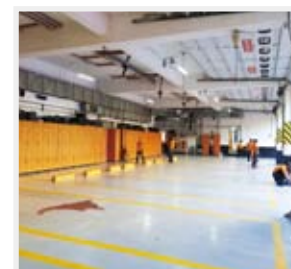
설계도면(1층)



설계도면(2층)



설계도면(3층)



1층 차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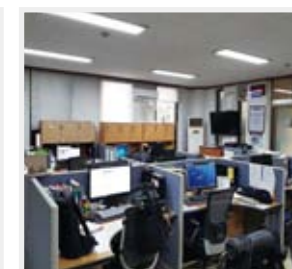
1층 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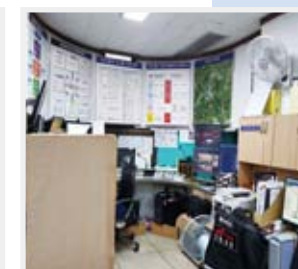
1층 체력단련실



명륜안전센터 입구



명륜안전센터 사무실



원주소방서 상황실



1층 로비



2층 복도



2층 복도



서장실 입구



서장 업무책상



서장실



소방행정과



예방안전과



방호구조과



현장대응과



대회의실



3층 옥상



의무소방원 생활관



후정 족구장



감염관리실



명륜센터 대기실



명륜센터 샤워장



명륜센터 탕비실



구조대 입구



구조대 사무실



구조대 대기실



공기충전기실



밴드연습실



인명구조훈련탑



호스건조공간



청사 정면



청사 우측면



청사 좌측면

더 많은 테마별 사진첩은 QR코드로 확인하세요



01

원주소방의 역사와 환경

제 1장 원주소방서 개서 이전 68

제 2장 원주소방서 개서 이후 74

제 1절 기초자치소방 체제(1970.5.7.~1991.12.31.)

제 2절 광역자치소방 체제(1992.1.1.~2004.5.31.)

제 3절 소방방재청 체제(2004.6.1.~2014.11.18.)

제 4절 국민안전처 체제(2014.11.19.~2017.7.25.)

제 5절 소방청 체제(2017.7.26.~현재)

제 3장 원주소방의 환경과 여건 93

제 1절 원주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

제 2절 원주지역 사고발생 현황 분석

제1장 원주소방서 개서 이전

1. 소방환경

우리나라 소방의 역사는 조선시대 병조에 속해 화재를 방지하던 금화도감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다가 갑오개혁 이후 경찰기구에서 소방업무를 관장하였고, 광복 후 미군정 시대에 소방청을 비롯한 자치 소방기구를 두었다가, 1948년 정부수립 이후에는 소방행정이 다시 경찰행정체제 속에 흡수되어 각 도의 소방청은 지방경찰국에 각각 인계되었다. 그해 11월 4일 내무부 직제는 소방업무를 치안국 소방과에서 분장하도록 확정된다. 이와 같이 소방행정이 경찰행정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인원·예산의 확보 등 여러 면에서 지방 자치단체의 협조가 불가하여 1970년 8월 3일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소방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게 된다. 그러나 서울·부산에서만 실시되고 다른 지역에서는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가, 1975년 민방위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소방행정은 민방위 업무 체제의 한 분야로 있게 되었다. 당시 소방은 단순히 화재를 진압하는 조직으로 운영되었다.

전국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 현황 (1955년)

[단위: 명]

구분	소방서	공 무			의용소방대원
		계	소방관	소방경찰관	
강원도	1(춘천)	39	20	19	6,689
서울특별시	4	308	168	140	1,516
경기도	2	70	46	24	8,640
충청북도	1	30	20	10	3,834
충청남도	1	42	24	18	14,578
전라북도	4	104	68	36	9,908
전라남도	4	314	121	193	9,908
경상북도	3	58	48	10	4,933
경상남도	4	76	54	22	6,371
제주도	·	12	·	12	890

※ 출처: 강원소방본부, 2007, 『강원소방사』



제1회 강원도 경찰관 및 소방관 제식훈련 기념(1958년)



원주의용소방대 시동식 기념(1961년)



중앙시장(1953년)

원주천(1953년)

원주 시가지 전경(1960년대)

1950~60년대 지금의 원주시는 행정구역상 '원주군'이었으며, 인구는 1957년 기준 54,849명으로 당시 강원도 최대의 인구밀집지역이었다. 소방조직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조직한 의용소방대가 유일하였으며, 화재진압만을 임무로 하였다. 이후 행정구역은 1955년 9월 1일 원주군 중 원주읍 일원, 판부면 단구리, 행구리, 호저면 우산리를 편입하고 행구동, 단구동, 우산동을 증설하여 18개 동으로 '시'로 승격하였으며, 나머지 구역을 원성군으로 개칭하였다. 이후 원성군이 원주군으로 명칭만 변경되었다가 1995년 1월 1일 원주시와 원주군이 통합되어 지금의 원주시가 되었다.

강원도의 주요 시·군별 인구 변화(1970년~2016년)

[단위: 천명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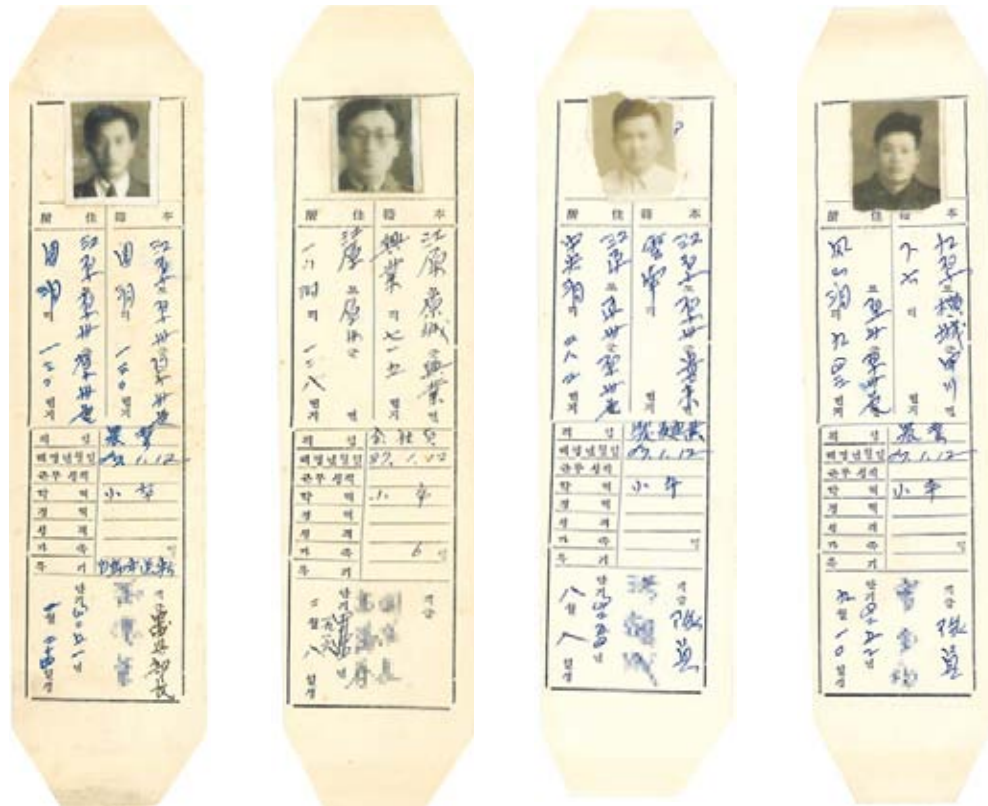
구분	1970년	1980년	1990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19년	증감율
원주시	200	198	225	270	290	317	336	347	71
춘천시	210	211	218	252	256	272	281	280	33
강릉시	230	203	229	234	226	220	216	213	-7
동해시	·	104	89	104	100	95	94	90	-13
태백시	·	·	90	57	53	51	47	44	-51
속초시	73	66	74	90	88	85	82	81	10
삼척시	277	251	110	82	73	72	71	67	-75
홍천군	124	101	78	75	71	70	71	69	-44
횡성군	94	71	48	46	44	44	46	46	-51
영월군	124	95	65	48	42	40	40	39	-68
평창군	97	79	53	47	45	43	43	42	-87
정선군	113	134	88	51	44	41	39	37	-67
철원군	60	64	53	53	49	49	49	45	-25
화천군	51	39	29	25	24	24	27	24	-52
양구군	39	34	28	23	22	22	24	23	-41
인제군	62	48	37	34	33	32	33	31	-50
고성군	64	49	41	35	32	30	30	27	-57
양양군	47	42	36	30	29	28	27	27	-59

※ 출처: 강원소방본부, 2007, 『강원소방사』

※ 1970년~1990년 인구는 원주시와 원성군 인구의 합계임. 1995년 원주시로 통합됨

2. 의용소방대 주도 방화환경 조성

원주의 의용소방대는 1946년 문막읍 등지에서 8개 대가 설치되어 주민들에게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으며 원주소방서 신설 이전까지 4개 대가 추가로 설치되어 의용소방대 주도의 방화환경을 조성하였다. 이들 의용소방대는 민간인 신분으로 30~50명 단위로 마을주민들로 조직되었으며, 보수는 주어지지 않았다. 이들의 주요활동으로는 화재발생시 진압활동과 화재예방 홍보활동으로 특히, 동절기 화재예방 캠페인 등을 주도적으로 실시하는 등 겨울철 주민들에 대한 화재경각심을 크게 높이는 역할을 하였다.



원주 의용소방대원 신분증(1950년대)

※ 출처: 원주소방서 소방행정과



원주의용소방대가 사용한 완용펌프(1930년대, 원주소방서 전시)

3. 소방장비

원주시 최초의 소방장비는 완용펌프다. 1907년 1월 우리나라 소방대의 효시라 할 수 있는 왕궁소방대에 순종 2년(1908년)에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가축 또는 인력 등을 이용해 펌프를 화재 현장으로 이동시킨 후 양쪽의 펌프에 위아래로 힘을 가해야 했다. 또한 펌프에 수관을 연결해 보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양동기로 직접 물을 퍼담아야 했다. 따라서 완용펌프를 사용하는데 작동 인원, 호스 조정 인원, 물 운반 인원 등을 모두 포함해 6~9명의 소방인력이 필요했다. 화재 현장으로 출동할 때는 차체에 매단 종을 치고 달리면서 화재 발생 사실과 인근 주민이 대피할 것을 알렸다.

1910년대 초반 경성의 궁중 소방대를 중심으로 한 상비소방대에서는 증기펌프, 가솔린 펌프, 자동차 펌프 등이 도입되면서 완용펌프의 사용이 감소했다. 이 중 주력 펌프는 가솔린 펌프로 완용 펌프는 자연스럽게 보조 기구 또는 학교, 관공서 등의 비상용 기구로 사용되었다. 하지만 원주에는 상비소방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았고 예산 등의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상급의 펌프를 사용할 수 없었다. 따라서 원주 의용소방대는 원주소방서가 개서할 때까지 완용펌프와 미군의 잉여차량을 개조하여 만든 소방차를 주력으로 화재 진압 활동에 힘썼다. 원주 의용소방대에서 사용했던 완용펌프 중 한 대는 원주소방서 본청에 전시중이다.



완용펌프를 이용해 화재를 진압하는 모습(1930년대)



완용펌프 조작 모습(충북소방 청산119안전센터 전시)



완용펌프와 최신 무인방수로봇(2019년)

여기서 잠깐!

알아두면 좋은 소방 역사

우리나라 근대 소방장비의 변천사

1397년(태조 6년) 수성금화사에서 드므와 구화기를 사용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소방 장비 기록의 시초다. 1793년(경종 3년) 중국으로부터 수총기를 도입했는데, 이는 외국으로부터 도입한 최초의 소방용 방수장비다. 1891년(고종 28년) 수룡이라는 장비로 화재를 진압한 기록이 있는데 이는 일본에서 도입된 장비로 추측된다.

1908년 궁정소방대에서 완용펌프가 도입되어 사용하기 시작했다. 1912년 경성소방조가 스웨덴 스톡홀름으로부터 우리나라 최초의 동력소방기계인 가솔린펌프 한 대를 수입했고 수동펌프를 대체했다. 1920~45년 가솔린 펌프를 운반하던 마차가 점차적으로 자동차로 대체되었고 소방펌프자동차로 발전하였다.

6·25전쟁 이후에는 정부에서 미군 잉여차량을 소방차로 개조해 사용하였다. 1963년에는 국내 업체 서울진흥공업사에서 진흥소방펌프를 제작하기 시작했고 1970년대 서울에는 대한손해보험협회의 지원금으로 16m 굴절사다리차, 배연차, 32m 고가사다리차가 배치되었다. 1971년 대연각 호텔 화재 이후에는 일본제 이스즈 고압펌프, 서독제 마기루스 44m 고가사다리차, 중화학차 등이 수입되어 주요 대도시에 배치되었다. 1976년 동아자동차에서 펌프차, 물탱크차, 화학차, 굴절사다리차 등 최초의 국산 소방차를 생산하였다. 또한 각종 화재 참사를 겪으며 소방장비의 중요성을 절감하였고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소방장비 보강기준을 마련하고 소방장비관리기준을 제정하여 효율적인 장비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1983년 46m 고가사다리차가 국산화에 성공했다. 1998년 서울소방본부에서 61m 대형고가 굴절차를 도입해 아시아 최초로 초고층 인명구조 장비를 보유한 나라가 되었다. 현재는 고가차, 굴절차, 고성능화학차 등 모든 차량이 국내 생산되고 있으며 해외에도 수출하고 있다.

※ 출처 : 강원소방본부, 2007, 『강원소방사』



넓적하게 생긴 독이라는 뜻의 '드므'



덕수궁에 전시중인 '구화기'



가솔린 펌프



물탱크 차량(1960년대)



펌프차와 굴절차(1982년)



원주소방서 고가사다리차(53m, 2019년)

원주소방서가 보유한 최신의 소방차량



구조공작차

차량 제작사 Scania(스웨덴)

특장 제작사 Rosen bauer(오스트리아)

배기량·출력 12,700cc ·410Ps / 1900rpm

구 입 가 격 약 6억 4천만원



고가사다리차

차량 제작사 Volvo(스웨덴)

특장 제작사 에버다임(대한민국)

사다리 길이 53M(아파트 18층 가량)

구 입 가 격 약 6억 8천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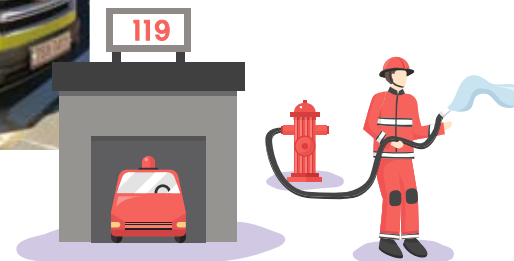
대형구급차(중증환자 이송 전문)

차량 제작사 현대자동차

특장 제작사 성우모터스(대한민국)

적 재 장 비 전 자동 들것, 자동 가슴압박장치, 자동 인공호흡기, 초음파 장비 등

구 입 가 격 약 1억 4천만원



제2장 원주소방서 개서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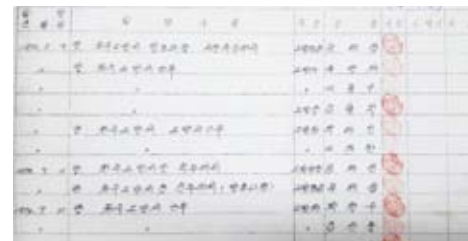
제1절 기초자치소방행정 체제 (1970.5.7.~1991.12.31.)

1. 원주소방서의 개서

우리나라는 1970년대 들어서면서 급속한 경제발전과 사회변천이 이루어졌으며 농촌 인구의 도시 집 중화와 더불어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되었고 건물의 고층화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국민 소득의 증대로 국민생활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에너지원이 전기·석유·가스 등으로 다양해지고 화재의 양상도 복잡·다양해졌으며 대형화되어 적극적인 소방행정 및 신속한 소방력 전개가 절실히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강원도의 교통요충지역이며, 각종 산업시설과 인구의 증가로 소방 수요가 증대되던 원주 시에 대통령령 제4725호 「소방서직제」에 의거하여 1970년 5월 7일 원주소방서를 신설하게 되었다. 개서 당시 서장 직무대리는 소방경감 문태섭이었고 소방공무원 14명(국가직 5명, 유급상비대원 9명)과 소방차 3대(펌프차 1대, 물탱크차 1대, 지프차 1대)로 조직되었는데 현재의 소방력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미비하였다. 청사는 중앙동 207번지의 원주의용소방대 건물에 공사비 270여만원을 들여 개조하였으 며, 1층 차고(221㎡), 2층 사무실(184㎡), 3~5층 망루대(5㎡)이었다. 당시 원주시의 인구는 20만 명(원주시+원성군)이었는데 급속히 발전하는 제조업 형태의 산업과 교통망, 증가하는 인구유입으로 인 해 소방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기였다.



개서식 기념(1970년)



인사발령대장(1970년, 국가공무원)



중앙동 청사(1970년)



인사발령대장(1970년, 유급상비대원)

2. 소방행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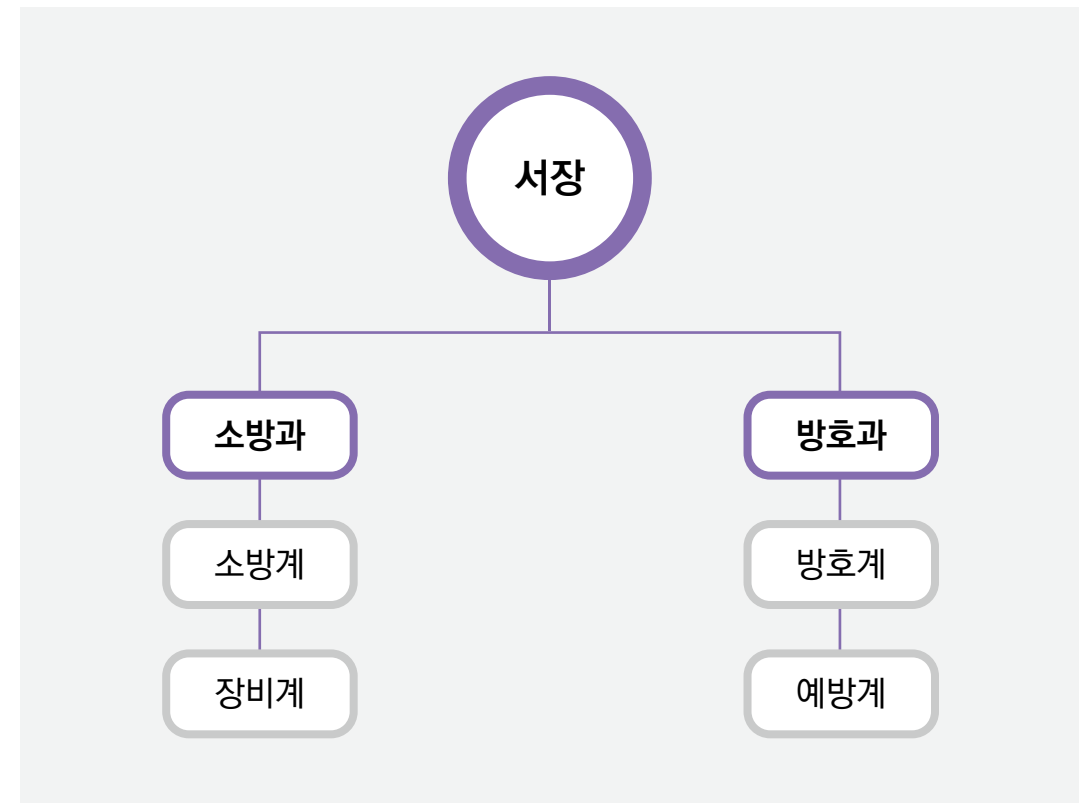
1970년 12월 31일 법률 제 2249호 「소방법」개정 시 소방 업무에 대한 책임을 시장·군수로 하였으나 시·군 의 재정여건 및 소방조직의 특성상 이를 시행할 수 없어 부칙에 규정을 두어 유보하여 오던 중 민방위와 소방 행정을 통합하는 민방위본부의 설치를 계기로 「시·군의 직제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였는데 이 규칙에 의해 원 주, 춘천, 강릉, 속초 등 도내 4개 시에는 민방위과에 소방계를 두어 소방서와 공조체제를 갖추었다. 1973년 2 월 8일 법률 제2502호로 「지방소방공무원법」이 제정·공포되면서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이원화되었다. 국가 직은 「경찰공무원법」의 규율을 받는 경찰공무원 소방직으로, 지방직은 「지방소방공무원법」의 규율을 받는 별 정직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임용권자에 따라 신분이 달랐다.

개서 당시 계급체계(경찰공무원법 제정시(1969년))

구 분	내 용						
소 방	소방총경	소방경정	소방경감	소방경위	소방사	소방장	소방원
경 찰	총 경	경 정	경 감	경 위	경 사	경 장	순 경
일반공무원	3급 을		4급 갑	4급 을		5급 갑	5급 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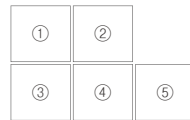
※ 출처: 소방청, 「한국소방행정사」

개서 당시 원주소방서 조직도



3. 원주소방서의 발전

갈수록 증가하는 소방수요를 충족하고 화재진압 현장활동의 전문성을 높이며 행정기능과의 분리 등 현장 대응 전담부서 신설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1972년 1월 25일에 직할파출소를 신설하였고 이는 원주소방서의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직할파출소는 소방공무원 5명으로 조직되어 화재 시 전문 진화대로서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1975년 2월 7일에는 우산동과 단계동, 태장동 일대를 관할하는 우산 파출소를 임시로 개소하였으며, 같은 해 5월 24일 정식 개소하였다. 또한 1980~90년대에도 소방행정의 수요가 계속 증가하였고 복지 수준의 향상으로 소방행정에 대한 기대 심리가 확산되는 등 소방관서의 증설이 불가피하였다. 이에 도시 밀집지역, 공업단지, 주요 지역 등에 파출소의 신·증설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로 1985년 6월 3일에 원주소방서 단구파출소(단구동 195-1)를 신설하면서 지리적·시간적으로 소방력의 공백을 최소화 하였다. 또한 강원도와 원주시는 열악한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소방에 많은 투자와 관심을 가져왔으며 1991년 이후에도 계속 이어져 1991년 2월 24일 원주소방서 청사를 명륜동으로 이전하였고(준공식 3.13.), 같은 해 문막파출소(5.20.)와 학성파출소(5.20.)를 개소하였다. 학성파출소는 청사가 미리 확보되지 않아 원주소방서 청사 내에 임시로 개소한 후 1991년 10월 5일에 원주시청으로 이전하였다가 1993년 12월 15일에 청사가 완공되어 학성동으로 완전히 이전하였다.



- ① 문막파출소 사무실 내부 모습(1991년)
- ② 학성파출소 준공식 모습(1993년)
- ③ 명륜동 소방서 청사 전경(1991년)
- ④ 명륜동 소방서 청사 준공식 모습(1991년)
- ⑤ 명륜동 청사 후정의 훈련탑(1991년)



명륜동 소방서 청사의 신설은 급변하는 소방환경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었으며, 증원된 소방공무원의 업무여건을 보장하고 체력유지를 위한 체력단련장과 실전과 같은 다양한 훈련이 가능한 훈련장이 설치된 연면적 1,988㎡ 규모의 청사였는데 당시 전국의 어떠한 소방청사와 비교하여도 손색이 없는 최신식의 청사였다.



소방공무원의 계급 및 임용권자 변천

1949년 국가공무원법이 제정되면서 경찰 및 소방직공무원을 포함한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분류하였는데, 당시 임용령에 의거 소방공무원 직급은 4급 갑류 소방감, 4급 을류 소방사, 5급 소방사보·소방원으로 3개 급류가 있었고 상위직급인 소방서장은 경찰직인 총경 또는 경감으로 보하였다.

1960년 6월 28일 소방감의 상위직급인 소방령이 추가되고, 1963년에는 5급이 갑류, 을류로 분리되면서 5급 갑류에 소방사보, 5급 을류에 소방원이 되어 5개 급류로 늘어났다. 한편, 1963년 5월 29일 국가공무원법 임용령을 개정하면서 소방직공무원은 경찰, 교정, 보도직과 함께 공인 직군 내에 소방직렬로 분류되었으며 이후 1969년 경찰공무원법이 제정되면서 경찰공무원법내의 소방직으로 이어졌다. 1969년 이전까지 임용권자를 살펴보면 소방서장은 내무부장관이 행하며, 소방감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하고 소방사 이하와 같이 서울특별시장과 각 시도지사가 임명하였다.

1969년 1월 7일 경찰공무원법의 제정으로 소방공무원의 계급구조와 임용 등을 경찰공무원과 같이 하였는데 계급은 7단계로 소방총경, 소방경정, 소방경감, 소방경위, 소방사, 소방장, 소방원이었으며 임용권자는 소방경정 이상은 내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소방경감 이하는 내무부장관이 행하되 소방사 이하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권한을 위임하였으나 이후 1972년에는 소방경감까지 권한을 위임하였다.

1973년 지방소방공무원을 별정직으로 특별히 규정하였으나 계급만 달리하고 종전 체계와 같았다. 이때 지방소방공무원 계급을 지방소방사감, 지방소방정감, 지방소방감, 지방소방령, 지방소방경, 지방소방위, 지방소방사, 지방소방원으로 하였으나 이후 국가소방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계급구조 불균형으로 국가소방공무원의 소방경정, 소방장에 해당하는 계급을 신설하였다. 그러나 1977년 12월 31일 소방공무원법을 제정하면서 단일 신분법으로 독립하면서 소방정감, 소방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등 9단계의 계급체계를 이루었다.

이후 1995년 12월 6일에 소방공무원 최고 계급인 소방총감이 신설되었으며, 신설 당시 1급 상당의 고위 공무원이었고 2005년 3월에 소방준감 계급이 신설되면서 차관급으로 격상되었다.

2019년 현재 소방공무원 계급체계는 다음과 같다.

국가공무원	소방총감										
		소방정감	소방감	소방준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지방공무원											
직급	차관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관리관	이사관	부이사관	서기관	사무관	주사	주사보	서기	서기보	

※ 출처 : 대한민국 정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전북소방안전본부 홈페이지

제2절 광역자치소방 체제 (1992.1.1.~2004.5.31.)

1. 소방환경

우리나라 소방제도는 정부수립 이후 국가소방체제로 운영되어 왔으나 1970년 8월 3일 법률 제2210호에 따라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서울특별시와 부산직할시는 자치소방체제로 전환되었고 그 외의 지역은 지방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까지 잠정적으로 소방사무를 국가에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소방과 자치소방으로 이원화된 채 운영되어왔다. 국가소방체제로 운영되고 있던 소방서는 국가의 특별 행정기관이면서도 지휘·감독은 소방서가 설치된 해당 기초자치단체장인 시장·군수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따라서 소방 재정과 인력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였고 조직의 이원화에 따른 지휘체계 확립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급속하게 진전되는 산업화와 도시화, 화재의 대형화, 소방수요의 광역화 등 소방여건의 변화를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감당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과 시대적 변화를 고려하여 1992년 1월 1일 소방행정체제를 광역소방체제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로써 통일된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소방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소방수혜 확대 등의 발전적인 소방행정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

광역 소방체제의 장점

- ▶ 대규모 재해재난에 시·도 단위별 광역적 차원의 대응
- ▶ 인력·장비의 광역적 채용·도입으로 경제적 이득 실현
- ▶ 도시·농어촌 지역의 재정능력 및 소방행정 서비스 평준화
- ▶ 예방·행정적 측면에서의 지자체 자율성 부여

또한 이 시기 원주소방서에서는 급속도로 발전하고 산업화되어 가는 원주시의 소방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펌프차, 구조공작차, 산악구조차, 굴절차, 배연조명차 등 각종 소방차량을 보강한다. 기초자치소방행정체제의 마지막해인 1991년에 원주소방서가 보유한 소방차량은 25대였으나 1995년에 43대, 2000년에 61대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①	②	③	④
---	---	---	---

- ① 중앙동의 모습(1990년대)
- ② 보강된 펌프차의 방수 모습(1994년)
- ③ 구조공작차(1994년)
- ④ 배연조명차(1996년)



광역소방체제하에서 우리나라에는 대형재난이 다수 발생하였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사망 32명),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사망 501명), 1999년 씨랜드 청소년 수련원 화재(사망 23명) 등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형사고가 우리 주변에서 발생함에 따라서 경제 발전에만 집중해오던 국가와 국민은 안전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소방의 역할 역시 주목을 받았다.



1994년 10월 21일 오전 7시 서울특별시 성수대교 상부트러스 48m가 붕괴되었다.
당시 우리나라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와 정부의 관리감독 미흡이 원인으로 밝혀진 이 사고로
출근과 등교중이던 시민 49명이 추락해 32명이 사망하였다.



1995년 6월 29일 오후 5시 52분경 서울특별시 서초동 소재 삼풍백화점이 붕괴되었다.
설계·시공·유지관리의 부실에 따른 예고된 참사로 여겨지며 1년 전의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함께 우리나라 사회의 압축성장의 그림자였다.
이 사고로 501명이 사망하고 6명 실종, 937명이 부상을 입었다.



1999년 6월 30일 새벽 0시 40분경 경기도 화성군 소재 청소년 수련시설인 '씨랜드'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건물은 콘크리트 1층 건물 위에 52개의 컨테이너를 얹어 2~3층 객실을 만든 임시건물로 인허가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음을 검찰이 밝혀낸 바 있다.
이 사고로 유치원생 19명과 강사 4명 등 23명이 사망하였다.

또한 2001년 서울 홍제동 빌라 화재 현장에서는 구조 활동중이던 소방관 6명이 순직함으로써 소방의 중요성이 재조명 받기 시작했고, 소방관도 사람이며 적절한 장비와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온 국민이 절감하였다. 이 사고를 계기로 고온의 화재현장에서도 신체가 보호되는 방화복이 지급되는 등 소방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잊지 말아야 할 그 날, 그 사건, 서울 홍제동

홍제동 주택 화재 사고는 2001년 3월 4일 3시 47분 방화로 인해 발생한 연립건물 화재·붕괴 사고로 소방관 6명이 순직하고 3명이 부상당한 사고이다. 불을 낸 범인은 구해 달라고 요청한 할머니의 아들이었고 사고현장에 있지도 않았다. 화재가 난 연립건물은 골목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도로에서의 불법주차·점용으로 인해 당시 소방차량이 진입하기 힘든 구조였다.

소방관들은 집주인의 아들이 화재 건물에서 탈출하지 못했다는 말을 듣고 화재현장에 진입하였으며, 4시 12분경 건물이 붕괴되어 매몰되었다. 그러나 건물주 등 8명은 화재 직후 모두 탈출한 상황이었다.

현장에 진입하였던 소방관 9명이 매몰, 6명이 순직하였고 3명이 부상당했다. 2001년 3월 6일 서울시장에서 영결식이 거행되었으며, 국립대전현충원에 순직자 전원 안장되었다. 현재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재 서울소방학교에 순직자들에 대한 충혼탑이 있고, 서부소방서에는 동판을 세웠다.

이후 2001년 3월 7일에는 부산광역시 연산동 빌딩화재로 소방관 1명이 순직 하면서의 무소방대의 설치 계기가 된다. 사고 당시 소방관들이 방화복이 아닌 방수복(일종의 비옷)을 지급받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 특수방화복이 지급되었다.

2012년 11월에 대전현충원에서 순직한 소방관들을 11월의 현충인물로 지정하였으며, 대한민국 소방행정을 비판하는 데 꾸준히 인용되고 있다.



붕괴된 잔해에 매몰된 구조대원을 구조하는 모습



순직한 6명의 구조대원을 기리는 동판(서울 서부소방서)

원주에서도 1992년 10월 5일 관내 역사상 최악의 참사가 발생한다. 한 종교단체 예배당에서 가정불화로 인해 발생한 방화로 인해 내부에 있던 신도 14명이 사망한 것이다. 이로 인해 원주시민들은 엄청난 충격에 빠졌고 소방행정과 소방력 보강도 탄력을 받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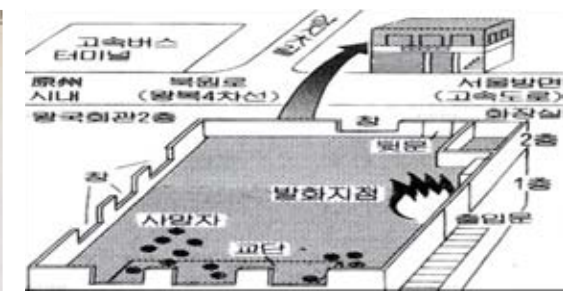
1992년에 발생한 원주 역사상 최악의 화재인 '여호와의 증인' 예배당 방화사건



화재진압 후 내부 조사중인 모습(1992년 10월 5일)



언론보도 사진(1992년, 중앙일보 외 다수)



화재현장 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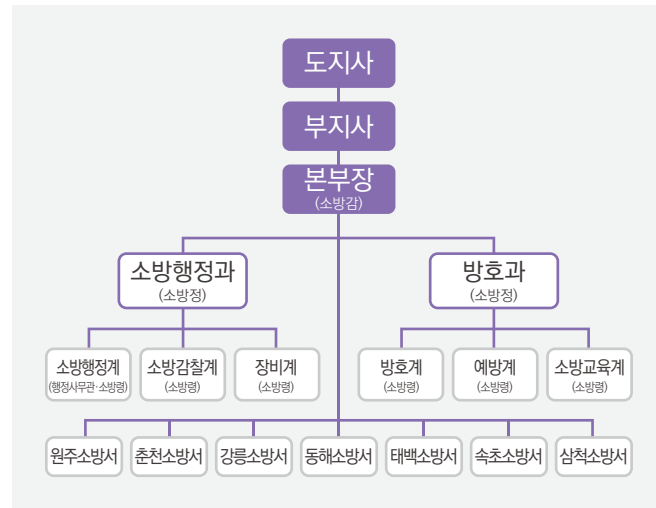


화재조사보고서(1992년)

2. 강원도 소방본부 신설

광역소방행정체제의 시행으로 소방사무의 주체가 시·군에서 시·도로 전환되어 특별시·직할시(광역시)와 균형을 이루게 되었고 소방관서 조직의 근거법령이 「지방자치법」으로 전환됨으로써 소방서의 성격 또한 국가기관에서 도지사 직속의 지방기관으로 변화하였다. 따라서 1992년 4월 1일 도청 민방위국 소방과를 폐지하고 소방본부를 신설하였다. 그러나 1997년 IMF의 경제 원조를 받을 만큼 국내 경제여건이 어려워졌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사회 전부문에 걸쳐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강원도 소방조직도 예외 없이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었다. 이에 따라 1998년 9월 9일 소방본부 구조구급과가 폐지되고 구조계와 구급계가 구조구급계로 통합되었으며 강원도 소방공무원 정원도 1,328명에서 1,207명으로 121명을 감축하는 어려움도 겪었다.

강원도 소방본부 발족 당시 조직도 및 언론보도 기사(1992년)



소방본부 9곳 추가발족
경기·강원 등 전국의 9개 도단 위 소방본부가 10일 일제히 발족돼 광역자치소방시대가 열렸다. 소방본부의 이런 추가발족은 지난해 12월 소방법 개정제 따른 것으로 이로써 전국 15개 시·도가 모두 소방본부를 갖추게 됐다.
소방본부 9곳 추가발족
(한겨레 14면 1992.4.11.)

강원도소방본부 발족 당시 소방관서별 정원(1992.6.30.)

[국가직 / 지방직]

구분	계	본부	원주	춘천	강릉	동해	태백	속초	삼척	군계
계	109/557	5/18	16/82	22/82	16/60	15/67	14/85	14/54	7/49	0/60
소방감	1/0	1/0
소방정	7/0	2/0	1/0	1/0	1/0	1/0	.	1/0	.	.
소방령	4/5	0/5	.	2/0	.	.	1/0	.	1/0	.
소방경	12/5	0/2	2/0	.	2/0	2/0	2/0	2/0	2/0	.
소방위	17/27	1/4	2/4	2/5	2/2	2/3	2/6	2/1	4/2	.
소방장	22/64	1/5	4/8	4/8	3/6	3/5	3/11	4/3	0/7	0/11
소방교	10/208	0/2	2/30	2/30	1/22	1/21	2/28	2/22	0/20	0/33
소방사	36/251	.	5/40	11/39	7/30	6/38	4/40	3/28	0/20	0/16

※ 출처 : 강원도소방본부 '강원소방 100년사'

3. 원주소방서의 발전

화재진압과 예방업무를 수행하던 소방행정은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구조·구급 등 소방업무의 확대와 농촌 등 소방수혜 사각지역에 대한 소방력 보강이 우선 과제였다. 이에 따라 군 지역에 대한 소방서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1992년 7월 1일 원주소방서 횡성파출소를 신설하였다. 또한 급속히 발달하는 산업화와 경제발전으로 인해 구축된 시스템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대형재난이 잇달아 발생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구조·구급업무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소방본부 차원의 전담부서 설치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에 따라 전국 소방본부에 구조구급과 설치를 추진하였고 도에서도 1994년 12월 31일에 소방본부내 구조구급과를 신설하고 행정인력도 증원하였다.

시대별 신분 변화

신분	적용 법률	기간
일반직 공무원	국가공무원법	1949. 08. 12. ~ 1969. 01. 06.
별정직 공무원	경찰공무원법(국가직)	1969. 01. 07. ~ 1978. 02. 28.
	지방공무원법(지방직)	1973. 02. 08. ~ 1978. 02. 28.
	소방공무원법	1978. 03. 01. ~ 1982. 12. 28.
특정직 공무원	소방공무원법	1983. 01. 01. ~ 현재

※ 출처 : 강원도소방본부 '강원소방 100년사'

이와 관련하여 원주소방서에서도 1994년 5월 25일 119구조대를 발대하였으며, 화재현장에서의 인명구조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수난사고 등 각종 사고현장에서의 대응능력을 향상시켰다. 1998년 11월 18일에는 관내 치악산 국립공원 등에서 급증하는 산악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산악구조대를 기존의 구조대 내에 추가로 발대하였고 전국 최초의 인명수색견 2두를 운용함으로써 전문성을 보유한 구조대로 발전하였다.



1990년대 구조대원들의 모습, 시민들의 삶의 모습이 바뀌면서 다양한 사고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다.

구조대원들은 각종 재난과 사고를 대비해 실전과 같은 훈련을 실시한다.

이후에도 소방관서 신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1998년 1월 17일에 태장파출소, 2000년 7월 15일에 둔내파출소를 신설하였고 또한, 현장부서의 원활한 임무수행을 지원하고 디지털 장비의 전문적 관리를 위해 2003년 1월 1일 소방서 소방행정과에 정보통신계를 신설하였으며, 나날히 증가하는 화재를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관련 법규 및 장비를 개발하기 위해 2003년 11월 17일 소방서 방호구조과에 화재조사계를 신설하였다.

또한 2003년 1월 28일에는 신림 농촌형 파출소를 시범 개소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소방서비스 수혜 불균형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다.



신림 농촌형 파출소 준공식(200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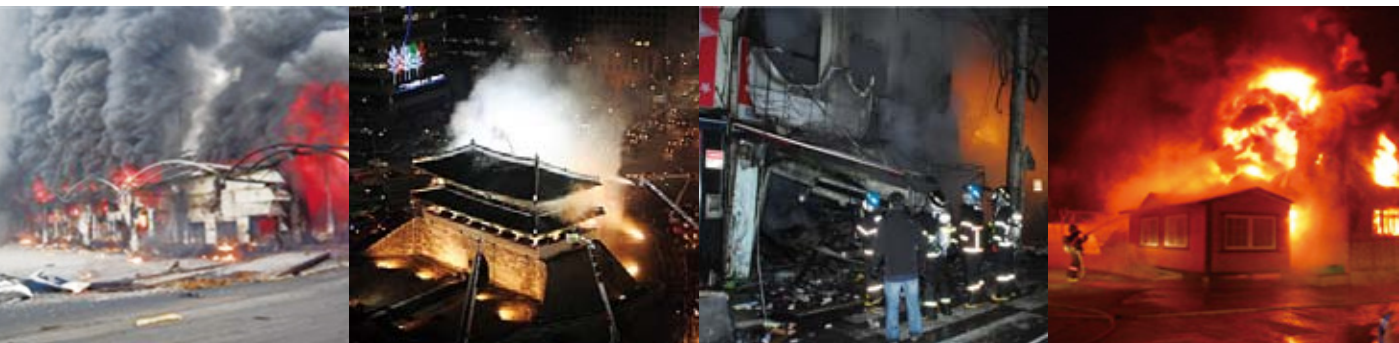
원주 화재조사사원들의 모습(2003년)

제3절 소방방재청 체제 (2004.6.1.~2014.11.18.)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재난은 갈수록 대형화되고 치명적이며, 예상조차 할 수 없다. 범지구적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자연적 재해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해졌고 또한,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한 이면에 안전에 대한 상대적 무관심으로 인해 경기도 이천 냉동창고 화재(사망 40명), 송례문 방화사건, 부산 실내사격장 화재(사망 10명) 등 대형재난이 연속되면서 사회적 위기가 고조되었다.



- ① 이천 냉동창고 화재(2008년)
- ② 국보 1호 송례문 방화(2008년)
- ③ 원주 중앙시장 화재(2008년)
- ④ 원주 우산동 장갑제조공장 화재(2011년)



긴급구조종합훈련(200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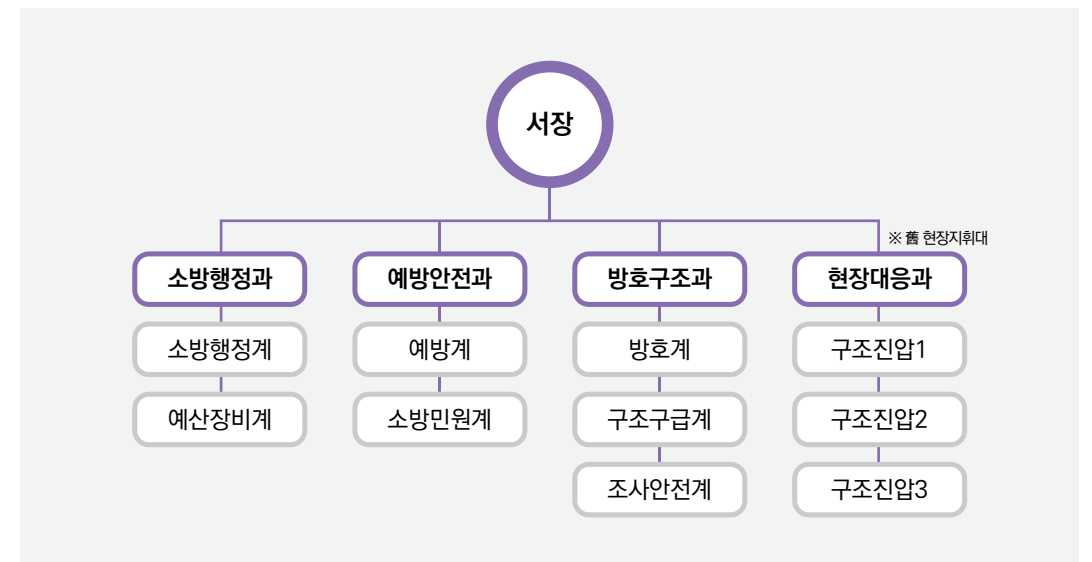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소방안전교육(2008년)



소방안전캠페인(2009년)

이와 같이 급변하는 재난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국가적 재난관리 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참여정부에서는 '재난 없는 안전한국 건설'을 국정 최우선과제로 설정하고 안정적인 국가 재난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2004년 6월 1일 정부수립 이후 최초로 종합적인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인 '소방방재청'을 발족하게 되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 12개 법률의 집행을 통해 국가 재난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능을 하게 되었다. 소방방재청 체제 이후에도 시·도 광역소방체제는 그대로 유지되었으므로 강원도 소방체제는 큰 변화를 겪지 않았으나 조직의 변화는 꾸준히 이루어졌다. 2005년 7월 29일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의 개정으로 예방계와 안전계를 관장하는 예방과가 신설되었다. 또한 2009년 6월 23일에는 재난 현장의 지휘·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방서의 행정업무와 현장대응 업무를 분리하였는데 1급서인 원주소방서는 2과 1대 8담당으로 직제를 개편하였다. 2011년 12월 23일에는 제3515호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시범적으로 운영되던 신림 농촌형파출소가 119안전센터로 승격되었다. 2012년 7월 13일에는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의 개정으로 소방서의 안전관리 개선과 현장지휘체계의 개선을 위하여 원주소방서의 직제를 2과 1대 8담당에서 4과 10담당으로 변경하였다.

원주소방서 조직도(2012년, 4과 10담당)



제4절 국민안전처 체제 (2014.11.19.~2017.7.25.)

국민안전처는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2014년 11월 19일 법률 제 12844호로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안전행정부의 안전관리본부와 해양수산부 소속 해양교통관제센터의 인력 및 업무를 이관 받아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흡수·통합하여 출범한 국무총리실 소속의 장관급 부처이다.

이 부처는 과거의 효율적이지 못했던 재난관리 시스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출범한 재난의 컨트롤 타워로서 주요 업무는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운영 및 총괄·조정, 비상대비와 민방위에 관한 업무, 소방 및 방재에 관한 업무, 해양에서의 경비·안전·오염방재 및 해상사건 수사 등이었다. 이 체제 하에서 우리 원주소방은 2015년 제3837호 「강원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으로 대국민 안전교육을 전담하는 인력을 배치하게 되었으며, 소방서 현장대응과에 통합되어 있던 119구조대를 구조업무를 전담하는 별도의 부서로 다시 개편하였다.



온 나라를 슬픔에 잠기게 했지만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더 안전한 나라, 더 나은 나라가 되기를 노력하고 있다.
세월호 침몰사고
(2014. 4. 16. 사망 299명, 실종 5명, 생존자 172명)



119구조대가 구조업무를 전담하는 별도의 부서로 분리가 된 것은 현장활동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적인 역량을 보유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제5절 소방청 체제 (2017.7.26.~현재)

국민안전처는 범정부 차원에서 대처해야 할 사회·자연재난 발생 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는 취지로 출범하였지만 부처 신설 이후 그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를 두고 평가가 엇갈렸다. 이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가 소방청으로 독립 출범하게 되었으며 기존의 국민안전처는 행정자치부와 더불어 행정안전부로 통합되었다. 2017년 9월 27일 소방청 개청식에서 초대 청장인 조종묵 청장은 '재난으로 인해 눈물 흘리지 않는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안전에 관한 희망을 주는 소방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선포했다.



소방청은 오랜 기간 소방관들의 소망이자 희망이었다.
소방청 비전 선포식(2017. 7. 26.)



소방청장 주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관련 전국 지휘관 영상회의(2018년)

강원도 소방본부는 소방청 개청에 발맞추어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현장소방인력 충원과 효율적인 소방력 배치를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 이에 원주소방서에서는 현장활동 및 응급처치의 적절성 제고를 위해 그동안 개선과제 1순위로 꼽혀왔던 2인 구급대를 3인 구급대로 일부 전환하였으며, 안전센터에 화재진압대원을 추가 배치하였고, 현장 활동간 대원들의 안전상황을 점검하고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전담인력을 배치하였다.

※ 원주소방서의 정원 현황을 되짚어 보면, 1970년 개서당시 14명에 불과했던 소방공무원이 광역소방행정 시행 전인 1990년에 80명으로 증가되었고, 이후 1996년 광역소방행정체제하에서 지속적인 조직성과 인력증원이 이루어져 정원이 189명으로 급격히 성장하였다. 2019년 11월 21일 기준 원주소방서 정원은 306명, 강원도 소방공무원 정원은 3,690명에 이르게 되는 등 그동안 괄목할 만한 소방조직 성장과 획기적인 소방인력 증원을 가져왔다. 한편,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현장소방인력 충원이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되면서 원주소방 400명 시대, 강원소방 5,000명 시대를 열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

2019년 영동지역 산불은 역대 최악의 수준이었지만 컨트롤 타워인 소방청이 제 역할을 함으로서 성공적인 소방활동이 이루어졌다고 평가받고 있다. (2019년, 1,757ha 소실, 재산피해 약 600억)



여기서 잠깐!

알아두면 좋은 소방 역사

소방공무원의 신분변동 과정

가. 조선시대 이전

삼국시대부터 화재가 국가적 재난으로 인식되었으나 소방이 전문적인 행정분야로 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시대 에 이르기까지 금화관서나 금화조직은 없었다.

조선시대에 이르러 세종8년(1426년) 2월 26일 병조에 속하는 우리 나라 최초의 소방기관인 금화도감¹⁾이 설치, 한성부 내의 금화를 담당하였으나 이는 특별대책기구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다른직을 겸하고 있는 자들로 구성되어 실제적인 방화대책을 강구하지 못하였다. 이 후 세종13년(1431년) 수성금화도감에 전임관원이 배치되고 금화군이 조직되어 방 화·소화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는데 이때 소화체제는 전 관원, 백성, 노비들로 이루어진 전방민 동원체제로서 소화의 전 문집단이 아니었기 때문에 소화작업 현장에서 취약점이 발생함에 따라 세조 13년(1467년) 수성금화사에 50인으로 구성된 상비소방수인 멸화군을 설치 이 같은 취약점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이 시기의 소방은 병조와 공조에 속하는 등 주로 군지휘체계에 속하였다

한말 광무 9년 3월에 궁내부관제 개정시 황궁경위국장에 궁전 이궁의 수문, 소화, 경찰을 관장하도록 하고 종전의 23 부 관찰사의 경찰책임자급으로 경무관 7인을 두었는데 1인은 소방장이 겸하도록 하였다. 그 후 1908년 왕궁내의 경 호임무를 담당하던 호위대(扈衛隊)에서 60명을 선발하여 소방졸(消防卒)을 두어 소방대를 편성하였으나 이는 궁궐화 재진압을 위한 한정적인 기능과 설치목적에 지닌 조직으로 경찰에서 관장하였다.

나. 일제 강점기

조선말기 조선거류 일본인들이 많아지면서 자신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조를 설치하여 활동하기 시 작하였는데 1889년 2월 최초로 경성내에 일본인 소방조가 설치되었다. 이를 본받아 한국인만으로 또는 한일인 공동 으로 소방조를 만들어 활동하였는데 당시 소방조는 화재시 소집에 의하여 활동하는 민간인의단체였다.

1910년대 서울의 주요 시가지 경찰관서에 경기도 경무부 상비소방수를 배치하기 시작하였는데 경성총감부고시 제 41호에 의하여 1911년 5월 15일부터 서울 동헌경찰분서 구내의 상비소방수를 시초로 1992년 5월 21일 경무총감부 훈령 제108호로 남대문, 동헌, 동대문, 창덕궁, 덕수궁 등 5개소를 상비소방수 결소로 정하여 운영하였다.

각 경찰관서의 상비소방수와는 별도로 민간자치 소방조직인 소방조에서도 상비소방대를 설치하기 시작하였는데 1912년 6월 28일 경무총감부령 제7호로 경성소방조에 상비소방대를 두도록 제정하여 일반소방수와 달리 월봉, 출장 수당, 비변군무수당, 당직회로, 퇴직금 등의 급여가 특별히 지급되었는데 이를 구분하기 위하여 소방조 상비소방수를 소방조상비소방수라 부르고 도 경무부소속 상비소방수를 도 소방수로 칭하기도 하였다. 이 후 1915년 6월 23일 조선 총독부령 제65호로 소방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소방조규칙”을 제정, 공포하여 소방조에 따라 지역별로 상비소방 수를 둘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다. 이 후 몇 번의 개정을 거치는 동안 부 이외에 읍, 면에도 소방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소방조는 조두 1인, 소두 및 소방수 약간 인으로 조직하고 필요에 따라 부조두 1인을 두게 하였고(동규칙 제 2조), 조두, 부조두 및 소두는 경찰서장(후에 소방서가 설치된 지역은 소방서장)의 추천에 의하여 경무부장²⁾이, 소방수 는 경찰서장(소방서장)이 임명하였다(동규칙 제3조). 그러나 경무부 상비소방조에 근무하는 이외에 상비소방수는 소 방조 상비소방수의 신분으로 고용인 정도에 불과하였다가 1992년 3월 31일 조선총독부 지방관재개정으로 판임관 대수도소방수제 실시(동년 4월 1일부)로 경기도에 판임관 대수 소방수를 둘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소방조 상비소방수중

일부는 도소방수로 바뀌면서 그 신분이 순사와 같아졌다.

판임관 대수 도소방수 제도를 실시한 직후 도소방수들의 근무체제를 갖추기 위해 동년 5월 23일 경기도훈령 제15호 경기도 소방규칙으로 경성소방조상비대를 경성소방소로 개편하였다. 이것이 경성소방서의 전신이며 종전의 자치조직인 소방조 상비 소방대와는 성격이 다른 관설 소방조직이었다.

1925년 4월 1일 조선총독부 지방관제 개정시 경기부에 소방서를 설치하도록 하는 소방관서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에 관한 총독부령이 공포되어 경성소방서가 개서되고 소방소 또는 소방hil소를 설치운영 하던 중 소방수 직급을 분화하여 상위직급을 설치할 필요성이 생겨 소방수 부정제를 자체적으로 정하여 실시하여 오다가 경성소방서 개서와 함께 조선총독부령 제23호로 “경기도소방수부장에관한건”을 제정하여 소방수부장제의 근거를 두었으며, 후에 소방서를 설치한 경남·평남·함북 등에서도 이를 준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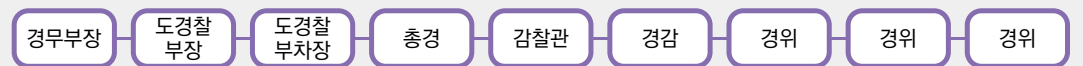
소방수부장은 소방수의 위의 직급으로 소방사무에 관하여 경부 및 경부보의 직무를 보조하며 소방수부장의 자격은 ① 판임관 또는 그의 자격을 가진 자, ② 도 소방수로서 1년 이상 재직하고 소방사무에 숙달하고 사무정적이 우수한 자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하였으며 정원을 소방수 5~10명을 표준으로 하여 도지사가 정하도록 하였는데, 이들 소방수, 소방수부장은 현재 의 소방사, 소방장에 해당하는 하는 것으로 이들의 직급은 현재의 8~9급 공무원이라 볼 수 있으며 그 위의 감독자로서 현재 의 소방위, 소방경에 해당하는 경무관 신분의 경부보, 경부가 있었다.

다. 미군정 시기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으로 2차세계대전 종식과 아울러 우리 나라는 해방이 되었지만 즉각적인 주권의 회복을 가져온 것은 아니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수립될 때까지 3년간 우리 나라는 정부수립의 과도기적 기간으로 군정에 처해 있었다. 미군정청이 조선총독부를 인수할 당시 소방행정은 경무국 통신과에 속하여 있었다. 조선총독부를 인수한 미군정청은 대대적인 기구개편을 단행하였는데 1945년 10월 26일 경무국을 창설, 지방에는 도지사 밑에 경무부를 두어 소방과를 설치하 고 동년 11월 소방부로 개편하였다. 1946년 4월 10일 군정법 제66호로 “소방부및소방위원회설치에관한건”을 공포하여 소 방부 및 소방위원회를 설치하고 소방행정을 경찰에서 분리, 소방부의 운영 및 관리를 각 시·읍·면의 직접 감독·운영관리하에 독립된 소방부를 창설하여 자치화 하였다. 중앙소방위원회는 상무부 토목국에 설치하고, 각 도에는 도 소방위원회를 설치하여 이들로 하여금 소방예산을 편성하고 소방·방화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반 장비의 규격화, 시·읍·면 소방부의 조직적 계획, 소방에 대한 급수 및 용수배급·화재경보 및 전달제도 등을 연구 준비하게 하였다. 이 때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미 군정 실시 직후에는 일제시대의 답습하다가 1945년 12월 10일 “경찰관명과사무분장” 제정으로 국립경찰제가 탄생하면서 아 래와 같은 계급구조가 되었다.



이어 1946년 1월 16일 군정령 제23104호로 “경무국경무부에관한건”을 공포하여 조직, 직능, 정원, 관명 등을 확정지었는데 이로 인하여 아래와 같은 계급구조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소방서에 근무하던 소방서장 이하의 간부도 새로운 관명을 사용하게 되어 소방서장은 감찰관 또는 경감으로 칭하였 고 하위 직원은 소방수부장과 소방수를 그대로 두어 1948년 11월 17일 대통령령 제30호로 “인사사무처리규정”이 제정될 때 까지 계속되었다.

라. 국가공무원 시기

1949. 8월 12일 법률 제44호로 “국가공무원법” 제정으로 시행된 국가공무원제도는

① 계급제를 바탕으로 하고 ② 임용방법에 있어 고시와 전형을 양대 주축으로 하며 ③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고시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 때 소방공무원은 일반직 국가공무원 신분이 되었는데, 동법 제3조에서는 별정직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별정직을 제외한 경찰 및 소방직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분류하였다.

- ① 선거에 의하거나 임명에 관하여 국회의 승인을 요하는 공무원
- ② 국무위원, 각처장, 각부차관
- ③ 대사, 공사
- ④ 법관, 교원, 비서, 군인, 군속, 기타법률로서 별정직으로 지정된 공무원
- ⑤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1949년 11월 5일 대통령령 제208호로 제정된 공무원임용령에서는 공무원의 계급별 직종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1949. 11. 5 시행)

1급 공무원	2급 공무원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5급 공무원
		갑류	을류	갑류	을류	
		총영사 대사관 1등서기관 공사관 1등서기관 검사 법제관 경제기획관 편수관 감찰관 의무관 서기관 기정 장학관 감사관 정보관 사서관 약제관 대사관상무서기관 공사관상무서기관 군수 대사관 3등서기관 공사관 3등서기관 사무관 기좌 부편수관 총경 체육관 부검사관 감시관 감정관 부영사 검사보 외교관보 영사관보 수습검찰관	검사 영사 의무관 법무관 장학관 감사관 통계관 정보관 사서관 약제관 대사관상무서기관 공사관상무서기관 군수 대사관 3등서기관 공사관 3등서기관 사무관 기좌 부편수관 총경 체육관 부검사관 감시관 감정관 부영사 검사보 외교관보 영사관보 수습검찰관		주사 기사 장학사 사서 통역사 감시 감정사 경위 소방사 통역사 감시 감정사 간호부장 간호부 보건부	경사 소방사보 서기 기원 감사 산림주사보 순경 소방원 간호부 보건부 보모

5. 16혁명직후인 1961년 9월 18일 법률 제721호로 국가공무원법 개정하여 공무원제도의 보완이 이루어 졌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무원의 등급은 1급에서 5급으로 하고 3급내지 4급에서만 갑, 을류로 분류하던 것을 2급에서 5급까지 갑, 을로 구분하였다.

② 봉급이라는 명칭을 보수로 바꾸었으며, ③ 징계의 종류를 종전의 면직, 정직, 감봉, 견책의 4종에서 감봉 다음에 중 근신, 경근신을 추가하여 6종으로 하였고, 징계절차도 개선하였다. ④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1963년 5월 29일에

는 각령 제1317호로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여 직위분류표를 작성함으로써 직위분류제 시행의 기초를 다졌다.

1963년 4월 17일 법률 제1325호로 국가공무원제도의 확립을 위한 인사제도의 개혁을 위하여 새로운 국가공무원법을 제정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공무원제도는 변혁을 가져왔다.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직위분류제의 채택
- ② 공개경쟁시험에 의한 임용의 원칙
- ③ 결원보충은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 또는 전보의 방법에 의하도록 하여 인사제도의 합리화를 기하였으며,
- ④ 교육훈련을 강화하고(1973. 3. 5. 공무원교육훈련법 제정)
- ⑤ 능률제도를 도입(제안제도 및 상훈제도 실시)
- ⑥ 정년제를 시행하였다.

- 공안직 : 5급 - 50세, 4급 - 55세, 3급 - 61세
- 기능직 : 40 - 61세
- 일반직 : 4·5급 - 55세, 3급이상 - 61세

⑦ 당초 파면, 정직, 감봉, 근신, 견책의 5종인 징계의 종류를 1965년 10월 20일 법개정으로 정직과 근신을 삭제하여 3종으로 조정하였다.

마. 소방공무원 신분제도의 확립

1969년 1월 7일 법률 제2077호로 경찰공무원법의 제정으로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일반직공무원에서 분리되어 별정직인 경찰공무원의 소방직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맞추어 1970년 12월 31일 법률 제2249호로 소방법을 개정하여 소방업무가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이양됨에(서울특별시, 부산직할시 1971. 1. 1 시행) 따라 지방자치사무로 이관된 소방사무를 수행할 지방소방공무원의 임용·계급·보수·교육훈련·복무·신분보장과 상훈·징계등 신분사항을 규정한 “지방소방공무원법”을 1973. 2월 8일 법률 제2502호로 제정하면서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국가직인 경찰공무원 소방직과 지방직인 지방소방공무원의 신분으로 이원화되었다.

그 후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이질적인 직무와 민방위체제의 전개로 지휘·감독체계가 서로 달라짐에 따라 국가소방공무원과 지방소방공무원을 통합규율하고, 소방관임용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1977년 12월 31일 법률 제3042호로 “소방공무원법”을 제정하여 독자적인 소방공무원으로 신분이 단일화되긴 하였으나 임용권자에 따라 국가직과 지방직 소방공무원으로 신분의 이원화는 계속되었다. 1981년 4월 31일 법률 제3595호로 소방공무원법을 개정하여 별정직으로 분류하던 소방공무원을 특정직공무원으로 분류하였고, 1982년 12월 31일 법률 제3593호로 소방공무원법을 2차 개정하면서 소방공무원법중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과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하여 특별히 소방공무원에게만 적용할 특례규정만을 정하고 소방공무원의 임용·복무·신분보장등에관한 특례규정에 있어서도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과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다.

1991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이원화되어 있는 소방사무를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시·도의 사무로 일원화하고 내부부장관의 권한으로 되어있던 사항을 대폭 시·도지사에게 이관하는 소방법의 개정에 따라 1991년 12월 14일 법률 제4420호로 소방공무원법을 개정하여 지방소방공무원의 임용권자를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장, 직할시장, 시장·군수)에서 시·도지사로 변경하고 다음해인 1992년 4월 8일 9개도에 소방본부를 발족하여 전국이 시·도광역소방체제로 전환되면서 시·군 소속 지방소방공무원의 신분이 시·도소속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점차적으로 바뀌어 1995년 4월 이후, 지방자치단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은 16개 시·도본부장과 5개 지방소방학교장을 제외하고 모두 지방소방공무원화되었다.

상기와 같이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여러 차례 변화가 있었는데 이를 요약하면, 일반직 공무원시기, 경찰공무원 시기, 지방공무원법의 제정과 신분이원화 시기, 소방공무원법의 제정이후의 4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일반직공무원	별정직 공무원			특정직 공무원
국가공무원법	국가직-경찰 공무원법	지방직-지방소방 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1949.8.12 ~1969.1.6	1969.1.7 ~1978.2.28	1973.2.8 ~1978.2.28	1978.3.1 ~1982.12.28	1983.1.1 ~현재

※ 출처 : 소방방재청 「한국소방행정사」 2009년

쉬어가기



원주소방 SYMBOL



강원소방 마크



센곰이



젠곰이

원주소방 SYMBOL

원주소방의 SYMBOL은 2019년 3월 1일에 '심벌제작을 위한 TF'에 의해 디자인되어 전 직원들의 투표로 선정되었다. 소속감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만들어진 이 SYMBOL은 다방면에서 원주소방을 상징하는 마크로 사용되고 있다.

원주소방 SYMBOL

의미

중앙의 119마크 : 소방관을 상징.

4장의 붉은색 꽃잎 : 원주시의 상징화인 장미꽃을 나타냄.

꽃잎이 4장인 이유 : 동서남북 4방향, 사동팔달의 교통요충지인 원주시를 상징

위쪽 꽃잎 : 구급대원을 나타냄

왼쪽 꽃잎 : 진압대원을 나타냄

오른쪽 꽃잎 : 구조대원을 나타냄

중앙의 심전도 : 원주라는 문구를 넣어 원주소방서의 심벌임을 표현

아래쪽 꽃잎 : 원주소방서의 연혁을 넣어 소방서의 역사를 나타냄

소방호스 : 원주시를 상징하는 장미꽃을 감싸고 있는 소방호스는 재난의 위험으로부터 원주시를 보호함을 나타냄

색상의미

붉은색 : 원주시를 상징하는 장미꽃, 소방서 직원들의 열정.

검은 호스 :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사용된 호스의 모습

호스 안쪽 흰색 :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되고 있는 시민들을 상징

강원소방 캐릭터

강원소방의 캐릭터는 강원도의 상징인 반달곰을 소방관으로 의인화하여 현장에 신속하게 달려가 소방활동을 한다는 의미의 캐릭터이다. '젠곰이, 젠곰이'는 인형탈로도 만들어져 어린이들에게 인기있는 캐릭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강원소방 로고

강원도의 상징 캐릭터인 반달곰을 바탕으로 'Gangwon'의 이니셜 'G'와 소방의 대표 브랜드 '119'를 결합하여 강원도(G)를 119가 구(구)한다는 뜻으로 강원도의 안전을 책임지는 믿음직스러운 강원소방의 굳건한 의지와 역할을 표현했다.

센곰이

강원도의 마스코트인 반달곰(달곰이)을 진압대원화 하여 친근 하면서도 용감하고 귀엽고 부드러우면서도 굳센 소방공무원을 표현

젠곰이

강원도의 마스코트에 구조대원 복장과 자일과 로프, 구급함을 합성시켜 표현함으로써 날쌔고 믿음직한 구조 구급대원을 표현

제3장 원주소방의 환경과 여건

제1절 원주시 자연환경과 인문환경

1. 자연환경

1) 개요

원주시는 한반도의 중심부이자, 강원도의 남서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반도의 백두대간에 남북으로 길게 뻗은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서남쪽에 자리잡고 있다. 원주시를 둘러싼 지역으로는 동쪽의 영월·평창군, 서쪽의 경기도 여주시·양평군, 북쪽의 횡성군, 남쪽은 충청북도 충주·제천시 등이 있다. 특히, 원주시는 남한강과 섬강을 경계로 경기도 여주시, 남한강과 운계천을



우리나라 지리적 중심에 위치한 원주시

경계로 충청북도 충주시 등 2개의 다른 도와 접하고 있는 위치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면적은 867.3km²로 국토의 0.9%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 163개 시군중 32번째로 넓다. (출처 : 국가지표체계 홈페이지 '국토현황(행정구역별)' 영동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제2영동고속도로와 국도(5·19·42번), 지방도(396·401·402·404·599번), 군도(13개 노선)가 시를 중심으로 동서 또는 남북으로 통하며, 철도는 영동지역의 풍부한 지하자원을 수송한다. 수도권과 연결되는 중앙선은 시가지를 가로 지르고, 시내에는 원주·반곡·동화·만종·치악·신림역 등 6개 역이 있어 영서내륙 교통 중심도시로 교육, 문화 및 성장 거점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남동부는 태백산맥에서 갈라진 차령산맥이 남서를 향해 치닫고, 치악산의 남대봉(1,182m)·비로봉(1,288m)·삼봉·향로봉(1,043m) 등이 높고 험준한 산지를 이룬다. 반면에 북서부는 비교적 완경사를 이루며 덕고산(528m)·관포산(362m) 등이 남서로 내달아 원주분지와 산록완사면, 낮은 구릉지대를 펼쳐 놓는 동고서저의 지형을 이루고 있다. 또한, 섬강·원주천 등이 남서쪽으로 흐르면서 간현·문막 일대의 넓고 기름진 충적평야를 형성한 뒤 흥호리 부근에서 남한강으로 흘러든다.

※ 출처 : 두산백과



치악산 비로봉



1930년대



1974년



1986년



1952년



1960년대



1999년



2006년

원주시 전경



2) 기후

연평균 기온은 12.3℃, 가장 더운 달인 8월 월평균기온은 26.1℃, 가장 추운 달인 1월의 월평균기온은 -3.7℃이며, 연교차는 29.7℃이다. 연강수량은 1276.2mm이고 여름철(6~8월) 강수량은 982.8mm이다. 연평균 풍속은 1.3m/s이며, 월별 평균풍속은 4월에 1.7m/s로 가장 높고, 10월에 1.0m/s로 가장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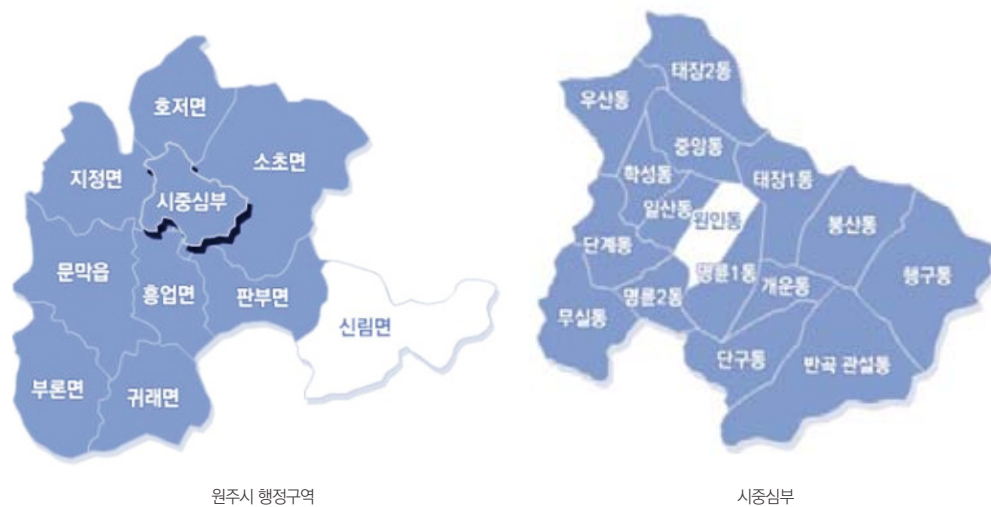


요소	최고기온	최저기온	최고강수량	최대풍속
극값	38.8℃	-27.6℃	308.3mm	13.3m/s
날짜	2018. 8. 15	1981. 1. 5	1972. 8. 19	1995. 5. 5

2. 인문환경

1) 행정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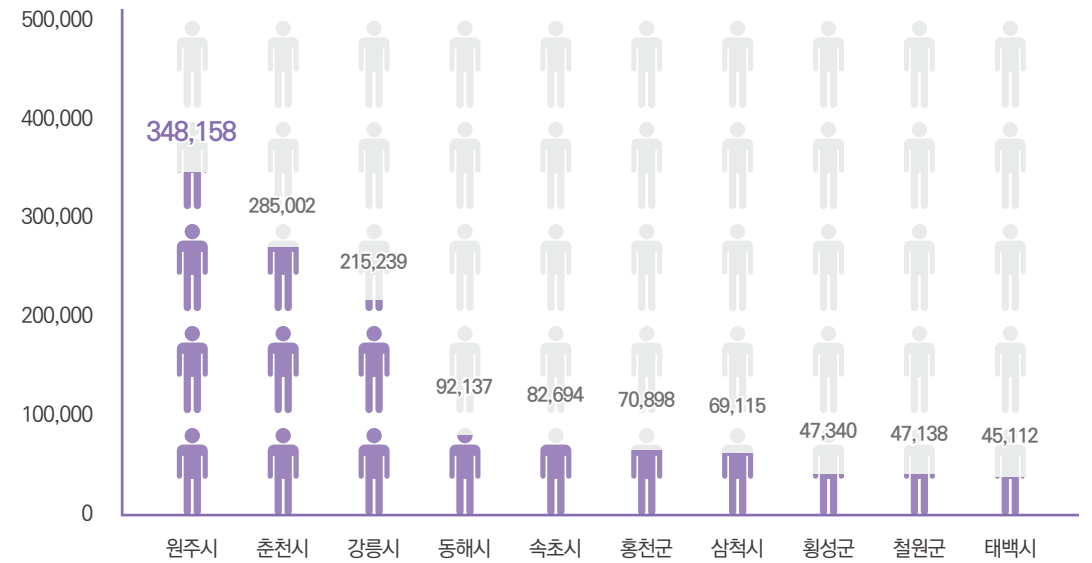
원주시의 행정구역은 25개로 시중심부의 16개 동과, 외곽의 9개 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가장 큰 지역은 127km²의 신림면으로 시 전체면적의 약 14%를 차지하며, 가장 작은 지역은 0.48km²의 원인동으로 전체면적의 약 0.05%를 차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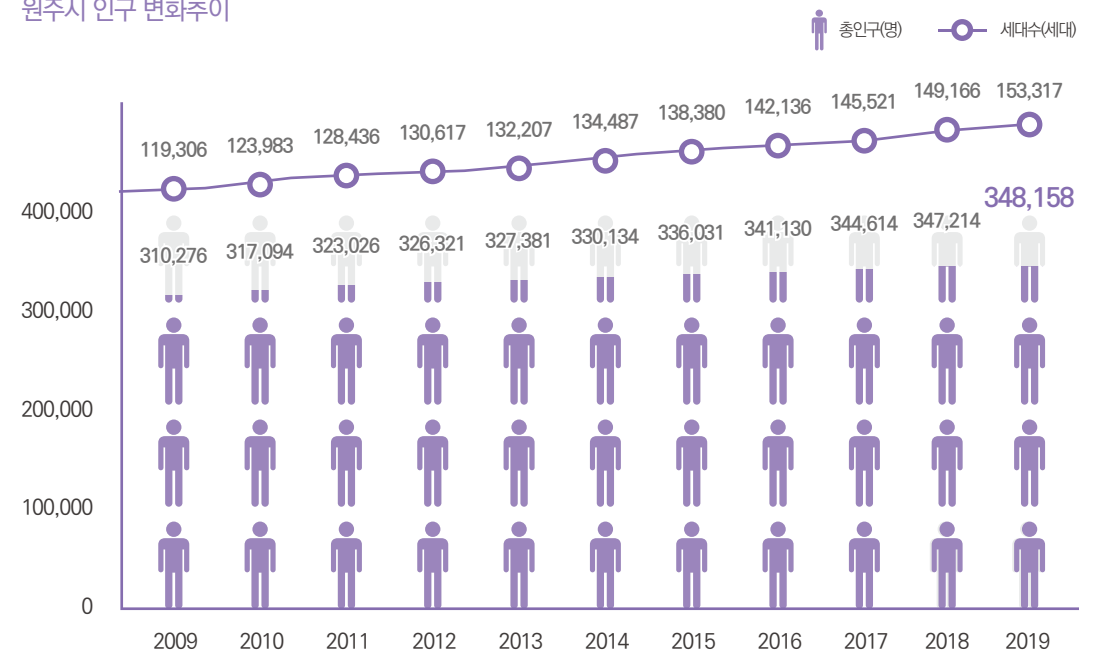
2) 인구변화

원주시는 강원도에서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강원도 최대의 도시로 2019년 10월 현재 총 348,158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세대수는 153,317호이다. 반곡동 일대의 혁신도시와 지정면 일대의 기업도시 개발로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있으며, 수도권으로의 광역교통망 확충 등으로 인구 100만 광역도시를 준비하고 있다.

강원도내 인구 상위 10개 행정구역 현황



원주시 인구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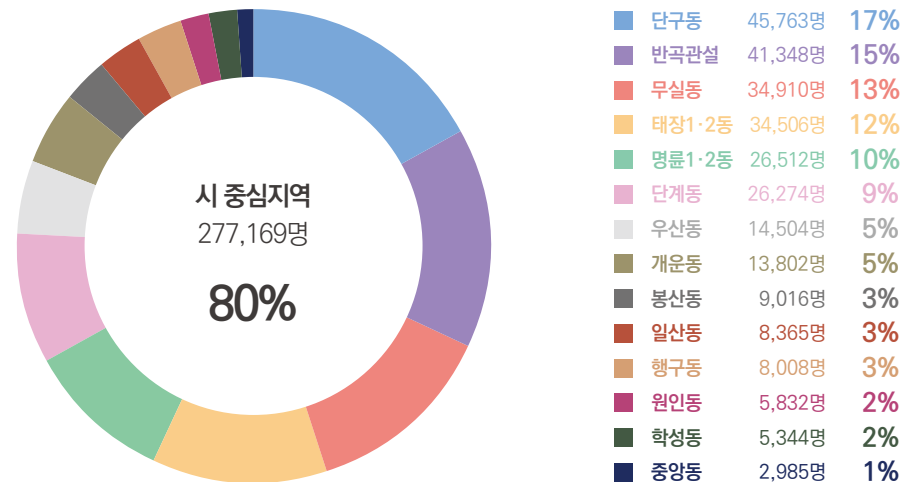
※ 출처: 국가통계포털

3) 행정구역별 인구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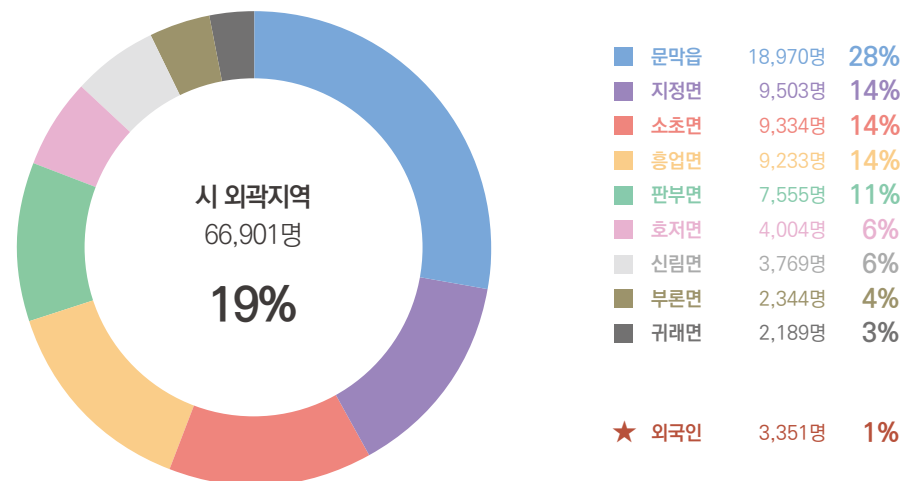
원주시의 인구(2018년 기준)는 총 347,421명으로 16개의 동이 시 중심지역에 277,169명(80%), 9개의 면이 있는 시 외곽지역의 66,901명(19%), 그리고 외국인 3,351명(1%)으로 분포되어 있다. 시 중심지역 내에서는 단구동이 17%(45,763명)로 인구가 가장 많았고, 반곡관설동이 혁신도시 개발과 함께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입, 증가하여 15%(41,348명)를 나타냈다. 반면, 옛 시가지인 중앙동은 1%(2,985명)으로 원주시에서 인구가 가장 적었다.

외곽지역의 인구는 원주시의 19%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문막읍이 28%(18,970명)로 외곽 지역에서 단연 인구가 많았고, 기업도시 개발로 급속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지정면이 14%(9,503명)로 문막 뒤를 이었다.

시 중심부 인구분포(2018년 기준)



시 외곽지역 인구분포(2018년 기준)



3. 소방활동에 미치는 영향

자연환경적 측면에서의 원주는 강원도에 속한 도시답게 태백산맥이 시내의 동쪽편에서 남쪽으로 지나고 있으며, 곳곳에 산악지형이 발달해 있어 많은 등산객이 방문함으로 인해 산악사고 출동이 잦은 곳이다. 또한 국가 하천인 섬강이 시내 외곽으로 흐르고 있는데 이곳에서 야영 및 레저를 즐기는 이들로 인해 수난사고 역시 끊이지 않고 있다. 인문환경적 측면에서의 원주는 도농 복합도시로 시내 외곽 지역에서의 활발한 농업으로 인한 농기계 사고(원주시 농기계 보유수 : 13,360여대), 문막 등 10개의 산업·농공단지에서의 생산업으로 인한 기계사고, 신도시 조성으로 인한 건설 현장에서의 각종 안전사고 등 매우 다양한 곳에서 예측 불가능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화재 역시 인구가 밀집해 있는 시내 중심부에서 비교적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또한, 영서 내륙의 교통 중심지답게 영동·광주원주·중앙 등 3개의 고속도로와 2개의 국도를 비롯해 12개의 지방도가 있어 강원도에서 가장 교통이 편리하지만 그만큼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아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 수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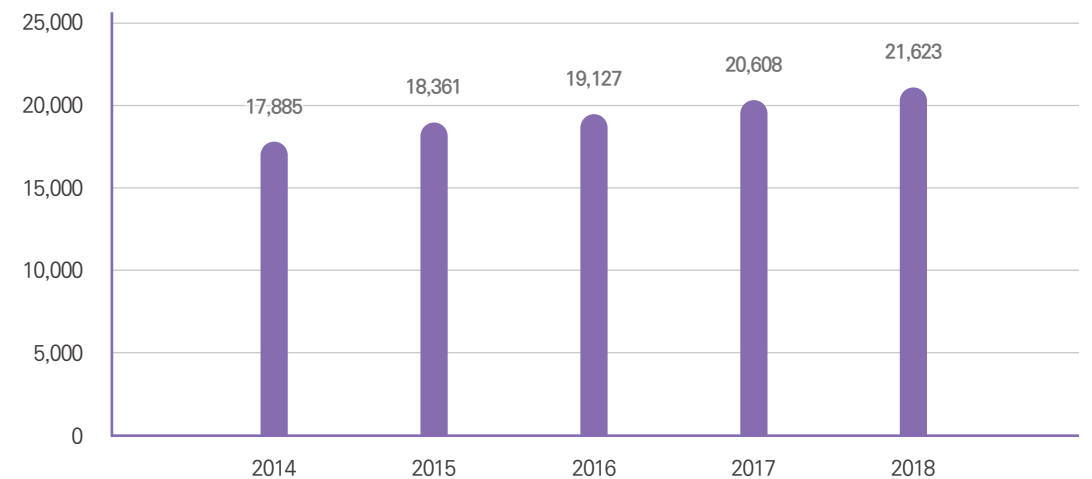
제2절 원주지역 사고발생 현황 분석

1. 119출동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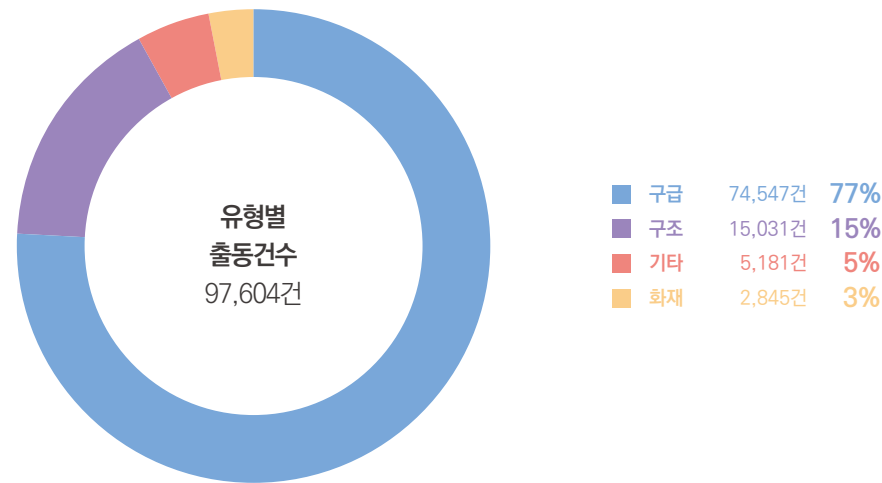
원주시는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119출동이 가장 많은 도시로 원주소방서의 출동건수는 최근 5년간 97,604건으로 연 평균 19,520회 출동하였고, 출동건수는 연 평균 1,184회씩 증가하였다.

유형별 출동건수를 보면 구급출동이 76%로 가장 많았으며, 구조출동(16%), 기타출동(5%), 화재출동(3%)순으로 나타났다.

원주시 119출동건수(2014~2018)



유형별 출동건수(2014~2018)



1) 행정구역별 출동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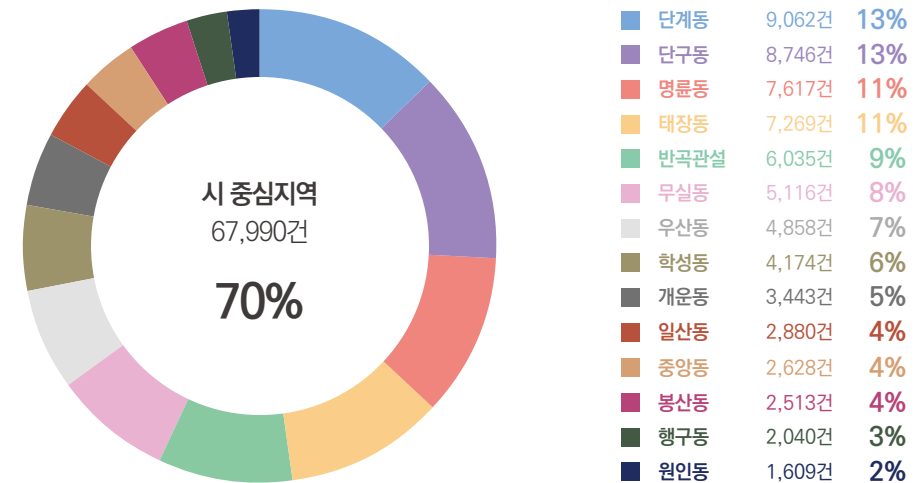
최근 5년간의 출동건수 현황을 보면 원주소방서는 총 97,604건 출동하였다. 이 중 시 중심지역이 67,990회로 전체 건수의 70%를, 시 외곽지역이 29,614회로 30%를 나타냈다. 시 중심지역 출동건수에서 단계동·단구동이 각각 13%, 명륜동이 11%, 태장동이 11%를 나타냈고, 이 4개 동의 출동건수는 시 중심지역 출동건수의 50%로 전체 출동건수의 주를 이루었다. 이 밖에 반곡관설동이 9%, 무실동이 8%, 우산동이 7%, 학성동이 6%, 개운동이 5%, 일산동·중앙동·봉산동이 각각 4%, 행구동이 3%, 원인동이 2%를 나타냈다.

시 외곽지역 중에서는 문막읍이 외곽지역 전체 출동건수의 23%로 출동건수가 눈에 띄게 많았고, 소초면이 14%, 흥업면이 13%, 신림면이 11%, 지정면이 10%, 판부면이 9%, 호저면이 8%, 귀래면·부론면이 각각 6%를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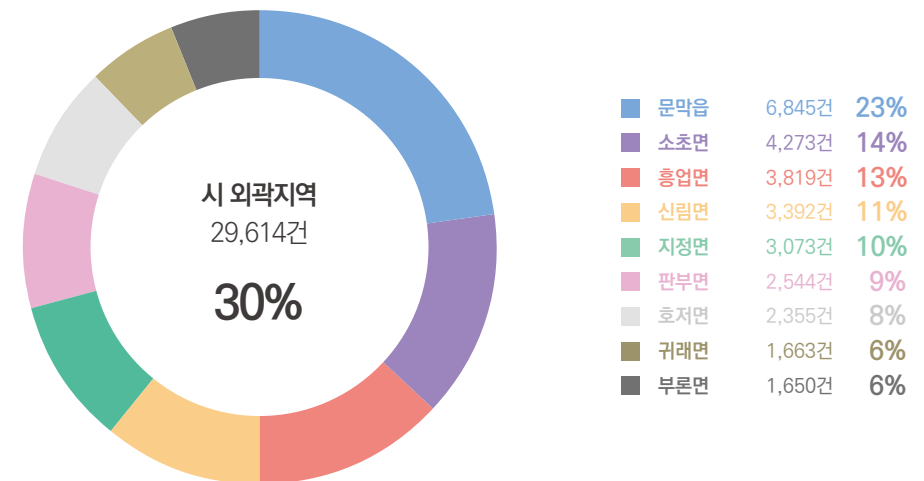
원주소방서 출동의 가장 큰 특징은 시 중심지역 내에서의 지역별 출동건수 편차는 크지 않은 반면, 외곽지역 내에서의 지역별 출동건수 편차가 심하다는 것이다.



시 중심지역 출동건수 현황(2014~2018)



시 외곽지역 출동건수 현황(2014~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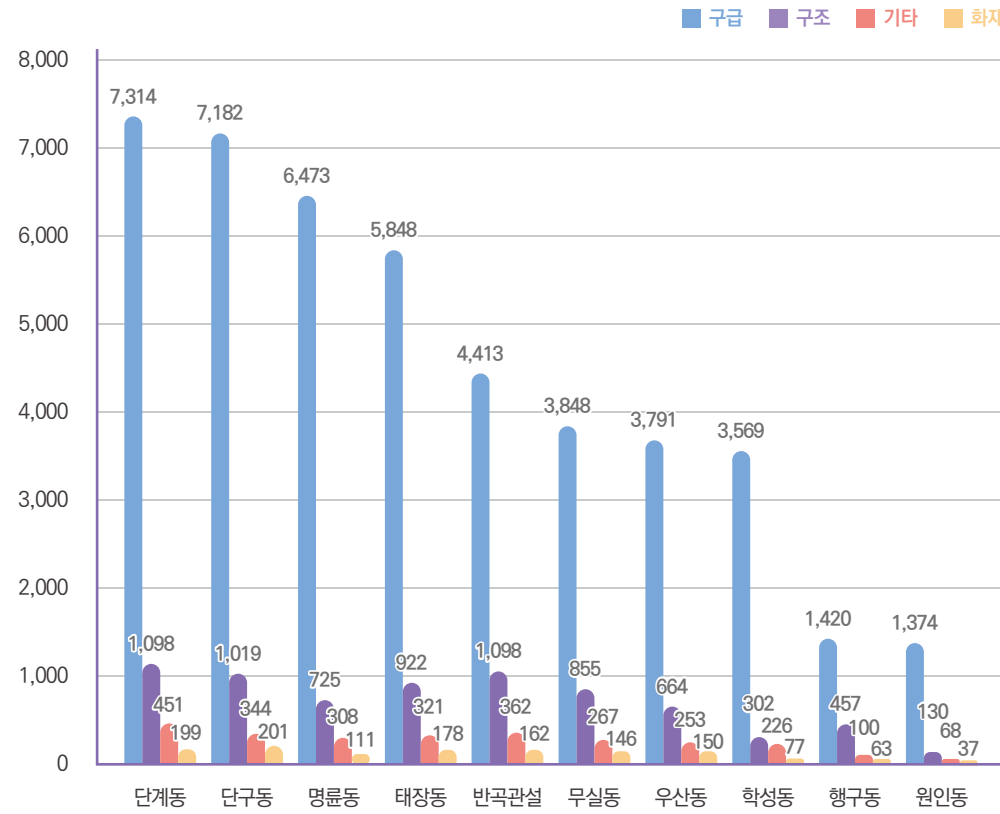


2) 유형별 출동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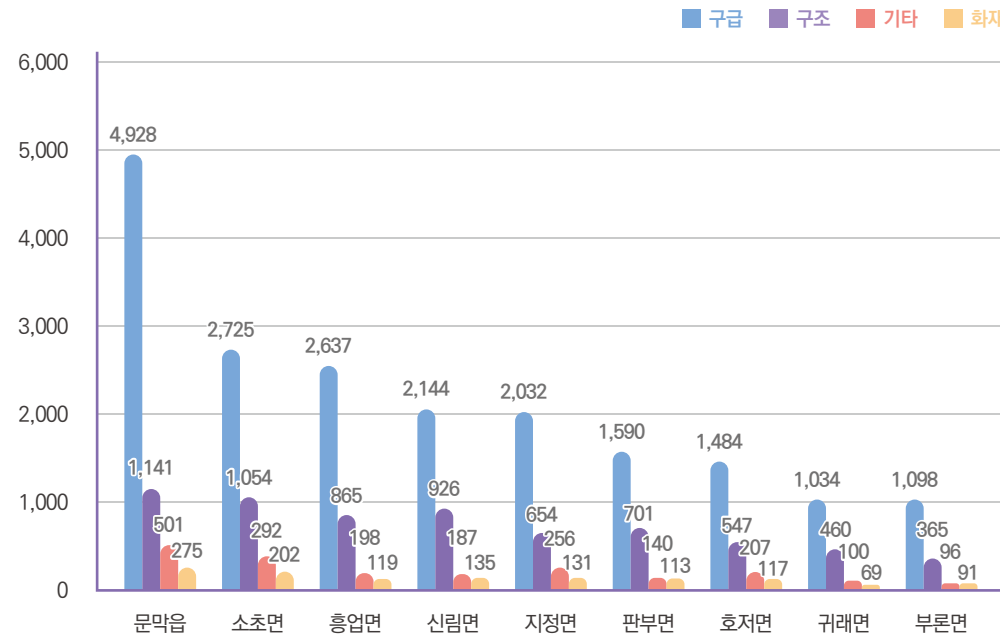
최근 5년간 원주소방서의 출동건수를 유형별로 보면 시 중심지역에서는 거의 전 동에서 구급출동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단계동의 경우 구급출동이 구조출동의 7배, 기타출동의 16배, 화재출동의 37배나 많았다. 인구 분포가 적고 행정구역 면적이 가장 작은 원인동에서 출동빈도가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시 외곽지역도 시 중심지역과 마찬가지로 어느 지역이든 구급출동이 구조나 기타, 화재출동보다 많았으며, 전체 출동건수가 가장 많았던 문막이 유형별로도 출동빈도가 전부 높게 나타났다.

시 중심지역 유형별 출동건수(2014~2018)



시 외곽지역 유형별 출동건수(2014~2018)



02

원주소방의 변천

제 1장 변화와 도약 104

제 1절 시작 - 중앙동 시대(1970~1991)

제 2절 발전 - 명륜동 시대(1991 ~ 2019. 10月)

제 3절 도약 - 반곡동 시대(원주소방서 소개)

제 2장 소방보조조직의 변천 152

제 1절 의용소방대

제 2절 의무소방대

제1장 변화와 도약

제1절 시작 - 중앙동 시대(1970~1991)

1. 소방환경

원주시는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관내에 건설된 철도망(중앙선 1973년 개통)과 도로망(국도 5·19·42호선 1970년대 개통, 영동고속도로 1971년 개통)으로 인해 영서지역의 교통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이로 인해 인구의 도시집중화 현상이 발생하였고 산업구조의 혁신으로 공업단지가 조성되었으며, 산업시설의 증가와 건물의 고층·심층화 문제가 고조되어 갔다.

한편 1960년대와 마찬가지로 1970년대에 들어서도 소방예산은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야만 했다. 국고에서 지출되는 소방서의 운영비가 부족하여 그 운영비의 대부분을 지방비로 충당해야만 했고, 절대적으로 부족한 소방인력 역시 고용원 또는 임시직(의용소방대 유급상비대원)의 신분으로 지방비에 의해 충당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시대별 원주시 인구의 변화

구분	1970년	1980년	1990년	2000년
내용	200,556명	198,715명	225,174명	270,891명

※ 출처 : 원주시청 홈페이지 연도별 '원주 통계연보'

※ 1970년~1990년 인구는 원주시와 원성군 인구의 합계임.
1995년 원주시로 통합됨



우산동 시외버스터미널(1972년)



화재예방 가두상담소(1975년, 원주 중앙로)



소방관들이 직접 훈련탑 공사를 하는 모습(1983년)



우산 공단 관계자 소방대책협의회 모습(1980년)



삼양식품 원주공장(1988년, 연면적 2,696,261㎡)

1980년대에는 소방행정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국민복지수준의 향상으로 사회로부터 소방서비스 기대심리가 확산되고 증폭되는 상황이었다. 또한 도시규모의 신장으로 소방대상물이 급증함에 따라 이들 지역에 대한 화재예방·진압업무에 효율을 기할 필요성 역시 증대하였다. 이 시기 원주시내에는 연면적 5,000㎡이상 대형 건축물 11개가 건축됨으로 인해 소방수요가 더욱 증가하였다. 또한 1981년 4월 4일에 제8차 소방법을 개정하고 같은 해 11월 5일 소방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건축허가 동의대상물의 범위를 축소·조정하는 법조정이 있었는데, 이는 화재의 취약정도에 따라 용도별로 건축 동의 대상물의 최소면적을 달리함으로써 소방서장의 건축허가 동의 업무의 합리화와 원활한 소방활동을 하기 위한 개선책이었다.

불비한 활동여건에도 불구하고 소방공무원들은 다양화·대형화되는 각종 화재와 사고현장에서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장비와 인력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 시기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대형사고는 이러한 소방 활동여건을 반드시 개선해야만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해주었다.



1970년 4월 8일 오전 06시 40분경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재 와우아파트 1동이 붕괴되었다.

무모한 개발방법과 낮은 공사비, 허술한 기초공사, 짧은 공사시간 등 부실공사가 원인이었다.

산비탈에 축대를 쌓아 아파트를 지었고 받침기둥에 철근을 제대로 쓰지 않아 해빙기에 건물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붕괴된 것이다.

이 사고로 33명이 사망하였다.

와우아파트 붕괴사고(사망 33명)와 대연각 호텔 화재(사망 166명) 등 대형사고를 겪으면서 정부는 1972년 이후 전국 주요지역에 우선적으로 소방장비 보강을 추진하여 1974년까지 최신 소방차를 일본, 서독 등으로부터 도입하였다. 그 후 다시 1975년 민방위본부 소방국 발족을 계기로 소방장비 보강에 힘쓰는 한편, 1976년 8월 9일에 내무부령으로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정(1980. 9. 11.)하여 보강기준을 마련하였으며, 국산 소방차의 개발을 촉진하여 차종의 다양화와 성능의 향상을 꾀하였다.

1970 ~ 80년대 원주소방서 소방인력·장비 현황

구분	소방인력	소방장비	주요내용
1970년	14명	3대	펌프차 1대, 물탱크차 1대, 지프차 1대
1980년	45명	10대	펌프차 5대, 물탱크차 1대 보강 구급업무 개시에 따른 '수송차' 보유



원주소방서에 배치된 차량 사진(1970년)

2. 도내 최초의 본격적인 구급업무 개시

1980년 이전까지의 소방 구급업무는 화재현장에서의 부상자만을 병원에 이송하는데 그쳤으나, 1980년 12월 26일 원주소방서에서 '원주 밝음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구급차 1대(현대 포터)를 기증받은 후, 대국민 홍보를 거쳐 1980년 12월 30일 첫 번째 구급환자인 산모를 시내병원으로 무료로 이송하였는데 이것이 강원도 최초의 본격적인 소방 구급업무였다. 출처 : 춘천소방서 '춘천소방 70년사'

내무부에서는 이를 계기로 1981년부터 원주소방서를 비롯한 전국 6개 소방서로 확대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게 하였으며,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이용 빈도가 증가하자, 1982년 6월 19일에는 소방관서에 야간 구급환자신고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야간 구급환자센터 운영규정」(내무부 훈령 제 447호)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국민들 사이에서 구급 서비스에 대한 호응이 높아지자 내무부에서는 1983년 12월 31일 소방법을 개정하여 「구급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여, 소방 구급업무를 소방행정의 기본업무로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근거로 1984년도부터 소방관서는 물론 읍·면 의용소방대에까지 연차적으로 구급차량 및 구급요원을 배치하여 구급업무를 확대하였다.



강원도 최초의 구급차(1980년)



구급업무가 소방의 한 분야가 되면서 소방 조직에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다. 원주세브란스 병원으로부터 기증받은 구급차(1995년)

3. 소방파출소 신설

1) 직할파출소(1972.1.25.)

직할파출소는 1972년 1월 25일에 시비 37,000원을 지원받아 소방서 내에 칸막이 벽을 설치하여 공간을 분리한 후 개소하였다. 급속도로 진행되는 도시화와 인구 밀집 등의 현상에 따라 늘어나는 화재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대한 위험이었으며, 이러한 화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이 직할파출소였던 것이다.

1977년 '원주소방서 중앙소방관파출소'로 명칭이 바뀌었고 1984년에는 '원주소방서 중앙파출소'로 명칭이 바뀌었다. 1991년에는 소방서 청사를 명륜동으로 이전하면서 파출소 위치도 같이 이전하였고 명칭도 '명륜소방관파출소'로 바뀌었다. 관할구역도 청사 이전 전의 중앙동 인근에서 명륜동, 개운동, 단계동, 무실동, 원인동, 일산동으로 바뀌었다. 이후 1992년에 흥업면과 귀래면을 관할구역으로 추가하였고 2004년에 단구파출소 관할구역의 일부(단구동 일부)를 편입하였다. 현재 혁신119 안전센터의 전신으로 여겨진다.



직할파출소 개축시 직원들의 청소 및 증축하고 있는 모습(1975년)

2) 우산파출소(1975.5.24.)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인해 시내 북쪽지역의 증가하는 소방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1975년 2월 7일에 소방관 파견대로 임시 개소를 하였고 같은 해 5월 24일 정식 개소하였다. 지방비 140여만원으로 자재를 구입하여 시유지 1,155㎡의 땅에 138㎡의 건물을 직원들이 직접 공사하였다. 1982년에는 관할구역이 조정되어 당시 원성군 소초면을 편입하였고 1992년에는 호저면을 관할구역으로 편입하였다. 1998년에는 태장파출소가 개소되면서 관할구역이 조정되어 관할구역이 대폭 줄어들었다. 2004년 10월 29일에는 지상 2층의 규모로 신축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직원들이 공사하고 있는 모습(1974년 12월)



파출소 차고 바닥 공사모습(1975년)



우산파출소 현판식(1975년)

2) 단구파출소(1985.6.3.)

단구동 일대가 개발이 되면서 인구가 증가하고 자연스레 소방수요도 증가하게 되었다. 그로 인해 1985년 6월 3일 단구동 195-1번지 755㎡ 대지에 지방비 2,500만원을 들여 194㎡의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구조의 지상 1층 청사를 신설하였으며, 관할구역은 개운동, 단구동, 행구동, 관설동, 반곡동 일원이었다. 이후 1992년에 판부면과 신림면을



1985년 단구파출소 개소식

관할구역으로 편입하였고 2004년에 단구동의 일부를 명륜파출소로 이전하였다. 2002년 개소한 신림농촌형파출소는 개소 당시에 단구파출소 예하에 있었으나 2011년 안전센터로 승격되면서 분리되었다.

4. 각종 통계(1970~1990)

소방공무원 인원

구분	계	소방총경	소방경정	소방경감	소방경위	소방사	소방장	소방원
1970년	14	-	-	1	-	3	1	9
1975년	13	1	-	-	-	2	1	9

구분	계	국가직							지방직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소방교	소방사
1980년	45	-	1	1	1	4	2	6	2	28

구분	계	소방총경	소방경정	소방경감	소방경위	소방사	소방장	소방원
1988년	63	1		2	4	7	18	31
1990년	89	1	-	2	6	11	28	41

※ 출처 : 원주시청 홈페이지 연도별 '원주 통계연보'

소방관 1인당 담당인구

구분	1970년	1980년	1988년	1990년
소방관 1인당 담당인구	14,325	4,416	3,407	2,530
소방관 수	14	45	63	89
원주시 인구	200,506	198,715	214,636	225,174

※ 출처 : 원주시청 홈페이지 연도별 '원주 통계연보'

※ 출처 : 1970년~1990년 인구는 원주시와 원성군 인구의 합계임. 1995년 원주시로 통합됨

현장활동 (구조·구급 서비스 개시 이전)

구분	발생			피해액			인명피해		
	계	실화	방화	계	부동산	동산	계	사망	부상
1970년	14	-	-	205	-	-	0	-	-
1975년	22	19	2	1,222	648	574	2	-	2
1980년	14	9	1	7,042	4,536	2,506	1	-	1
1985년	25	25	-	23,879	18,076	5,803	0	-	-
1990년	48	40	4	24,959	3,868	21,091	8	1	7

※ 출처 : 원주시청 홈페이지 연도별 '원주 통계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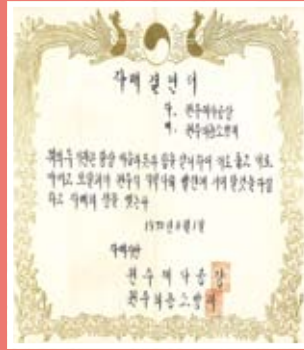
5. 주요 연혁(1970~1990)

- 1970. 05. 07 원주소방서 개서
- 1972. 01. 25 직할파출소 개소(본서 내)
- 1975. 05. 24 원주소방서 우산 소방관파출소를 소방관 파견대로(임시 개소 2. 7.)
- 1977. 12. 28 파출소 등 명칭 변경(직할파출소 ⇒ 중앙 소방관 파출소, 우산동파출소 ⇒ 우산 소방관 파출소)
- 1980. 12. 30 도내 최초의 구급서비스 개시
- 1984. 03. 19 소방표지장 규정에 따른 명칭변경(○○소방관 파출소 → ○○파출소)
- 1985. 06. 03 단구파출소 신설

※ 출처 : 강원도 소방본부 '강원소방 100년사'

쉬어가기

역대 자매결연서· 감사패



원주소방장 자매결연서(1970년)



원동 3동 자매결연서(1992년)



제1007야전공병단장 감사패(1995년)



세교부락 자매결연장(1977년)



KBS원주소방국장 감사패(1997년)



백두라이온스클럽 자매결연패(2004년)



원주시장 감사패(2005년)



한국소방안전협회장 감사패(2012년)



원주소방회의소장 감사패(2017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장 감사장(2018년)

제2절 발전 - 명륜동 시대(1991~2019.10월)

1. 소방환경

1990년대 무렵의 원주는 영동고속도로의 2차 개통과 중앙고속도로의 완공, 연면적 5,000㎡ 이상의 대형건축물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인구의 유입과 동시에 소방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이러한 당시 소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소방행정체제를 1992년 1월 1일부로 광역소방체제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로써 통일된 지휘체제를 확립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소방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지역간 균형발전과 봉사 행정체제의 확립으로 소방수혜를 확대하는 등 발전적인 소방행정의 기반을 구축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소방사무를 효율적으로 기획·조정하고 일선 소방관서를 지휘·감독하기 위해 1992년 4월 1일 민방위국 소방과를 폐지하는 대신 소방본부를 신설한다.(2과 6계)



강원도 소방본부 발대식(1992년)



만중분기점(1994년)



원주 시가지 전경(1999년)

1991~2000년대 원주소방서 소방인력·장비 현황

구분	소방인력	소방장비	주요내용
1991년	89명	25대	소방파출소 신설에 따른 펌프차, 물탱크차 지속 보강 굴절차(16m), 화학차 등 대형화재 대응용 장비 보강
2000년	144명	61대	구조공작차, 굴삭기, 고가차(50m) 등 보강

※ 출처 : 원주소방서 소방행정과

2. 본서 청사 신축·이전

중앙동 청사는 1970년 준공되어 약 20년간 사용하였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증원되는 소방인력을 수용하는데 한계에 다달았고 점차 대형화되는 고가사다리차 등 신형 소방장비를 차고에 보관할 수 없어 관리상 문제점이 도출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날로 늘어나는 소방수요와 안전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건물이 필요하였는데 이를 위해 명륜동 671번지 3,684㎡ 부지에 철근콘크리트조 및 경량철골조 등 연면적 2,333㎡(본관 지하 1층, 지상 3층)규모의 청사를 신축하고 1991년 2월 24일에 이전하였고, 3월 13일에 준공되었다.



명륜동 원주소방서 청사 준공식(1991. 3. 13.)

3. 전국 최초의 안전앰블럼 제작·활용

2000년부터 2012년까지 발생한 원주소방서 직원들의 공사상자는 약 100여명에 이른다. 이러한 통계가 말해주듯 소방관이 일하는 현장의 환경은 정돈되지 않고 무질서하며 예측이 불가능한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관들이 입는 불의의 사고를 줄이고자 원주소방서가 전국 최초로 안전앰블럼을 제작하여 활용하였다. 안전의식을 고취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이 앰블럼은 소방차량과 각종 행사 및 전반적인 소방업무에 활용됨으로써 안전사고를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안전앰블럼 제작을 홍보하는 당시 언론보도(2012년)

4. 구조대 발대(1994.5.25.)·전국 최초의 인명구조견 운영(1998.11.18.)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 소방관서에서는 신체가 건강하고 희생정신이 투철한 직원을 선발하여 인명구조특공대를 조직하였고 고층건물 등 화재현장에서의 인명구조업무에 주력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각종 사고가 빈발하였고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더욱 전문성을 갖춘 구조대원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1987년 9월 4일 「119특별구조대 설치운영계획」을 수립하고 1988년 8월 1일 올림픽이 개최되는 서울·부산·대구 등 7개시에 9개의 119특별구조대를 설치하여 114명의 구조대원과 9대의 구조공작차로 화재 및 각종 재해시 인명구조활동을 수행하게 된 것이 119구조대의 효시로 볼 수 있다.



서울소방본부 구조대 발대(1988. 8. 8.)



당시 언론보도(MBC, 동아일보 등 다수)

원주소방서 119구조대는 1994년 5월 25일 임시로 발대(정식 발대식 : 1994.11.24.)되었으며, 당시 구조대원은 군 특수부대 출신 구조 경력채용자 등 9명(소방위 1명, 소방장 1명, 소방교 6명, 소방사 1명)이 2교대 근무를 하며 관내에서 발생하는 화재와 교통·수난·산악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현장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인명을 구조하였다.



원주소방서 구조대 발대식(1994년)



구조공작차(1994년)



소방기술경연대회 참가(1995년)



긴급구조종합훈련 참가(1995년)



송전탑에서의 레펠훈련(1996년)



교통사고 대비 특별 구조훈련(1996년)

1998년 11월 18일에는 관내에서 급증하는 산악사고에 더욱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조대 내에 산악구조대를 발대한다. 더불어서 전국 최초로 인명구조건을 배치하여 운용하였다. 인명구조건은 삼성생명 구조건 센터에서 양성한 인명구조건이었으며, 구조건 센터로부터 무상대여 받았으며 2두 모두 1997년 4월 13일생 암컷 셰퍼드였고 이름은 '다술'과 '다재'였다.

인명구조건은 인간에 비해 최소 1만배 이상의 후각과 40배 이상의 청각을 가졌으며, 첨단기기로도 식별이 불가능한 요구조자 또는 실종자의 위치를 신속·정확하게 탐색하여 구조하는 특수 훈련된 사역견이다. 인명구조건은 사회화 훈련, 복종훈련, 장애물 적응훈련, 수색훈련 등 특수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고도의 훈련과정을 거치며, 2002년 행정자치부령 제167호에 따라 공식 119구조장비로 등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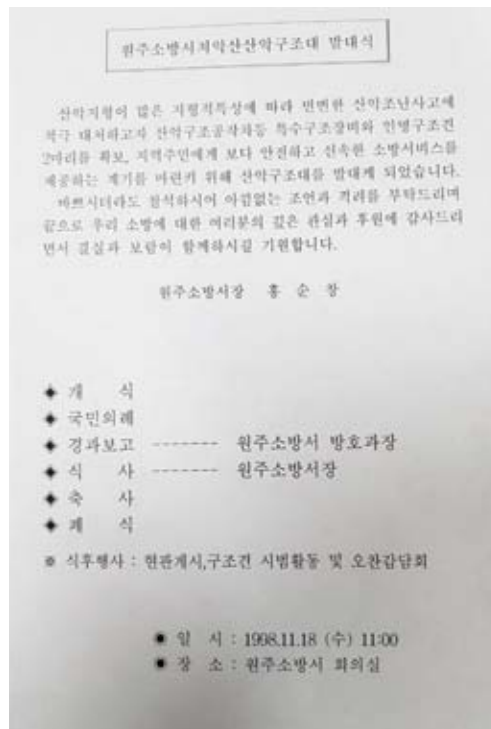
중국 강소성 소방관 방문시 구조견 활동 시범
(2002년)



긴급구조종합훈련 참가(2006년)



119인명구조건 핸들러 제1호
이창민 소방교와 '하늘'(2008년)
제6회 119구조견 경진대회 특별상 수상



산악구조대 발대식 초청장(1998년)



인명구조건의 활약을 다룬 언론보도(1999년)

5. 소방훈련탑 준공

훈련탑이 지어지기 전 소방관들의 훈련장소는 운동장이나 아파트, 원주천 주변의 공터였다. 하지만 이러한 훈련환경은 늘어나는 대형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을 갖추는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시비 1억 8천여만원을 지원받아 명륜동 청사 후정에 1991년 10월 22일 철근콘크리트 라멘조의 지하 1층 지상 7층, 연면적 330㎡ 규모의 훈련탑을 건설하였다. 층별 용도로는 1층이 사무실 및 대기실, 2층이 화장실 및 샤워장, 3~7층은 인명구조훈련장이었으며, 이곳에서는 고층건물내 인명구조와 진입, 레펠훈련과 대원 탈출훈련등의 과제를 훈련하였다. 또한 도내 최초의 고층훈련탑이 지어짐으로서 강원도 소방기술경연대회가 수년간 개최되기도 하였다.



훈련탑 준공을 알리는 언론보도(1991년)



구조대원들의 레펠훈련(2006년)



8층 규모의 철근콘크리트조 훈련탑



각종 전술훈련이 가능한 6층 높이의 철골조 시설

6. 소방공무원 3교대 근무체계 시행

중앙동 시대에 소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2교대 주 84시간, 월 평균 365시간 근무로 일반직 공무원들의 주 40시간, 월 평균 170여 시간의 근무에 비하여 대략 2배의 근무를 하며 매우 열악한 근무여건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러나 명륜동 시대에 접어들어 사회분위기가 급변하고 ‘안전’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면서 소방공무원들이 증원되었고 자연스레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복지와 근무여건에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강원도소방본부는 2009년부터 3교대(21주기) 근무체계를 원주를 포함한 도내 전 관서에 적용하는데 이로 인해 근무시간이 주 56시간, 월 평균 240시간으로 대폭 축소되었고 소방공무원들의 근무여건 및 소방서비스의 품질도 대폭 향상되었다. 또한 2019년 8월 2일부터는 원주, 춘천, 강릉 등 3개 관서를 제외한 도내 전 관서에 ‘당비비’ 근무체계를 적용시킴으로서 직원들의 사기와 복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1주기’ 근무표 예시(원주, 춘천, 강릉소방서)

[주 주간/야 야간/비 비번/당 당번]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1팀	주	주	주	주	주	비	비	야	비	야	비	야	비	당	비	야	비	야	비	당	비
2팀	비	야	비	야	비	당	비	주	주	주	주	주	비	비	야	비	야	비	야	비	당
3팀	야	비	야	비	야	비	당	비	야	비	야	비	당	비	주	주	주	주	주	비	비

‘당비비’ 근무표 예시(원주, 춘천, 강릉소방서 이외 관서 / 2019.8.2. 시행)

[당 당번/비 비번]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1팀	당	비	비	당	비	비	당	비	비	당	비	비	당	비	비	당	비	비	당	비	비
2팀	비	당	비	비	당	비	비	당	비	비	당	비	비	당	비	비	당	비	비	당	비
3팀	비	비	당	비	비	당	비	비	당	비	비	당	비	비	당	비	비	당	비	비	당



장비점검 전 체조



장비 인수·인계



근무교대 전 전달사항 전파

7. 소방파출소 신설

1) 문막파출소(1991.5.20.)

당시 원주군 문막면 일원이 원주소방서 관할로 편입이 되면서 신속한 소방력 전개를 위해 1991년 5월 20일에 신설되었다. 문막면 문막리 225-7번지 478㎡의 부지에 지방비 7,300만원을 들여 지어진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구조의 지상 1층 청사였으며, 신설 당시 인원은 총 9명(소방위 1, 소방장 2, 소방교 3, 소방사 3)이었고 장비는 총 3대(펌프차 2, 구급차 1)였다. 이후 1992년 1월 1일부터 지정면과 부론면이 관할구역에 편입되었고 1995년 1월 3일에는 경기도 여주군 강천면 대둔 일원이 문막읍으로 편입되었다. 이후 2014년에 청사를 신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당시 문막파출소 사무실 내부(1993년)



문막안전센터 청사(2000년)



문막안전센터 청사(2019년)

2) 학성파출소(1991.5.20.)

학성파출소는 청사가 미리 확보되지 않아 명륜동 원주소방서 청사내 1층 휴게실에 1991년 5월 20일 임시 개소하였다. 인력부족으로 인해 승인된 인원보다 2명이 적은 11명으로 개소되었으며, 장비는 펌프차 2대를 운용하였다. 사무공간은 명륜동에 있었으나 관할구역은 중평동과 학성동, 봉산동 일대였다. 이후 1991년 10월 5일에 원주시청 민방위본부 상황실로 청사를 이전하였고 1993년 12월 15일에 학성1동 213-9 부지 495㎡에 1억 5천여만원을 들여 연면적 257㎡ 철근콘크리트스라브 구조의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의 청사가 준공되어 완전히 이전을 하였다. 이후 2004년 관할구역이 조정되어 중앙동, 학성동, 봉산동 일부, 태장동 일부를 담당하였다.



학성파출소 준공식(1993년)



학성안전센터 청사(1995년)



학성안전센터 청사(2017년)

3) 태장파출소(1998.1.17.)

태장파출소는 1995년 5월 23일에 설치승인을 받았으나 1995년 7월 24일 '태장 고속도로구급대'로 먼저 설치되었다. 원주시내의 북쪽에 건설된 영동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급증으로 고속도로로의 신속한 소방력 전개를 위해 구급대원 4명이 2교대로 구급차 1대를 운용하였으며, 운용당시에는 우산파출소 소속이었으나 이후 1998년 1월 17일에 2억 3천여만원을 들여 태장 2동 1810에 연면적 320㎡, 지상 1층 규모의 청사를 신축하여 태장파출소를 개소하면서 태장파출소로 명칭이 바뀌게 된다. 고속도로 구급대는 1998년 9월 16일 인원감축 등의 이유로 철수하였으며, 현재는 펌프차 2대와 구급차를 운용하고 있다.



고속도로 구급대 차고(1997년, 둔내 TG)



태장안전센터 청사(2018년)

4) 신림 농촌형 파출소(2003.1.28.)

신림면은 충청북도 제천과 접해있으며, 1995년 개통한 중앙고속도로와 국도 5호선이 지나고 있다. 이로인해 교통량과 유동인구가 늘어나면서 신속한 소방력 전개가 요구되면서 2003년 1월 28일 신림면 신림리 519-14번지에 철골 콘크리트 구조의 1층 건물을 지어 농촌형 파출소를 강원도 내 최초로 개소하였다. 이후 늘어나는 소방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2011년 12월 23일에 119안전센터로 승격되었다.



신림 농촌형 파출소 개소식(2003년)

5) 흥업119안전센터(2016.11.4.)

흥업면에는 3개의 대학교와 원주시의 남반부(사제리~장양리) 전체를 가로지르는 자동차전용도로 등으로 인해 상주인구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다. 따라서 적극적인 소방행정과 신속한 소방력의 전개를 위해 2016년 11월 4일에 흥업119안전센터를 개소하였다.



흥업119안전센터 개소식(2016년)

8. 각종 통계(1991~2019)

소방공무원 인원

※ 출처: 원주소방서 소방행정과, 행정안전부 '한국도시통계: 소방공무원 현황(1979~2000)'

구분	계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1991년	68	1	-	2	6	12	32	45
1995년	152	1	-	2	12	17	48	72
2000년	143	1	2	5	9	20	44	62
2005년	178	1	3	8	11	42	62	51
2010년	200	1	3	9	20	60	58	49
2015년	203	1	4	16	17	36	65	64
2019년 11월	287	1	4	18	58	71	85	50

소방관 1인당 담당인구

※ 출처: 원주시청 홈페이지 '연도별 원주 통계연보', '인구 현황'

구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19년
소방관 1인당 담당인구	1,566	1,894	1,630	1,585	1,655	1,213
소방관 수	152	143	178	200	203	287
원주시 인구	238,027	270,891	290,073	317,094	336,031	348,158

현장활동(화재)

※ 출처: 원주소방서 화재조사계, 원주시청 홈페이지 '연도별 원주 통계연보'

구분	발생(건)			피해액(천원)			인명피해(명)		
	계	실화	방화	계	부동산	동산	계	사망	부상
1991년	62	49	8	80,999	17,119	63,880	20	6	14
1995년	113	56	6	216,683	53,767	162,916	7	2	5
2000년	254	200	16	2,109,925	1,090,085	1,019,840	13	3	10
2005년	266	237	26	1,806,162	962,547	843,615	12	1	11
2010년	417	337	17	2,248,432	1,153,160	1,095,272	10	3	7
2015년	349	316	12	3,235,759	1,582,573	1,653,186	28	3	25
2018년	361	354	7	3,856,736	1,525,776	2,330,960	17	4	13

현장활동(구조·구급)

※ 출처: 강원소방본부 구조·구급활동 정보시스템, 원주시청 홈페이지 '연도별 원주 통계연보'

구분	구조			구급		
	출동건수	처리건수	구조인원	출동건수	이송건수	이송인원
1994년	9	9	10	2,721	2,308	2,501
1995년	194	76	141	3,403	2,581	2,947
2000년	918	446	295	8,033	5,857	6,296
2005년	1,079	594	504	13,440	9,803	10,478
2010년	2,954	2,171	639	16,268	10,983	11,406
2015년	1,225	975	126	16,498	11,466	11,989
2018년	4,946	3,806	464	18,895	12,232	12,532

특정 소방대상물 현황

※ 출처: 원주소방서 방호구조과, 강원도소방본부 '예방 소방행정 통계자료'

구분	소방대상물			위험물 취급소		
	총계	근린생활시설	그 외	총계	주요취급소	저장소
2001년	4,219	2,589	1,630	862	858	-
2005년	6,573	4,218	2,355	1,656	287	1,363
2010년	7,940	4,949	2,991	1,186	241	943
2015년	12,544	7,558	4,986	1,019	233	782
2018년	13,374	7,990	5,384	994	217	771

9. 주요 연혁(1991~2019)

※ 출처 : 원주소방서 소방행정과, 강원도 소방본부 '강원소방 100년사'

일자	내용
1991. 02. 24.	원주소방서 청사 이전(이전 위치 : 원주시 명륜 2동 671번지), 준공식 03.13.
1991. 05. 20.	원주소방서 문막파출소 개소 원주소방서 학성파출소 임시개소(원주소방서 청사내 1층 휴게실)
1991. 10. 05.	원주소방서 학성파출소 1차 이전(원주시청 민방위지원본부 상황실)
1991. 10. 22.	원주소방서 소방훈련탑 준공
1992. 01. 01.	소방행정체제 개편관련 법령개정으로 소방업무에 대한 책임 및 소방관련 공무원의 임용권이 시장·군수에서 도지사로 이관 ※ 시·군소방서 및 소방관련 지방공무원 도이관 : 569명(소방직 539명, 기능직 28명, 고용직 2명)
1992. 04. 01.	소방업무의 광역체제전환으로 기존 소방과를 폐지하고 소방본부를 발족하여 소방행정과와 방호과를 둠
1993. 07. 01.	원주소방서 횡성파출소 개소
1993. 12. 15.	원주소방서 학성파출소 2차 이전(학성 1동 213-9번지(청사신축 이전))
1994. 05. 25.	원주소방서 119구조대 임시 발대
1994. 11. 24.	원주소방서 119구조대 발대식
1995. 05. 10.	명륜·우산·단구 파출소장 직급 상향조정
1995. 07. 24.	원주소방서 태장고속도로 구급대 운영
1995. 07. 24.	방호과 구조구급계 신설
1996. 03. 19.	소방서과장 직급 상향조정 : 소방경 ⇒ 소방령
1996. 12. 26.	원주소방서 둔내고속도로 구급대 운영
1998. 01. 17.	원주소방서 태장파출소 개소
1998. 09. 16.	원주소방서 태장·둔내 고속도로 구급대 철수
1998. 11. 18.	원주소방서 산악구조대 발대(전국 최초의 인명구조견 배치, 산악구조차량 1대 배치)
2000. 12. 20.	원주소방서 둔내파출소 개소(준공 : 11. 04)
2000. 11. 14.	귀래출장소 신설
2003. 01. 01.	원주소방서 소방행정과에 정보통신계 신설(2과 5계 ⇒ 2과 6계)
2003. 01. 28.	원주소방서 신림농촌형파출소 시범운영
2003. 11. 17.	방호구조과 화재조사계 신설(2과 5계 → 2과 7계)
2003. 11. 27.	부론 출장소 준공
2004. 10. 29.	우산파출소 재건축(장소 : 우산동 411-35)
2005. 08. 26.	예방과(예방계, 안전계, 화재조사계) 신설(2과 7계 → 3과 8계)
2005. 12. 20.	지정출장소 준공
2008. 08. 08.	조직개편(3과 8계 → 3과 6계) - 3과(소방행정과, 예방안전과, 현장대응과) - 6계(행정계, 예산장비계, 예방계, 소방민원계, 대응관리계, 진압조사계)
2009. 06. 23.	소방기구개편(3과 8담당 → 2과 1대 8담당) 및 기능조정 - 현장대응 기능 및 안전관리를 위한 현장지휘대 신설
2010. 04. 02.	소방기구개편 및 관할구역 조정(원주시 : 원주소방서, 횡성군 : 횡성소방서)
2011. 12. 23.	신림안전센터 승격
2012. 07. 13.	조직개편(4과 7계 3진압구조대, 1구급대)
2015. 04. 10.	현장대응과에서 119구조대 분리
2016. 11. 04.	흥업119안전센터 신설
2018. 04. 23.	명륜119안전센터 신설
2019. 10. 08.	조직개편(4과 7계 1구조대 8안전센터 4지역대) - 화재조사업무 강원소방본부로 이관

쉬어가기

끊이지 않는 구급대원 폭행사고

도내에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사고는 총 29건이다. 주로 도시지역에서 야간에 주취자들에 의해 피해를 입고 있다. 소방기본법에 이러한 폭행에 대한 벌칙조항이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구분	총계	원주	춘천	강릉	동해	속초	삼척	홍천	횡성	평창
2014년	12	2	4	·	3	2	·	·	·	1
2015년	11	3	3	1	1	·	·	·	·	·
2016년	9	1	3	1	1	·	1	1	·	·
2017년	9	·	4	·	2	·	1	·	·	1
2018년	5	1	·	1	·	·	·	1	·	·
2019년	4	·	·	1	·	·	1	1	1	·
합계	50	7	14	4	7	2	3	3	1	2
사법처리 현황	2019년 4건 : 벌금 1, 재판중 3									

※ 출처 : 강원도 소방본부 구급계



제3절 도약 - 반곡동 시대(원주소방서 소개)

1. 일반현황

1) 조직

원주소방서는 4과 7계 1개 구조대 8개 안전센터 4개 지역대로 조직되어 있다. 최상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으로 1970년 개서 이래 6차례의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으며, 2019년 현재의 원주소방서 조직도는 아래와 같다.

원주소방서 조직도(2019)



〈의용소방대 현황〉

1935년부터 설치되기 시작한 원주시 의용소방대는 2019년에 이르러 21개대, 565명의 의용소방대원들이 조직되어 시민과 밀접한 곳에서 활동중이다. 각 의용소방대는 대원이 거주하는 지역에 임명되어 화재 진압 보조 활동, 캠페인, 봉사활동 등에 임하고 있다. 또한 산악구조와 응급처치 특기를 가진 전문 의용소방대가 1개대 23명으로 조직되어 있어 재난현장에서 소방보조인력으로서 그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황둔 산악 의용소방대는 우리나라의 100대 명산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감악산에서의 구조활동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황둔 의용소방대원들은 황둔리에서 50년 이상 거주하며 법정·비법정 등산로 이외에도 일반인들은 알지 못하는 등산로까지 훤히 꿰차고 있어 119구조대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2) 인원

2019년 11월 현재 원주소방서의 정원은 306명, 현원은 287명이다. 이 중 행정업무 직원은 60여명, 현장부서 직원은 210여명이며, 1일 현장부서 근무총원은 80여명이다. 소방력 발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소방인력은 개서 당시 14명이었으나 인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각고의 노력 끝에 2019년 306명(정원)으로 21배 증가하였다. 원주소방은 더 나은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원 400명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각 부서별 정·현원은 아래 표와 같다.

원주소방서 소방인력 현황(2019.11월)

[현원/정원]

부서	인원	부서	인원	부서	인원
소방행정과	12/11	혁신안전센터	44/52	태장안전센터 (소초지역대)	25/31
예방안전과	26/14	학성안전센터	22/22	문막안전센터 (지정, 부론지역대)	34/40
방호구조과	7/7	단구안전센터	25/25	흥업안전센터 (귀래지역대)	22/28
현장대응과	13/13	신림안전센터	16/22	총계	287/306
구조대	19/19	우산안전센터	22/22		

※ 출처 : 원주소방서 소방행정과

원주소방서 계급별 정·현원 현황(2019.11월)

구분	총계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정원	306	1	4	18	21	48	104	110
현원	287	1	4	18	58	71	85	50

※ 소방보조인력 : 의무소방원 12명, 사회복무요원 5명

3) 청사

원주소방서는 1970년 5월 7일 원주시 중앙동 207번지에 청사를 마련하였고 개서한 후 20년간 사용하다가 1991년 2월 24일 명륜동 671번지로 신축·이전하였다. 소방공무원 및 장비의 증가로 다시 혁신도시내 동부순환로 201로 신축·이전을 추진하여 2018년 4월 11일 기공식을 하였으며, 2019년 10월, 19개월의 공사를 거쳐 지금의 청사가 완성되었다. 반곡동 청사로 이전하기 전 지난 50년간 8개의 119안전센터와 1개의 구조대를 설치하였으며 2010년 횡성소방서의 개서로 인하여 횡성·둔내파출소를 횡성소방서로 이관하였다.

반곡동 新청사의 공사과정



위치	원주시 반곡동 동부순환로 201(부지면적 5,231평)
규모	철근콘크리트조 지상 3층, 지하 1층, 연면적 1,454평
사업비	총 120억원(도비 60억, 시비 60억)
공사기간	2018. 3. 21. ~ 2019. 10월(19개월)

4) 장비

원주소방서에서 보유한 소방차량은 총 56대이다. 행정안전부령 제 86호 '소방자동차 등의 배치기준'에 의거하여 원주시에 배치되어야 할 필수 소방자동차 대비 120%를 보유함으로써 최고수준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다. 또한 노후율 역시 3%(안전체험차, 굴삭기 / 2020년 교체예정)로 전국 최저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

소방차량 보유 및 노후율 현황(2019.10월 기준)

구분	보유현황	내용연수 경과차량	노후율
총 계	56	2대	3%(전국최고 수준)
펌프차	16	구급차	13
물탱크차	3	구조공작차	1
화학차	1	생활안전구조차	1
배연차	1	수난구조차	1
고가차 / 굴절차	2	산악구조차	1
지휘차	1	굴삭기	1
화재조사차	1	이동안전체험차	1
진단차	5	기타	7



전국 최초의 대형구급차(전문구급대)



전국 최초의 최신형 구조공작차(Rosenbauer)



최고의 성능을 보유한 화재진압용 차량



고가사다리차(53m)

쉬어가기

소방장비

소방장비는 소방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소방인력과 함께 없어서는 안되는 부분이다. 1970년까지만 해도 11층 이상 고층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는 진압은 포기하고 인명구조만 실시해야할 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전무한 상황이었다(아래 신문기사 참고, 1970년 10월 31일, 경향신문). 당시 소방업무를 관장하던 내부에서 공식적으로 결정한 내용이었는데 이를 비롯듯이 1970년 초반 전국 각지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하면서 엄청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겪게 되었는데 대표적으로 1971년 서울 대연각 호텔 화재(226명 사상), 서울 시민회관 화재(67명 사상)등이다. 그 당시의 열악한 소방장비로는 이러한 화재를 진압하기에 속수무책이었는데 이로 인해 정부는 소방장비 보강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또한 경제가 발전하고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면서 삶의 전반에 대해 안전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게 됨으로써 다양한 소방장비를 수입하게 되었고 국내 여러 기업에서 소방장비를 제작하기에 이른다. 이에 원주소방서도 가장 현대화되고 최신식의 장비를 순차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어떠한 사고 및 재난에도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었다.



1971년 12월 25일 오전 09시 50분경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대연각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1층 커피숍의 프로판 가스통이 폭발하면서 시작된 화재는 지상 21층 건물을 전소시키고 진화되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전용 헬기까지 화재진화에 투입되었지만 보유하고 있던 소방장비로는 효과적인 화재진압이 불가능했다. 세계 최대의 화재 사고중 하나인 이 화재로 166명이 사망(추락사 38명)하였고 25명이 행방불명되었다.

주요 소방차량 성능 및 제원



펌프차

성능 및 제원	가격
운영부서 : 전 안전센터 보유대수 : 16대 차량무게 : 5ton 물탱크용량 : 2,800~3,000L Foam탱크용량 : 200L	2억원

물탱크차

성능 및 제원	가격
운영부서 : 문막, 단구, 우산센터 보유대수 : 3대 차량무게 : 6 ~ 9.5ton 물탱크 용량 : 6000L 비고 : 산불진화장비 장착	2억 2천만원

화학차

성능 및 제원	가격
운영부서 : 혁신안전센터 제조사 : 대우, 이엔쓰리특장 차량무게 : 16ton 물탱크용량 : 10,000L Foam탱크용량 : 1,000L	3억 7천만원

배연차

성능 및 제원	가격
운영부서 : 혁신안전센터 제조사 : 대우(에프원텍) 차량무게 : 5ton Foam탱크 용량 : 600L	2억 8천만원



고가차

성능 및 제원	가격
운영부서 : 혁신안전센터 제조사 : EVERDIGM(Volvo) 차량무게 : 26ton 전개범위 : 53m	6억 1천만원



굴절차

성능 및 제원	가격
운영부서 : 단구안전센터 제조사 : EVERDIGM(Volvo) 차량무게 : 18ton 전개범위 : 28m	4억 6천만원



지휘차

성능 및 제원	가격
운영부서 : 현장대응과 제조사 : 현대, 성우특장 차종 : 그랜드 스타렉스	2천 8백만원



통제단 장비 운반차

성능 및 제원	가격
운영부서 : 방호구조과 제조사 : 현대, 미래특장 차종 : 마이티	8천 5백만원



구급차

성능 및 제원	가격
운영부서 : 전 안전센터 보유대수 : 13대 차종 : 그랜드스타렉스 탑승인원 : 최대 4명	9천만원



구조 공작차

성능 및 제원	가격
운영부서 : 구조대 제조사 : Rosenbauer(Scania) 차량무게 : 9ton 엔진출력 : 410마력	6억 8천만원



생활안전 구조차

성능 및 제원	가격
운영부서 : 구조대 제조사 : 현대, 미래특장 차종 : 그랜드 스타렉스	4천 3백만원



수난 구조차

성능 및 제원	가격
운영부서 : 구조대 제조사 : 기아, 화인특장 차종 : 봉고3(4WD)	3천 1백만원



산악 구조차

성능 및 제원	가격
운영부서 : 구조대 제조사 : 쌍용 차종 : 코란도 스포츠	2천 7백만원



굴삭기(2020년 교체예정)

성능 및 제원	가격
운영부서 : 혁신안전센터 제조사 : Cummins 운전중량 : 12ton 버킷용량 : 0.45m³	6천만원



화재 조사차

성능 및 제원	가격
운영부서 : 현장대응과 제조사 : 기아, 성우특장 차종 : 스포티지	3천 1백만원



행정차

성능 및 제원	가격
운영부서 : 소방행정과 제조사 : 기아 차종 : K5하이브리드	2천 7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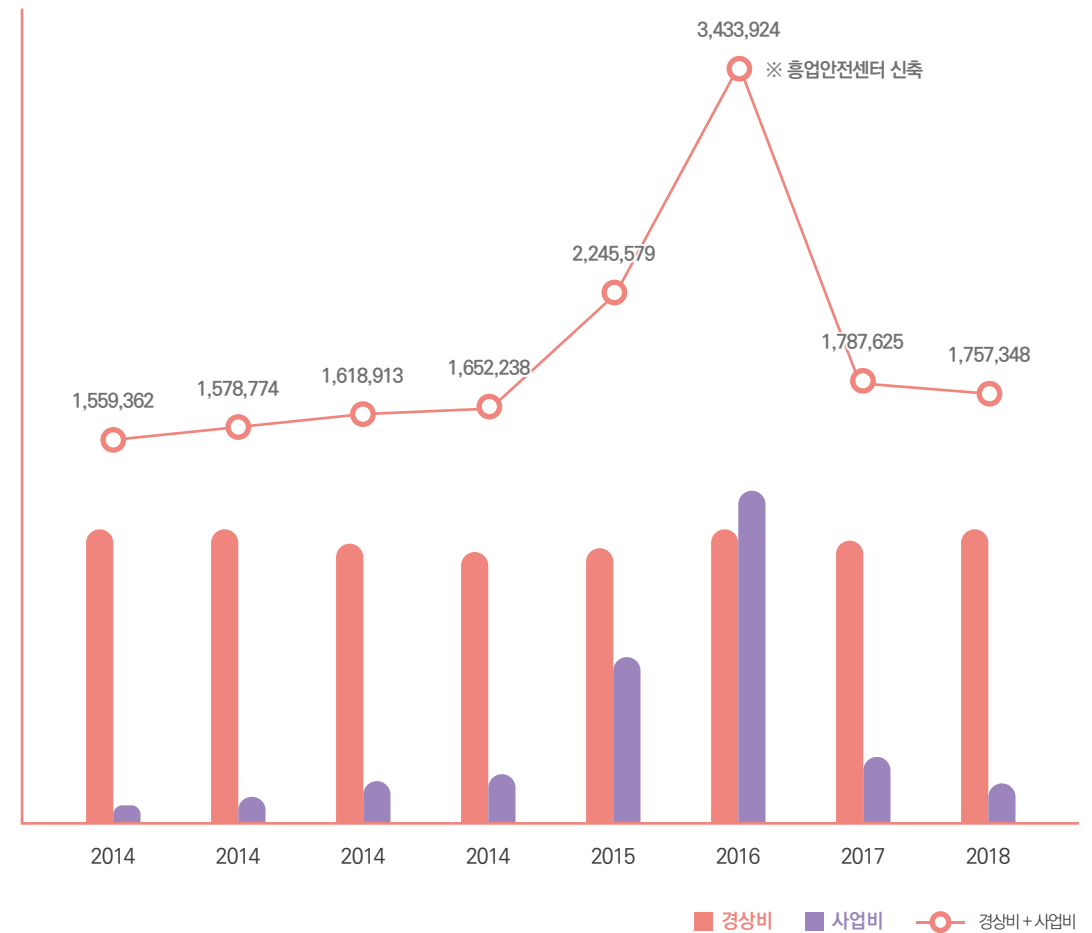
5) 예산

2018년도 원주소방서의 예산은 165억원이다. 소방 예산중 대부분은 인건비가 차지하고, 이어서 화재진압장비 및 구조장비 등을 구입하는 물건비가 차지하고 있다. 2018년 원주소방서의 예산구성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원주소방서의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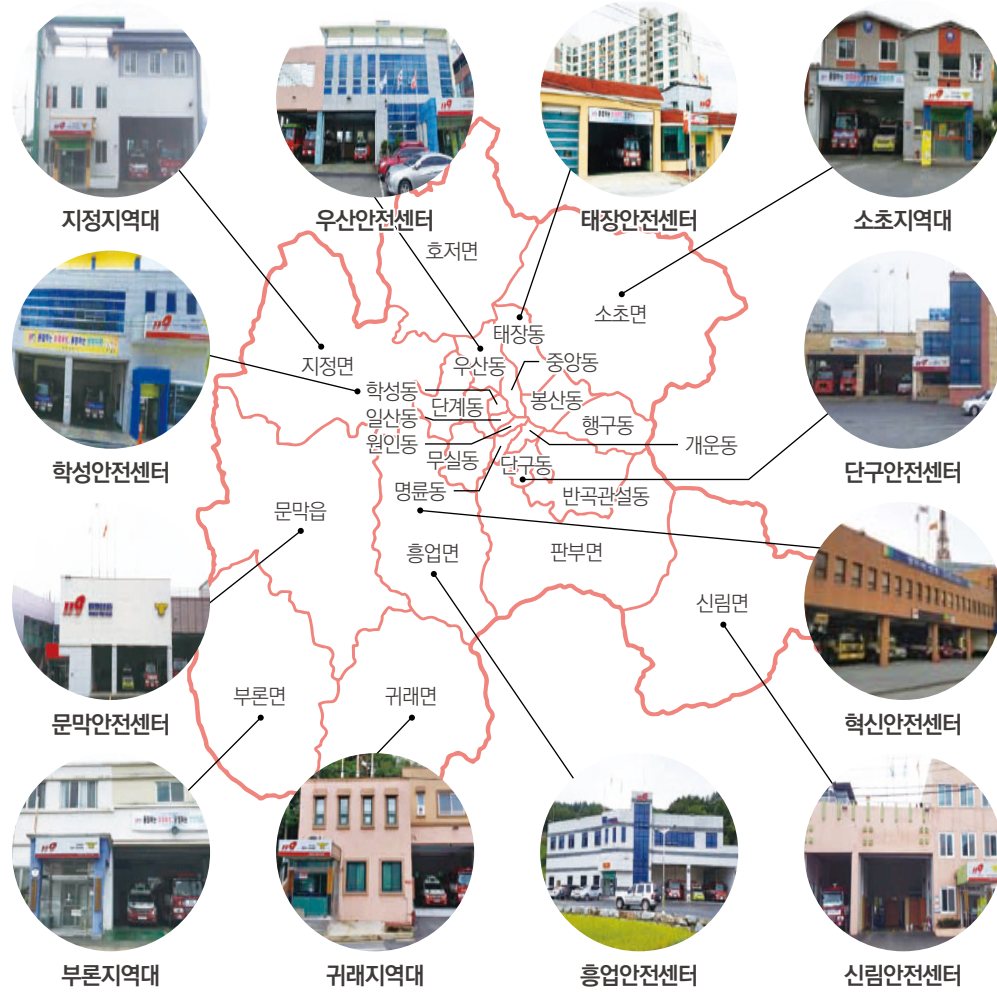
구분	경상비+사업비	경상비	사업비	인건비
2018	1,757,348	1,555,707	201,641	14,837,606
2017	1,787,625	1,452,165	335,460	14,138,464
2016	3,433,924	1,548,184	1,885,740	12,119,455
2015	2,245,579	1,432,579	813,000	11,642,182
2014	1,652,238	1,403,388	248,850	10,893,821
2013	1,618,913	1,414,863	204,050	10,364,167
2012	1,578,774	1,478,374	100,400	9,693,727
2011	1,559,362	1,474,412	84,950	9,270,548



2. 관할구역

총 관할 면적은 867.3km²이며, 이는 전국 163개 시군 중 32번째로 넓다. 8개의 안전센터와 3개의 지역대, 1개 구조대가 관내 공간적·시간적 유리한 위치에서 소방력을 전개하고 있다. 관내에서는 신림안전센터가 127km²로 가장 넓은 면적을 담당하고 있으며, 구조대는 본서에서 교통·산악·수난·기타 안전사고 등에 대응하며 원주시 전 지역을 담당하고 있다.

관서별 관할 지역도



원주시 소방관 1인당 담당인구는 1,213명이다(19년 11월 기준). 전국 평균인 998명에 비해서 다소 많은 인구를 담당하고 있다.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도심권의 인구 밀집지역에서의 소방관 1인당 담당인구는 평균 2,200여명, 도심 외곽권에서의 소방관 1인당 담당인구 800여명으로 평균값만을 보았을 때는 적절한 소방서비스 제공이 어려워보이지만 도심내에서는 좁은 면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도심외곽보다 더 나은 서비스제공이 가능하다. 원주소방서에서는 이와같은 도심외곽의 소방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해 1인 지역대를 2인 지역대로, 외곽 안전센터 진압대원 추가 배치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안전센터별 관할구역 현황

[2019.10월 기준]

	지명	면적(km ²)	인구(명)	소방관 1명당 담당 인구
혁신119안전센터 (38명)	반곡관설동	21	42,244	1,543명
	행구동	13	7,705	
	봉산동	7	8,708	
학성119안전센터 (22명)	중앙동	2	2,919	2,249명
	학성동	0.7	5,195	
	단계동	3.7	27,068	
	원인동	0.5	5,551	
단구119안전센터 (23명)	일산동	0.8	8,761	3,601명
	단구동	4	44,087	
	개운동	1	13,307	
	명륜1동	0.9	9,067	
신림119안전센터 (16명)	명륜2동	0.9	16,369	690명
	신림면	127	3,700	
태장119안전센터 (22명)	판부면	67	7,342	1,987명
	태장1동	3	10,016	
	태장2동	9	24,671	
흥업119안전센터 (22명)	소초면	103	9,028	2,045명
	무실동	9	33,771	
	흥업면	59	9,031	
우산119안전센터 (20명)	귀래면	76	2,197	895명
	우산동	7	14,015	
문막119안전센터 (31명)	호저면	77	3,887	1,253명
	문막읍	104	18,422	
	지정면	89	18,135	
	부론면	82	2,310	

※ 출처 : 원주소방서 소방행정과, 원주시청 홈페이지 '통계연보'

※ 소방관 1인당 담당인구 - 원주시 1,213명 / 강원도 478명 / 대한민국 990명(2019년 11월 기준)

※ 미국 소방관 1명당 담당인구 911명, 일본 소방관 1명당 담당인구 779명

쉬어가기

영광의 순간들(수치)



※ 수치: 유공단체를 포상할 때 주는 끈으로 된 깃발

3. 부서 현황 및 업무 소개

1) 내근부서

가. 소방행정과

소방행정과는 소방활동 지원부서이면서 소방서 운영의 전반의 관한 것을 계획 및 조정, 실시한다. 소방행정계와 예산장비계로 나누어져 있으며, 소방행정계에서는 인사 및 조직, 상훈 및 징계, 후생복지, 의무소방대 및 공익근무요원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예산장비계에서는 국공유 재산/시설 관리, 소방청사, 소방장비, 유무선통신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소방행정과 조직도 및 업무공간



나. 예방안전과

예방안전과는 재난의 예방을 위해 선제적 대민활동인 허가, 점검, 교육 등을 실시한다. 예방홍보계에서는 화재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및 시책 추진, 소방 안전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민원지도계에서는 소방대상물 관리, 각종 민원행정, 위험물에 관한 행정, 건축물 허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제천·밀양 화재참사를 계기로 대형화재 참사의 재발을 방지하고 국가의 적극적인 국민생명보호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법정 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화재안전특별조사 TF를 조직, 한시적('18.7월 ~'19.12월)으로 운영하여 국가의 '화재안전 100년 대계'를 수립하고 원주의 화재 안전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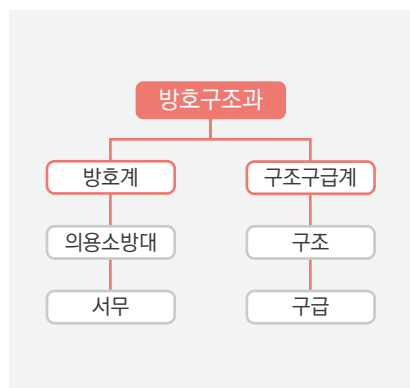
예방안전과 조직도 및 업무공간



다. 방호구조과

방호구조과는 현장 활동 여건 조성, 재난대응체계 형성을 통해 소방활동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체제를 구축하는 부서로 방호사법계와 구조구급계로 나누어져 있다. 방호사법계에서는 소방안전대책 추진, 각종 훈련 통제, 소방 사법권 행사, 의용소방대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구조구급계에서는 긴급구조종합훈련 계획 및 통제, 구조·구급관련 계획 수립 및 조사와 장비 구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방호구조과 조직도 및 업무공간



라. 현장대응과

현장대응과는 소방활동 현장에서의 총 지휘·통제와 현장대원의 전반적인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부서이고 지휘계 3개 팀으로 구성되어있다. 지휘계에서는 평상시 소방출동로 확보를 위한 대국민 홍보 및 조사, 합동훈련 계획 및 시행, 현장활동시 전반적인 지휘·통제, 현장대원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화재조사계는 현장대응과 소속이었으나 2019년 10월 8일부로 강원도 소방본부 광역화재조사계로 통합되었다.

현장대응과 조직도 및 업무공간



2) 외근부서

가. 구조대

구조대는 원주소방서 본서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급증하는 각종 사고현장에서의 구조활동을 위해 1994년 5월 25일에 임시로 발대되었으며, 11월 24일에 정식 발대하였다. 지역적 특성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998년에는 구조대 내 산악구조대가 발대되었다. 산악구조대 내에는 당시 전국 소방서 최초로 인명수색견 2두를 배치하였으며, 이를 운영하는 핸들러 2명을 양성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산악구조대로서의 면모를 갖추었다. 신설 당시 구조대원들은 군 특수부대 출신의 구조특채 임용자였으며, 신설 이후부터 원주 관내에서 발생하는 화재와 교통사고, 산악사고, 수난사고, 기타 안전사고 현장에서 부여된 임무를 완벽히 수행하는 전천후 구조대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인원	총 19명, 팀별 6명
위치	원주시 반곡동 동부순환로 201
설치일자	1994. 5. 25.
운용장비	구조공작차, 생활안전구조차, 산악구조차, 수난구조차
관할지역	원주시 전 지역

나. 혁신안전센터

혁신안전센터는 1972.1.25. 직할파출소로 신설되어 현 청사로는 2019.10.24.에 이전하였다. 관할지역은 반곡관설동, 행구동, 봉산동이나 상황에 따라 관내 전 지역에서 활동한다. 혁신안전센터의 전신은 화재전문진압대로 조직되었던 직할파출소이며, 지금도 원주소방서 관할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화재에 전문 진압대로서 최상의 장비와 최고의 대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인원	총 35명, 팀별 11명
위치	원주시 남원로 487
설치일자	1972. 1. 25.
건축일자	1991. 5. 20.
연·부지면적	2,333㎡ · 3,987㎡
운용장비	펌프차, 물탱크차, 구급차 각 2대 사다리차, 배연차, 화학차
관할지역	반곡관설동, 행구동, 봉산동

다. 학성안전센터

학성안전센터는 도심권의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1991년 7월 19일에 임시로 설치되었고 같은 해 5월 20일에 정식 개소하였다. 두 차례의 이전을 거쳐 현재의 위치에 자리를 잡았으며, 관할지역은 중앙동, 학성동, 단계동, 원인동, 일산동이다. 도심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노령인구에 대한 구급출동 소요가 많으며, 중앙·자유시장과 오래된 상가건물, 단독주택 밀집 등으로 화재발생시 대형재난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을 담당하고 있다. 강원도 내 구급 출동횟수를 비교하면 혁신안전센터 구급대와 함께 1~2위를 하는 곳이 바로 학성안전센터이다. 또한 실제로 '19. 1월 발생한 중앙시장 화재 현장'과 '16. 3월 원주관광호텔 화재 현장'에도 가장 먼저 도착하여 인명구조와 진화활동을 실시하였다.



인원	총 22명, 팀별 7명
위치	원주시 학성길 122
설치일자	1991. 5. 20.(임시개소 1991. 7. 19.)
건축일자	1993. 11. 5.
연·부지면적	138㎡ · 1,157㎡
운용장비	펌프차 2대, 구급차 1대
관할지역	중앙동, 학성동, 단계동, 원인동, 일산동

라. 단구안전센터

단구안전센터는 도심권의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1985년 6월 3일에 신설되었다. 관할지역은 단구동, 행구동, 반곡관설동, 봉산동, 판부면 서곡리 일대이다. 단구동 일대는 1990년대 이후부터 개발되기 시작하여 급격한 인구증가가 이루어졌으며, 최근 반곡동 일대에 조성된 혁신도시로 인해 약 3만명의 인구가 증가하여 단일 센터로는 가장 많은 인구를 담당하고 있다. 구급 출동건수는 명륜구급대, 학성구급대와 함께 강원도에서 가장 많다.



인원	총 23명, 팀별 7명
위치	원주시 강변로 255
설치일자	1985. 6. 3.
건축일자	2007. 9. 28.
연·부지면적	738㎡ · 1,618㎡
운용장비	펌프차, 물탱크차, 굴절차, 구급차
관할지역	단구동, 개운동, 명륜 1·2동

마. 신림안전센터

신림안전센터는 도심 외곽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3년 1월 28일에 신설된 강원도 최초의 농촌형 파출소가 그 전신이다. 신림면 일대의 발달하는 교통망으로 인해 소방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2011년 12월 23일에 안전센터로 승격되었다. 관할지역은 신림면, 판부면이다. 담당하고 있는 인구는 가장 적지만 담당하고 있는 면적은 가장 넓다. 또한 교통량이 많은 5번 국도와 중앙고속도로에 가장 인접하고 있어 교통사고 출동빈도가 높으며 보유하고 있는 펌프차는 일명 '레스큐펌'으로서 각종 구조장비가 적재되어 있어 교통사고 현장에서 전문적인 구조활동이 가능하다.



인원	총 16명, 팀별 5명
위치	원주시 신림면 치악로 27
설치일자	2003. 1. 18.(안전센터 승격: 2011. 11. 23.)
건축일자	2002. 7. 18.
연·부지면적	332㎡ · 521㎡
운용장비	펌프차, 구급차
관할지역	신림면, 판부면

바. 우산안전센터

우산안전센터는 도심권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1975년 5월 24일에 신설되었다. 관할지역은 우산동과 호저면 일대이다. 신설 목적은 지방공업개발 육성을 목적으로 한 국가차원의 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소방수요 충족이었다. 1992년에 35만㎡의 부지가 개발된 산업단지 내에는 현재까지 총 23개 업체가 음식료품, 섬유·의복·피혁, 종이·인쇄출판, 화학 등 약 12개의 종목에서 가동중이며, 총 종업원수는 2,300여명에 이른다. 또한 영동고속도로와 제2영동고속도로의 최근거리 안전센터로서 각종 교통사고에도 대응하고 있다.



인원	총 19명, 팀별 6명
위치	원주시 우산공단길 9
설치일자	1975. 5. 24.
건축일자	2004. 10. 29.
연·부지면적	501㎡ · 877㎡
운용장비	펌프차, 물탱크차, 구급차
관할지역	우산동, 호저면

사. 태장안전센터

태장안전센터는 도심권의 가장 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1998년 1월 17일에 신설되었다. 관할지역은 태장 1·2동과 소초면 일대이다. 태장센터도 우산센터와 신설 목적은 유사하다. 인접한 태장농공단지에서 발생하는 소방수요의 충족과 소초면 일대로의 소방력 전개의 용이성을 위해 신설되었다. 태장센터의 펌프차 1호는 일명 '펌불런스'로 운용된다. 화재진압을 하는 펌프차이지만 필요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가 가능한 AED 등 구급장비를 적재하고 있다. 또한 소초지역대를 운용하고 있으며, 소초지역대에는 2명의 대원이 근무하고 있다.



인원	총 16명, 팀별 5명
위치	원주시 태장공단길4
설치일자	1998. 1. 17.
건축일자	1997. 7. 29.
연·부지면적	349㎡ · 870㎡
운용장비	펌프차, 구급차
관할지역	태장 1·2동, 소초면

아. 문막안전센터

문막안전센터는 시내외곽의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1991년 5월 20일에 신설되었다. 관할지역은 문막읍, 지정면, 부론면 일대이다. 문막읍 일대에는 원주관내 산업·농공단지 10개중 7개가 자리하고 있어 소방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이다. 이 7개의 산업·농공단지에는 현재 140여개 업체에 약 7,000여명의 종사자가 근무중이다. 또한 최근 조성된 원주기업도시와 가장 인접한 안전센터로서의 임무도 추가되어 다양한 상황에서의 대처능력이 요구되고 있다. 영동고속도로가 인접해 있으며, 보유하고 있는 펌프차는 일명 '레스큐펌'으로서 각종 구조장비가 적재되어 있어 교통사고 현장에서 구조활동이 가능하다. 예하에 지정지역대와 부론지역대를 운용하고 있다. 각 지역대에는 2명의 대원이 근무한다.



인원	총 19명, 팀별 6명
위치	원주시 문막읍 문막시장 1길 90
설치일자	1991. 5. 20.
건축일자	2014. 5. 21.
연·부지면적	849㎡ · 967㎡
운용장비	펌프차, 물탱크차, 구급차
관할지역	문막읍, 지정면, 부론면

자. 흥업안전센터

흥업안전센터는 시내외곽의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가장 최근인 2016년 11월 4일에 신설되었다. 관할지역은 무실동, 흥업면, 귀래면 일대이다. 가장 최근에 신설된 안전센터이며, 혁신 119안전센터가 반곡동으로 이전을 함으로써 관할구역이 늘어났다. 원주-충주간 자동차전용도로인 국도 19호선에 인접하고 있으며, 펌프차가 일명 '레스큐펌'으로 운용되고 있어 교통사고에도 대응하고 있다. 예하에 귀래지역대를 운용하고 있으며, 귀래지역대에는 2명의 대원이 근무한다.



인원	총 16명, 팀별 5명
위치	원주시 흥업면 북원로 1569-81
설치일자	2016. 11. 4.
건축일자	2016. 10. 11.
연·부지면적	874㎡ · 2,328㎡
운용장비	펌프차, 구급차
관할지역	무실동, 흥업면, 귀래면

차. 흥업안전센터 귀래지역대



인원	총 6명, 팀별 2명
위치	원주시 귀래면 운남리 5
설치일자	2000. 12. 20.
건축일자	2000. 11. 14.
연·부지면적	214㎡ · 314㎡
운용장비	펌프차, 구급차
관할지역	귀래면

카. 태장안전센터 소초지역대



인원	총 6명, 팀별 2명
위치	원주시 소초면 치악로 2842
설치일자	1993. 12. 2.
건축일자	2003. 7. 27.
연·부지면적	261㎡ · 823㎡
운용장비	펌프차, 구급차
관할지역	소초면

타. 문막안전센터 지정지역대



인원	총 6명, 팀별 2명
위치	원주시 지정면 지정로 285
설치일자	1989. 12. 2.
건축일자	2005. 12. 15.
연·부지면적	311㎡ · 826㎡
운용장비	펌프차, 구급차
관할지역	지정면

파. 문막안전센터 부론지역대



인원	총 6명, 팀별 2명
위치	원주시 부론면 부귀로 6
설치일자	1992. 2. 1.
건축일자	2003. 11. 27.
연·부지면적	302㎡ · 402㎡
운용장비	펌프차, 구급차
관할지역	부론면



여기서 잠깐!
알아두면 좋은 소방 역사

소방공무원법의 변천

가. 소방공무원법 제정

1) 제정의 의의

건국 이래 소방공무원은 독립된 신분법을 가지지 못하고 타공무원의 신분법에 의하여 규율되어 오던 중 1970년부터 소방사무가 국가사무에서 지방자치단체사무로 이관되는 추세에 따라 1973년 2월 8일 법률 제2502호로 지방소방공무원법이 처음으로 제정되었으나 국가직 소방공무원은 경찰공무원의 소방직으로 남게됨에 따라 국가직소방공무원의 신분을 규율하는 신분법의 제정이 요구되었으며, 특히 경찰에서 관장하던 소방사무가 민방위체제로 이관됨에 따라 소방업무는 독립하였으나 국가직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경찰공무원법을 그대로 적용하게 됨으로써 기구와 신분이 이원화되어 있어 법운영상 불합리하였다.

이러한 모순 점을 배제하고자 1997년 12월 31일 법률 제304호로 “소방공무원법”이 제정 시행되었는데 그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독자적인 신분법을 가진 것이다. 소방공무원만을 규율하는 독자적인 신분법을 가질 수 있게 되어 소방제도와 소방업무의 특수성에 맞추어 소방공무원의 신분 제도를 운영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둘째, 단일신분법을 가진 것이다. 공무원 신분제도는 그 고용주체에 따라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으로 나누어져 있고 신분법도 각각 분리되어 있다. 소방공무원 신분도 국가소방공무원과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완전히 분리된 현실에서 그 신분을 단일법으로 규율하였다는 것은 입법기술면에서나 법의 효율적 운영면에서 소방공무원법만이 지니는 특징으로 큰 의의를 갖는 것이다. 법 제정과정에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을 단일법으로 규율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단일법으로 규율할 수 없다는 뚜렷한 이론이 없고 오히려 법제정이나 운영면에서 능률적이며 발전적인 입법으로 인정받았던 것이다. 이러한 단일법의 제정으로 법시행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예규 등 많은 인사법령제정이 간소화되었고 획기적인 인사행정을 운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제도상의 발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 후 수 차례의 개정을 통한 미비점 보완으로 이제는 타공무원법에 손색이 없는 완숙한 단계의 신분법으로 자리잡았는데 1977년 소방공무원법 제정 이후부터 현재까지 발전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2) 제정 소방공무원법의 주요내용

1977년 12월 31일 법률 제304호로 제정된 소방공무원법은 전문 60조, 부칙 8조로 구성되어있는데 그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단일법으로 규율

국가소방공무원의 신분을 경찰공무원법에서 분리하여 지방소방공무원으로 통합된 단일신분법으로 규율하였다.

나) 직무내용의 명문화

소방공무원의 직무를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예방·경계 또는 진압하는 것으로 정하였다.(제2조)

다) 계급구조 및 명칭을 일원화(제3조)

① 계급구조를 9단계로 조정

- 국가직 : 7단계에서 “소방정감”, “소방감” 계급 신설
- 지방직 : 10단계에서 “지방소방사감” 삭제

② 계급명칭일원화

- 소방총경 → 소방정 - 소방경정 → 소방령 - 소방경감 → 소방경 - 소방경위 → 소방위
- 소방사 → 소방장 - 소방장 → 소방교 - 소방원 → 소방사

계급대비표

종전계급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지방소방공무원	
소방총경 소방경정 소방경감 소방경위 소방사 소방장 소방원	소방사감 소방정감 소방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소방정감 소방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라) 임용 결격사유(제9조)

- ① 금고 이상 형집행 또는 집행정지후 3년 미경과자를 5년 미경과자로 하고
- ②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기간 완료후 1년 미경과자를 2년 미경과자로 하며
- ③ 금고 이상 선고유예기간중인 자를 형선고유예기간중인 자로 하고
- ④ 파면처분 후 2년 미경과자를 자격정지 또는 상실된 자와 파면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 강화함.

마) 국가와 지방소방공무원 상호 특채시 시험면제(제16조)

지방소방공무원을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시험을 실시하고, 국가소방공무원을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할 경우에는 시험을 면제하던 것을 상호교류 임용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방소방공무원을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도 특별채용시험을 면제하도록 함.

바) 소방간부후보생의 시보임용(제18조)

소방간부후보생이 소방위로 임용될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거치지 않던 것을 시보임용을 거치도록 하되, 교육훈련기간을 산입토록 하여 교육훈련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에 미달되는 잔여기간을 시보로 임용하도록 함.

사) 병역복무를 위한 휴직자 후임 즉시보충(제19조)

소방공무원이 병역의무를 위하여 휴직한 경우 별도정원을 인정하여 후임자를 즉시 보충할 수 있도록 함.

아) 승진심사와 시험의 병행(제20조)

지방소방공무원의 승진은 심사승진에 의하도록 되었던 것을 소방정예의 승진은 심사에 의하고 소방령이하에의 승진은 심사와 시험승진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되, 소방위예의 승진은 시험승진을 하도록 함.

자) 교육훈련기관 설치(제29조)

내무부장관은 소방학교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시·도는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차) 제복착용(제38조)

소방공무원은 제복을 착용하고 무기를 휴대할 수 있도록 되었던 것을(경찰공무원법 제42조) 제복착용만 규정함.

카) 강임규정 신설(제42조)

경찰공무원법에는 강임규정이 없었고 지방소방공무원법은 임용령에 규정하고 있었으나, 강임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을 제약하는 사항이므로 강임 요건과 강임된 자의 처우에 관하여 본법에서 규정함.

타) 계급정년기간 단축조정(제3조)

- 소방정감 7년 → 5년(2년 감)
- 소방감 10년 → 7년(3년 감)
- 소방정 10년 → 10년

- 소방령 14년 → 14년

- 소방경 16년 → 16년

파) 파면처분 후임자 보충기간(제49조제4항)

파면 또는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은 소방공무원이 소청심사를 청구한 때에도 후임자를 보충 발령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을 처분 일로부터 30일 이내에는 후임자 보충을 할 수 없도록 함.

하) 징계의 종류에서 “정직” 삭제(제52조)

종전		소방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지방소방공무원법	
파면 정직 감봉 견책	파면 - 감봉 견책	파면 - 감봉 견책

거) 징계 집행권자(제54조)

종전		소방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지방소방공무원법	
- 파면·정직 : 임용권자 - 감봉·견책 : 징계 의결을 요구한자	임용권자가 집행한다	- 파면 : 임용권자 - 감봉·견책 ·소방감이상 → 내무부장관 ·소방정이하 지방소방공무원 →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

너) 행정소송의 피고(제55조)

국가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받은 시·도지사가 파면 등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종전에는 행정소송의 피고를 내무부장관으로 하였던 것을 처분을 행한 시·도지사를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도록 함.

더) 인사위원회 폐지(제10조, 제53조)

지방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및 징계의결을 관장하던 “지방 소방공무원 인사위원회”를 폐지하여 채용시험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징계의결은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관장하도록 함.

러) 승진심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의 구성 통합(제21조, 제53조)

경찰공무원법(종전)	소방공무원법
- 중앙승진심사위원회 -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소방공무원 승진심사위원회
- 중앙징계위원회 - 보통징계위원회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머) 벌금액의 현실화(제60조)

처벌대상	종전	소방공무원법
시험 또는 임용방해 행위자	1년이하 징역	1년이하 징역
인사부정 행위자	2만원이하 벌금	10만원이하 벌금
정치운동을 한 자	2년이하 징역	2년이하 징역
집단적 행위를 한 자	5만원이하 벌금	20만원이하 벌금

버) 타 법령의 폐지 및 개정(부칙 제2조, 제3조)

지방소방공무원법을 폐지하고 경찰공무원법중 소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나. 제1차 소방공무원법 개정(1980. 1. 4 법률 제3230호)

1) 개정의의

소방경 이하의 연령정년을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양양하고 관비 장학제도를 신설하여 우수한 소방공무원의 확보를 가능하게 하고, ① 장기훈련자의 파견기간중 별도의 정원을 인정하여 충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파면처분이나 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 되었던 자가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의 취소결정 또는 판결을 받은 경우별도 정원을 인정하여 직장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확실히 함으로써 신분보장을 강화하였으며, ② 직권휴직제도에 소원휴직제도를 도입하여 기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2) 주요골자

가) 승진시험 응시대상자 범위조정(제11조)

시험실시권을 위임받은 소방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국가소방공무원 승진시험은 대상 소방기관에 소속된 모든 국가소방공무원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지방소방공무원 승진시험을 요구한 당해 지방자치기관에 소속된 모든 지방소방공무원에게 공개하도록 함.

나) 관비장학금 지급제도 신설(제17조)

각급 학교 재학생중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자는 재학중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후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소방공무원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다) 시보 임용제도 보완(제18조)

휴직기간 및 징계에 의한 감봉처분기간만 시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던 것을 직위해제 기간도 이에 포함하도록 함.

라) 장기휴직자 등의 후임자 보충(제19조제2항 및 제3항)

소방공무원이 장기훈련을 위한 파견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이탈하게 되거나 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 처분되었던 자가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의 취소결정 또는 판결을 받았을 경우 해당 계급에 해당하는 그 기관의 정원을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충원할 수 있도록 함.

마) 소방공무원 공로퇴직수당 지급제도 신설(제26조의 2)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장기 근속한 자가 질병이 발생하여 정년전에 자진퇴직하는 경우에는 공로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바) 청원휴직제도 신설(제4조제2항)

종전의 직권휴직 사항 중 소방공무원의 국외유학 또는 국제기구예의 일시취업을 청원휴직사항으로 분리함.

사) 소방공무원 정년제도 개선(제48조제1항제2호·3호 및 동조제4항)

① 계급정년 조정 : 소방정감을 5년에서 7년으로, 소방감을 7년에서 8년으로 늘이고,

② 연령정년연장 :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에 대한 연령정년을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소방장 이하 소방관으로서 소방차운전, 화재감식 기타 대통령령으로 특수분야에 10년이상 근무한 자는 5년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정년퇴직 시기를 년2회(6월 30일, 12월 31일)로 함.

아) 타 공무원에서 받은 징계효력의 승계(제48조제5항)

타법의 적용을 받던 공무원이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전직에서 받은 징계효력은 이 법에 의한 징계효력으로 보도록 승계조항을 신설함.

다. 제2차 소방공무원법 개정(1982. 12. 31 법률 제3593호)

- 전문개정

1) 개정의의

개정된 국가공무원법(1981. 4. 20 법률 제3447호) 및 지방공무원법(1981. 4. 20 법률 제3448호)에 의하면 소방공무원도 원칙적으로 이들 법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① 현행 소방공무원법중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과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하여 특별히 소방공무원에게만 적용할 특례규정만을 정하고 ② 소방공무원의 임용·복무·신분보장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있어서도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과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다.

2) 주요골자

가) 소방공무원법을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함.(제1조)

나) 소방공무원의 복무, 임용의 원칙, 결원보충 방법, 평등의 원칙 등 불필요하거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함.(현행 제2조, 제4조, 제6조 내지 제9조, 제11조, 제17조, 제17조의 2, 제19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1항, 제26조의 2, 제27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1항, 제33조 1항, 제34조, 제36조, 제37조, 제40조 내지 제47조, 제49조 내지 제52조, 제57조, 제58조, 제60조 삭제)

다)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과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신설 또는 조정함.

- ① 퇴직한 소방공무원을 특별채용하는 경우 퇴직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한하여 특별채용할 수 있던 것을 3년 이내로 연장함.(제6조제2항제1호)
- ② 능력 있는 자와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국어에 능통한 자를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채용에 있어 제한경쟁의 방법에 의할 수 있도록 함.(제6조제2항제6호,제4항)
- ③ 경찰공무원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특별채용시험에 의할 수 있도록 함(제6조제2항제7호)
- ④ 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던 것을 2년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으로 함(제11조제3항)
- ⑤ 순직자, 특별유공자의 청백사, 명예퇴직자 등도 특별승진 시킬 수 있도록 함.(제14조)
- ⑥ 소방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처리를 위하여 내무부, 지방자치단체, 소방학교, 소방서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고충처리위원회를 두도록 함(제22조)
- ⑦ 소방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과 자문기관으로 내무부와 시·도에 인사위원회를 두도록 함.(제3조, 제4조)
- ⑧ 지방소방위예의 승진시험을 시·도지사가 실시하던 것을 내무부장관이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3조, 제4조)
- ⑨ 내무부에 중앙승진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함.(제13조)
- ⑩ 소방공무원의 계급정년을 다음과 같이 조정함.(제20조제1항)
 - 소방정감(지방소방정감) : 7년 → 4년
 - 소방감(지방소방감) : 8년 → 6년
 - 소방정(지방소방정) : 10년
 - 소방령(지방소방령) : 14년 → 12년
 - 소병경(지방소방경) : 16년 → 14년

라. 제3차 소방공무원법 개정(1985. 12. 28 법률 제3800호)

1) 개정의의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의 연령정년을 연장 조정하여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소방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당해 소방공무원의 사기 및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소방업무의 경험이 있는 의용소방대원을 소방관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방공무원의 인사제도일부를 합리적으로 보완하고자 하였다.

2) 주요골자

가) 의용소방대원 특채신설(제6조제2항제8호)

소방업무에 경험이 있는 의용소방대원을 특별채용시험에 의하여 시·군의 지방소방사 계급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으로 신규채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의용소방대원의 근무의욕을 높이는 한편, 소방인력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도록 함.

나) 승진시험의 위탁실시(제9조제3항)

서울특별시·직할시장 또는 도지사가 실시하는 지방소방령 및 지방소방경에의 승진시험을 그대상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실시권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소방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다) 연령정년 연장(제20조)

소방경(지방소방경)·소방위(지방소방위)의 연령정년을 현행 55세에서 58세로, 소방장(지방소방장)이하의 연령정년을 현행 50세에서 55세로 각각 상향조정하고 소방장(지방소방장)이하의 소방공무원으로서 소방차운전, 화재감식,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기술분야에 10년 이상 근무한 자의 연령정년을 5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을 3년의 범위안에서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음.

마. 제4차 소방공무원법 개정(1991. 12. 14 법률 제4420호)

1) 개정의의

소방공무원이 신분상 안정감을 가지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 사회전반의 고령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하여 소방경 이하 계급의 연령정년을 3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법 개정으로 소방업무 소관이 특별시·직할시, 시·군에서 시·도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2) 주요골자

가) 소방공무원 임용권(제5조)

지방소방공무원의 임용권자를 종전의 지방자치단체(특별시·직할시·시군)의 장에서 시·도지사로 변경함.

나) 소방경·지방소방경, 소방위·지방소방위 정년연장(제20조제1항 및 제3항, 부칙 제3조1항)

소방경, 소방위 소방공무원의 연령정년을 3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정년연장에 따른 인사정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함.

다) 소방장·지방소방장 이하 정년연장(제20조제1항 및 제3항, 부칙 제3조제2항 및 제3항)

소방장 이하 소방공무원의 연령정년을 55세에서 58세로 하고 정년연장에 따른 인사정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함.

바. 제5차 소방공무원법 개정(1995. 12. 6 법률 제4992호)

1) 개정의의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또는 구조·구급업무 수행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순직군경·공상군경과 같은 보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소방업무를 효율적으로 총괄지휘할 수 있도록 국가소방공무원에 일반직 1급에 상당하는 소방총감 계급을 신설하며, 지방자치단체 소속 국가직소방공무원의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전환에 따른 관련 제도를 보완·개선하였다.

2) 주요골자

가) 소방총감계급 신설(제2조제1호)

소방업무를 효율적으로 총괄 지휘할 수 있도록 국가소방공무원에 일반직 1급에 상당하는 소방총감계급을 신설함.

나) 지방소방간부후보생 선발 신설(제9조제4항 및 제5항)

내무부장관은 우수한 소방인력의 충원을 위하여 시·도지사에게 지방소방간부후보생의 선발시험의 실시를 요청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함.

다) 보훈혜택 신설(제14조의 2)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또는 구조·구급업무 수행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순직군경·공상군경과 같은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라) 소청심사권 이양(제21조)

지방소방공무원 소청심사권을 시·도소청심사위원회로 이양함.

사. 제6차 소방공무원법 개정(1997. 1. 13 법률 제5291호)

1) 개정의의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취업보호와 관련하여 기업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국가유공자의 인정기준을 강화하여 국가유공자의 위상을 높이며,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1997년 1월 13일 법률 제 25291호로 국가유공자등예우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라

① 군인·경찰 기타 공무원의 경우 폭행·교통사고등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때에도 국가유공자로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들을 국가유공자와 구분하여 물질적 보상만 행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위상을 높이하고자 하였다.

2) 주요골자

가) 제14조의2제1항 및 제2항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각각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개정함.

아. 제7차 소방공무원법 개정(1998. 9. 19 법률 제5569호)

1) 개정의의

국가공무원법의 개정(1998년. 2. 24. 법률 제5527호)으로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의 정년이 1년씩 단축되고 정년연장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소방공무원의 연령정년을 1년씩 단축하고 연령정년연장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소방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며, 소방장에서 초급간부인 소방위로 승진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승진시험에 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승진시험제도와 승진심사제도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주요골자

가) 소방위·지방소방위 심사승진제도 도입(제12조제2항제2호, 부칙 제1조)

소방위·지방소방위에의 승진을 시험승진으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을 2001년 1월 1일부터는 심사승진도 병행할 수 있게 함.

나) 연령정년단축(제20조제1항제1호) : 소방공무원의 연령정년을 1년씩 단축함.

- 소방령·지방소방령 이상 61세 → 60세

- 소방경·지방소방경 이하 58세 → 57세

다) 정년퇴직일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기준 조정(부칙 제2조)

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정년 퇴직일을 다음과 같이 함.

- 1999년 12월 31일자 퇴직자는 1999년 6월 30일에

- 2000년 6월 30일자 퇴직자는 1999년 9월 30일에 당면퇴직

② 종전 규정에 의한 정년을 연장받아 재직중인 자는 1998년 12월 31일에 종료

③ 2000년 6월 30일 이전에 자진하여 정년 전에 퇴직하는 자는 명예퇴직수당지급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

자. 제8차 소방공무원법 개정(2001. 3. 28 법률 제6436호)

1) 개정의의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추진하여온 사법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법조인의 자격을 검정하는 사법시험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

여 법학교육 및 국가사법제도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종전의 사법시험령을 대체할 사법시험법의제정에 따라 이와 관련된 소방공무원법을 개정하였다.

2) 주요골자

- 가)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에 있어 사법시험법에 의한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를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함.
(제6조제2항제4호)

차. 제9차 소방공무원법 개정(2001. 5. 24 법률 제6485호)

1) 개정의의

화재진압, 구조·구급업무 수행중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소방공무원외에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중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도 국가유공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 보호혜택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2) 주요골자

- 가) 보호혜택 대상자 범위의 확대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2제1항중 “화재진압 또는 구조·구급사무수행중 사망한자(상이로 인하여 사망한자를 포함한다) 및 상이(화재진압 또는 구조·구급업무수행으로 인한질병을 포함하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정도)”를 “화재진압, 구조·구급 업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중 사망한 자(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상이(화재진압, 구조·구급 업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으로 인한 질병을 포함하며,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으로 개정함으로써 보호대상자의 범위를 직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도 국가유공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함.

카. 제10차 소방공무원법 개정(2001. 12. 29 법률 제6551호)

1) 개정의의

소방공무원들의 전문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이들이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소방정은 10년에서 11년으로, 소방령은 12년에서 14년으로 계급정년을 각각 연장하고, 현재 14년으로 되어 있는 소방경의 계급정년을 폐지하였다.

2) 주요골자

- 가) 계급정년의 연장(제20조제1항제2호)

- 소방령·지방소방령 : 4년
- 소방감·지방소방감 : 6년
- 소방정·지방소방정 : 11년
- 소방령·지방소방령 : 14년

- 나) 계급정년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2항)

- 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에 계급정년에 달하는 소방령·지방소방령으로 재직중인 자는 제2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3년에 계급정년에 달하는 것으로 조정함.

※ 출처 : 소방방재청 「한국소방행정사」 2009년

쉬어가기

펌불런스(Pumbulance)란 펌프차(소방차)와 앰블런스(구급차)를 조합한 용어로써, 원거리 지역에서 발생한 구급상황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펌프차를 활용하는 체계를 말한다. 펌불런스 운영체계는 2가지 유형으로 운영되며 첫 번째 유형은 관할 구급차가 환자이송 등으로 공백이 발생한 동안 구급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구급장비를 탑재한 펌프차가 1차 출동을 하고 인근 구급차가 동시 출동하는 체계이고, 두 번째 유형은 고속도로 등 대원이 위험할 수 있는 장소로의 구급출동이 있는 경우 구급차와 펌프차가 동시 출동해서 대원을 보호하는 체계이다.

도내 펌불런스 운영실적

구분	계	중증환자	교통사고	위험지역	거동불편	주취
계	245	97	22	24	62	50
2018	63	37	3	6	17	-
2017	51	22	2	5	11	11
2016	38	16	3	8	10	1
2015	52	15	13	1	9	24
2014	41	7	1	4	15	14

펌불런스 구성체계



소방펌프차



자동제세동기 등 23종

레스큐펌(RescuePump)이란 펌프차와 레스큐(구조차)를 조합한 용어로써 구조대가 위치한 곳으로부터 원거리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시외지역의 안전센터에 배치한 특수차량이다. 보통의 펌프차에는 화재진압을 위한 장비만 적재되어 있지만 레스큐펌에는 유압장비, 로프 등이 적재되어 있어 교통사고·단순 안전사고에 적시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레스큐펌 구성체계



소방펌프차



유압엔진 등 10여종

※ 펌불런스 + 레스큐펌
: 신림·태장·문막·흥업안전센터
※ 펌불런스
: 우산안전센터

제2장 소방보조조직의 변천

제1절 의용소방대

1. 의용소방대 발족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 초기까지 자연부락 단위의 자위 소방 활동이 자생적으로 실시되어 왔다. 1437년(세종 19) 경상감사의 요청으로 세종대왕이 주민 자위활동(무기소지 및 사용)을 허락하였고 '지방 의용 금화조직'이 공인되어 각 동리에 재난이 있을 때마다 청·장년들이 자력으로 방재활동을 하기 시작한 것이 오늘날 의용소방대의 효시가 되었다. 원주의 의용소방대는 1950년 이전에 7개대가 설치되었으며, 1946년에는 도내 최초로 문막읍에 여성소방대가 발족하였고 1949년 원주시 여성소방대가 발족함으로써 도내 두 번째 여성소방대가 되었다. 이후 발전을 거듭한 원주시 의용소방대는 2019년 현재 21개대 565명이 원주 관내 전 지역에서 소방 보조 인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	---	---	---

- ① 원주시 의용소방대 시동식(1967년)
- ② 원주시 의용소방대 시동식 기념 가두행진(1967년)
- ③ 원주시 여성의용소방대 발대식(1982년)
- ④ 원주 의용소방대장 합동 이취임식(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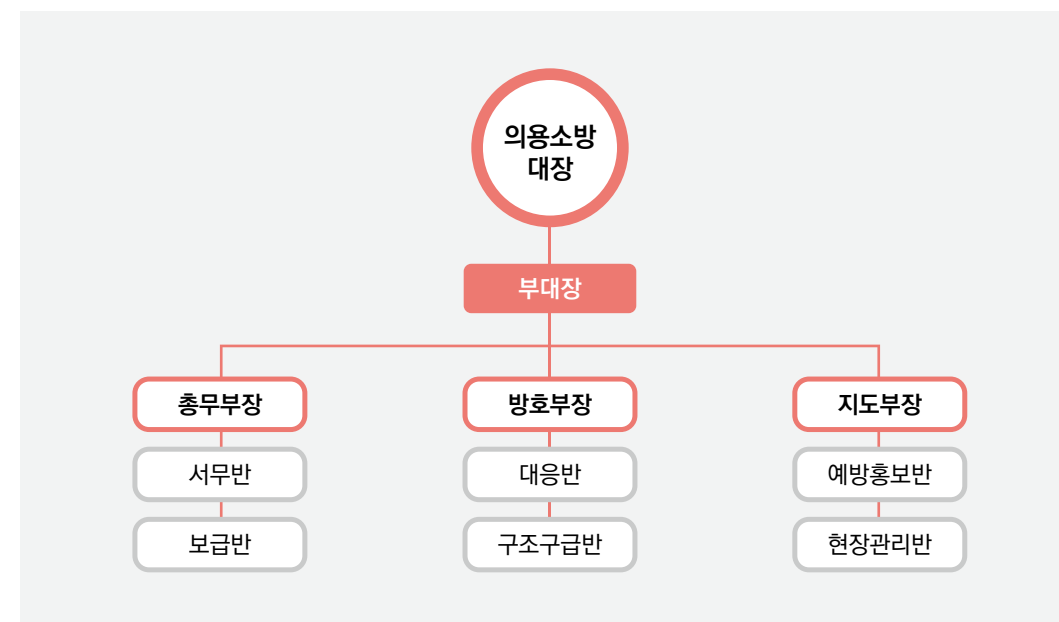
2. 의용소방대 관련 법령의 변천 과정

의용소방대는 1954년에 이르러 전국적인 의용소방대 재구성이 되어 전국 단위 단체가 되었고 1992년 12월경 「의용소방대 규정」지침이 만들어져 최초의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이전에는 「소방법」에 근거하여 조직되어 운영되어 왔다. 2001년 1월경에는 「소방기본법」에 '전국 의용소방대 연합회 설치 규정'이 명시되어 연합회가 발전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었고, 2010년 6월경에 제정된 「시·도의용소방대 설치조례 표준안」을 통해 시·도별 자체적으로 기존에 제정·시행하던 조례를 정비하여 통일하는 안이 마련되었지만 의용소방대원의 정년, 임명, 소집수당의 지급, 교육훈련의 획수 및 방법, 성과보상 등 규정이 시·도별로 상이한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의용소방대에 대한 보상, 법률적 근거

등 미비한 점을 개선하고 의용소방대에 관한 규정을 법으로 제정하여 의용소방대의 현장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가 전무한 상황이었다. 이에 제19대 국회에서 2012년 9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여 2013년 12월에 통과되었으며, 이때부터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져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의용소방대의 임무로는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구조·구급업무의 보조, 화재 등 재난발생시 대피 및 구조업무의 보조, 화재예방업무의 보조를 주요 임무로 하고, 법에서 위임된 시행규칙에서는 집회·공연 등 각종 행사장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과 주민생활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그 밖의 화재예방 홍보 등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주요임무로 하고 있다.

의용소방대 조직도



①	②	③
---	---	---

- ① 귀래 의용소방대(1950년)
- ② 국가 안보정세 설명회(1984)
- ③ 강릉 수해현장 복구 지원활동(1992년)



의용소방대 복제

의용소방대장 정모(남자)		의용소방대장 정모(여자)	
			
부대장 정모(남자)	부대장 정모(여자)	대원 기동모	
			
의용소방대 정복	기동복	방한복	조끼
			
지휘장	깃표장	소매표장	가슴표장
			
직위표장		직위표	배지
			

3. 일반현황

1935년부터 설치되기 시작한 원주시 의용소방대는 2019년에 이르러 21개대, 565명의 의용소방대원들이 조직되어 있다. 또한 산악구조와 응급처치 특기를 가진 전문 의용소방대가 1개대 23명으로 조직되어 있어 재난현장에서 소방보조인력으로서 그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황둔 산악 의용소방대는 우리나라의 100대 명산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감악산에서의 구조활동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황둔 의용소방대원들은 황둔리에서 50년 이상 거주하며 법정·비법정 등산로 이외에도 일반인들은 알지 못하는 등산로까지 훤히 꿰차고 있어 119구조대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여성 의용소방대원들의 응급처치 훈련(1975년)



응급처치 전문 의용소방대원의 심폐소생술 시범(1992년)



여성 의용소방대원이 군 장병들에게 심폐소생술 교육(2018년)

원주시 의용소방대 현황

설치연도	내용	인원		청사 위치
		정원	현원	
1935년	귀래남성대	30	21	귀래면 운남길 5
1940년	신림남성대	30	25	신림면 치악로 27
	문막읍 남성대	50	39	문막읍 문막시장1길 90
1945년	흥업남성대	30	26	흥업면 복원로 1569-81
1954년	원주남성대	50	50	원주시 강변로 255
1961년	부론남성대	30	25	부론면 부귀로 6
1964년	지정남성대	30	29	지정면 지정로 285
1970년	원주여성대	40	40	원주시 강변로 255
	판부남성대	30	27	판부면 영원산성길 51
1980년	소초남성대	30	23	소초면 치악로 2842
	호저남성대	30	23	호저면 호저로 404
1999년	문막여성대	40	31	문막읍 문막시장1길 90
2007년	소초여성대	25	23	소초면 치악로 2842
	흥업여성대	25	21	흥업면 복원로 1569-81
	판부여성대	25	23	판부면 영원산성길 51
2008년	신림여성대	25	24	신림면 치악로 27
	호저여성대	25	22	호저면 호저로 404
	지정여성대	25	25	지정면 지정로 285
2009년	귀래여성대	25	18	귀래면 운남길 5
	부론여성대	25	24	부론면 부귀로 6
2016년	황둔 산악전문대	30	22	신림면 신림황둔로 1213

※ 출처 : 원주소방서 방호구조과

㉠ 원주남성의용소방대

정원 / 현원	50 / 50	소재지	원주시 강변로 255
발대일	1954. 3. 8. (경찰산하조직) ※ 1970년 5월 원주소방서 승격, 산하 원주의용소방대 창설		
원주남성의용소방대 역대 대장			
▶ 1대	고만충	1970 ~ 1976	
▶ 2대	강남원	1976 ~ 1982	
▶ 3대	이해중	1982 ~ 1984	
▶ 4대	정현준	1985 ~ 1989	
▶ 5대	강관치	1990 ~ 1992	
▶ 6대	신현범	1992 ~ 2000	
▶ 7대	정경화	2000 ~ 2006. 4. 20.	
▶ 8대	함성호	2006. 4. 20. ~ 2010. 3. 16.	
▶ 9대	조성일	2010. 3. 16.~ 2016. 3. 15.	
▶ 10대	성광호	2016. 4. 1. ~ 2019. 3. 31.	
▶ 11대	이동원	2019. 4. 1. ~ 현재	



㉡ 원주여성의용소방대

정원 / 현원	40 / 40	소재지	원주시 강변로 255
발대일	1970. 5. 원주소방서 승격 산하 원주부녀의용소방대 창설		
원주여성의용소방대 역대 대장			
▶ 1대	이재순	1970 ~ 2000	
▶ 2대	박종남	2000 ~ 2006	
▶ 3대	이찬숙	2006 ~ 2009. 6. 30.	
▶ 4대	이현자	2009. 6. 30. ~ 2012. 6. 25.	
▶ 5대	박명자	2012. 6. 26. ~ 2015. 6. 25.	
▶ 6대	김영연	2015. 7. 1. ~ 2018. 6. 30.	
▶ 7대	서정애	2018. 7. 1. ~ 현재	



㉠ 흥업남성의용소방대

정원 / 현원	30 / 26	소재지	원주시 흥업면 복원로 1569-81
발대일	1945. 5. 20.		
흥업남성의용소방대 역대 대장			
▶ 1대	정상봉	1945 ~ 1951	
▶ 2대	김동국	1952 ~ 1959	
▶ 3대	신동원	1960 ~ 1964	
▶ 4대	한용희	1965 ~ 1970	
▶ 5대	민은식	1971 ~ 1974	
▶ 6대	간춘식	1975 ~ 1978	
▶ 7대	류재형	1979 ~ 1982	
▶ 8대	김형광	1983 ~ 1985	
▶ 9대	김기열	1986 ~ 1987	
▶ 10대	한상용	1988 ~ 1990	
▶ 11대	김성조	1991 ~ 2001	
▶ 12대	김용근	2002 ~ 2004	
▶ 13대	강응조	2005 ~ 2008. 2. 13.	
▶ 14대	신동수	2008. 2. 13. ~ 2011. 2. 15.	
▶ 15대	김성철	2011. 2. 15. ~ 2014. 2. 10.	
▶ 16대	원인규	2014. 2. 11. ~ 2016. 12. 31.	
▶ 17대	강일수	2017. 1. 1. ~ 현재	



㉡ 흥업여성의용소방대

정원 / 현원	25 / 21	소재지	원주시 흥업면 복원로 1569-81
발대일	2007. 1. 11.		
흥업여성의용소방대 역대 대장			
▷ 1대	오오석	2007. 1. 11. ~ 2013. 1. 8.	
▷ 2대	이은희	2013. 1. 9. ~ 2018. 12. 31.	
▷ 3대	조 순	2019. 1. 1. ~ 현재	



● 귀래남성의용소방대

정원 / 현원	30 / 21	소재지	원주시 귀래면 운남길 5
발대일	1935. 9. 20.		
귀래남성의용소방대 역대 대장			
▶ 1대	이윤상	1935 ~ 1947	
▶ 2대	이익선	1948 ~ 1960	
▶ 3대	조성득	1961 ~ 1965	
▶ 4대	김일수	1966 ~ 1967	
▶ 5대	지재철	1968 ~ 1988	
▶ 6대	지재용	1989 ~ 1995	
▶ 7대	이경식	1996 ~ 2001	
▶ 8대	엄수용	2002 ~ 2006. 2. 7.	
▶ 9대	김광현	2006. 2. 7. ~ 2012. 2. 1.	
▶ 10대	김중식	2012. 2. 2. ~ 2017. 12. 31.	
▶ 11대	이상래	2018. 1. 1. ~ 현재	



● 귀래여성의용소방대

정원 / 현원	25 / 18	소재지	원주시 귀래면 운남길 5
발대일	2009. 1. 1.		
흥업여성의용소방대 역대 대장			
▶ 1대	박송자	2009. 1. 1. ~ 2012. 2. 1.	
▶ 2대	류예자	2012. 2. 2. ~ 2017. 12. 31.	
▶ 3대	유순애	2018. 1. 1. ~ 현재	



㉠ 문막남성의용소방대

정원 / 현원	50 / 39	소재지	원주시 문막읍 문막시장1길 90
발대일	1940년대 추정		
문막남성의용소방대 역대 대장			
▶ 1대	유진원	1960. 1. ~ 1968. 2. 8.	
▶ 2대	정태환	1968. 2. 9. ~ 1973. 3. 19.	
▶ 3대	김보영	1973. 3. 20. ~ 1977. 4. 8.	
▶ 4대	안기영	1977. 4. 9. ~ 1981. 7. 4.	
▶ 5대	박은수	1981. 7. 5. ~ 1987. 1. 20.	
▶ 6대	박희영	1987. 1. 21. ~ 1991. 2. 21.	
▶ 7대	백남운	1991. 2. 22. ~ 1994. 4. 26.	
▶ 8대	박승식	1994. 4. 27. ~ 2001. 1. 9.	
▶ 9대	신범순	2001. 1. 9. ~ 2003. 1. 9.	
▶ 10대	박관일	2003. 1. 9. ~ 2007. 1. 12.	
▶ 11대	이기연	2007. 1. 13. ~ 2010. 1. 13.	
▶ 12대	이원호	2010. 1. 13. ~ 2013. 1. 17.	
▶ 13대	원수호	2013. 1. 18. ~ 2016. 1. 31.	
▶ 14대	원천희	2016. 2. 1. ~	



㉡ 문막여성의용소방대

정원 / 현원	40 / 31	소재지	원주시 문막읍 문막시장1길 90
발대일	1999. 5. 20.		
문막여성의용소방대 역대 대장			
▶ 1대	하미애	1999. 5. 20. ~ 2002. 5. 20.	
▶ 2대	박경희	2002. 5. 21. ~ 2008. 5. 20.	
▶ 3대	소미경	2008. 5. 21. ~ 2011. 5. 27.	
▶ 4대	박정자	2011. 5. 28. ~ 2015. 12. 31.	
▶ 5대	방영희	2016. 1. 1. ~	



㉠ 부른남성의용소방대

정원 / 현원	30 / 25	소재지	원주시 부론면 부귀로 6
발대일	1961. 11. 3.		
부론남성의용소방대 역대 대장			
▶ 1대	우재근	1961 ~ 1963	
▶ 2대	이계영	1963 ~ 1966	
▶ 3대	이화영	1966 ~ 1968	
▶ 4대	김진구	1968 ~ 1970	
▶ 5대	백윤기	1970 ~ 1972	
▶ 6대	강재원	1972 ~ 1978	
▶ 7대	이규희	1978 ~ 1984	
▶ 8대	최태욱	1984 ~ 1989	
▶ 9대	전천택	1989 ~ 1995	
▶ 10대	홍수일	1995 ~ 1998. 2.	
▶ 11대	이희문	1998. 2. ~ 2004. 1.	
▶ 12대	정주섭	2004. 1. ~ 2007. 1. 16.	
▶ 13대	김진수	2007. 1. 17. ~ 2013. 1. 14.	
▶ 14대	윤상호	2013. 1. 15. ~ 2016. 1. 31.	
▶ 15대	신기영	2016. 2. 1. ~ 2018. 12. 31.	
▶ 16대	김영순	2019. 1. 1. ~	



㉡ 부른여성의용소방대

정원 / 현원	25 / 24	소재지	원주시 부론면 부귀로 6
발대일	2009. 1. 1.		
흥업여성의용소방대 역대 대장			
▶ 1대	김윤수	2009. 1. 1. ~ 2013. 1. 14.	
▶ 2대	이연희	2013. 1. 15. ~ 2018. 12. 31.	
▶ 3대	장연이	2019. 1. 1. ~	



① 지정남성의용소방대

정원 / 현원	30 / 29	소재지	원주시 지정면 지정로 285
발대일	1964. 5. 21.		
지정남성의용소방대 역대 대장			
▷ 1대	이필구	1964 ~ 1972	
▷ 2대	이인복	1973 ~ 1980	
▷ 3대	이대영	1981 ~ 1985	
▷ 4대	심상호	1986 ~ 1990	
▷ 5대	이효복	1991 ~ 2001	
▷ 6대	정운학	2002 ~ 2003. 7. 6.	
▷ 7대	이서규	2003. 7. 7. ~ 2008. 1. 21.	
▷ 8대	한현수	2008. 1. 22. ~ 2014. 1. 16.	
▷ 9대	이완승	2014. 1. 17. ~	



① 지정여성의용소방대

정원 / 현원	25 / 25	소재지	원주시 지정면 지정로 285
발대일	2008. 1. 22.		
흥업여성의용소방대 역대 대장			
▷ 1대	김명옥	2008.01.22 ~ 2011.01.26	
▷ 2대	박인수	2011.01.26 ~ 2016.12.31	
▷ 3대	박영미	2017.01.01 ~	



① 판부남성의용소방대

정원 / 현원	30 / 27	소재지	원주시 판부면 영원산성길 51
발대일	1970. 1. 15.		
판부남성의용소방대 역대 대장			
▶ 1대	현종상	1970. 1. 15. ~ 1980. 1.	
▶ 2대	김국호	1980. 1. ~ 1984. 1.	
▶ 3대	이영철	1984. 1. ~ 1990. 2.	
▶ 4대	길학균	1990. 2. ~ 1992. 2.	
▶ 5대	공광택	1992. 4. ~ 2004. 2.	
▶ 6대	안성진	2005. 1. 21. ~ 2011. 1. 28.	
▶ 7대	박영길	2011. 1. 28. ~ 2014. 2. 6.	
▶ 8대	이형욱	2014. 2. 7. ~ 2016. 1. 5.	
▶ 9대	박영학	2016. 3. 1. ~ 2018. 12. 31.	
▶ 10대	노영선	2019. 1. 1. ~	



① 판부여성의용소방대

정원 / 현원	25 / 23	소재지	원주시 판부면 영원산성길 51
발대일	2007. 3. 11.		
판부여성의용소방대 역대 대장			
▶ 1대	한남순	2007. 3. 11. ~ 2010. 3. 10.	
▶ 2대	노순일	2010. 3. 11. ~ 2013. 3. 11.	
▶ 3대	김명자	2013. 3. 12. ~ 2018. 12. 31.	
▶ 4대	김진숙	2019. 1. 1. ~	



① 신림남성의용소방대

정원 / 현원	30 / 25	소재지	원주시 신림면 치악로 27
발대일	1940. 3. 5.		
신림남성의용소방대 역대 대장			
▶ 1대	김원경	1940. 3. ~ 1943. 2.	
▶ 2대	이호일	1943. 2. ~ 1953. 3.	
▶ 3대	김만산	1953. 3. ~ 1958. 3.	
▶ 4대	조능윤	1958. 3. ~ 1962. 4.	
▶ 5대	권익건	1962. 4. ~ 1968. 2.	
▶ 6대	유병호	1968. 2. ~ 1972. 1.	
▶ 7대	유무학	1972. 1. ~ 1975. 2.	
▶ 8대	권익권	1975. 2. ~ 1985. 1.	
▶ 9대	한명력	1985. 1. ~ 1991. 3.	
▶ 10대	엄병목	1991. 3. ~ 1996. 3.	
▶ 11대	방성혁	1996. 3. ~ 1999. 12.	
▶ 12대	곽병엽	1999. 12. ~ 2005. 1. 25.	
▶ 13대	황봉엽	2005. 1. 25. ~ 2008. 1. 24.	
▶ 14대	김영수	2008. 1. 24. ~ 2011. 1. 24.	
▶ 15대	김태섭	2011. 1. 24. ~ 2016. 12. 31.	
▶ 16대	최성준	2017. 1. 1. ~	



① 신림여성의용소방대

정원 / 현원	25 / 24	소재지	원주시 신림면 치악로 27
발대일	2008. 1. 24.		
신림여성의용소방대 역대 대장			
▶ 1대	박화선	2008. 1. 24. ~ 2014. 1. 23.	
▶ 2대	안복례	2014. 1. 24. ~ 현재	



㉠ 호저남성의용소방대

정원 / 현원	30 / 23	소재지	원주시 호저면 호저로 404
발대일	1980. 1. 22.		
호저남성의용소방대 역대 대장			
▷ 1대	이정석	1980 ~ 1984	
▷ 2대	김재경	1984 ~ 1990	
▷ 3대	김연수	1990 ~ 1992	
▷ 4대	원영규	1992 ~ 1995	
▷ 5대	송인섭	1995 ~ 1998	
▷ 6대	김인환	1998 ~ 2002	
▷ 7대	진창도	2002 ~ 2008.01.29	
▷ 8대	이광우	2008. 1. 29. ~ 2011. 2. 25.	
▷ 9대	안창용	2011. 2. 25. ~ 2016. 12. 31.	
▷ 10대	김진섭	2017. 1. 1. ~ 2019. 4. 29.	
▷ 11대	이병덕	2019. 7. 1. ~	



㉡ 호저여성의용소방대

정원 / 현원	25 / 22	소재지	원주시 호저면 호저로 404
발대일	2008. 1. 29.		
호저여성의용소방대 역대 대장			
▷ 1대	조호순	2008. 1. 29. ~ 2011. 2. 25.	
▷ 2대	윤상숙	2011. 2. 25. ~ 2016. 12. 31.	
▷ 3대	이점숙	2017. 1. 1. ~	



소초남성의용소방대

정원 / 현원	30 / 23	소재지	원주시 소초면 치악로 2842
발대일	1980. 1. 13.		
소초남성의용소방대 역대 대장			
▶ 1대	김동손	1980. 1. 13. ~ 1980. 5. 1.	
▶ 2대	김주혁	1980. 5. 2. ~ 1980. 12. 3.	
▶ 3대	이윤연	1980. 12. 4. ~ 1985. 3. 7.	
▶ 4대	김주돈	1985. 3. 8. ~ 1990. 11. 1.	
▶ 5대	이우연	1990. 11. 2. ~ 1993. 2. 7.	
▶ 6대	황영철	1994. 2. 7. ~ 2002. 1. 28.	
▶ 7대	김진구	2002. 1. 29. ~ 2004. 1. 28.	
▶ 8대	한영세	2004. 1. 29. ~ 2007. 1. 18.	
▶ 9대	이상범	2007. 1. 18. ~ 2010. 1. 19.	
▶ 10대	김주명	2010. 1. 20. ~ 2016. 1. 31.	
▶ 11대	안경모	2016. 2. 1. ~ 2018. 12. 31.	
▶ 12대	안경모	2019. 1. 1. ~	



소초여성의용소방대

정원 / 현원	25 / 23	소재지	원주시 소초면 치악로 2842
발대일	2007. 1. 11.		
소초여성의용소방대 역대 대장			
▶ 1대	김영옥	2007. 1. 11. ~ 2010. 1. 13.	
▶ 2대	윤금순	2010. 1. 14. ~ 2016. 1. 31.	
▶ 3대	이원자	2016. 2. 1. ~ 2018. 12. 31.	
▶ 4대	정영애	2019. 1. 1. ~	



① 황둔산악전문의용소방대

정원 / 현원	30 / 22	소재지	원주시 신림면 신림황둔로 213
발대일	1961. 3. 15. 2016. 9. 28. 황둔산악전문의용소방대 변경 발대		
황둔산악전문의용소방대 역대 대장			
▶ 1대	공병직	1961. 3. ~ 1971. 3.	
▶ 2대	김일용	1971. 3. ~ 1990. 2.	
▶ 3대	김영근	1990. 2. ~ 1994. 1.	
▶ 4대	김기섭	1994. 1. ~ 2004. 3.	
▶ 5대	이영모	2004. 3. ~ 2010. 3. 25.	
▶ 6대	김재희	2010. 3. 26. ~ 2013. 3. 12.	
▶ 7대	이강욱	2013. 3. 13. ~ 2015. 4. 30.	
▶ 8대	황영복	2015. 5. 1. ~ 2018. 6. 30.	
▶ 9대	김동수	2018. 7. 1. ~	



원주시 의용소방대 수상실적

구분	내용	구분	내용
2010년	도의회소방대 종합평가 원주남성대 3위	2013년	제1회 도한마음전진대회 원주연합회 종합2위
	도의회소방대 종합평가 흥업여성대 1위	2014년	도의회소방대 종합평가 흥업여성대 3위
	도의회소방대 종합평가 황둔지역대 1위		제2회 도한마음전진대회 원주연합회 종합3위
2011년	도의회소방대 종합평가 흥업여성대 2위	2016년	도의회소방대 종합평가 흥업여성대 3위
2012년	도의회소방대 종합평가 흥업여성대 1위		제3회 도한마음전진대회 원주연합회 종합2위
2013년	도의회소방대 종합평가 원주남성대 1위	2017년	도의회소방대 종합평가 흥업여성대 1위
	도의회소방대 종합평가 황둔지역대 1위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수관연장하고 방수자세' 1위



2000년



2000년



2000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5년



2015년



2016년



2018년



2018년



2018년

4. 교육훈련

의용소방대원은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통하여 화재 예방홍보 및 진압활동 능력의 향상을 기하고 있다. 또한 지역방재의 구심조직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제 18조에 의거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교육·훈련 또는 소방학교에서 실시하는 의용소방대 관련 교육 및 훈련을 연 12시간 이상 받아야 하며, 신규대원은 2년 이내에 36시간의 기본교육을 받아야 한다.

〈의용소방대원의 교육훈련 내용〉

① 신규 임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의용소방대원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기본교육 36시간

가. 의용소방대 제도

나. 화재 진압장비 사용방법

다. 위험물 및 전기·가스 안전관리

② 제 1호에 따른 기본교육을 이수한 의용소방대원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전문교육 연 12시간

가. 수난구조

나. 산악구조

다. 소방자동차의 구조 및 점검

라. 그 밖에 의용소방대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여성 의용소방대 인명구조훈련(1975년)



제 1회 의용소방대 교관교육 7인조법에 참가한 원주 의용소방대(1976년)



의용소방대 분열식(1976년)



여성 의용소방대 시가행진(1978년)



건물화재 진화훈련(1996년)



산불진화훈련(2002년)



소방기술경연대회 속도방수 부분 출전(2014년)



황둔 산악전문 의용소방대 로프매듭 훈련(2018년)



지정 여성의용소방대 긴급구조종합훈련 참가(2018년)

5. 장비

의용소방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대부분 원주에서 제공한 것으로 운용경비 또한 원주시의 재정으로 부담하고 있다.

원주시 의용소방대 장비보유 현황

구분	산악구조차	화물차량	순찰차
내용	테라칸(2000년식)	봉고(2016년식)	그랜스타렉스 11대 (2018~2019년식)
	원주남성의용소방대 운용	문막남성의용소방대 운용	각 지역 의용소방대별 1대
구분	등짐펌프	방화복·헬멧	안전장비
내용	190개	123세트	장갑 등 4종 1395개



순찰차량(2018~2019년식)



해충보호복



등짐펌프



방화장비

6. 활동사항

의용소방조직의 활동은 관설 소방조직이 정립되기 이전까지는 광범위하고 적극적으로 펼쳐졌으나 소방조직이 양적, 질적으로 성장을 이룬 현재는 화재나 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현장에 출동하여 소방기관의 보조조직으로서 주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읍·면 지역의 소방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만큼 의용소방대의 초동조치 및 지원활동은 지역방재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도시 지역에서의 소방 홍보활동 기능과 행정 등의 협조 및 지원체계 구축은 의용소방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소방에 대한 국가의 기능이 국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에 소방인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소방행정에 대한 보완적인 역할로서 각종 홍보활동, 봉사 등 소방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의용소방대가 보조적인 역할을 해줌으로써 그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2018년도 원주시 의용소방대 활동실적

구분	화재진압	인명구조	예방홍보	안전순찰
내용	40회 1,258명 활동	5회 7명 구조	231회 6,258명 활동	169회 650명 활동
구분	교육훈련	자연정화	농촌일손돕기	불우이웃 위문
내용	257회 6,350명 교육	79회 945명 활동	23회 358명 활동	92회 590명 활동



부녀대 가두 캠페인(1983년)



농촌 일손돕기 행사(2004년)



만리포 기름유출현장 방제작업 지원(2007년)



어린이날 홍보 부스 운영(2016년)



생활안전활동(2017년, 벌집제거)



저소득층 보일러 교체 봉사활동(2018년)



원탑기업 화재시 지원활동(2018년)



생활안전·CPR 강사 경연대회(2019년)



시민수상구조대 발대식(2019년)

제2절 의무소방대

1. 설치배경

2001년 3월 4일 서울 홍제동 주택화재로 소방공무원 6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같은해 3월 7일 부산 연산동 빌딩화재로 소방공무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또다시 발생하였다. 소방관들의 순직사고는 그동안 피상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왔던 인력부족 및 열악한 근무여건 등과 맞물려 국가적·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 결과 정부에서는 부족한 화재의 경계·진압 등을 위한 현장소방인력의 확충방안으로 의무소방을 도입하는 시책을 추진하였고 2001년 8월 14일 법률 제6505호 「의무소방대 설치법」을 제정하였다. 의무소방원이 처음 선발된 2002년부터 2019년까지 원주소방서 의무소방원 배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연도별 의무소방원 배치 현황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내용	15	14	15	8	3	2	3	0	2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내용	2	11	13	12	12	11	12	12	12

※ 출처 : 원주소방서 소방행정과



의무소방 1기생들(2002년)



의무소방원 봉사활동(2018년, 원주 탑상공동체)



의무소방원 진급식(2018년)

2. 선발 및 양성

의무소방원의 임용권자는 소방청장이다. 1년에 2번 실시하는 시험에 응시하여 신체검사와 체력시험, 필기시험(국어, 국사, 일반상식), 면접을 거쳐 선발된 인원은 소방청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의무소방원 임용예정자를 추천함으로써 국방부장관이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이들을 입영하게 하여 4주의 군사교육을 마치게 한 후 의무소방원으로 전환복무 시킨다. 소방청장은 임용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별시·광역시·도,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대, 지방소방학교 또는 소방서에 위임하며 의무소방원의 소속 기관장은 의무소방원을 다른 특별시·광역시·도로 전보 시 소방청장의 승인, 소방서간 전부시 특별시·광역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의무소방원은 논산훈련소에서 기초군사훈련 4주와 중앙소방학교 소방기본훈련 4주 등 총 8주의 기본훈련을 마치고 본인이 지원한 시·도에 배치되어 소방업무를 보조한다. 원주소방서에서는 배치된 의무소방원들에게 정훈교육 및 기초체력훈련, 장비조작훈련 등을 지도하며 복무기간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3. 복무기간 및 계급

복무기간은 당초 28개월이었으나 전 군의 복무기간 단축으로 2019년도 입대자 기준 18개월로 단축되었다. 의무소방원의 계급은 이방, 일방, 상방, 수방 및 특방으로 구분하며 전역 후 소방공무원으로서의 특별채용의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 각 계급별 복무기간은 입영일로부터 2개월 후 일방, 일방으로서 6개월 후 상방, 상방으로서 6개월 후 수방으로 진급한다. 병역 복무제도별 복무기간은 다음과 같다.

각 군별 의무 복무기간(2019년 입대 기준)

[단위:개월]

구분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의경	해경	의무소방	사회복무
복무기간	18	20	22	18	18	20	20	22

※ 출처 : 국방부 홈페이지

각종 표지 및 계급장



의무소방원 전역식(2004년)



원주시 탑상공동체 봉사활동(2016년)



직무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힐링여행(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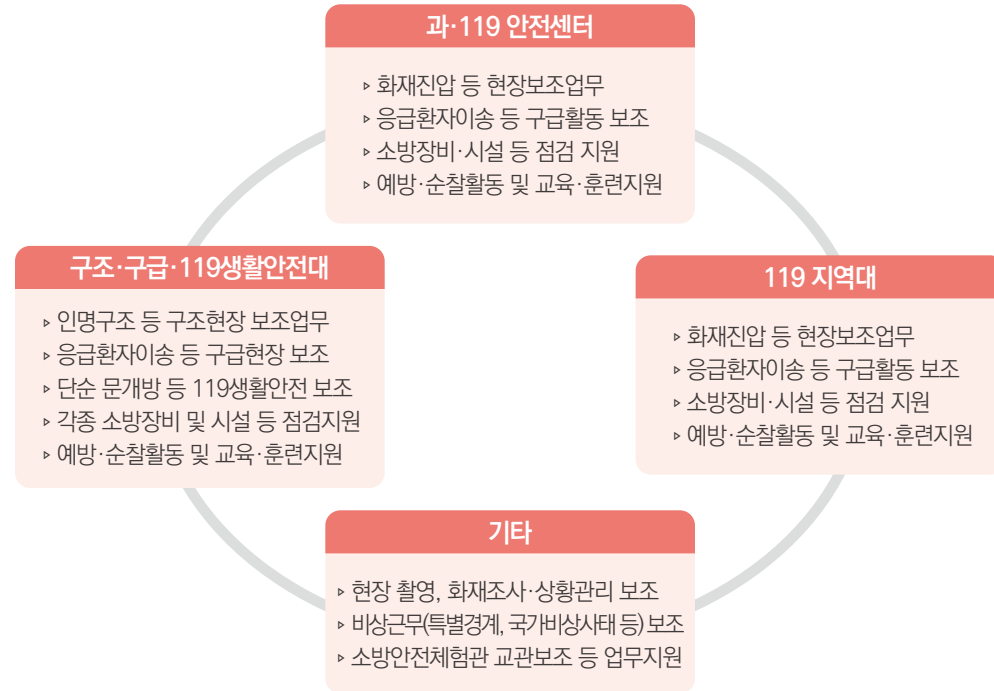


의무소방원 구타 근절을 위한 간담회(2018년)

4. 임무

의무소방원은 화재의 경계·진압과 재난·재해 발생시 구조·구급활동·소방행정 등에 부족한 소방력을 보조하며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다.

의무소방의 주요업무



의무소방원의 현장 보조활동(2018년)



의무소방원이 구급대원과 장비를 점검(2018년)

이러한 의무소방원의 임무 중 현장활동의 범위와 관련한 중요한 사고가 있었다. 2002년 12월 17일 김 00 상방은 공장 화재현장 내부에서 소방호스를 끌어올리다 추락사하였는데,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재판부는 '김씨가 건물 내부에 진입해 소방호스를 끌어올린 것은 의무소방원이 해야 할 현장활동 보조임무를 벗어난다'고 판시하며, '국가는 1억 5667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당시 김00 상방은 안전모와 방화복 상의만 착용한 채 계단 난간에 끼인 소방호스를 끌어당기는 작업에 투입되었다.

쉬어가기

소방의 날 유래

소방의 역사는 고대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조선시대 경국대전에는 '금화'로 명시되어 있으며, 세종 8년(1426년) 2월에는 '병조' 아래 '금화도감'을 설치하였는데 '금화도감'이 최초의 소방서라 할 수 있다.

1948년 정부가 수립되면서 정부에서는 불조심 강조 기간을 정하여 11월 1일에 유공자 표창, 불조심 캠페인과 같은 기념행사를 하였다. 이후 1991년 소방법을 개정하면서 오늘날의 119를 상징하는 11월 9일로 변경된 것이다.

원주소방서에서는 1976년부터 매년 소방의 날 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소방의 날은 2019년 올해로 57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제1회 소방의 날 기념식(1976년)



제8회 소방의 날 기념식(1983년)



제32회 소방의 날 기념식(2007년)



소방의 날 기념 시가행진(1976년)



소방의 날 기념 시가행진(1983년)



소방의 날 소방차 퍼레이드(2018년)



03

지나온 50년 꿈꾸는 100년

제 1장 한눈에 보는 원주소방 변천사	188
제 2장 50대 뉴스	197
제 3장 원주시민의 안전파수꾼	229
제 1절 원주소방의 24시간 365일	
제 2절 원주시민과 호흡하고 소통하는 원주소방	
제 3절 원주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다	
제 4장 혁신과 도약, 100년 미래를 품다	268
제 1절 메가트렌드 - 소방환경이 변하다	
제 2절 100년 미래를 설계하다	
제 5장 시대별 사진첩	2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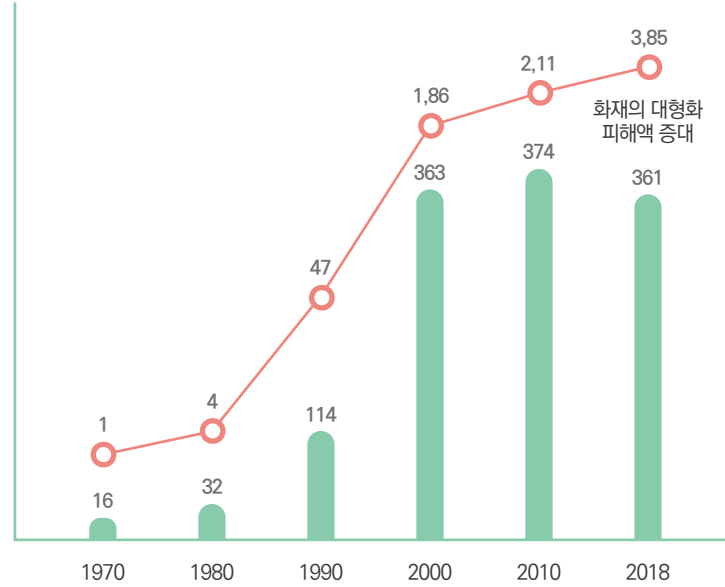
제1장 한눈에 보는 원주소방의 변천사

화재



■ 화재발생건수
○ 화재피해액(천만원)

※ 출처 : 원주소방서 화재조사계, 원주시청 홈페이지 '원주통계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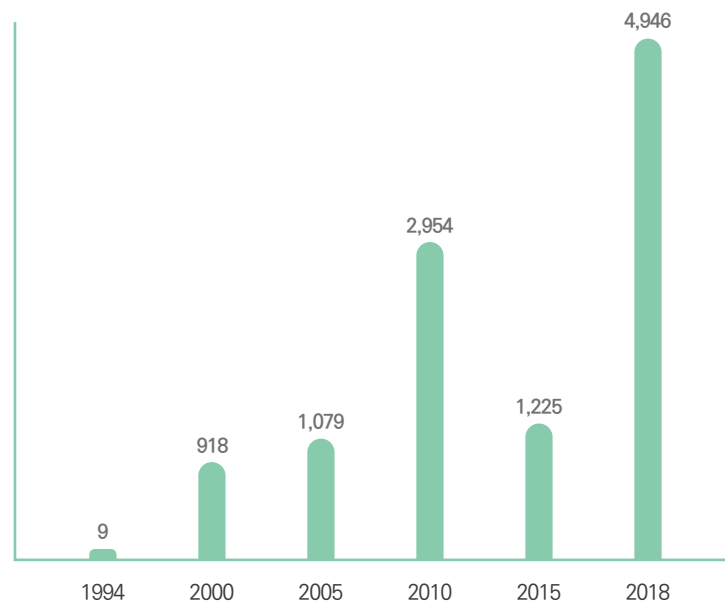
구조



■ 구조건수

※ 출처 : 원주소방서 구조구급계, 원주시청 홈페이지 '원주통계연보'

※ 생활안전활동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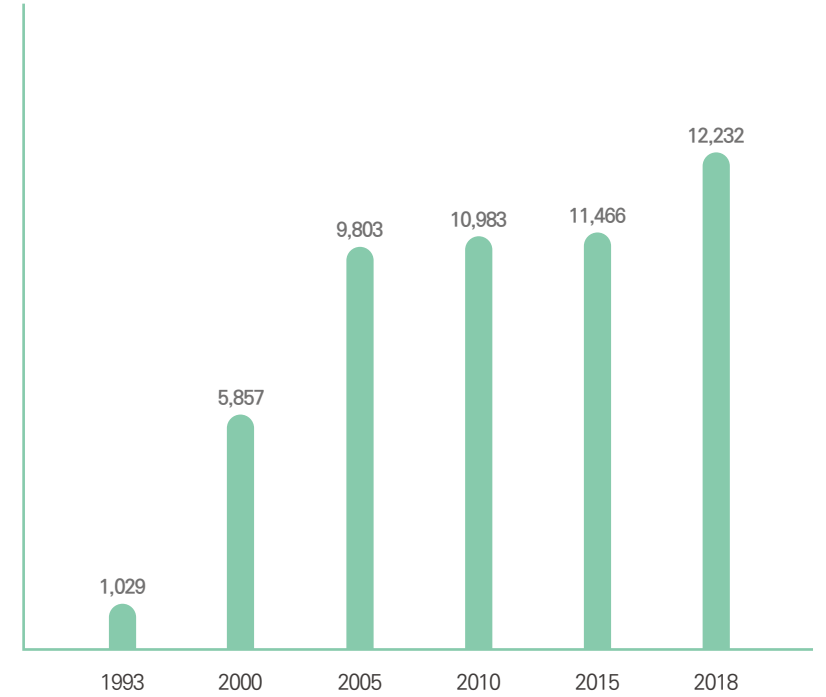


구급



■ 구급건수

※ 출처 : 원주소방서 구조구급계, 원주시청 홈페이지 '원주통계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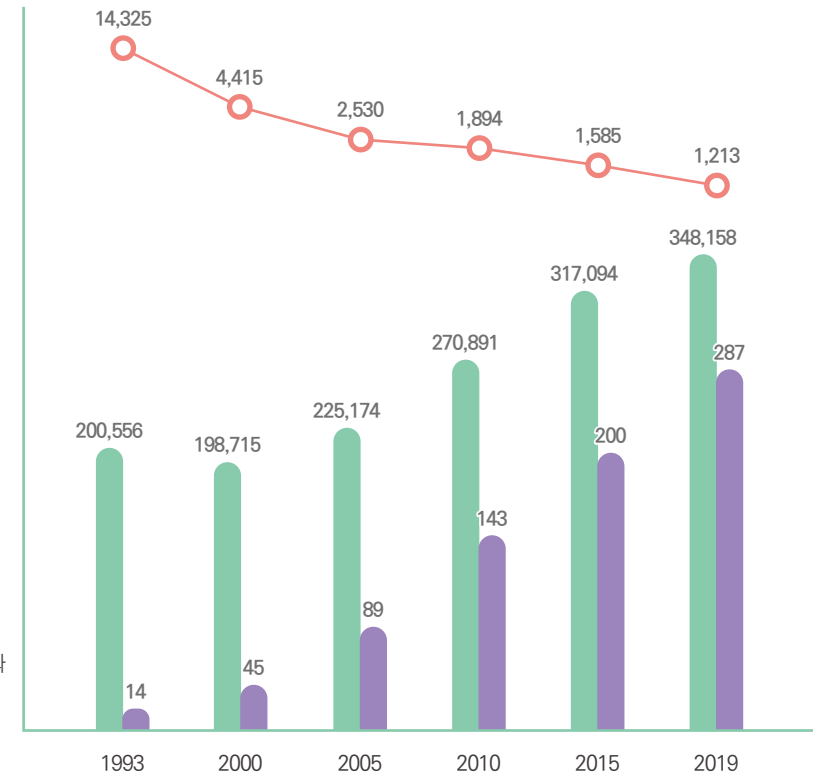
소방관 1인당 담당인구 추이



■ 원주시 인구수(명)
■ 원주시 소방관(명)
○ 소방관 1인 담당인구(명)

※ 출처 : 원주소방서 행정과, 원주시청 홈페이지 '원주통계연보'

※ 1970년~90년 인구는 원주시와 원성군 인구의 합계임. 1995년 원주시로 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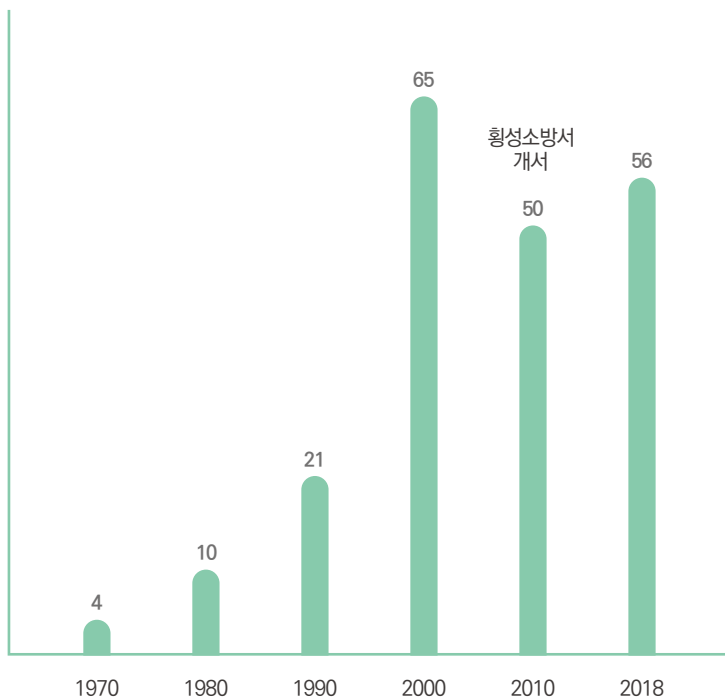


소방차량 보유대수 추이



소방차량 보유대수

※ 출처 :
원주소방서 예산장비계,
원주시청 홈페이지
'원주통계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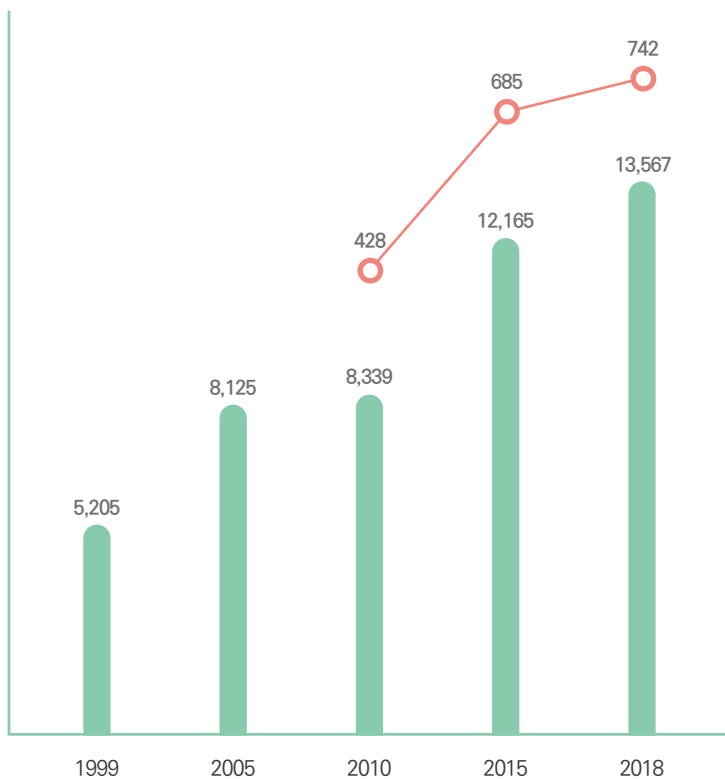


소방대상물 및 허가 동의



소방대상물 수
건축허가 동의(건)

※ 출처 :
원주소방서 민원지도계,
강원도 소방본부
'예방소방행정 통계자료'



쉬어가기

소방공무원의 계급장

분양의 육각수는 맑은 소방용수와 투명한 신념의 소방청을 의미한다.

소방관들은 경찰, 교정직 공무원들과 다르게 꽃이 아닌 육각수로 계급을 표현한다. 소방직에는 관창 육각수가 하나인 의무소방을 포함하여 총 열두 계급이 있다. 육각수 아래의 선은 관창을 의미한다. 관창은 소방장의 계급장까지만 있다. 소방위부터는 관창 없는 육각수로 계급을 표현하고, 소방준감부터는 태극 육각수로 계급을 나타낸다.

소방공무원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계급장	계급	직위	
	소방총감	소방청장	치안총감
	소방정감	서울·경기소방재난본부장, 부산본부장	치안정감
	소방감	중앙소방학교장, 강원·경남·인천·충남·전남·경북본부장	치안감
	소방준감	대구·울산·충북·광주·대전·도 본부장	경무관
	소방정	소방서장, 시도 과장, 지방소방학교장, 중앙소방학교 팀장	총경
	소방령	소방본부 담당, 서 과장	경정
	소방경	소방서 담당, 안전센터장, 구조대장	경감
	소방위	소방서 주임, 안전센터 팀장, 구조팀장	경위
	소방장		경사
	소방교		경장
	소방사		순경

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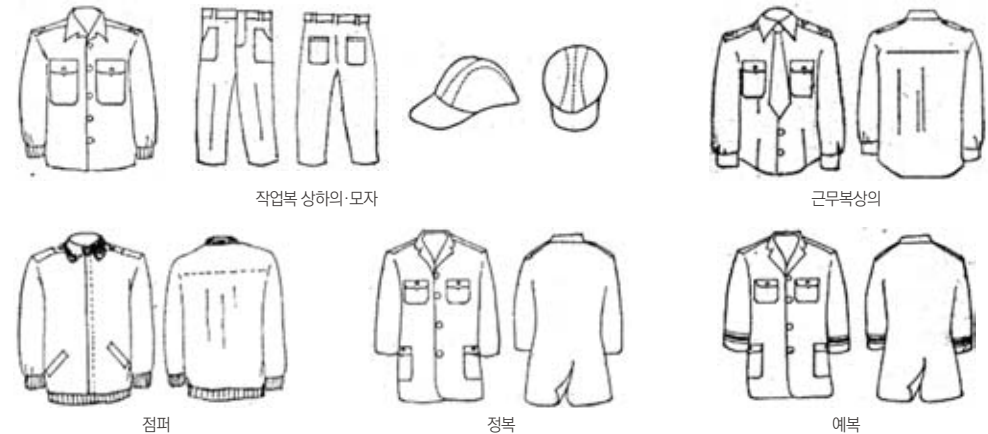

구분	사진	
중앙동 시대 (1970~1991)		
	중앙동 소방서 청사(1970년)	직할파출소 공사(1972년)
		
	공단파출소(1975년)	단구파출소(1985년)
명륜동 시대 (1991~2019)		
	명륜동 소방서 청사(1991년)	문막파출소(1991년)
		
	학성파출소(1991년)	태장파출소(고속도로 구급대, 1995년)
		
	신림농촌형파출소(2003년)	흥업119안전센터(2016년)
반곡동 시대 (2019~)		
	반곡동 소방서 청사(2019년)	반곡동 소방서 청사(2019년)

차량

구분	1세대	2세대	3세대
펌프차			
물탱크차			
구급차			
구조차			
지휘차			

구분	1세대	2세대
고가사다리차		
굴절차		
배연차		
산악구조차		
안전진단차		

복제

1970년 ~ 1990년대

 <p>작업복 상하의·모자</p> <p>근무복상의</p> <p>점퍼</p> <p>정복</p> <p>예복</p>
2000년 ~ 2009년


2009년 ~ 2013년



2013년(활동복 교체)



2014년(기동복 부활)



2018년(정복, 근무복 교체)



※ 출처 : 원주소방서 예산장비계, 경기도업,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소방공무원 제복 변천 연구』, 최서연, 2018년

제2장 50대 뉴스

01 원주소방서 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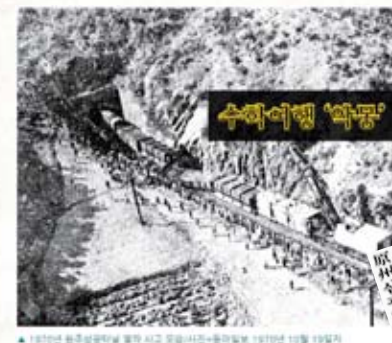


1970년 5월 7일
원주소방서 중앙동 시대 개막



중앙동 207번지
인원14명(국가직5명, 유급상비대원9명)

02 삼광터널 열차사고



오전 11시 45분
원주시 봉산동 중앙선 삼광터널 안에서
수학여행 학생단을 태운 열차가
맞은 편에서 오던 화물열차와 정면충돌!
14명 사망, 59명 중경상

1970년 10월 17일

중도일보(1970.10.20.)
동아일보(1970.10.19.)
경향신문(1970.10.19.)



03 과외공부방 석유난로 폭발



동아일보(1971.2.3.)

1971년 2월 2일

하오 6시 30분
원주시 평원동 6반 323
삼익 수도공사무소 2층
사설학원 「우등교실」에서
국민학교 어린이들이 과외 수업 하던 중
석유난로에 기름을 붓다가 폭발
어린이 7명 소사,
사설학원 원장과 2명의 어린이 및
교재배달원 3명 화상

05 우산파출소 개소



1975년 2월 7일

우산동 411-4
관할 : 우산동·호저면

우산파출소 개소식(1975.2.7.)

04 중앙선 간현역 귀성열차에 불

1973년 9월 10일

22시 청량리역 출발,
강릉행 보통급행
125열차에 불.
12명의 중경상자가 발생한
열차화재



매일경제(1973.9.11.)

06 원주신협, 소방서에 구급차 기증

1980년 12월 26일

550만원의 기금을 들여 원주소방서에
야간 응급환자수송용 구급차 기증

원주신협, 소방서에 구급차 기증
◇원주 밝음조합(이사장 金태환)이 야간 응급환자수송용 구급차를 원주소방서에 기증해 화제. 이 조합은 5백50만원의 기금을 모으는데 그 동안 야간구급차가 부족해 불편을 겪어오던 15만원 주 시민들에게선 더없이 좋은 선물이란 반응이 매우 좋다는 것. 이에 대한 지역유지들의 관심도 매우 컸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원주신협 원주지장은 "이런 좋은 소식을 반사회대 전 시민에게 알림으로써 이들을 잘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혀 신협운동의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듯.



매일경제(1981.1.31.)

원주 밝음신협이 원주소방서에 기증한 구급차

07 원주고에 큰 불 본관 2층 전소

1981년 9월 18일

상오 1시 45분
원주시 명륜동 원주고등학교에서
원인 모를 불,
본관 2층 16개 교실을 모두 태우고
2시간 15분만에 진화



경향신문(1981.9.18.)

09 원주 국민학교 교실 전소

1985년 4월 17일

새벽 1시 5분
원주시 봉산동
원주국민학교에 불,
본관 2층을 모두 태우고
2시간만에 진화



동아일보(1985.4.17.)

08 구급차 최초 운영

1983년 12월 30일 「소방법」 개정
구급업무 법제화, 공식적 구급대 운영



1981년부터 야간통행금지시간 중
국민에 대한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원주소방서를 비롯한 전국 6개 소
방서에 야간 응급환자 이송업무 시
범적으로 운영해 오던 중 1983년
12월30일 「소방법」이 개정되면
서 구급업무를 소방업무로 하는 법
적 근거 마련.
1984년부터 소방서에 구급차량 및
구급대원 배치, 구급업무 실시

1982년 원주소방서 119구급대 모습

10 단구파출소 개소

1985년 6월 3일

단구동 195-1
관할 : 개운동·단구동·행구동·관설동·반곡동



단구파출소 개소식(1985.6.3.)

11 원주소방서 명륜동 청사 이전 준공식

1991년 3월 13일

청사 이전 1991년 2월 24일
/ 명륜2동 671 / 정원90명 (1991.5.20.)



명륜동 청사 이전 준공식(1991.3.13.)



13 1991년 겨울, 원주지역 악성 화재 급증

1991년 겨울



강원일보(1992.1.9.)

강원일보(1991.12.3.)
강원일보(1991.10.8.)
강원일보(1991.12.14.)
중앙일보(1991.12.3.)

강원일보(1992.1.6.)
강원일보(1992.1.3.)
강원일보(1991.12.30.)

12 중앙동 원주 불링장 상가 화재

1991년 7월 31일

오후 8시 50분
중앙동 8개 점포 전소
수역원의 재산피해 발생

강원일보(1991.8.1.)



화재발생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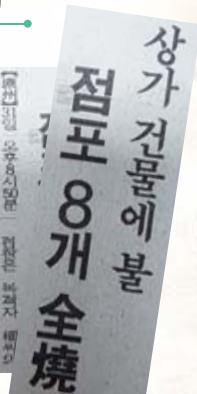
상가 위치도



건물평면도



화재진압 작전상황도



14 강원도 소방기술경연대회 단체전 우승

1991년 10월 23일
도 소방기술경연대회

강원일보(1991.10.24.)



1991년 10월 2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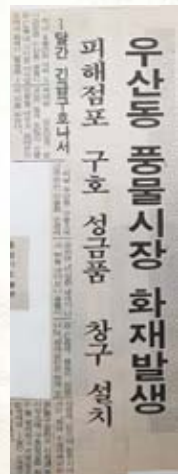
원주소방서 소방훈련탑 준공
(지하1층, 지상7층)

원주신문(1991.10.25.)

15 원주 풍물시장 전소

1992년 4월 25일

오전 5시 20분 원주시 우산동 풍물시장 화재 32개 점포 전소



강원일보(1992.4.25.)



치약타임즈(1992.5.1.)

原州우산풍물시장 全燒

16 차량 연쇄 방화

1992년 9월~11월

강원일보(1992.9.7.)

강원일보(1992.9.21.)



강원일보(1992.11.20.)

경향신문(1992.10.27.)

17 왕국회관 화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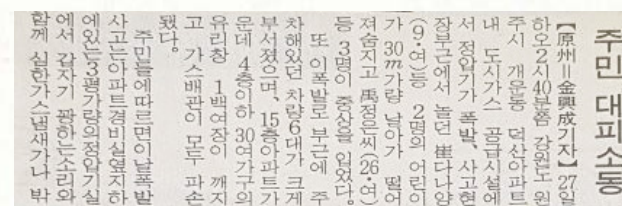


1992년 10월 4일

하오 2시 20분
원주시 우산동
여호와증인
왕국회관 2층에배설
화재 발생

경향신문(1992.10.5.)
동아일보(1992.10.4.)
한국일보(1992.10.5.)

18 아파트 도시가스 폭발



1992년 10월 27일

하오 2시 40분
원주시 개운동 덕산아파트 내
도시가스 공급시설에서
정압기 폭발

경향신문 (1992.10.28.)

아파트 도시가스 지하정압기 폭발
어린아이가 3명 사망·3명 중태

19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단체전 “속도방수부문” 우승

1992년 10월 28일

천안시 내무부소방학교에서 열린
「제10회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단체전
‘속도방수종목’ 우승 차지



강원일보(1992.10.31.)

20 원주시장 화재

1992년 11월 1일

0시 20분
원주시 중앙동 중앙시장 2층 의류상가에 불
45개 점포와 의류 등 5억원 상당의 재산피해발생
인명피해는 없어



경향신문 (1992.11.2.)

21 학성파출소 준공식

1991. 7. 19.

학성파출소 설치(임시로 본서 내 설치)

1991. 10. 5.

1차 이전(시청 민방위본부 상황실)

1993. 12. 15.

청사 준공(학성동 223-76 / 현 청사위치)



원주소방서 학성파출소 준공식(1993.12.15.)

22 119구조대 발대식

1994년 11월 24일

원주소방서 119구조대 발대



원주소방서 구조대 발대식(1994.11.24.)

23 고속도로 119구급대 배치

1996년 12월 26일

영동고속도로 둔내 톨게이트
119구급대 배치(4명/2교대)



원주신문(1997.1.10.)

둔내 톨게이트 구급대 운영보다 앞선
1995년 7월 24일
태장고속도로 구급대 운영

24 전국 최초 국제공인 인명구조원 및 핸들러 배치

1998년 11월 13일

원주소방서는 삼성생명구조원센터에서 양성한 인명구조원 2두를 전국 최초로 무상 대여받아 구조업무에 활용. 당시 인수받은 수색견 2두는 1997년 4월 13일생으로 이름은 '다재'와 '다솔'

국제공인 구조원 원주소방서 배치

사회 1998-11-13 (금)

【原州】원주소방서 119구급대에 국제공인 인명구조원이 배치된다.

이번에 대여되는 구조원은 모두 세파드로 지난 9월 25일 국제공인 자격을 취득했으며 앞으로 산악실종사고가 수색등의 활약을 한다.

원주소방서는 12월 삼성생명경과 경기도용인 삼성인명구조원 센터에서 사육하고 있는 인명구조원 2마리를 무상대여하는 계약을 13일 체결한다고 밝혔다.



강원일보(1998.11.13.)

25 구룡사 대응전 화재

원주 구룡사 대응전 화재

기사입력 2003.10.31 오전 11:48 | 최종수정 2003.10.31 오전 11:48 | SBS 뉴스



30일 밤 9시 경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구룡사에 위치한 모를 불이 나 254평이던 규모와 대응전이 모두 불타 뒤 2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난 뒤 소방대가 출동해, 진화작업을 벌였으며 대응전 안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구룡사 속직실에 있던 여모래가 갑자기 떨어진 뒤 대응전에서 불이 번졌다고 신고함에 따라 누전으로 불이 난 것이 아닌가 보고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003년 9월 30일

밤 9시 30분
원주시 소초면 구룡사에
원인 모를 화재 발생



SBS뉴스(2003.10.1.)

26 전자민원시스템 자체 개발

2004년 2월 9일

전국 소방관서 중 최초
전자민원시스템 운영

원주투데이(2004.2.16.)

원주소방서 전자민원시스템 운영

자체개발 후 본격 가동
각종 증명서 온라인 발급

원주소방서 3소방서 및 각종 증명서 발급 등 민원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자체개발한 전자민원시스템을 본격가동한다.

원주소방서는 10일 그 동안 지역 주민들이 직접 소방서나 인근파출소를 찾아오는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소방서나 파출소 증명서발급 등 각종 민원업무를 온라인상에서 할 수 있는 전자민원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자민원시스템은 소방서 및 위원을 일기사무 등의 경우 접수에서부터 처리까지 전과정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다.

또 기존 소방파출소에서 처리하는 구조·구급명령서 화재출명령서 등도 온라인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각종 소방공사의 사안보고 및 검사항과 등을 통해 민원인들에게 감사에 따른 정보화 제공을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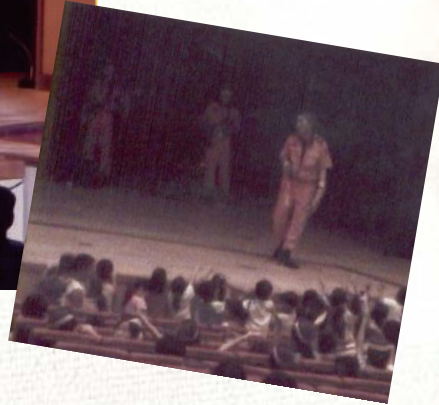
원주/박현희



27 119소방밴드 전국119소방동요경연대회 축하공연



2004. 9. 9.(태백 문화예술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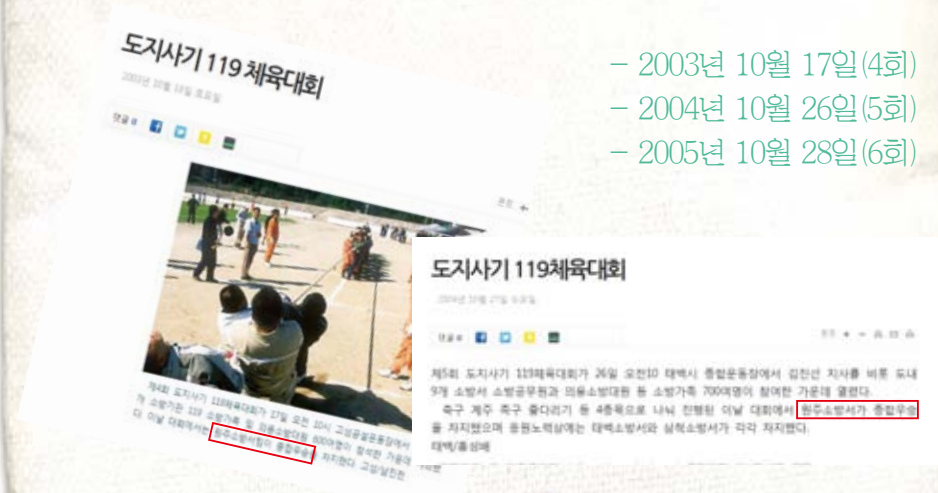
원주소방서 훈련탑 5층,
소방밴드 연습실

2004. 10. 20.(서울 올림픽공원)



28 강원도지사기 119체육대회 3연패

- 2003년 10월 17일(4회)
- 2004년 10월 26일(5회)
- 2005년 10월 28일(6회)



29 전국 최초 119청년단 운영

2009년 5월 28일

원주 상지영서대 학생 및 교수들로 구성된 전국 최초 '119청년단' 운영



소방방재신문(2019.2.19)



강원도민일보(2009.5.29.)

30 장미란 선수 어머니 “원주여성의용소방대장” 되다



◇원주소방서는 지난 30일 소방서에서 이현자 신임 원주시여성의용소방대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2009년 6월 30일

강원일보(2009.7.1.)

장미란 선수 어머니 “원주여성의용소방대장 됐어요”

이현자 의용소방대장 취임식
【원주】이현자(53) 신임 원주시여성의용소방대장의 취임식이 30일 원주소방서를 비롯해 이인섭 도의원, 지역여성의용소방대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특히 이날 취임식에는 이현자 대장의 딸인 여도선수 장미란 선수를 비롯 가족들이 취임식을 축하하기 위해 동행해 화제를 모았다.
이현자 대장은 이날 “12년간의 여성의용소방대원 활동의 경험을 토대로 대원들과 한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도록 화합을 이끌어내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김영진기자 mykim@

31 도내 최초 이동안전체험차량 도입

2009년 10월 13일

이동 안전체험 차량 도입

원주소방서, 16종 체험 가능

원주소방서(서장 조근희)에 도내 최초로 이동안전체험차량이 선을 보았다.

이번에 선보인 이동안전체험차량은 도비 3억원을 들여 소방안전경험을 상황과 지진체험, 열-전기체험, 완강기 등 다양한 탈출체험, 소화체험 등 모두 16종의 다양한 안전체험이 가능하다.

도내 최초로

이동안전체험차량 도입으로 그동안 시청자자료로만 실시하던 소방안전 교육을 다양한 체험과 함께 실시할 수 있어 어린이들의 소방안전 교육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주소방서 관계자는 “이동안전체험차량 도입으로 찾아가는 안전체험서비스가 가능하다”며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먼단위 어린이들을 찾아 다양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주/박수혁
(11. 14. 11. 14.)



강원도민일보(2009.10.14.)



어린이날 이동안전체험차량 안전교육

32 전국 최초 안전엠블럼 제작 활용

2012년 3월 19일

원주소방서 전국 최초로 소방공무원 안전사고 근절을 위한 엠블럼을 자체 제작·활용

원주소방서에서 자체 제작한 안전엠블럼



전국최초 안전엠블럼 제작

【원주】원주소방서(서장 김시균)가 전국 소방서 중 처음으로 안전 엠블럼을 제작해 눈길을 끌고 있다.

원주소방서는 이달 초 안전사고 근절을 위한 엠블럼 ‘안전을 살피는 눈’을 제작했으며 각종 문서, 홍보물 등에 활용을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소방공무원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제작한 엠블럼 안전을 살피는 눈은 ‘업무수행에 있어 소방공무원 스스로의 안전과 시민 모두의 안전을 지키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원주소방서 관계자는 “소방공무원이 불의의 사고로 순직하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해 임무수행 중 사고는 물론 일상적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제작하게 됐다”며 “현장안전정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설영기자 snow@

(4. 9~10. 4)cm

강원일보(2012.3.20.)

33 원주 청림사 요사채 화재

원주 청림사 불... 사찰 화재 무방비

요사채 98㎡ 전소

지난 1일 밤 11시 58분쯤 원주시 부론면 송곡리 청림사 요사채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건물 연소를 모두 태우고 2시간10분 만에 진화됐다.

이날 화재로 요사채에서 복고 있던 보살 2명이 긴급대피해 다량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자칫 대형화재로 이어질 뻔했다.

불이 나자 원주소방서는 펌프차 등 장비 8대와 대원 20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였지만 청림사가 한 속에 위치, 소방차 접근이 용이하지 않았고 건조한 날씨와 야간 진화로 인해 불을 끄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관할과 소방당국은 "요사채에서 TV를 보던 중 천장에서 계속 '뽕뽕뽕' 소리가 나 밤에 자기 보니 건물 뒤쪽 지붕에 불이 붙어 있었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청림사 화재로 지난 2005년 4월 낙산사 화재를 겪으면서 제기됐던 도내 목조전통 화재 무방비

가도파위에 들었다. 특히 낙산사 화재 당시 도내 전통사찰 불꽃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구축과 점검이 이뤄졌지만 빈틈 공적으로 그치면서 9년째 지니도록 소방안전시스템이 설치와 원형보존을 위한 불을 끄고 대수가 소화관과 소화기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독이 청림사처럼 전통사찰로 포함돼 있지 않고 새롭게 지어진 목조 전통의 경우 정확한 현황 파악이 안 되면서 소방청에서 화재에 매우 취약하다. 소방당국은 "전통사찰 이외에 도내 목조전통 현황을 파악해 소방시설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주/박승훈

2014년 4월 1일

밤11시58분
원주시 부론면 청림사
요사채에서 원인 모를 화재

강원도민일보(2014.4.2)



지난 1일 밤 원주소방서 소방대원들이 청림사 요사채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원주/이승훈

34 부론면 미군헬기 추락

2015년 11월 23일

오후 6시 22분 원주시 부론면 정산리 법천사지 입구 앞 도로에 미군 소속 AH-64아파치 헬기 1대 추락... 조종사 2명 사망



23일 오후 6시 22분쯤 원주시 부론면 정산리 법천사지 입구 앞 도로에서 미군 헬기 1대가 추락했다. 원주/강원도민일보

강원도민일보(2015.11.24.)

미군 헬기 원주서 추락

조종사 등 2명 사망
추가 인명피해 없어

33일 오후 6시22분쯤 원주시 부론면 정산리 일명 '자락고개' 인근 도로에서 미군 헬기 1대가 추락했다. 원주/강원도민일보



군과 소방당국은 전해들에 고압선이 있고 인근 월남 아파트 화재로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는 등 위험을 두고 조사하고 있다. 헬기는 인근에서 500여m 거량 떨어진 도로 한복판에 추락했으며 사고 직후 불이 나 원형이 전소돼 현재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추락했다. 다행히 인근에 인가가 없어 추



자락고개 인근 도로에서 추락한 미군 헬기

35 중앙고속도로 차량 35중 추돌



대설주의보 발령 후 도로 제설 늦어져 잇단 추돌 사고

2016년 2월 16일

오후 5시 25분
원주시 신림면 중앙고속도로
제천방면 294km지점
차량 35대 연쇄 추돌

江原日報

2016년 02월 17일
05면 (사회)

원주 중앙고속도로 35중 추돌

운전자 등 17명 다쳐

16일 오후 5시25분쯤 원주시 신림면 중앙고속도로 제천방면 291km 지점 하산교 인근에서 버스 2대와 화물차 4대를 포함한 차량 35대가 연쇄 추돌했다.

이 사고로 차량 운전자 등 17명이 다쳤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다. 중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는 원주에서 제천방면 구간에서 발생했으며 오후 6시53분쯤 정상 소통이 재개됐다.

최기영·김설영기자

江原日報

(11.6~5.25cm)
2016년 02월 17일
05면 (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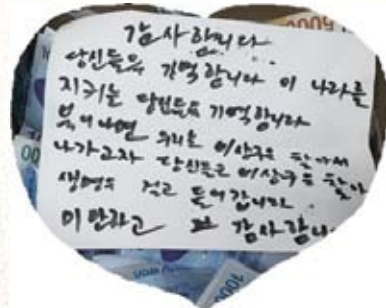
뒤얹힌 연쇄추돌 차량 16일 오후 5시25분쯤 원주시 신림면 중앙고속도로 제천방면 291km 지점 하산교 인근에서 차량 35대가 연쇄 추돌해 사고를 빚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이 사고 처리와 함께 2차 사고 예방 활동을 벌이고 있다.

강원일보(2016.2.17.)



36 얼굴없는 천사, 원주소방서에 매년 기부금 전달

- 2015년 3월 13일
- 2016년 2월 27일
- 2017년 2월 21일
- 2018년 2월 3일
- 2019년 1월 26일



풀빵팔아 모은 돈 기부 얼굴없는 천사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과 남성이 지난달 27일 원주소방서에 돈과 김치 봉투로 기부한 종이상자를 들고 있다.

지난해 이어 원주소방서에 420만원 전달

"소방관 여러분께 항상 고맙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직원들 다가가 자초지종을 물었지만 이들은 '내년에 또 올게요'라는 말만 남긴 채 곧바로 자리를 떠났다. 이왕이면 좀 더 많은 돈을 기부했으면 좋겠다. 원주소방서에서 지난달 27일 오후 7시 차량 한 대가 원주소방서 주차장에 들어왔다. 차량에서 내린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과 남성이 소방서 후문 입구에 종이상자를 내려 놓고 빠른 동작으로 뒤돌아

가 있었다. 지난해에도 200만원이 넘는 봉투와 따뜻한 물병 한 통을 들고 소방서를 찾아왔던 이들은 원주소방서에서 풀빵 노릇을 하며 조금씩 모은 돈을 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주소방서장은 '어려움을 알아주는 마음으로도 고맙는데 이렇게 기부까지 해 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안전한 원주소방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원일보(2016.3.3.)



이명의 기부자가 소방대원을 위해 사들여 달라며 건넨 현금 340만원이 든 상자.

원주소방서로 날아든 상자 현금 340만원, 풀빵 한 봉지

이명의 여성 기부자 3년째 선행

이명의 기부자가 3년째 풀빵장사로 모은 자금을 소방관들을 위해 써달라는 쪽지글만 남기고 사라져 훈훈함을 주고 있다. 원주소방서에 따르면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한 여성이 지난 21일 소방서에 들어와 340만원 상당의 현금이

든 상자를 건네고 사라졌다. 이 여성은 '풀빵 장사를 하면서 모은 돈인데 원주소방서로 기부하는 건 너무 창피해서 그냥 버리고 싶었다'는 말만 남긴 채 자리를 떠났다. 소방관 여러분께 항상 고맙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직원들이 다가와 자초지종을 물었지만 이들은 '내년에 또 올게요'라는 말만 남긴 채 자리를 떠났다. 이왕이면 좀 더 많은 돈을 기부했으면 좋겠다. 원주소방서에서 지난달 27일 오후 7시 차량 한 대가 원주소방서 주차장에 들어왔다. 차량에서 내린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과 남성이 소방서 후문 입구에 종이상자를 내려 놓고 빠른 동작으로 뒤돌아

가 있었다. 지난해에도 200만원이 넘는 봉투와 따뜻한 물병 한 통을 들고 소방서를 찾아왔던 이들은 원주소방서에서 풀빵 노릇을 하며 조금씩 모은 돈을 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주소방서장은 '어려움을 알아주는 마음으로도 고맙는데 이렇게 기부까지 해 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안전한 원주소방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원도민일보(2017.2.24.)

37 원주 관광호텔 화재

2016년 3월 18일

오후 2시 20분경 원주시 중앙동 원주관광호텔 화재



원주관광호텔 화재

18일 오후 2시 18분쯤 원주시 중앙동 원주관광호텔에서 불이 나 3~4층 객실을 태우고 3시간여만에 진화됐다.

화재 당시 호텔 안에는 리모델링 작업을 하던 인부 7명과 관리인 2명 등 모두 9명이 있었으나 모두 구조됐고 이 중 7명이 연기를 흡입, 인근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 중이다.

소방당국은 화재가 발생하자 124명

의 인력과 펌프차 등 27대의 소방 장비를 투입, 진화작업에 나섰지만 객실 내 카페트 등에 불이 옮겨 붙으면서 발생한 연기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날 원주관광호텔은 새 단장을 위해 3층에서 보일러 정비 공사, 4~5층에서 목조 리모델링 작업을 진행 중이었으며 불은 호텔 3층에서 보일러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리모델링 진행으로 화재 당시 호텔 내 투숙객은 없었다. 원주/정성원

강원도민일보(2016.3.19.)

38 소방행정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강원도 소방행정종합평가에서 여러차례 우수한 성적 취득
소방행정종합평가, 2018년도 폐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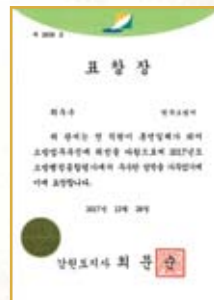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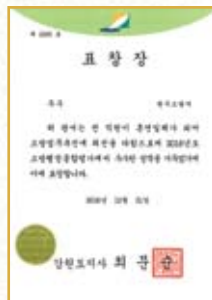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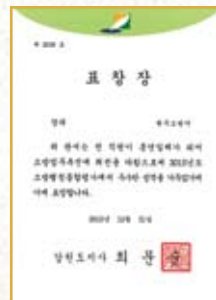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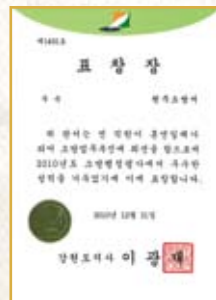
2004. 12. 28

2010. 12. 31

2012. 12. 31

2016. 12. 31

2017. 12. 31



39 흥업면 매지리 차량 27대 추돌

2018년 2월 11일

오후 6시 원주시 흥업면 매지리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차량 27대 추돌

연합뉴스(2018.2.11.)

원주시 눈길에 차량 27대 '꽁꽁꽁'...1명 중상·12명 경 상(중합)



원주시 눈길에 차량 27대 '꽁꽁꽁'
(원주·연합뉴스) 11일 오후 6시에 강원 원주시 흥업면 매지리 19번 국도에서 다중 추돌사고가 났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차량 27대가 부딪혀서 1명이 크게 다치고 12명이 가벼운 상처를 입어 병상으로 이송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8.2.11. [강원 원주소방서 제공·연합뉴스]

40 여성1호 40년 소방생활 끝내고 퇴임

원미숙 여성 최초 소방서장 퇴임 '후배들 앞길 위해 결심'



전국 최초로 여성소방서장 자리에 오른 원미숙(59) 원주소방서장이 40년 간의 소방관 생활을 마감하고 퇴임한다. 원 서장은 후배들의 승진 기회를 위해 정년보다 1년 앞서 공직에서 물러나는 아름다운 퇴장을 선택했다. 원 서장은 지난 2002년 소방경을 시작으로 진급 때마다 전국 여성 최초라는 수식어를 달았다. 2015년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원성소방서장에 취임, 같은 해 전국 여성대회에서 '2015년 여성 1호상'을 수상했다. 2011년 3월 동일

본 대지진이 발생하자 구조대로 급파돼 현장을 누르고 도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들과 함께 24시간 의료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원성과 원주소방서장을 맡으며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전국 1위를 기록하는 등 굵직한 성과를 올렸다. 원 서장은 '일찍 공직에서 물러나야 여성 소방관 후배들의 승진 기회가 열릴 것 같아 어려운 결심을 했다'고 말했다. 박성준

한국 최초 여성 소방서장 탄생

국내 첫 여성 소방서장이 탄생했다.

원미숙 강원도소방본부 종합상황실장이 7일 원성소방서장에 취임한다.

원미숙 원주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원미숙(59) 원주소방서장이 40년 간의 소방관 생활을 마감하고 퇴임한다. 원 서장은 후배들의 승진 기회를 위해 정년보다 1년 앞서 공직에서 물러나는 아름다운 퇴장을 선택했다. 원 서장은 지난 2002년 소방경을 시작으로 진급 때마다 전국 여성 최초라는 수식어를 달았다. 2015년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원성소방서장에 취임, 같은 해 전국 여성대회에서 '2015년 여성 1호상'을 수상했다. 2011년 3월 동일

강원도민일보(2018.6.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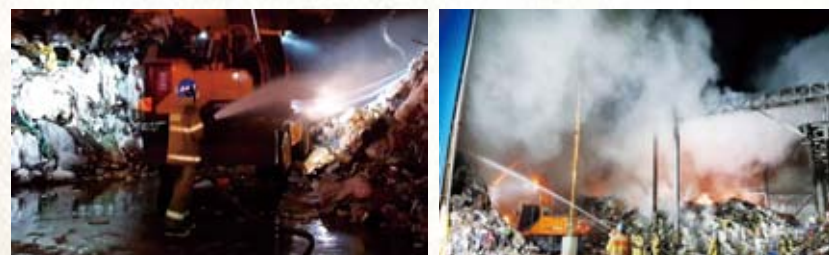
41 흥업면 재활용처리시설 화재

2018년 7월 7일

오후 9시 30분경 원주시 흥업면 폐기물 재활용처리시설 화재
건물 4동 중 1동에서 495㎡가량이 타고 1시간 반만에 진화



세이프타임즈(2018.7.8.)



중장비 동원 및 진화정리 후 아침 6시 50분 상황 종료

42 평창올림픽 사용 컨테이너 야적장 화재

2018년 7월 13일

밤 9시 21분 원주시 소초면 컨테이너 야적장 화재 발생



江原日報 원주 컨테이너 야적장서 화재

지난 13일 밤 9시21분께 원주시 소초면 장양리의 한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불이 나 컨테이너 520개 중 450개를 태우고 2시간30여분 만에 진화됐다. 소방 당국은 인근 지역 소방서에서 장비 36대와 인력 154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지만 컨테이너가 3, 4층으로 쌓여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원주=김설영기자



강원일보(2018.7.16.)

43 문막 화학제품 공장서 폭발사고

원주 의약품·화학제품 공장 잇단 폭발

외국인 근로자 2명 사망
주말 교통·산악사고 잇따라

원주 소재 제조공장에서 폭발사고가 잇따라 발생, 외국인근로자 2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다. 11일 오전 10시 15분쯤 원주시 태장동 소재 의약품제조공장서 헬륨조영제 원료를 원심 탈수기로 분리하던 중 폭발이 일어났다. 이 사고로 근로자 A(44)씨가 전신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다행히 폭발로 인한 화재는 공장 내 비치 소화기로 자체 진화됐다.

앞서 지난 10일 오전 9시 46분쯤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의 한 화학제품 제조공장 작업장에서 탱크 내부 본드 작업을 하던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이 발생, 탱크 안에 있던 20~30대 베트남 근로자 4명 중 2명이 숨졌다.

근로자 2명은 스스로 탈출했으나 다리와 얼굴에 2,3도 화상을 입고 다리가 골절되는 등의 부상을 입었다. 이들은 화학제품을 보관하는 탱크의 부식을 막기 위해 본드를 바르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탱크 정밀감정을 의뢰했다.

한편 10일 오전 11시 46분쯤 흥천의 한 음식점 주차장 인근에서 최모(63)씨가 몰던 승용차가 5m 아래 수로로 추락해 동승자 유모(76)씨가 중상을 입는 등 운전자 등 모두 5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이날 오후 1시 56분쯤 오대산비로봉 인근을 오르던 김모(53)씨가 쓰러져 소방 헬기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남대영·윤환근

2018년 11월 10일

오전 9시 46분
원주 문막 소재 화학제품
제조공장서 폭발사고 발생



강원도민일보(2018.11.12.)

44 전국 최초 피난약자시설 화재안전대책 A3운동 추진

2018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원주소방서, 노유자시설 71개소에 대해
대형화재 방지와 피해 저감을 위한 A3 운동 추진



A3 운동이란?

Always 예방

언제나 사용가능토록 소방시설·피난시설 점검

Anybody 대응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방법 교육·훈련

Anywhere 대비

어디에서나 사용 대피하도록 소방시설·피난안내도 비치

45 원주 중앙시장 화재

2019년 1월 2일

낮 12시 20분경 원주시 중앙동 중앙시장 '나'동 화재. 상가 1,2층 전소



상가 1개동 87개 점포 모두 태워

원주 중앙시장 불

원주 중앙시장에서 불이 나 상가 4개동 중 1개동을 모두 태우고 1시간 50여분 만에 진화됐다.

2일 낮 12시 20분경 원주시 중앙동 중앙시장 '나'동 1층 신발 가게에서 불이 나 상가 1,2층이 불에 탔다. 이 화재로 모두 7명이 연기 흡입 등의 피해를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중앙시장은 '가, 나, 다, 라' 4개

동으로 구분, 피해를 입은 나동 상가는 1층 50개, 2층 37개 점포가 운영 중이다.

조모(37)씨는 "연기가 가게 밖으로 2층까지 스며들기에 뛰어 올라가 식당과 찻집에 불이 났다고 알렸고,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를 마지막으로 부축해 나올 때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매캐한 연기가 자욱했다"고 말했다.

1970년 건축된 원주 중앙시장은 소방 당국이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해 관리 중이다. 자동화재탐지 및 소화 설비, 옥내소화전, 소화기 등을 갖추고 있으나 스프링클러는 없다.

이날 소방 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 원주소방서와 인접 소방기관, 원주시, 군부대 등에서 동원된 장비 41대, 인원 300명을 진화 작업에 투입했다.

원주=정윤호기자 jyh@kwnews.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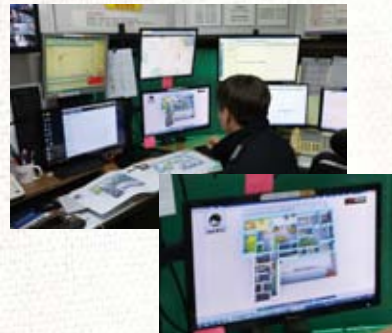
46 전국 최초 3D 119레스큐 맵 제작

2017년 2월 28일 / 2018년 3월 8일 / 2019년 2월 28일

화재 발생시 대형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관내 요양병원, 키즈카페 등 구조 활동 골든 타임 확보를 위한 3D 119레스큐 맵 제작



현장지휘차량에 송출된 119레스큐 맵



상황실 모니터에 송출된 119레스큐 맵



강원도민일보(2018.1.29.)



G1뉴스(2018.2.19.)

원주신문(2019.2.28.)

47 전국 최초 민관 협업 화재안전드론 운영

2019년 3월 7일

원주 우산동 삼양식품에서 민·관협업으로 화점과 인명검색용 드론영상촬영 시연회 실시

원주소방서, 민관 협업 '시민의 눈'드론 실시간중계 시연성공

원주소방서(서장 이병환)는 7일 오전 9시 우산동에 소재한 삼양식품에서 민관 협업으로 화점과 인명검색용 드론영상촬영 시연회를 실시했다.

이번 시연회 주요항목은 화재 소방서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관내의 민간 기업과 연계하여 삼양식품 내에서 화재가 발생 시 소방서측에서 삼양식품에 드론영상 송출을 요청하게 된다.

요청된 영상은 소방서 상황실과 송출 중인 지휘차로 실시간 전송되어 신속하게 화재 규모 및 화점 파악과 인명구조 검색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뉴스타운(2019.3.7.)



KBS강원(2019.3.22.)



원주소방서, 드론활용 현장대응 강화

원주소방서(서장 이병환)는 7일 오전 9시 우산동에 소재한 삼양식품에서 민관 협업으로 화점과 인명검색용 드론영상촬영 시연회를 실시했다.



원주소방서는 삼양식품과 함께 민간드론을 활용한 소방활동 강화시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원주소방서 상황실과 삼양식품 드론기기 간의 시스템 연결을 마친 상태다. 이날 드론 시연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앞으로 화재 발생 시 삼양식품 소방안전관리실에서 드론을 통해 실시간 상황을 소방서 상황실과 송출차량에 스트리밍(streaming)중계한다. 전송된 영상은 소방대원들의 진입로 상황 판단에 활용된다. 특히 골짜기여객가 장벽과 신속하게 화점을 찾는 것은 물론 지상에서 확인하기 힘든 구조자의 위치 파악, 접근이 힘든 유해화물들 사고 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주신문(2019.3.7.)

48 해외 소방관계자 방문



2002.11.13. 중국 강소성 소방관 견학



2008.6.26. 세계지도과정 외국인 방문



2008.10.30. 가나안 지도자 방문



2009.5.29. 가나 응급의료진 방문



2014.9.5. 스리랑카, 스웨덴
응급의료진 방문



2015.7.29. 스리랑카, 캐나다, 오스트리아
응급의료진 방문



2015.8.12. 미국소방관 방문



2016.10.27. 요르단 응급의료진 방문



2017.1.25. 미얀마 응급의료진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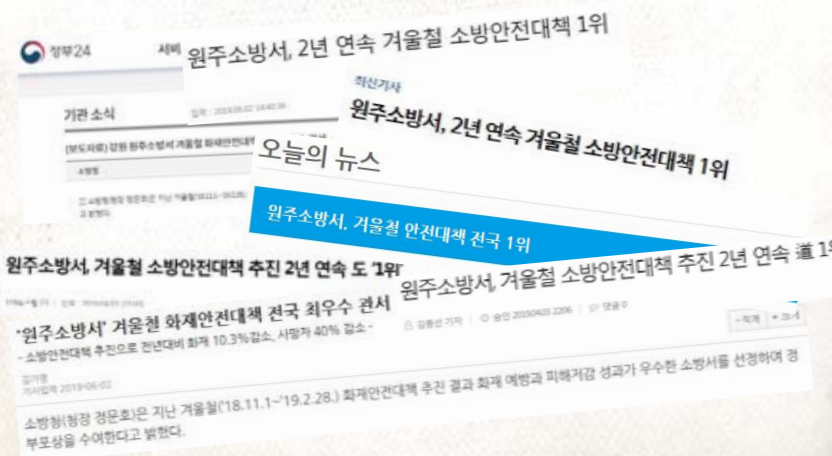
2018.12.14 미얀마 응급의료진 방문



2019.3.22. 우간다 응급의료진 방문

49 소방안전대책 추진 우수기관 선정

- 2003년 국무총리
- 2005년 행정자치부장관
- 2015년 대통령
- 2018년 대통령
- 2019년 행정안전부장관



50 원주소방서 신축 청사 이전 '혁신시대 개막'

2018년 4월 11일

원주소방서 반곡동 이전...11일 신축공사 첫 삽



원주소방서 청사 이전 기공식 11일 열려
내년 상반기 완공 예정

원주소방서 청사 이전 기공식 개최

편집국 | 승인 2018.04.14 05:39 | 댓글 0

2019년 11월 5일

원주소방서 청사 준공...반곡동 시대 '개막'
구분 사회(홍승연 기자) | 2019.11.05 18:30:01



연합뉴스(2019.11.5.)



강원일보(2019.11.6.)

제3장 원주시민의 안전파수꾼

제1절 원주소방의 24시간, 365일(2018년 통계 기준)

※ 전체 출동건수(23,487건)



화재출동

1일 평균 : 1.64건 화재발생

- ▶ 화재발생 600건 ※ 전년대비 : 3.5% ↓
※ 실화 323, 방화 7, 미상 31, 오인 238, 허위 1
- ▶ 인명피해 17명 ※ 사망4, 부상13
- ▶ 재산피해(천원) : 3,856,736
※ 부동산 1,525,776 / 동산 2,330,960
- ※ 출처 :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구조출동

1일 평균 : 10.9건 출동 / 1.34명 구조

- ▶ 구조출동 : 3,992건 ※ 전년대비 : 29.2% ↑
- ▶ 구조인원 : 491명
- ▶ 생활안전 출동 : 2,743건
※ 범죄제거 1,640, 동물구조 484, 위치추적 58
문개방 306, 안전조치 255
- ※ 출처 : 강원도소방본부 구조활동정보시스템



구급출동

1일 평균 : 51.7건 출동 / 34.4명 이송

- ▶ 구급출동 : 18,895건 ※ 전년대비 : 3.7% ↑
※ 정상 17585, 취소 741, 오인 413, 거짓 20, 기타 136
- ▶ 이송건수 : 12,232건
- ▶ 이송인원 : 12,563명
- ※ 출처 : 강원도소방본부 구급활동정보시스템



민원활동

1일 평균 : 16.1건 처리 ※ 평일기준(24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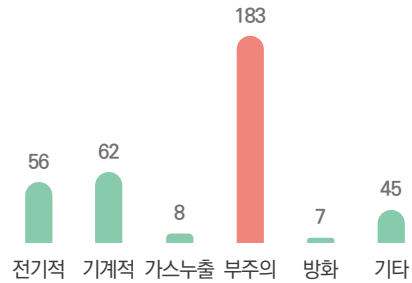
-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수리 : 2,163건
- ▶ 건축허가 동의 / 사용승인 : 553건 / 308건
- ▶ 착공신고 수리 / 완비증명 발급 : 400건 / 105건
- ▶ 완공검사증명서 교부 : 308건
- ▶ 위험물제조소 등 설치(변경)허가 / 완공검사 : 46건 / 40건
- ▶ 행정처분 / 과태료 부과·징수 : 4건 / 34건
- ※ 출처 : 강원도소방본부 「2019 예방소방행정 통계자료」



2018년 원주시 소방활동 현황

화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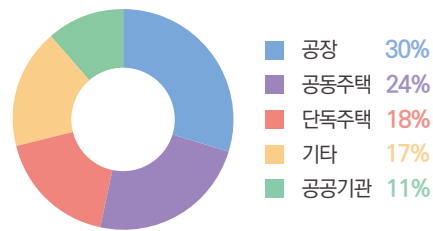
발생 원인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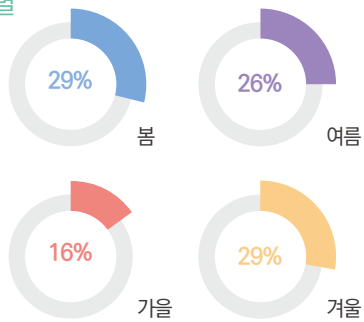
발생 장소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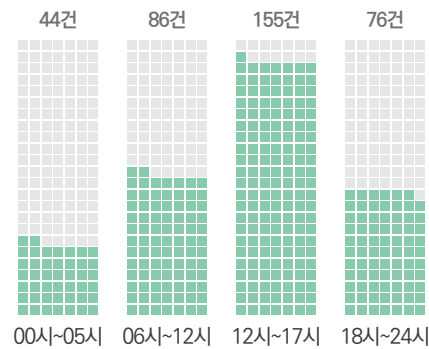
인명피해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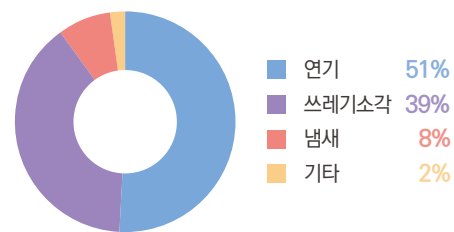
발생 계절별



화재발생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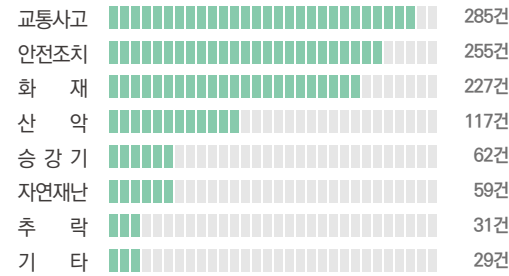


오인출동 유형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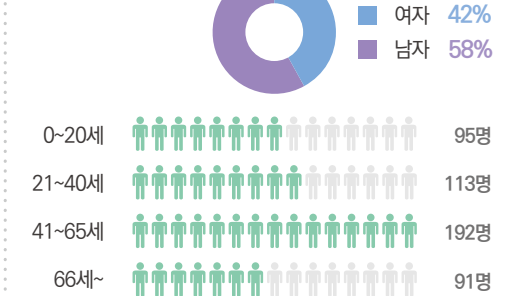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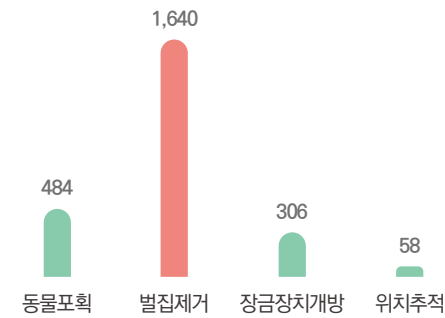
출동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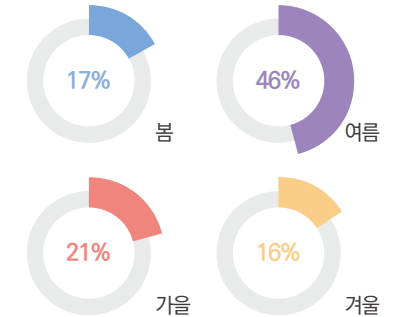
구조인원 유형별



생활안전활동 유형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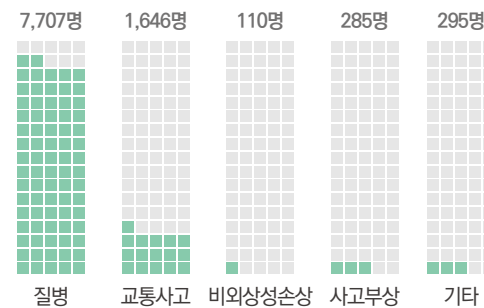


월별 출동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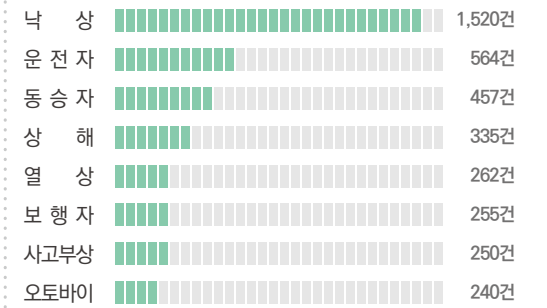


구급

환자 유형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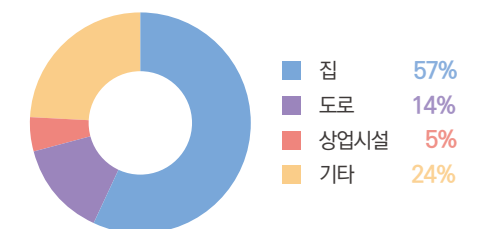
발생 원인별



이송환자 연령별



장소 유형별



쉬어가기

하트세이버(Heart Saver)

'하트세이버(Heart Saver)'는 '심장을 구한 사람'이라는 뜻이다.

응급처치로 심정지 환자의 소중한 생명을 살린 소방공무원이나 일반인에게 인증서와 배지를 수여하고 있는데 원주소방서 구급대원들의 하트세이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연도	수여 인원	일시	경찰공무원
2019년	13명	1. 21. 02:19	34세 남성 일상생활 중 심정지
		4. 5. 11:34	40대 남성 산책 중 심정지
		5. 20. 17:27	49세 남성 일상생활 중 심정지
2018년	26명	2. 5. 14:32	40대 남성 업무 중 심정지
		3. 2. 21:26	60대 남성 음주 중 심정지
		5. 27. 15:47	60대 남성 운동경기 중 심정지
		6. 30. 13:20	20대 남성 시험응시 도중 심정지
		7. 22. 06:01	60대 남성 산책 중 심정지
		12. 18. 05:38	47세 남성 일상생활 중 심정지
		3. 8. 07:24	75세 여성 지병으로 인한 심정지
2017년	24명	3. 9. 17:52	40대 남성 일상생활 중 심정지
		3. 12. 16:50	70대 남성 산책 중 심정지
		6. 5. 05:41	51세 남성 일상생활 중 심정지
		4. 13. 17:57	50대 남성 운동경기 중 심정지
		12. 18. 13:04	50대 남성 일상생활 중 심정지
		12. 28. 21:51	60대 남성 전기 작업 중 심정지

※ 출처 : 원주소방서 구조구급계

심정지 환자의 생존고리



신속한
심정지 확인과 신고

신속한
심폐소생술

신속한
제세동

효과적
전문소생술

심정지 후
통합치료



제2절 원주시민과 호흡하고 소통하는 원주소방(예방 및 홍보활동)

1. 소방특별조사 및 소방안전점검

현대사회는 산업구조가 다양해지고 사회생활이 복잡해짐에 따라 화재 등 재난발생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규모 또한 대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방업무 등 재난관리의 중요성이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으나 이에 대응하는 안전에 대한 의식과 제도는 별반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실정을 타개하기 위해서 원주소방서는 매년 초 소방특별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조사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 내용으로는 수신반 점검등 화재 발생시 알림대책과 소화기 및 옥내소화전 작동여부 등 진화대책의 현실성과 실효성이다.



가정방문 소방안전 점검(1975년)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점검(1990년)



소방안전 무료점검(1992년)



불조심 강조의 달 특별철시 활동(2006년)



숙박시설 국가안전 대진단(2019년)



중점관리대상(대형 공사장) 현장방문(2019년)

2. 119소년단

1971년 12월 25일에 발생한 대연각 호텔 화재를 계기로 대국민 안전교육의 필요성과 예방홍보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었고, 1973년 한국화재보험협회의 지원을 받아 '불조심 어린이단'이 조직되어 각종행사 및 교육을 한 것이 119소년단의 시초이다. 1999년에 119소년단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2004년부터는 소년단 운영의 내실화와 체계화를 위하여 그동안 초등학교 4~5학년만을 대상으로 편성하던 방침을 유치원부터 대학생까지로 확대하였으며, 실질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소방관서에서 소년단을 편성하도록 하였다. 현재 원주시에는 총 4개대 84명의 119소년단원들이 각종 사고와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각종 행사와 안전교육을 활발히 실시하고 있다.



어린이 소방대원 임명식(1970년)



시범 어린이소방대 발대식(1982년, 명륜국민학교)



전국 최초 상지영서대학 시범119청년단 발대식(2000년)



119소년단 소방검사 체험 행사(2005년)



시범 119어린이 소년단 발대식(2006년)



한국119소년단 발대식(2019년)

3. 소방안전강사 활동

발전하는 국가의 경제와 사회속에서 화재와 각종 안전사고는 나날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소방수요를 감소시키기 위해 국민의 인식을 전환하고 사고현장에서의 초기 대응방법 등을 알려주기 위한 소방안전 교육·홍보업무가 2015년 법률로 제정되어 소방의 업무로 명문화되었다. 중앙소방학교에서는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강사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였고, 강원도소방학교에서는 '소방안전교육사 양성반'을 운영하여 안전강사들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수상이력으로는 2015년 '전국 소방안전교육강사 경연대회'에서 최지윤 소방장이 2위, 2017년 '강원도 소방안전강사 경진대회'에서 황현석 소방교가 2위, 2018년 '전국 소방안전강사 경진대회'에서 이형식 소방교가 장려상, 2019년 '강원도 소방안전강사 경진대회'에서는 최배형소방교가 2위를 수상하는 등 원주소방서 소방안전강사들의 실력은 최고의 수준이다. 2019년 현재 원주소방서 소방안전강사는 총 10명이며 심폐소생술, 안전사고예방, 화재예방 등을 주제로 대국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불조심 가두 교육(1970년)



국민학생 대상 불조심 계몽활동(1975년)



국민학교 학생 불조심 교육(1983년)



섬강축제장 소방안전교육(2009년)



전국 소방안전교육 강사 경연대회에서 입상한 최지윤 소방장(2015년)



강원도 소방안전교육 강사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이형식 소방교(2018년)

4.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다중이용업소(多衆利用業所)란〉

휴게음식점,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복합영상물제공업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곳으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다중이용업)에서 정의한 영업

영화관, 노래방, PC방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형태가 다양해졌고, 전화방, 수면방, 콜라텍 등 새로운 형태의 다중이용업소가 계속해서 출현하는 등 화재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다. 반면에 영업주 및 종업원들의 안전의식이나 사고대처능력은 여전히 미흡한 상태여서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영업주·종업원들이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였다.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실시현황(2007~2018)

구분	총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원주	31,410	2,554	3,074	282	4,278	4,312	184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3,966	4,046	2,801	2,943	2,961	1,643

※ 출처 : 원주소방서 예방안전과



전객업소 방화관리 교육(1980년)



시설주 소방안전교육(1989년)



다중이용업소 운영주 소방안전교육(2006년)



다중이용업소 운영주 소방안전교육(2018년)

5. 화재없는 안전마을 선정

‘화재없는 안전마을’은 화재시 소방력의 신속한 전개가 어려운 오지마을에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방화환경을 조성하여 자율안전관리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마을이다. 각 세대내 방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고 소화기를 비치하며,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더불어 전기 및 가스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원주시에는 2019년 11월, 23개 마을이 ‘화재없는 안전마을’로 지정되어 있다.



가현동 21통(2011년)



소초면 흥양4리(2012년)



신림면 구학리(2017년)



부론면 법천3리(2018년)



부론면 손곡2리(2018년)



문막읍 궁촌1리(2019년)

원주시 화재없는 안전마을 지정 현황(2019. 7. 31. 기준)

순번	주소	지정일자	관할부서	가구수	소방시설	
					소화기	감지기
1	판부면 금대2리	2010. 12. 23.	신림	70	-	70
2	태장2동 24통(신촌마을)	2010. 12. 23.	태장	50	-	50
3	부론면 흥호2리	2011. 1. 20.	문막	50	50	50
4	문막읍 포진1리	2011. 5. 17.	문막	87	87	90
5	원주시 가현동 21통	2011. 6. 30.	우산	72	72	34
6	흥업면 대안1리2반	2012. 4. 12.	흥업	50	50	90
7	소초면 흥양4리	2012. 11. 8.	태장	50	50	100
8	호저면 주산2리	2013. 5. 8.	우산	45	45	90
9	흥업면 흥업3리	2013. 10. 24.	흥업	45	45	90
10	부론면 단강2리	2014. 4. 29.	문막	70	21	42
11	귀래면 주포1리	2014. 7. 4.	흥업	60	60	120
12	귀래면 용암1리	2014. 11. 20.	흥업	72	72	72
13	호저면 대덕1리	2015. 11. 17.	우산	47	47	94
14	문막읍 반계3리2반	2015. 11. 20.	문막	38	38	77
15	호저면 용곡리	2016. 9. 2.	우산	31	17	116
16	문막읍 궁촌2리	2016. 11. 7.	문막	66	60	130
17	신림면 구학리	2017. 6. 28.	신림	85	80	162
18	문막읍 대둔리	2017. 7. 4.	문막	48	48	48
19	부론면 손곡2리	2018. 8. 7.	문막	59	59	118
20	부론면 법천3리	2018. 8. 7.	문막	52	52	104
21	문막읍 반계2리	2018. 12. 26.	문막	50	51	102
22	지정면 신평1리	2019. 3. 7.	문막	100	100	200
23	문막읍 궁촌1리	2019. 7. 16.	문막	135	130	260

6. 강원도 소방동요제 참가

1999년부터 강원도소방본부는 어린이들에게 소방동요를 통해 꿈과 희망을 노래하고, 안전을 즐기면서 배울 수 있도록 119소방동요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참가구분은 유치부와 초등부로 나뉘며 참가인원은 팀별 15~20명 이내이다. 참가곡은 소방동요 1~6집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9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19년

7. 소방서 견학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포함한 각종 기관에서는 원주소방서에 방문하여 불조심을 위한 행동요령과 소화기 사용요령들을 배우고 실습하면서 안전에 대해 체험하고 있다. 2018년에만 70여개의 기관에서 3,356명이 방문하였다. 또한 직업체험 등으로 중고등학생들이 방문하여 소방관과 소방서의 업무에 대해 소개받고 소방차 탑승, 구조대 훈련 참가 등을 실습하면서 앞으로의 직업선택에 있어 큰 도움을 주고 있으며, 외국의 관공서와 응급의료 종사자들이 방문하여 선진화된 강원소방을 견학하고 체험하고 있다.



유치원생 견학(1970년)



유치원생(일산유아원) 견학(1983년)



중국 강소성 소방관 견학(2002년)



청소년 미래소방관 체험(2013년)



어린이 안전체험 행사(2018년)



우간다 응급의료진 견학(2019년)

8. 각종 홍보 및 봉사 활동



불조심 가두홍보(1970년)



화재없는 원주 가두 계몽 선전(1975년)



농기계 수리 봉사(1980년)



불조심 가두 캠페인(1990년)



소방안전 무료점검 봉사 홍보 차량(1992년)



길거리 소방안전 홍보(1996년)



주민안전의식 함양 캠페인(2006년)



안전 점검의 날 캠페인(2019년)

더 많은 예방활동 모습은 QR코드로 확인하세요



제3절 원주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다

1. 현장활동의 모습

1) 화재

화재현장으로의 출동은 20여년을 근무한 베테랑 소방관이건 갓 임용한 새내기 소방관이건 모두에게 긴장된 두려움의 순간이다. 15Kg가량의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얼굴에 호흡장비를 착용한 것만으로도 이미 신체활동에 상당한 압박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상태로 화재현장 내부로 진입하면 온 몸을 휘감는 열기가 느껴지고 화재현장 내부로 뿌려진 물로 인한 수증기 때문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되어 한 순간의 실수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된다. 대원들이 믿을 수 있는 건 그동안 훈련을 통해 체득한 화재현장에서의 행동요령과 자신의 정신력과 체력,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동료뿐이다.

중앙시장 화재(2008년)





원주고등학교 화재(1981년)



원주고등학교 화재 진압작전 검토회의(1981년)



우산동 공장 화재(1981년)



왕국화관 화재(1992년)



구룡사 대웅전 소실(2003년)



지하 노래연습장 화재(2004년)



동화리 공장 화재(2006년)



상가 화재(2006년)



자재 아적장 화재(2006년)



주택 화재(2007년)



호저면 가구전시장 화재(2010년)



우산동 장갑제조공장 화재(2011년)



중앙동 상가 화재(2013년)



신림면 캠핑장 화재(2015년)



호저면 재활용품 재생공장 화재(2015년)



중앙동 호텔 화재(2016년)



개운동 주택 화재(2017년)



단구동 원룸 화재(2017년)



문막읍 교회 화재(2017년)



문막읍 주택 화재(2017년)



문막읍 아파트 화재(2018년)



문막읍 공장 화재(2018년)



문막읍 재활용품 처리공장 화재(2018년)



컨테이너 야적장 화재(2018년)



지정면 창고화재(2018년)



태장동 주택 화재(2018년)



영동지역 산불 지원활동(2019년)



부른면 주택화재(2019년)



중앙시장 화재(2019년)



명륜동 주택화재(2019년)



지정면 창고화재(2019년)

2) 구조·구급

구조대와 구급대가 출동하는 현장은 대개 위급하고 정돈되지 않은 무질서한 환경이다. 생사의 기로에 맞닥뜨려져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요구조자와 그를 지켜보며 마음 졸이는 수많은 시민들... 그러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직 구조·구급대원뿐임을 그들은 스스로 알고 있다.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다양한 사고들은 구조대원들로 하여금 능동적으로 훈련하게 하고 강인한 체력을 유지하게끔 하며, 구급대원들로 하여금 항상 공부하고 연구하게끔 만든다. 35만 원주시민의 안전을 지켜주기 위해 존재하는 그들, 19인의 구조대원과 12개의 구급대이다.



농기계 안전사고(2000년)



응급환자 이송 모습(1990년대)



열차와 화물차 충돌사고 현장수습(1996년)



간현유원지 수난사고(1997년)



어린이 안전사고(1998년)



화물차 추락사고(1998년)



고속도로 다중추돌사고(2003년)



시내버스 추돌사고(2006년)



화재시 로프를 이용한 내부 진입(2007년)



공사장 추락사고(2008년)



아파트 EV내 고립사고(2016년)



부른면 고속도로 교통사고(2017년)



부른면 수난구조(2017년)



호저면 고속도로 교통사고(2017년)



건물 추락사고(2017년)



문막읍 수난구조(2018년)



남원주IC 교통사고(2018년)



우산동 교통사고 현장CPR(2017년)



치악산 산악구조(2017년)



반곡역 열차사고(2018년)



감악산 산악구조(2018년)



홍업면 벌집제거(2017년)



판부면 교통사고(2017년)



관설동 고드름제거 민원활동(2018년)



단구동 차대차 교통사고(2018년)



치악고 반지제거(2018년)



우산동 안전사고 현장CPR(2018년)



장양리 보행자 교통사고 현장CPR(2019년)



흥업면 공사장 추락사고(2019년)



흥업면 차대차 교통사고(2019년)



신림면 중앙고속도로 덤프트럭 추락사고(2019년)



지정면 차량 추락(2019년)



귀례면 교통사고(2019년)

더 많은 현장활동의 모습은 QR코드로 확인하세요



현장대원들의 생생 Talk [1]



성 명 진압대원 지방소방위 고경춘
근무기간 '00. 1. 17 ~ 현재
주요경력 혁신센터 화재진압대 / 원주소방서 구조대

샤워를 한다. 1년 전부터 건강책자에서 읽고 실천하고 있는 찬물샤워는 아직도 조금은 힘들다. 맨 처음에 살갗에 와 닿는 그 차가움이란... 하지만, 샤워를 마칠 때쯤이면 내 몸에 기운이 생기는 것 같고, 정신도 맑아진 듯하다. 불과 몇 분전 차갑다고 주저함을 느낀 것이 마치 아직도 어린아이의 마음인 것 같이 느껴진다. 흠, 흠, 헛웃음 두 방으로 떨친다.

음악을 들으며 출근한다. 두 어깨는 짝 피려고 노력하며...

샤워를 하며 칫솔을 놓친다거나, 칫솔이 튕겨지며 잇몸을 강타한다거나, 면도를 하다가 피부에 상처가 난다거나 하는 등의 돌발적인 상황이 징크스로 남아 그날은 꼭 화재가 난다. 물론 나만의 징크스이지만... 사실은 그런 징크스에도 화재가 나지 않은 날이 더 많다는 것도 알고 있다.

2019년 1월 14일, 그 날은 어떤 징크스도 없었다. 불과 12일전 중앙시장의 화재로 내 몸은 긴장상태로 돌입되어 아직 회복하지 못한 시기였다. 또 그날은 중앙시장 화재 진으로 소방본부 관계자들이 원주소방서로 모여 검토회의를 하는 날이었다. 20년 소방생활로 얼굴과 이름과 성격까지도 잘 아는 직원들이 많아졌다. 소방서 후정에 들어온 낯선 차량들에서 익숙한 직원들이 내렸다. 오랜만에 보는 정겨운 얼굴들이 좋았다. 이제는 지난 젊은 날의 무리 많았던 열정들이 추억으로 넘어가는 세월이 흘렀다.

마음속으로 기원한다. 모두들 오래오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평범하고 대단한 것 같지 않은 이런

징크스 없던 날

인사말들이 진심으로 느껴지는 그런 나이가 나에게도 예외 없이 찾아온 것이다. 좌우지간 반가웠다.

검토회의가 시작되고 얼마 후 출동방송이 고막을 때린다. 내 직업이어서 이젠 익숙해질 만도 한 이 스피커 소리는 여전히 내 몸을 긴장하게 한다. 일반적으로 일을 하러 가서 일거리가 생기면 직원들이 반가운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거나, 즐거운 기분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을 직업의식이라 얘기하지만, 일거리를 지시하는 이 출동지령 방송에는 즐겁게 웃을 수 없다. 소방이 움직이면 국민들에게는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기에...

단계동 모텔이다. 연기와 불꽃이 보인다. 객실에 투숙객들이 고개를 내밀고 있다. 상황이 좋지 않다. 다급하지만 침착하려고 행동을 제어한다. 마스크도 미리 쓰고, 공기용기도 개방했다. 칙~삐이익~~ 매번 마시고 듣는 익숙한 소리... 익숙한 온도와 바람... 내 숨소리를 느낀다. 가쁜 듯 고요한...

그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를 생각한다. 모텔 5층, 수관 3본으로 화점까지 갈 수 있을까? 객실문은 구조대가 빨리 개방할 수 있을까? 소사자가 생기면 어떡하지? 옥내소화전 수압은 괜찮을까? 고가차로 구조가 가능할까?

순간, 입구에 도착했다. 기관원인 상효(명륜 김상효 부장, 나랑은 동계올림픽과 족구로 맺어진 친한 동생 같은 직원이다)에게 입구에 가깝게 차를 대라고 얘기했다. 바로, 적재된 3본의 수관을 끌고 올라갔다. 다행히 계단은 입구와 가까이에 있어 수관길이의 낭비를 줄일 수 있었다. 5층에 도착. 숨이 찼다.

복도는 이미 검은 연기가 짙 차있다. 바닥에서 한 뼘 정도는 여유가 약간 있는 상황. 뜨거웠다. 저 검은 연기의 장벽 뒤, 분명 멀지 않은 곳에 불이 있다는 신호다. 매번 느끼지만, 저 검고 두터운 연기의 몽태기는 사람의 마음까지도 "턱" 하고 막히게 한다. 그렇지만, 용기를 내자... 저 뒤에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직 숨을 쉬고 있다. 바닥을 기었다. 한쪽 무릎을 꿇고 손을 이용해서 전진하는 방법은 유용했다. 약 10m 정도를 전진했을 때 좌측 편으로 거센 뜨거움을 느껴 돌아봤다. 마치, 영화 속 장면처럼 눈알이 쑥하고 앞으로 빠져나오며 확대되는 것처럼, 내 눈도 그렇게 크게, 동그랗게 떴다. 불이다... 객실 안에 불이 다 돌았다. 문은 열려 있었다.

그랬다. 모텔 직원은 수신반에 화재가 감지되자, 5층 객실 문을 열고 확인해보니 화재가 발생된 것을 보고 놀라 그냥 문을 열어놓고 대피하며 신고한 것이다. 그 바람에 연기가 급속히 확산되어 다른 객실에 있는 투숙객들이 복도를 통해 대피하지 못한 것이다. 우리 쪽 입장에서는 문이 열려있어 진입하기에는 더 수월했지만 말이다.

일단 불은 금방 진압되었다. 화재가 난 객실에는 사람이 없었다. 그 사이 구조대가 진입하여 해당 층의 모든 객실 문을 두드렸다. 나 또한 진압을 마치고 다른 객실 쪽으로 이동했다. 다른 객실에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자 안쪽에서 희미한 외침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안에서는 문을 열어주지 못했다. 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들어가 보니, 객실 안에는 이미 검은 연기가 짙 차 있어 투숙객들이 창문 밖으로 머리만 내민 채 문까지 다가오지 못하고 있었다. 불과 얼마 전까진 아무런 장애 없이 자유롭게 다니던 그 가까운 거리를...

한명을 찾아 보조마스크를 씌워 손을 잡고 어깨를 감싸서 해당 층을 빠져나왔다. 계단 쪽에 있던 다른 대원에게 인계하고 또 다시 들어갔다. 확인하고 또 확인했다. 깨끗했던 객실 바닥은 우리들의 장화자국으로 채워졌다.

다행히 사망자나 부상자는 없었다. 6명 모두 구조했다. 다시 화재가 난 객실로 돌아가 잔화정리를 했다. 아직도 욕실이나 구석 쪽은 뜨거웠다. 수석 관창수인 정주임님과 함께 마무리를 지었다. 예상대로 옥내소화전의 수압은 우리가 사용하기에는 다소 약했지만 그것만으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었다. 이젠 마스크 없이 돌아다닐 수 있을 정도로 연기가 빠졌다.

"주임님, 잠깐 내려갔다가 마저 합시다."

"그럴까요?"

정주임님과 계단으로 내려왔다. 면체 안으로 보이는 두 눈을 통해 서로 느낄 수 있었다. 놀랐고...

그러나 우리는 잘해냈다는 것을...

지상으로 내려오니, 여기 또한 분주했다. 서장님께서도 나와 계시고, 간부회의를 하시던 과장님, 센터장님들 모두 계셨다. 언론사의 카메라도 보였다. 진입했었던 대원들 모두 더러워진 방화복과 빨진 얼굴색, 흠뻑 젖은 머리카락으로 저마다 누가 먼저 할 것 없이 생수 한 병을 들고 서로 먼저 마시라고 투닥거린다.

"감사하다. 소방관들..."

매번 느끼지만 참 착한 사람들이 많은 조직이다.

펌프차 뒤에 걸터앉았다. 물 한 모금이 생명이구나. 진짜로 화재 진화 후에 마시는 물은 그대로 흡수되어 나를 다시 살게 해주는 것 같은 기분이다. 이 기분은 참 좋다. 그래서 이때는 웃는다. 혹자는 화재현장에서 웃으면 안 된다고 얘기한다. 그렇다고 피해자들 앞에서 웃는 건 아니니까 걱정 마시길... 우리끼리 다른 사람들 눈에는 잘 띄지 않은 곳에서 웃는 웃음이니까...

그 날 점심밥은 늦은 시간에 먹었지만 꿀맛이었다. 참, 난 그때 임플란트 때문에 뺏겨 두 개가 빠져있던 때였다. 그래도 그 웃음은 활짝 밝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물론, 나만의 생각이지만...



2019. 1. 14. 단계동 모텔 화재 언론보도 화면



고경춘 소방위의 화재진압 모습. 항상 선두이다.



화재진압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는 고경춘 소방위

현장대원들의 사생활 Talk [2]



성 명 구조대원 지방소방장 전상민
근무기간 '10. 10. 7. ~ 현재
주요경력 원주소방서 구조대 / 평창소방서 구조대

함 께 한 다 는 것

어제도 평소와 같이 야간 근무를 위해 출근하여 근무 교대를 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주간 근무를 한 동료 직원들에게 수고했다는 인사말을 건넬던 중에 스피커에서 신고자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모텔에 불이 났는데 안에 사람이 있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아직 장비를 다 신지도 못 해 부랴부랴 장비를 챙겨 다급하게 현장으로 출동했다.

“요구조자 현재 난간에 매달려있는 상황.” 무전은 현장의 위급함을 알리고 있었다. 급한 만큼 더욱 좌우를 살피며 요란한 사이렌을 켜고 현장을 향해 달렸다. 퇴근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차길을 양보해 준 시민들 덕분에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할 수 있었다.

현장에 도착해 보니 검은 연기가 건물의 창문을 통해 무섭게 뿜어져 나오고 있었고, 그 연기 틈으로 요구조자가 보였다. 시간을 지체 할 수 없어 차에서 빠르게 내려 방화복과 장비를 착용했다. 몇 번째 겪는 화재 현장인데도 이 순간에는 항상 심장이 요동친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에 대해 생각할 여유가 없다. 신속하게 불길 속으로 들어가야만 한다. 현장에서는 먼저 들어간 동료 구조대원들이 난간에 있던 남성을 구조해 나오고 있었다. 이제 내 역할은 혹시 더 있을지 모르는 인명을 수색하는 것이다. 방문을 하나하나 뜯으면서 아직 나오지 못한 요구조자가 있다면 조금만 버텨주기만을 바랐다. 그러던 찰나 어느 한 객실의 문을 열자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한 사람이 보였다. 공포에 떨었을 그 요구조자를 안전하게 구조하니 그는

나에게 연신 고맙다는 말을 건넸다. 뿌듯하고 다행이라는 마음이 들면서도 조금 더 일찍 요구조자를 구조하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든다.

화마와 격렬히 싸우고 돌아온 날은 할 일이 많다. 구조 활동에 사용한 장비를 깨끗이 털어내고 방화복을 세탁해야 하며 공기용기도 충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에게서는 이러한 시간마저 사치라는 듯 어김없이 구조벨이 소방서에 울려 퍼진다. “구조출동, 원주구조 경찰 공동대응 요청 시건개방 출동입니다. 동생이 며칠째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고 자살이 의심된다고 합니다.”

화재에 지친 몸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빠르고 안전하게 구조차량을 몰았다. 현장에는 근처 안전센터에서 출동한 구급대원들과 신고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요구조자의 집으로 올라가 문을 두드렸다. 그러나 아무런 인기척도 나지 않았다. 느낌이 이상했다. 소방생활을 하다보면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상하게 들어맞는 느낌이라는 것이 온다. 조금이라도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 될 것 같았다.

나는 신고자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동시에 문 개방을 위한 준비를 끝내 놓고, 신고자의 동의를 구해지자마자 함께 출동한 구조대원과 문 개방을 시작했다. 팡 팡 소리가 복도를 울렸다. 구조대원에게 시건개방 출동은 꽤나 자주 발생하는 출동이다 보니 그 동안의 출동에서 익혔던 노하우들을 활용하여 빠르게 문을 개방할 수 있었다. 개방된 문을 넘어 쓰러져있는 요구조자의 모습이 보였다. 쓰러진지는 그렇게 오래되어 보이지 않았기에 빠른 응급처치가 필요했다. 구조대가 개방한 문 사이로 구급대원들이 뛰어 들어갔다. 이번 출동에서 구조대의 임무는 여기까지다. 우리는 구급대원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길 바라며 장비를 챙겼다. 귀서하는 길에 머릿속은 온통 요구조자가 무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득했다.

출동 덕에 미처 하지 못했던 모든 일을 마무리 하니 벌써 해가 진 후였다. 그제야 자리에 앉아 오늘은 심상치 않은 날이라는 생각을 하며 휴식을 취했다. 그러던 야심한 새벽, 졸음과 사투를 벌이



지난 2017년 구조 활동 모습. 보트를 운행하는 전상민 소방장



신변확인을 위한 문 개방 현장 활동중인 전상민 소방장

고 있을 무렵 줄음을 확 달아나게 하는 출동 건이 있었으니, 바로 교통사고 출동지령이다. 차량이 교량 아래로 추락을 했다고 한다. 위치를 파악하니 빨리 도착해도 25분은 족히 소요되는 거리에, 이 상황을 비아냥거리듯 비까지 주섬주섬 내리고 있었다. 들려오는 무전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상황이 많이 안 좋은 듯하여 사이렌 소리를 더욱 크게 켜고 악셀 페달을 더욱 세게 밟았다.

차량이 지상에서 큰 충격을 받은 후 똑방 밑으로 추락해 차체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파손되어 있었다. 어두운 새벽 풀숲 한가운데 차가 위태롭게 서있었고 그 밑으로는 전신주의 전선이 절단되어 차량을 감고 있었다. 비 까지 와서 바닥은 미끄럽고 어디 하나 발을 안정적으로 디딜 곳조차 없었다. 그야말로 최악의 환경 조건이었다. 차량 내부에는 운전자가 한 명 있었는데 이미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였다. 요구조자를 구조하기 위한 작업은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전선이 차량을 휘감고 있었기 때문에 한전에서 안전조치를 해야만 우리 구조대가 작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윽고 한전이 도착해 안전조치를 마친 후 우리는 구조작업을 시작했다. 비와 땀이 한데 섞여 차체를 자르고 전개하고 뜯어내고를 여러 번 반복했다. 비를 맞은 흙과 경사가 심해 미끄러운 땅에서 작업을 하는 것은 만만치 않았다. 우리는 비와 땀으로 옷을 다 적신 후에야 요구조자를 차량 밖으로 구조해낼 수 있었다.

구조작업의 완료와 동시에 심한 갈증과 여기저기 쏘린 흔적들이 아려온다. 장비를 주섬주섬 챙겨 차량에 싣고, 귀서를 한다. 저 멀리 날이 밝고 있다. 10분쯤 더 가자 언제 어두운 밤이었냐는 듯 아침이 되었다. 다른 대원들은 말없이 먼 창밖만 바라보고 있다. 다들 무슨 생각을 저러들 할까? 누군가는 사고 원인을 파악할 것이고, 또 누구는 날이 30분만 더 일찍 밝았더라면 이런 사고가 없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며 아쉬워할 것이며, 또 누구는 고인이 된 요구조자의 명복을 빌 것이고, 또 어떤 이는 오늘 현장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잘된 점과 아쉬운 점을 복기할 것이다.

그날 저녁, 간판이 빛바랜지 오래된 듯한 어느 허름한 대포집에 다섯 남자가 땀 뻘뻘 앉아 막걸리주전자를 옆에 두고 떠들썩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들의 대화를 듣고 있자니, 소방관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이런 저런 출동 건을 두고 의견을 나누고 있다. 공통된 대화의 분모는 다들 신속하고 안전한 구조활동이라는 뿌리였으며, 이런저런 긍정적 의견들이 설왕설래 했다. 모든 의견들이 정답인 듯 싶었으며, 이런 소통의 과정은 앞으로도 이 조직이 보다 나은 발전을 위해, 더 나아가 국민과 시민들의 빠른 구조를 위한 밑바탕이 될 것이라 확신이 든다. 오늘 하루 이들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이 사람들 참 멋있고 듬직하다.

현장대원들의 생생 Talk [3]



성 명 구급대원 지방소방교 신소희
근무기간 '16. 10. 24 ~ 현재
주요경력 혁신·우산구급대 / 하트세이버 7회 등

오늘도 인터넷에 출근확인을 하며 주말 당번 근무를 이어간다. 어제 저녁엔 비가 억수같이 내리더니 오늘은 밖에서 활동하기 좋은 날이다. 요즘엔 날씨가 좋아져 출동이 많은데 대부분 주취자 출동이다. 어제 근무자도 주취자에게 심하게 휘둘렸는지 아침 교대 때부터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열변을 토한다. 나 또한 지난 야간근무 때 주취자와 현장에서 한참을 시간을 보내고 들어온 일을 얘기하며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근무교대를 마쳤다. 오늘은 부디 조용하길 바라지만 알뜰게도 출동 벨이 울린다. '구급출동, 우산구급 의식이 없다는 신고, 우산구급 출동'. 하필 첫 출동부터 상황이 좋지않은 환자인데다 거리도 멀다. 현장으로 이동 중 신고자에게 전화를 걸어 환자상태, 과거력, 발병상황을 대체적으로 물어보고 거리가 머니 조금 늦을 것 같다고 양해를 구했다. 20분을 달려서 도착해 환자상태를 확인하니 다행히 환자의 활력징후(혈압, 맥박, 호흡, 체온)는 정상범위였으나 혀가 자주 말려 코를 고는 비정상적인 호흡이 관찰됐다. 뇌혈관질환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바로 환자를 들것으로 옮겨 구급차에서 기도를 확보하고 모니터링되는 정보를 감시했다. 바로 강원소방본부 상황실로 전화해 그곳에 상주하는 응급의학과 전문의에게 의료지도를 요청해서 전문기도를 삽입하고 산소를 투여했다. 이송 중 환자상태가 더 나빠지지 않기를 바라며 운전원에게 빨리 원주기독병원으로 가자고 했다. 사이렌을 울리며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을 한 덕분에 무사히 환자를 인계할 수 있었다. 센터로 귀소해 사용한 장비를 정리하고 세척과 소독으로 다음 출동에 대비했다.

심장이 뒹다

모든 소방관들이 그렇겠지만 특히나 구급대원들은 출근해서 유니폼을 입는 순간 긴장상태에 돌입한다. 다른 부서의 대원들과는 다르게 우리 구급대원들은 매순간이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심정지 상황은 그 중에 단연 최고라 할 수 있는데 심정지가 된 환자가 있는 현장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나 다름이 없다. 의식과 호흡이 없는 환자와 그 곁에서 이성을 잃고 있는 가족이나 지인들,,, 이 상황을 해결하고 극복해야하는 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은 언제나 나를 긴장하게 만든다. 작년까지 나는 2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동안 원주에 근무하면서 7명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였다. 하트세이버 7개를 받으면서 강원도내 1위 타이틀을 얻기도 했다. 응급구조학과에 다니면서 이론으로 숙지하고 실습으로 숙달하였고 무한반복으로 체득한 결과가 이렇게 감사한 타이틀로 보상이 되는 것 같아 구급대원이 된 것이 얼마나 뿌듯한지,,, 너무나도 소중한 직업임에 틀림없다.

출동이 없는 틈을 타 대기실에 누워서 잠깐의 휴식을 취하려던 순간 다시 출동벨이 울린다. '구급출동, 우산구급 구토, 설사환자 구급출동'. 늑자마자 바로 출동벨이 울려 급히 1층으로 내려와 구급차에 올라탄다. 다행히 이번엔 멀지 않는 곳에 경상환자였다. 빨리 병원으로 이송을 도와주고 대기실로 올라가 좀 쉬어야겠다는 다짐을 하며 현장에 도착해서 환자상태를 파악했다. 환자는 병원 이송 중 계속 구토를 멈추지 못 하고 힘들어했다. 설상가상으로 배가 아파 설사를 할 거 같다는 거 아닌가. 다행히 저 멀리 성지병원이 보여 환자에게 곧 병원에 도착하니 조금만 참으라고 말하며 환자를 단독인다. 환자를 병원에 빠르게 인계 후 응급실 앞에서 차량 정리를 시작하는데 우리 관할에 또 뇌혈관질환 출동이 걸려 혁신구급에서 출동을 나간다는 무전이 들린다. 미안하지만 한편으론 안도하며 차량정리를 마무리한다. 당번 근무를 할 때면 유독 하루가 긴 기분이다. 아직 당번 근무의 절반도 못한 시점인데도 말이다. 하루가 길고 출동이 많지 않은 센터에 있어 때론 지루함을 느낄 때가 많다. 오늘도 그런 날이다. 출동이 많은 센터(이를테면 혁신·학성·단구센터)에 있다가 지금은 출동이 적은 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아직 적응하기가 쉽지 않다. 남들은 출동이 없으니 좋지 않냐고 많이 물어보지만 그때마다 난 “다 장단점이 있지만 전 바쁜 센터에 있고 싶다”고 대답한다. 난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기에 많은 현장을 경험하고 싶다. 많



하트세이버 활동 유공 MBC 인터뷰



구급장비 점검 모습



KBS 거리의 만찬 출연

은 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실력을 쌓고 빠른 판단이 필요한 현장에서 환자에게 신속하고 폭 넓은 처치를 하고싶다. 최근에 다녀온 특별구급대 교육도 마찬가지다. 우연히 한 자리가 남아 선발되었고 하루 빨리 교육을 다녀오고 싶었다. 비록 교육은 힘들었지만 그로인해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고 현장에서 막힘없는 처치와 대응을 할 수 있는 유연함도 늘었다. 역설적이게도 출동이 없기를 바라면서도 출동을 기다리고 있는 나를 발견할 때가 많다. 어릴적 나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사람이 되는게 나의 꿈이었는데 현재 구급대원인 나는 이제 작은 한 걸음을 나아간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 앞으로도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아가 인정받는 그 날까지 오늘도 난 출동에 대비한다.

현장대원들의 생생 Talk [4]



성 명 의무소방원 마건우
근무기간 '18. 10. 1 ~ '20. 5. 31
주요경력 혁신센터 구급대 / 원주소방서 구조대

의무소방원 내 인생

‘생활안전구조 개 포획 출동입니다.’ 출동 벨 소리에 서둘러 구조 조끼를 입고 생활안전구조차에 탑승했다. 지령서를 읽어보니 큰 개가 사람을 위협한다고 쓰여 있었다. 혹시 모르니 반장님은 마취총을 챙겨오셨지만 되도록 사용하지 않고 포획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셨다. 잘못하면 개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나도 반장님의 말에 동의를 표하며 머릿속으로 필요한 장비들을 되짚어봤다. 현장에 나가서 필요한 장비들을 직원 분들에게 신속하게 전해드리기 위함이다. 생각의 정리가 끝날 때쯤 현장에 도착하였다. 아니나 다를까 개가 크게 짖어대며 신고자를 위협하고 있었다. 반장님들은 서둘러 차에서 내려 신고자의 신변을 보호했고 그 사이 나는 필요한 장비를 챙겼다. 그 후 울무와 포획망 등 필요한 장비를 사용해 반장님들은 개를 안전하게 포획했고 케이지에 넣어 구조를 완료했다. 귀소하는 차 안에서 언뜻 사소하게 보이는 일일지라도 막상 현장을 가보면 위험한 현장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였다. 소방관에게 있어 안전이란 대형 화재에서 다수의 인명을 구조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국민들의 일상을 지켜주는 것임을 다시금 깨달았다.

아침에 있었던 개 포획 출동 이후 출동벨은 한동안 잠잠했다. 마침 점심시간 때가 되어서 직원 분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러 갔다. 점심을 먹는 도중 벨이 울렸다. ‘구급 출동입니다. 낙상 환자, 출혈이 심하다고 합니다.’ 구급차를 배정 받은 내 동기는 밥을 먹다 말고 구급 벨소리에 서둘러 출동 준비를 하였다. 매일같이 보는 풍경이지만 아직도 익숙해지진 않았다. 24시간 출동에 대비한다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

해 당연한 일이겠지만 쉬운 일이 아님에는 분명하다. 소방관의 노고에 감사함을 느끼며 남은 밥을 먹고 있는 도중 구조 벨소리가 울렸다. 아, 나도 소방의 일원이었지. 감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다. 밥을 먹던 숟가락을 멈추고 빠르게 사무실로 달려가 출동 준비를 하고 차에 탑승하였다. 이번에는 시진개방 출동이다. 신고자에게 전화를 해보니 아버지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하였다. 나는 요구조자의 목숨에 이상이 없기를 기도하면서 장비를 챙겼다. 한시가 급한 출동이니 만큼 도착하자마자 나와 직원 분들은 모두 현장까지 뛰어갔다. 문 개방을 완료한 후 내부를 살펴보니 요구조자가 경련을 하고 있었다. 함께 출동한 구급대원들에게 환자를 인계한 후 우리는 모두 환자의 안전을 기도하며 다음 출동 준비를 위해 차에 올라탔다.

귀소 하던 도중 무전기에서 화재 출동 지령이 들려왔다. 화재 출동 소리는 언제 들어도 긴장된다. 대형 화재인 경우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긴장해 있을 때가 아니다. 반장님들이 방화복을 착용하는 것을 도와드린 후 나도 빠르게 방화복을 입기 시작하였다.

모든 개인안전장비 착용을 마친 후 떨리는 마음으로 지휘 무전을 기다렸다. 치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지휘대의 무전 소리가 들려왔다. ‘여기 원주 지휘, 음식물 탄화로 추정. 선착대를 제외한 전 차량 귀소’ 큰 화재가 아니라는 안도감에 한숨을 한번 내뿜고는 방화복을 벗었다. 화재는 나를 긴장하게 만드는 현장이기도 하지만 내가 의무소방을 지원하게 된 계기이기도 하다. 전에 집 주변 시장에서 큰 화재가 났었던 적이 있었다. 그 때 신속하게 출동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관들을 보고 나도 가까이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다. 이 생각이 계기가 되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서있다. 물론 지금도 나라를 지키고 있는 군인들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지만 국민의 곁에서 도움이 되는 것을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뿌듯함이 참 좋은 것 같다. 남은 복무 기간도 소방 보조 인력으로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의무소방이 되고 싶다.



각종 현장에서 보조적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마건우 의무소방원(두 사진 모두 맨 우측)

2. 각종 훈련

현장적응훈련과 합동소방훈련은 각 안전센터별로 실시하며, 주당 1~3개의 소방대상물로 직접 방문하여 실시한다. 위험요소와 시설물의 구조 등을 실제로 확인하여 사고발생시 신속한 소방력 전개와 계획 수립이 가능하다.



중앙국민학교 합동소방훈련(1970년)



직장 합동소방훈련(1970년대)



민방공 합동소방훈련(1975년)



유류저장시설 합동소방훈련(1980년)



소방통로 확보 훈련(1990년)



자유시장 합동소방훈련(2006년)



봄철 유관기관 합동산불진화 훈련(2019년)



대한송유관공사 강원지사 합동소방훈련(2019년)

긴급구조종합훈련은 재난현장에서의 통합적인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훈련으로 연 1회 실시하며, 소방서에서 실시하는 가장 큰 규모의 훈련이다. 유관기관(시청, 경찰, 한국전력, 가스안전공사 등)이 모두 참여하며 원주소방서가 주관하여 훈련을 실시한다.



긴급구조종합훈련 신고(1996년)



긴급구조종합훈련(1996년, 구조대원 역레펠)



긴급구조종합훈련(2006년, 헬기 인명구조)



긴급구조종합훈련(2006년, 고층 인명구조)



긴급구조종합훈련(2007년, 일제방수)



긴급구조종합훈련(2007년, 구조대원 진입)



긴급구조종합훈련(2018년, 일제방수)



긴급구조종합훈련(2018년, 환자이송)

구조대원들은 계절적 환경내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매월 특별구조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교통사고, 산악, 수난, 기타 수많은 종류의 안전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은 구조대원들의 필수 역량이다.



교통사고 대비 특별구조훈련(1994년)



수난구조훈련(2000년)



스키장 리프트 사고 대비 훈련(2000년)



항공구조훈련(2002년)



공공장 추락사고 대비 훈련(2006년)



인명구조견 수준유지 훈련(2006년)



동계 수난구조훈련(2008년)



산악구조훈련(2012년)

쉬어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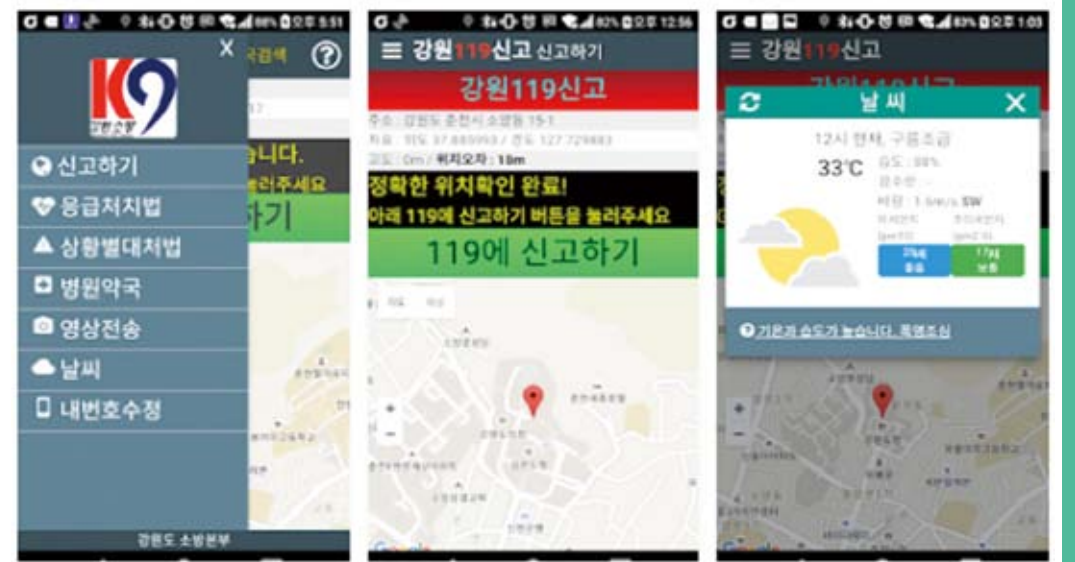
강원119신고앱

기존의 이동통신사 기지국을 기반으로 하는 신고자 위치정보는 오차가 커서 산악사고와 같은 조난·고립 사고 시 신속한 인명구조에 한계가 있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2013년 3월 스마트폰 앱(App)을 자체 개발하였고 신고자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신속하게 구조활동을 전개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스마트폰 사용이 서투른 노약자들에게는 앱을 설치하기가 어렵고 아이폰 등 비안드로이드폰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4년 웹앱(WebApp) 방식의 신고자 위치정보시스템을 개발하게 되었다.

2015년에는 구조대원과 신고자의 위치를 하나의 화면에 실시간으로 표출할 수 있는 “동시 표출앱”을 구현하였고 이로써 구조대원은 신속하게 구조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신고자는 실시간으로 구조대원의 위치를 볼 수 있어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외국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영어·일어·중국어 등 다국어 지원 기능도 추가하였다.

2016년에는 응급처치 및 상황별대처 매뉴얼을 추가하였고 2017년에는 기상·의약품 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능을 보강하였다. 강원119신고앱이 개발된 이후 2018년 7월까지 강원119신고앱 다운로드 수는 37,170회로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다.



제4장 혁신과 도약, 100년 미래를 품다

제1절 메가트렌드 - 소방환경이 변하다

소방 환경

지난 1970년 5월 7일 원주소방서 개서 이래, 원주시는 대규모 택지 및 공동주택단지 조성 등 도시개발로 발전과 성장을 거듭하여 2019년 8월 현재 인구 35만의 중부 내륙 최대 물류·교통·산업·관광 거점도시로 급부상하였다.

소방 수요

국내 유일의 혁신·기업도시 복합지역으로 광역교통망(영동·제2영동, KTX, 수도권전철) 확충과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혁신도시·부론산업단지 외 9개소), 테마관광 인프라 구축 등의 수요플랫폼은 인구유입과 도시개발의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고, 이에 따른 도시환경 변화는 소방수요의 급격한 양·질적 확대를 가져올 것이다.

안전 육구

세월호사고 등 대형재난을 계기로 높아진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여론은 육상재난총괄기관으로서 우리 소방의 역할과 책임을 기대하고, 안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넘어 메가트렌드가 되어 안전육구와 고품격 소방서비스 니즈 증대라는 시대적·사회적 요구가 되었다.

- ✓ 원주시 소방수요, 2014년 대비 **21% 증가** ↑
- ✓ 35만 원주시민의 안전파수꾼 역할 한계 / **1일 평균 59.2건 처리**
- ✓ 서부권 지역 구조수요 연평균(최근5년) **36% 증가** ↑ (16년 대비 86% ↑)
 - 간현관광지 2018년 방문 관광객 **180만명, 전년대비 870% ↑**
 - 서부권 지역 산업단지 8개 위치(원주시 10개, 2개 조성중)
- ✓ 혁신·기업도시, 광역교통망, 간현테마관광지, 부론산업단지(**수요변화 플랫폼**)

1. 원주시 환경변화(전망)



▶ 인구

2030년 계획인구 50만, '원주비전 2045 장기발전종합계획' 100만 광역도시



▶ 도시

혁신·기업도시, 대규모 공원·택지, 남원주역세권, 도시재생뉴딜사업, 원주천담 건설사업, 대규모 공원 조성사업(공동주택 포함)



▶ 관광

간현종합관광단지(소금산 출렁다리), 플라워프루트월드, 치악산둘레길, 원주굽이길, 금대리파리굴4D관광열차, 원주천담 관광(치유의 숲, 루지썰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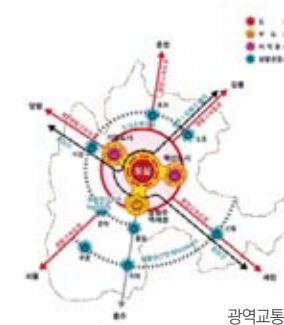
▶ 교통

여주-원주 수도권전철, KTX, 제2영동고속도로, 부론IC(영동고속도로) 신설



▶ 산업단지

문막산업단지(농공, 일반, 반계), 동화(농공, 일반, 자동차부품)산업단지, 우산·태장산업단지, 부론일반·국가산업·문막 포진산업단지(조성중)



광역교통망



남원주역세권 투자선도지구



1) 혁신도시



- ▶ **위 치** 원주시 강변로 160(반곡동) 일원
- ▶ **사 업 비** 8,404억 원(민자)
- ▶ **규 모** 3,612천㎡(약 1,093천평)
- ▶ **공공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13개
- ▶ **계획인구** 30,887명
- ▶ **추진경과**
 - 2008. 3월 부지조성 착공
 - 2014. 6월 1단계 준공
 - 2015. 3월 2단계 준공
 - 2017. 12월 최종 준공(부지조성), 전체 분양률 97%
 - ※ 13개 공공기관 이전 완료(2017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2청사 완공(2019.10월),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2청사 건립 예정(2021년)

2) 기업도시



- ▶ **위 치** 원주시 지정면 가곡리·신평리 일원
- ▶ **사 업 비** 9,750억 원(민자)
- ▶ **규 모** 5,274천㎡(약 1,595천평)
- ▶ **계획인구** 31,788명
- ▶ **추진경과**
 - 2015. 8월 1단계 준공(지식·연구)
 - 2017. 2월 2단계 준공(주거·상업·업무)
 - 2018. 3월 3단계 준공(단독·공동주택)
 - 2019. 7월 공정률 97%(부지조성),
 - 전체 분양률 92% / 입주기업 27개(9개공사中)
 - ※ 2019. 9. 30. 4단계 준공(사업부지 전체) 예정

3) 대규모 (중앙, 단구, 단계)공원 조성



- ▶ **위 치** 무실동 산12-23(중앙), 단구동 산73(단구), 단계동 산91-1(단계) 일원
- ▶ **사 업 비** 12,523억 원(민자)
- ▶ **규 모** 1,249천㎡(약 378천평)
- ▶ **계획인구** 12,300명(4,929세대)
- ▶ **추진경과**
 - 2018. 5월 착공, 2021. 하반기 준공예정(중앙공원)
 - 2021. 상반기 준공예정(단구공원)
 - 2019. 10월 착공, 2020. 하반기 준공예정(단계공원)
 - ※ 주요시설: 공동주택, 둘레숲길, 인공폭포, 생태교

4) 간현종합관광지(업그레이드)



- ▶ **위 치** 원주시 지정면 간현관광지 소금산 및 간현산 일원
- ▶ **사 업 비** 405억 원(민자)
- ▶ **사업내용(업그레이드)**
 - 전망대, 유리다리(250m), 소리계단
 - 잔도(1.2km), 곤돌라, 하늘정원
- ▶ **추진경과**
 - 2018. 1월 출렁다리 개통
 - 2019. 하반기 착공
 - 2020. 하반기 준공(예정)

5) 부론일반산업단지



- ▶ **사업명** 부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 **위치** 원주시 부론면 노림리317-1번지 일원
- ▶ **사업비** 967억 원(민자-SPC)
- ▶ **규모** 609천㎡(약 184천평)
- ▶ **추진경과**
 - 2018. 5월 산업단지 공사 착공
 - 2019. 12월 1단계 조성사업 준공
 - 2020. 12월 공공시설 이관

6) 부론국가산업단지



- ▶ **사업명** 디지털 헬스케어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 ▶ **위치** 원주시 부론면 노림리, 흥호리 일원
- ▶ **사업비** 1,627억 원(민자-LH공사)
- ▶ **규모** 1,012천㎡(약 306천평)
- ▶ **추진경과**
 - 2019. 1월 기본설계
 - 2019. 3월 기본협약체결(강원도, 원주시, LH)
 - 2022. 12월 조성사업 준공

7) 플라워프루트월드 관광단지



- ▶ **사업명** 원주 플라워프루트월드 관광단지 조성사업
- ▶ **위치** 원주시 문막읍 궁촌리, 부론면 일원
- ▶ **사업비** 2,600억 원(민자)
- ▶ **규모** 1,874천㎡(약 567천평)
- ▶ **주요시설** 열대과일·화훼식물원, 화훼체험·테마파크, 호텔, 콘도 등
- ▶ **추진경과**
 - 2016. 11월 관광단지 지정고시
 - 2019. 하반기 단지조성공사 착공

8) 광역교통망·산업단지

- ▶ **사업명** 여주~원주 철도건설사업,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조성사업
- ▶ **위치** 혁신도시 반경 20km이내 일원(약 14km²)
- ▶ **사업비** 5,683억 원(국비) / 여주역~서원주역 21.95km
- ▶ **추진경과**
 - 여주~원주 철도건설, 국비 30억 확보(2019. 기본설계), 2023. 완공(예정)
 - ↳ 2020. 사업보상추진 및 착공, 2023공사 준공
 - 부론산업단지 외 10개,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18.11.5. 산업통상자원부)
 - ↳ 산업단지(10개), 혁신·기업도시, 남원주투자선도지구, 의료기기테크노타워 등



여주~원주 수도권 전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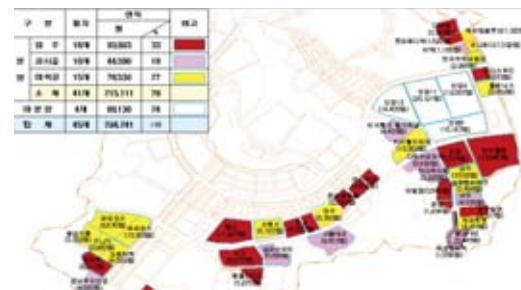
광역교통망(제2영동, 전철, KTX)



철도, 영동·제2영동·중앙도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현황



기업도시 지식산업용지 현황



원주시 산업단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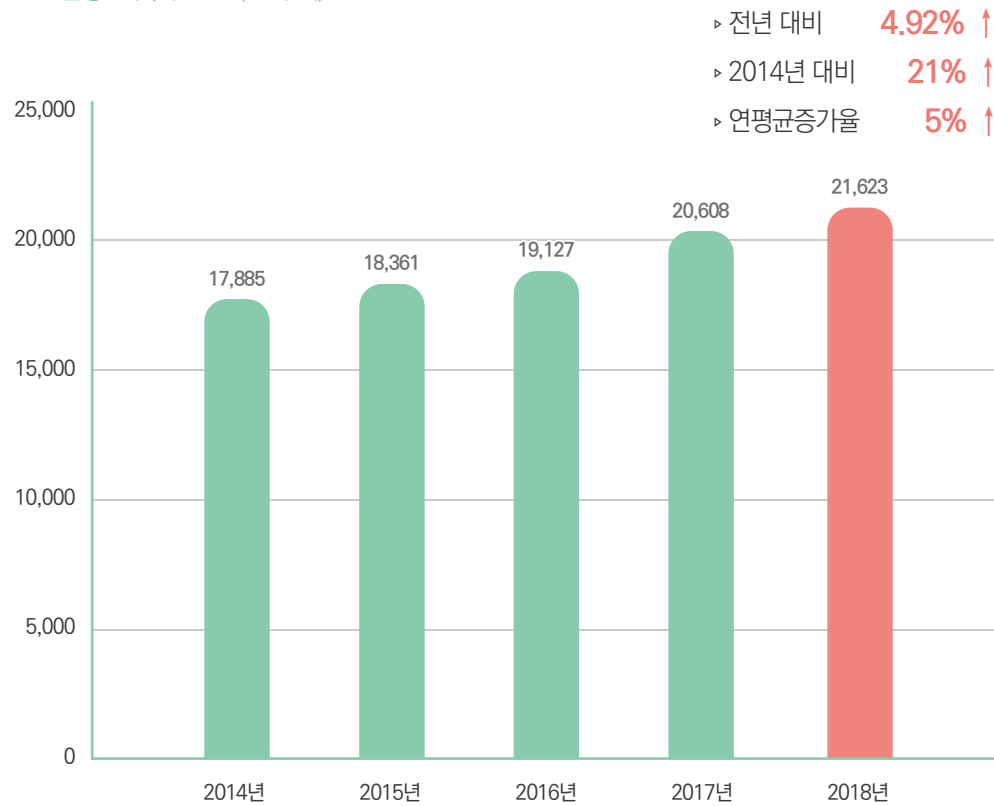
2. 소방여건(수요)

1) 소방수요

소방활동현황(최근 5년, 원주시)

구분	총계	화재	구조	구급	기타
2018	21,623	590	3,725	15,975	1,333
2017	20,608	622	3,406	15,459	1,121
2016	19,127	532	2,873	14,801	921
2015	18,361	550	2,437	14,404	970
2014	17,885	551	2,590	13,908	8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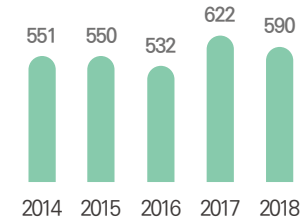
119 출동건수(최근 5년, 원주시) [단위: 건]



※ 출처: 출동지령시스템, 지도와 그래프로 보는 강원도 소방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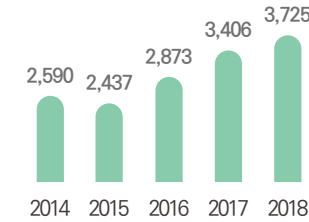
화재출동(최근 5년)

- ▶ 전년 대비 **5.14% ↓**
 ▶ 2014년 대비 **7.1% ↑**
 ▶ 연평균증가율 **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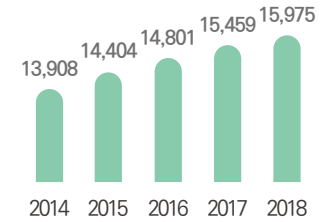
구조출동(최근 5년)

- ▶ 전년 대비 **9.4% ↑**
 ▶ 2014년 대비 **44% ↑**
 ▶ 연평균증가율 **10% ↑**



구급출동(최근 5년)

- ▶ 전년 대비 **3.3% ↑**
 ▶ 2014년 대비 **15% ↑**
 ▶ 연평균증가율 **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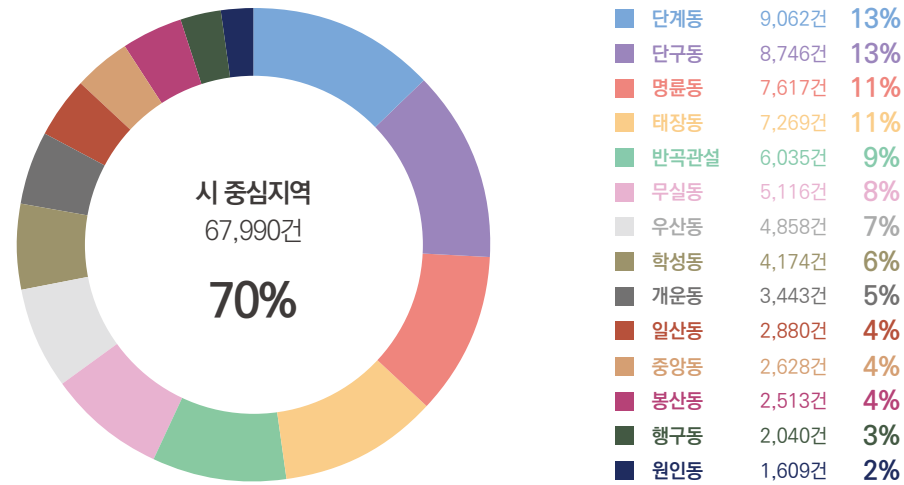


- ▶ 최근 5년(2014~2018) 원주권 119출동건수, 연평균 5% 증가 ↑
 - (연평균) 화재 2%, 구조 10%, 구급 4% 증가 ↑
 - (2014년 대비) 화재 7.1%, 구조 44%, 구급 15% 증가 ↑
 ▶ 2018년 소방수요, 전년대비 4.92% 증가 ↑ (2014년대비 21% ↑)
 ▶ 1일 평균 출동건수, (2014년) 49건 ⇒ 59.2건 (2018년)
 - 화재 1.5⇒1.6건, 구조 8.1⇒10.2건, 구급 38.1⇒43.8건, 기타(민원 등) 2.3⇒3.7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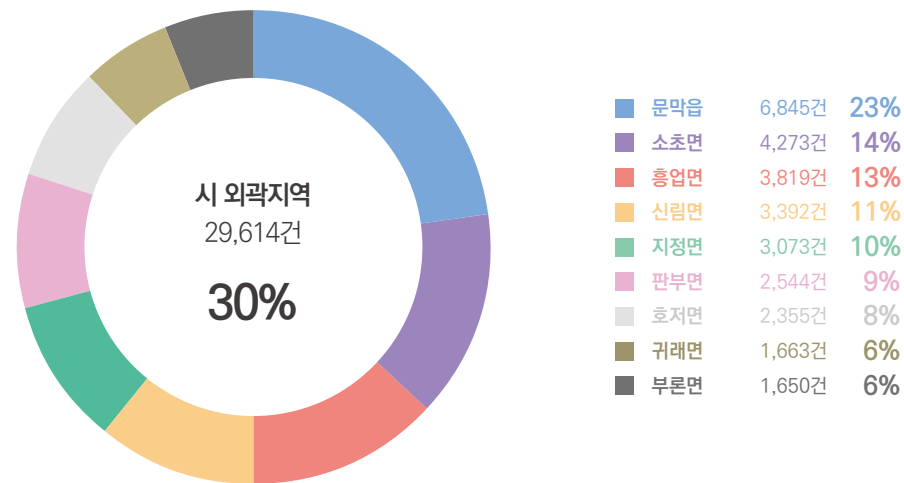
원주시 소방수요 분포도(최근 5년)



도심권 출동건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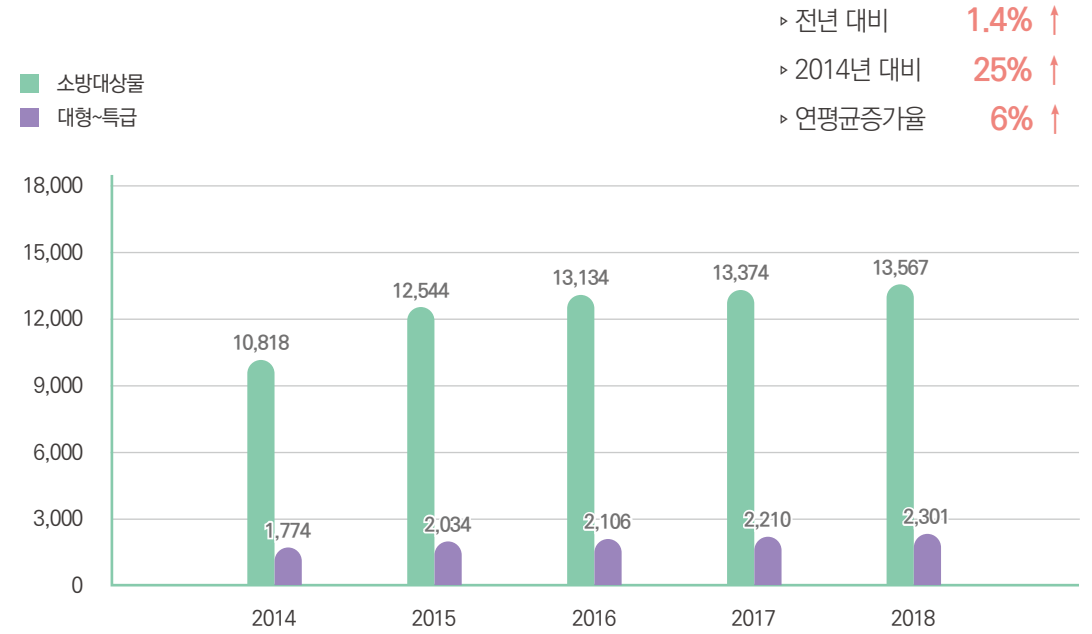


외곽(읍면)지역 출동건수 현황



- ▶ 도심권은 단계동·단구동, 읍면지역은 문막읍·소초·흥업면 순 소방수요 다
 - 반곡관설동(혁신도시), 무실동, 지정면(기업도시) 수요 증가 ↑ 추세
- ▶ 서부권(문막) 지역의 높은 수요와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
 - 기업도시와 산업단지 조성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소방수요 급증 예상
- ▶ 제1군 사령부 이전, 캠프롱 부지 개발 시 북부권역 수요 증가 예상
 - 북부권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균형 발전 계획 의거 정주여건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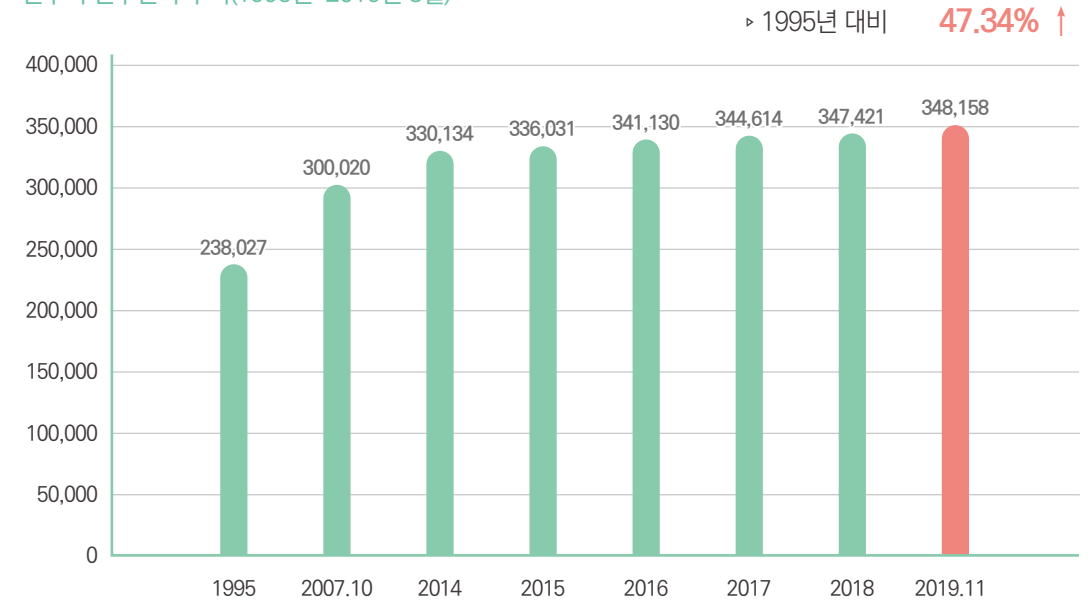
원주시 소방대상물 변화 추이(최근 5년)



※ 출처: 원주시청 홈페이지 '원주통계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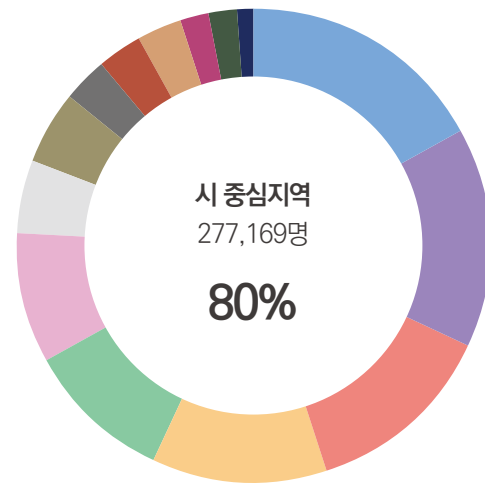
- ▶ 최근 5년(2014~2018) 특정소방대상물, '14년 대비 25%, 연평균 6% 증가 ↑
- ▶ 특급~대형화재취약대상, '14년 대비 30%, 연평균 7% 증가 ↑
 - 2018년, 특급 1, 1급 59, 2급 1373, 3급 790, 대형 78

원주시 인구변화 추이(1995년~2019년 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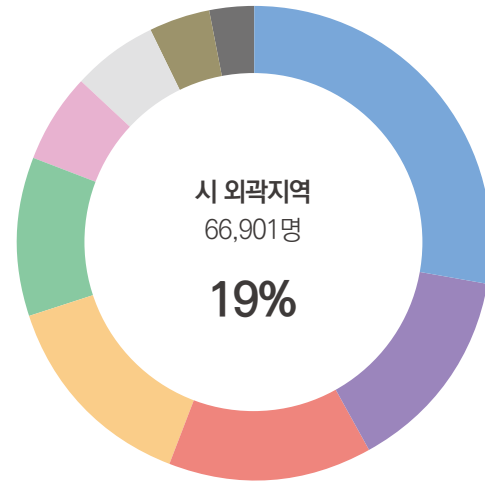
※ 출처: 원주시청 홈페이지 '원주통계연보'

시 중심부 인구분포(2018년 기준)



단구동	45,763명	17%
반곡관설	41,348명	15%
무실동	34,910명	13%
태장1·2동	34,506명	12%
명륜1·2동	26,512명	10%
단계동	26,274명	9%
우산동	14,504명	5%
개운동	13,802명	5%
봉산동	9,016명	3%
일산동	8,365명	3%
행구동	8,008명	3%
원인동	5,832명	2%
학성동	5,344명	2%
중앙동	2,985명	1%

시 외곽지역 인구분포(2018년 기준)



문막읍	18,970명	28%
지정면	9,503명	14%
소초면	9,334명	14%
흥업면	9,233명	14%
판부면	7,555명	11%
호저면	4,004명	6%
신림면	3,769명	6%
부론면	2,344명	4%
귀래면	2,189명	3%

★ 외국인 3,351명 1%

원주시 관광객 추이(간현출렁다리 개장 2018.1.11.)

[단위: 명]

구분	2017년			2018년			전년대비
	계	상반기	하반기	계	상반기	하반기	
치악산국립공원	533,410	156,342	377,068	637,215	200,397	436,818	19.5% ↑
간현관광지	186,224	49,713	136,511	1,808,129	1,388,756	419,373	870.9% ↑
원주레일파크	164,829	69,002	95,827	198,920	106,948	91,972	20.7% ↑
한솔유지업	131,232	71,501	59,731	177,935	72,131	105,804	35.6% ↑
한솔오코밸리	1,018,632	454,456	564,176	1,271,427	599,392	579,920	24.8% ↑

※ 출처: 원주시 관광정책과



산악자전거 공원(신림면 매봉산)



원주천댐 주변 관광지(힐링로드, 루지트랙)



원주굽이길(400km)

▶ 명품 테마관광 인프라 확충에 따른 원주시 관광객 급증 전망

- (원주천댐관광지) 치유의 숲, 힐링로드, 리프트(6인승), 루지트랙 / 2020년 예정
- (산악자전거 파크) 크로스컨트리(34km), 엘리트(4.5km), 다운힐(5km), 장애물(0.7km)
- (원주굽이길) 30개 코스, 400km(전국 최장길이 도보여행길 목표)
- (따리굴 4D관광열차) 하늘전망대, 슬라이드, 터널카페 / 2020년예정

교통·관광·물류
인프라 개선



소방수요
증가 ↑



공공서비스
확대 공급 ↑

제2절 100년 미래를 설계하다

1. 비전2030, 함께하면 한계를 넘을 수 있다

‘안전’ 원주

안전한 원주, 우리가 책임진다. 2045년 인구 50만을 넘어 100만 광역도시를 꿈꾸는 녹색건강·관광도시 원주시의 안전을 책임지고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원주소방서는 119안전센터 증설(승격), 제2의 119구조대 신설 등 소방력 보강 중장기 전략목표를 세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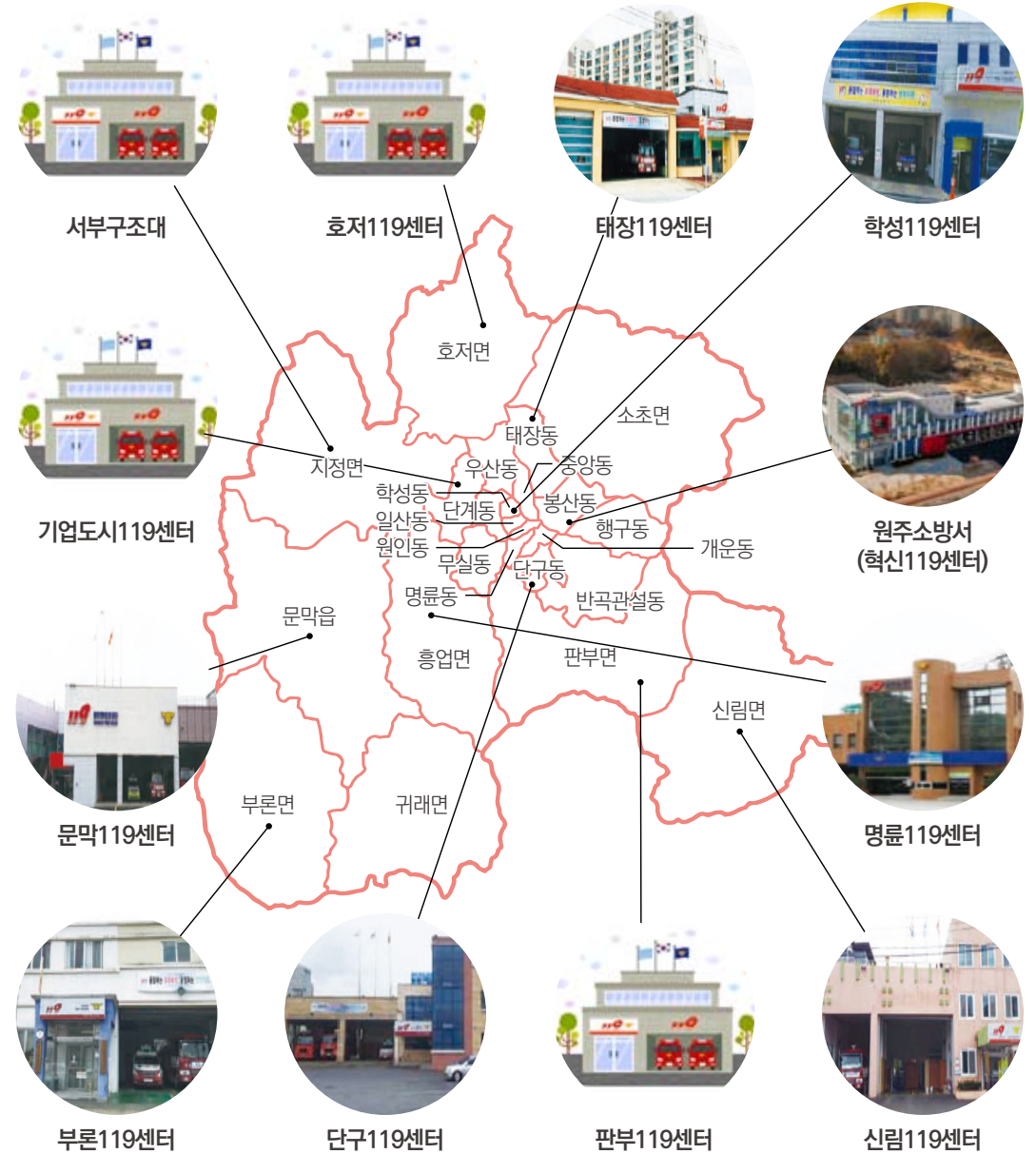
2019년 10월 원주소방서 혁신도시 신청사 이전은 급변하는 소방환경에 선제적·전략적으로 대응하는 新소방안전인프라 구축과 새로운 역사 개척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전략적 스태핑

혁신·기업도시·부론산업단지를 잇는 삼각성장벨트가 조성되고 서부권 지역이 원주시 발전의 중심축으로 도시환경 변화가 가시화 됨에 따라 미래 소방수요를 예측하고 지역별 소방서비스 수혜 불균형과 재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방관서 신설, 이전 등 최적의 소방력 재배치를 통해 소방역량을 확보, 강화해 나갈 것이다.

1) 추진전략(목표)

전략목표	추진과제		추진기간											
	신설(6)	이전(4)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119안전센터	명륜													
	기업													
	부론 (승격)													
	호저													
		태장												
		학성												
		신림												
		단구												
제2구조대	서부													
119지역대	판부													
제2원주소방서														



2) 총괄(신설5, 승격1, 이전4)

- ▶ **사업기간** 2020 ~ 2029년(10년)
- ▶ **사업대상** 10개소(신설5, 승격1, 이전4)
- ▶ **소요예산** 296억원(도·시비 각 50%, 148억원 부담)
- ▶ **사업계획** 강원도 중기지방재정계획·소방청사 신·증축 5개년 계획 반영

번호	사업기간 (연도별)	사업(청사)명	연면적 (㎡)	부지면적 (㎡)	사업비(억원)			비고
					계	도비	시비	
계	2020~2029	10개소			296	148	148	
1	2020~2021	명륜센터	950	1,025.4	24	12	12	신설(신축)
2		기업센터	800	1,971.3	32	16	16	신설(신축)
3	2022~2023	부론센터	1,000	2,400	32	16	16	승격(신축)
4	2023~2024	서부구조대	1,000	2,400	32	16	16	신설(신축)
5		태장센터	1,000	3,000	32	16	16	이전(신축)
6	2024~2025	학성센터	1,000	2,400	32	16	16	이전(신축)
7	2025~2026	신림센터	1,000	2,400	32	16	16	이전(신축)
8	2026~2027	단구센터	1,000	2,400	32	16	16	이전(신축)
9	2027~2028	호저센터	1,000	2,400	32	16	16	신설(신축)
10	2028~2029	판부지역대	450	1,000	16	8	8	신설(신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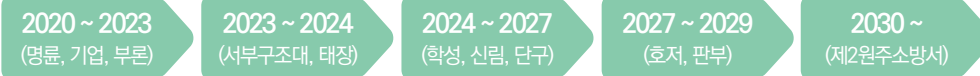
2. 우리가 가는 길이 원주소방서의 새로운 역사가 된다.

리포지셔닝

2020년 개서 50주년에 즈음하여 1991년을 시작으로 28년간의 명륜동 시대를 마감하고 혁신도시 신청사 시대를 여는 원주소방은 청사 이전을 시작으로 재도약의 발판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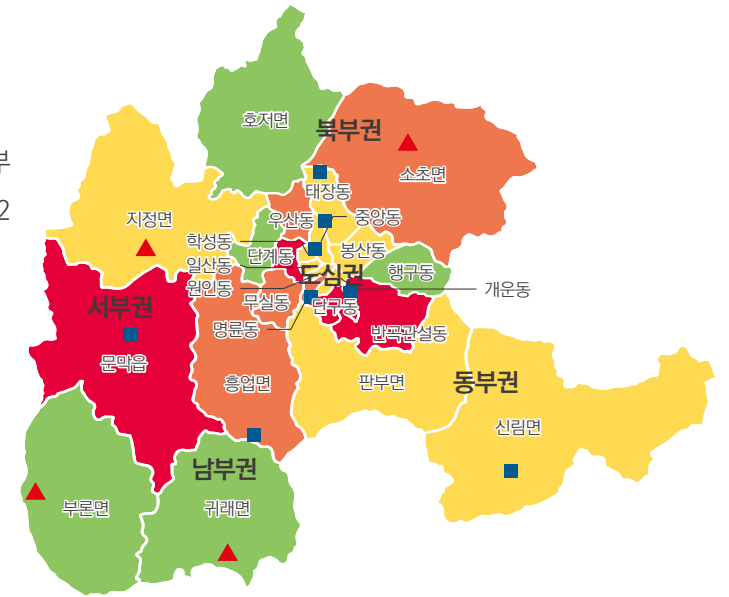
지난 50년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35만 원주시민과 함께 호흡하고 소통하며 씁없는 도전과 혁신으로 신성장 동력을 발굴·개척해 나간다면, 원주소방서의 미래는 새로운 역사로 가득찰 것이다.

3. 로드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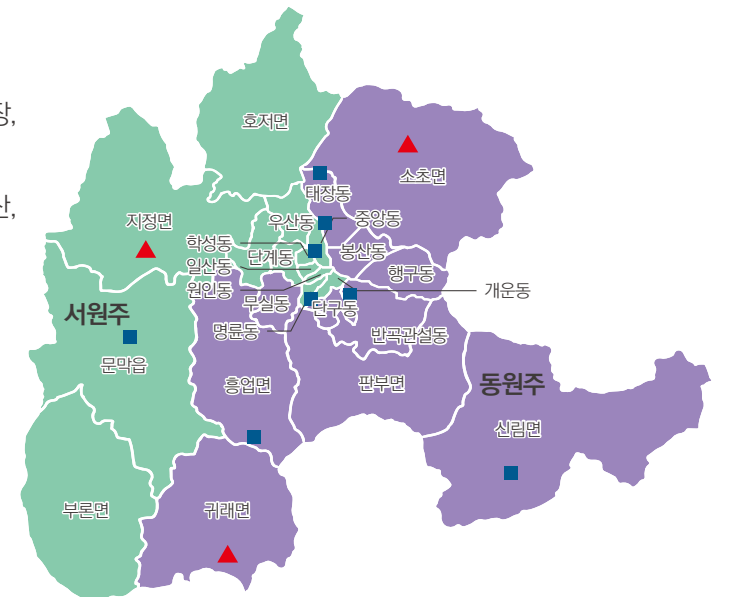
5개 권역(35만 원주)

- 도심권** 명륜, 학성, 단구, 우산
- 동부권** 본서, 혁신, 신림, 구조1, 판부
- 서부권** 문막, 부론, 지정, 기업, 구조2
- 남부권** 흥업, 귀래
- 북부권** 태장, 소초, 호저



2개 권역(100만 원주)

- 동원주** 본서, 구조1, 혁신, 단구, 태장, 소초, 흥업, 귀래, 신림, 판부
- 서원주** 본서, 구조2, 명륜, 학성, 우산, 문막, 부론, 지정, 기업, 호저



쉬어가기

원주 소방의 워드 클라우드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란?

제5장 시대별 사진첩

개서 이전의 모습

1950년대 원주의 모습





섬강 범람(1930년대)



장마로 문막 제방이 붕괴(1936년)



원주 시가지(1950년대)



물레방아에서 빨래하는 모습(1950년대)



원주의소대 행군기념(1952년)



원주 전경(1952년)



중앙시장(1953년)



원주천(1953년)



시가지 항공사진(1953년)



원주역전(1960년대)



원주의 한 농촌 마을(1960년대)



원주 시가지(1960년대)



직장소방훈련(1960년대)



홍제당 약국 인근(1960년)



원주시 전경(1960년대)



소방훈련(1960년대)



원주의용소방대장 장례식(1960년)



물탱크차량을 이용한 불조심 홍보(1960년대)



원주 우시장(1960년대)



소방훈련(1960년대)



물탱크차(1960년대)



귀래의용소방대(1960년대)



소방훈련(1960년대)



소방훈련(1960년대)



원인동(1960년대)



시가지 모습(1960년대)



의용소방대 시동식 행사(1967년)



의용소방대 시동식 행사(1967년)



강원 감영(1968년)

1970년대

1970년 평원로의 모습



원주역전



직장 소방교육



직장소방훈련



소방훈련



황성소방대에 화재진압용 장비를 지급하는 모습(1970년, 원주소방서에서 사용하던 관창과 소방호스를 황성의용소방대에 배치)



황성의용소방대 완용펌프를 이용한 소방훈련(1970년)



부녀의용소방대원 계급장 수여(1970년)



부녀의용소방대원 소화기 사용법 교육(1970년)



소화기사용법 교육(1970년)



원주공단봉제공단 직원들을 대상으로 물 양동이를 이용 화재를 진압(1970년)



합동소방훈련(1970년, 국민학교)



명륜동(1971년)



원주천 제방 유실(1972년)



시가지 항공사진(1973년)



국군장병 위문(1975년, 당시 202야병교)



민방공 소방의 날 소화기 사용법 시범(1975년)



전국화재예방 강조기간 길거리 홍보(1975년)



새마을 부락 어린이 소방서 견학(1975년)



민간업체로부터 소방 펌프차량을 기증받음(1975년)



국민학교 어린이 소방대원 불조심 리본 달아주기 (1975년)



부녀의용소방대 발대식 및 전국 불조심 강조의달 행사(1975년)



여성의용소방대 응급처치 훈련(1975년)



인명구조훈련(로프 탈출)(1975년)



자위소방대 훈련(1975년)



감감한 어둠을 헤치고
지하실 인명구조훈련을 하는 소방대원(1975년)



인명구조훈련(업고 탈출)(1975년)



새마을 사업 추진 실적 평가 브리핑(1975년)



소방통로 확보 훈련(1975년, 중앙시장)



태권도 수련(1975년)



여성의용소방대 인명구조 훈련(1975년)



소방차와 완용펌프를 활용한 화재진압훈련(1976년)



화재진압훈련(1976년)



어린이소방대 불조심 가두 캠페인(1977년)



세탁업자 교양(1979년)

1980년대

시가지 모습(1986년)



공직기강 쇄신에 관한 대통령 지시사항 전달교육



대통령 하사품(내의)



대민봉사(노인가정 방문)



들것을 이용한 지하인명구조훈련



소방공무원 체력검정



소방 PT체조



소방왕 선발대회 개회식



소방차 주변 경계 모습



소방훈련



소방공무원 표창수여



소화기 사용법 교육



직장소방훈련



합동소방훈련



사회악 뿌리뽑기 대회



일일 소방서장 활동



중앙시장 관계자 불조심 교육



화재진압작전회의



합동소방훈련



완강기를 이용한 탈출



남부시장(1980년)



유격훈련 현장지도(1980년)



1회 소방왕 선발대회(1980년)



군관민 합동소방훈련(1980년, 원주역 광장)



대회의실 회의 모습(1980년)



직원 불조심 영화 관람(1981년)



현황보고 모습(1980년)



직장 방공소방대 합동소방훈련(1980년, 원성군 농협)



민방위 날 소방훈련에 동원된 보건소 구급차량(1980년)



유치원생 불조심 교육(1981년)



불조심 강조의 달 부녀대 캠페인(1981년)



원주소방서 자체 소방가 경창대회(1981년)



체력검정(1500m 달리기, 1980년)



각 기관장 및 유지급 숙소 안전점검(1981년)



직장경비요원 교육(1981년, 원주협합강당)



소방활동 취약지리 도상훈련(1982년)



불조심 강조의 달 불조심 캠페인(1981년, 로타리)



부녀대 교육(1982년)



불조심 대회 기념(1982년)



노인 가정 방문(1982년)



직장부녀대 불조심 캠페인(1982년)



육군소방대 위문(1982년)



주민 불조심 교육(1982년)



불조심 포스터 관람(1982년)



원주 의용소방대 부녀대 발대식(1982년)



연말연시 경로당 방문(1982년)



주민 불조심 교육(1983년)



불조심 사생대회(1983년)



부녀대 가두캠페인(1983년)



세탁소 화재예방을 위한 관계자 소집교육(1984년)



소방왕 선발대회(1986년)



소방왕 선발대회(1986년)



소방왕 선발대회(1986년)



소방왕 선발대회(1986년)



지대 발대식 임명장 수여(1989년)



대통령 선물 전수(1989년, 담배)



장기근속자 기장 수여(1989년)



지대 발대식 직원 교육(1989년, 방호과장)

1990년대

원주 시가지 전경(1992년)



소방검사



소방안전교육



소방기술경연대회



우산파출소 일일 파출소장 활동



소화기 전달식



원주소방서 부서별 복장



고지대 주거 밀집지역 비상소화장치 소방훈련(1990년)



불조심 사생대회(1990년)



소방안전무료점검봉사단(1990년)



새질서 새생활 실천 다짐대회(1990년)



새질서새생활실천 다짐대회(1990년)



시설주 소방안전교육(1990년)



의소대 가두캠페인(1990년)



의용소방대원 주민신고요원 교육(1990년)



합동소방훈련(1990년, 종합운동장)



강원도 소방기술경연대회
(1991년, 훈련장소 부족으로 대부분 원주소방서에서 개최)



가스배출기 안전점검(1992년, 당시 대부분 연탄보일러를 사용, 일산화탄소 중독사고가 많았음)



체력검정(1992년)



가두캠페인(1992년)



강수인 서장 취임식(1992년)



서원 의용소방대 청사 준공식(1993년)



간현 임시파출소 개소(1994년)



길거리 소방홍보(1995년)



소방공무원 정년 퇴임식(1994년)



강원도 의회 내무위원회 현지시찰(1994년)



구급차 기증식 모습(1995년)



기증받은 포드社의 구급차(1996년)

원주소방서

문서번호: 소방 13800-10
시행일자: 1995. 5. 1 (제 3 회)
한 음: 강원도지사
한 조: 소방(방호)행정과장

회급	계	장
보존		
소방과장	방	장
소방계장	방	
기안	이규재	필요

제 목: 중형구급차 기증 결과 보고

우리서에서 중형구급차를 다음과 같이 기증받았기 보고합니다.

1. 기증일자: '95. 4. 28 14:00 ~ 15:00
2. 기증장소: 원주소방서
3. 기증차: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원주기독병원장 한윤호
4. 기증대수: 1대
5. 제원:
 - 차량: 포드엘프렌스
 - 년식: 1987년
 - 급격: 7인승 승합
 - 구입가격: 14,500,000원
6. 적재장비:
 - 경주과정 장비
 - 휴대용 흡입기
 - 산소소생기
 - 책우고정인들 30여명
7. 운송부서: 원주소방서 119구로대

붙임: 사진 3매. 끝

원 주소 방 서 장

구급차 기증 결과 보고서(1995년)

"함께 기증 신청함 함께 나눔 큰 보람"

원주소방서

문서번호: 소방 13310-10
시행일자: 1995. 5. 1 (제 3 회)
한 음: 강원도지사
한 조: 소방행정과장

회급	계	장
보존		
소방과장	방	장
소방계장	방	
기안	이규재	필요

제 목: 소방차량 조작성원 정원승인 신청

우리서에서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원주기독병원에서 기증받은 중형 구급차의 조작성원 출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정원을 승인 신청합니다.

1. 차량기증 대수: 1대(중형구급차)
2. 사동부서: 원주소방서 119구로대
3. 장비 및 정원 신청 내역

차종	등록사항	정수승인	조작성원 정원승인	비고
구급차	197.4.29 195.4.29 50마(3003) 16.4.29	회계13330 -6902	2 1 1	

붙임: 1) 차량정수배정 승인서 사본 3 부
2) 차량등록증 사본 3 부
3) 차량 사진 3매. 끝

원 주소 방 서 장

구급차 수량에 따른 조작성원 정원승인 신청 문서(1995년)



어린이날 행사(1995년)



간급구조종합훈련(1995년)



간급구조종합훈련(1995년)



소방기술경연대회(1995년)



간급구조종합훈련(1995년)



간급구조종합훈련(1995년)



소방기술경연대회(1995년)



소방기술경연대회(1996년)

2000년대



다중이용시설관계자 소방안전교육(1996년)



이동파출소 운영(1998년)



소방공무원 수화교육(1998년)



소방기술경연대회(1998년)



북원상가 합동소방훈련(1998년)



서원 의용소방대 개소식 전서모습(1999년)



개인택시운전자 119 명예구급대원 위촉식(1999년)



긴급구조종합훈련(코오롱아파트, 1998년)

원주 시가지 전경(2005년)





미래소방관 체험



직원 농연탈출 훈련



소방기술경연대회 응급처치 분야 출전(2000년)



원주역 화생방 테러 대비 합동훈련(2000년)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개회식(2000년)



불조심 예방 캠페인(2000년)



소방동요경연대회(2002년)



원주천 정화활동(2002년)



항공구조훈련(2002년)



신림 의용소방대 안전무사고 기원제(2003년)



긴급구조종합훈련(2003년, 구조대원 로프 탈출)



길거리 소방안전교육(2005년)



대민봉사(2005년)



성우리조트 소방훈련(2005년)



시범119소년단 발대식(2005년)



어린이날 행사지원(2005년)



진급자 신고식(2005년)



한국 119소년단 발대식(2005년)



단구안전센터 간담회(2006년)



명예소방서장 활동(2006년)



한국국제경기대회 직원 참가(2005년)



인명구조경진대회(2005년)



부패근절을 위한 자성 결의대회(2006년)



불조심 강조의 달 캠페인(2006년)



강원도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2006년)



구조대 레펠훈련(2006년)



불조심 강조의 달 특별철시 활동(2006년)



산불예방 캠페인(2006년)



구조대 인명구조경진대회(2006년)



긴급구조종합훈련(2006년)



삼일절 건강 마라톤(2006년)



소방행정평가 시상식(2006년)



시범119소년단 발대식 인명구조견 시범(2006년)



시범119소년단 발대식(2006년)



안전한 농촌마을 가꾸기(2006년)



원주시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및 체육대회(2006년)



원주시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및 체육대회(2006년)



원주시장기 종합탁구대회 우승(2006년)



월례조회(2006년)



의용소방대 수해지역 봉사활동(2006년)



인명구조훈련(2006년)



제6회 세계소방관 경기 출전 김원형, 전종표 (2006년, 태권도, 볼링 입상)



3·1절 건강달리기 대회 참가(2006년)



주민안전의식함양 캠페인(2006년)



하계수난구조훈련(2006년)



화재피해지원센터 개소식(2006년)



강원도민 건강달리기 대회(2007년)



원주 의용소방대 연합회 만리포 기름유출 방재 봉사활동(2007년)



산악구조훈련(2007년)



소방공무원 명예 퇴직식(2007년)



소방공무원 체력검정(2007년)



소방공무원 체력검정 모습(2007년)



소방동요제(2007년)



원주시장기 종합탁구대회 우승(2007년)



직원 등산대회(2007년)



체력검정(2007년)



체력검정(2007년)



미군부대 합동소방훈련(2008년)



빙상사고대비 인명구조훈련(2008년)



소방역량 결집을 위한 한마음 대회(2008년)



빙상사고대비 인명구조훈련(2008년)

2010년대



원주시립교향악단 방문 연주회(2008년)



원주 의용소방대 연합회 영동지역 제설지원(2008년)



초등학생 응급처치 경연대회1(2008년)



소방공직자 자정 결의대회(2009년)



가나 응급의료관계자 소방서 견학(2009년)



섬강축제 홍보활동2(2009년)

원주시 전경(2017년)





추계 직장체육행사(2012년, 청풍호)



소방기술경연대회 속도방수 분야 출전(2014년)



미래소방관 체험(2013년)



소방기술경연대회 응급처치 분야 출전(2014년)



소방기술경연대회 의소대 출전(2014년)



소방밴드 활동(2014년)



산불예방 캠페인(2015년)



의무소방 봉사활동(2016년)



화재없는 마을 지정행사(2016년)



PTSD관리를 위한 심신치유프로그램(2016년)



강원도민달리기 대회 참가(2016년)



소방공무원 체력검정(2016년)



소방기술경연대회(2016년)



순직소방인 헌화 및 참배(2016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홍보(2016년)



직장체육행사(2016년)



119어울한마당 참가(2017년)



구조구급대원 힐링캠프(2017년)



소방안전봉사상 대상 수상(2017년, 소방위 정상진)



순직 소방공무원(故 정성철 기장)
모친 주택수리 봉사(2017년)



소방기술경연대회 최강분야 참가(2017년, 1·3등)



동계 수난구조훈련(2017년)



주택화재 현장활동 후 휴식(2017년 여름)



이동안전차 체험(2017년)



공군8전비 부대초청행사 참석(2018년)



두드림 정기회의 단체사진(2018년)



간급구조통제단 불시출동훈련(2018년)



승강기 사고 대비 유관기관 합동훈련(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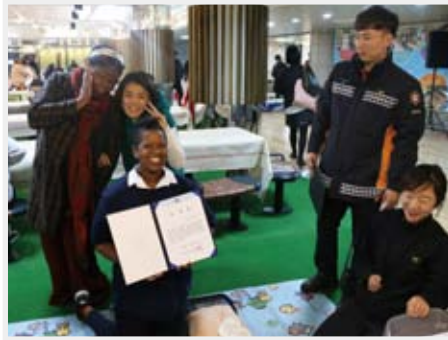
외국인과 함께하는 소방안전체험(2018년)



길거리 응급처치술 홍보(2018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회(2018년)



길거리 응급처치술 홍보2(2018년)



소방공무원 삼도 축구대회(2018년)



황둔산악전문의소대 특별교육(2018년)



소금산 안전산행 캠페인(2018년)



소방가족을 위한 음악회(2018년)



소방공무원 내뎃대로 떠나는 힐링여행(2018년)



소방기술경연대회 응급처치 분야 출전(2018년)



빙벽 등반훈련(2018년)



초고층 인명구조 훈련(2018년)



소방서 견학(암벽등반 체험, 2018년)



소방안전강사 경진대회(2018년)



소방활동분석회의(2018년)



순직 소방공무원 유가족 방문(2018년)



시민수상구조대 격려방문(2018년)



안전산행 캠페인(2018년)



하계 수난구조훈련(2018년)



장애이웃 안전사고 예방교육(2018년)



어린이 안전체험 행사(2018년)



원주 의용소방대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수관연장하고 방수자세 1위(2017년)



하트세이버 수여식(2018년)



직원 월례조회(2018년)



원주 이수희 연탄배달 봉사활동(2018년)



의무소방원 진급식(2018년)



소방안전체험(완강기 탈출, 2018년)



구조대원 암벽등반 훈련(2018년)



소방의 날 기념식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전국 1위 대통령 표창(2018년)



최신형 구조공작차 안전기원제(2018년)





2018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소방활동(2018년 2월 8일 ~ 3월 19일)



진압·구조·구급대원 워크숍(2018년)



구급대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2018년 연세대 이강현 교수)



4대 폭력 예방교육(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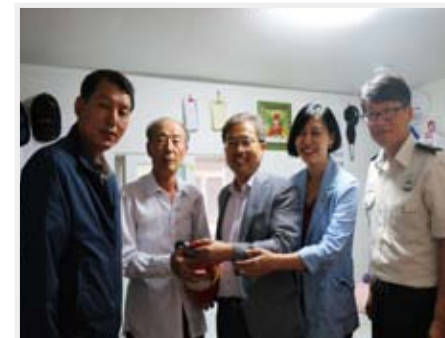
전통시장 국가안전대진단(2019년)



119동요제(2019년)



소방안전대책 전국 지휘관 영상회의(2019년)



국가유공자 주택용 소방시설 전달식(2019년)



대형 키즈카페 안전교육 및 피난유도선 부착(2019년)



2. 3. 4. 5. 6. (5월 3주 통제)

구분 구분 (3) 구분 (3) 구분 (3) 구분 (3)	시정당, 시정기	지방정, 지방정	지방정, 지방정	지방정, 지방정	지방정, 지방정	지방정, 지방정	지방정, 지방정	지방정, 지방정
시정당, 시정기		0	3	3	1	3	3	3
지방정, 지방정	3		2	1	3	3	3	3
지방정, 지방정	0	3		1	3	3	3	3
지방정, 지방정	3	3	3		3	3	3	3
지방정, 지방정	3	1	0	0		3	3	3
지방정, 지방정	0	0	1	0	1		3	3





찾아가는 안전체험 교육(2019년)



해빙기 수난구조훈련(서울 성동구조대 합동훈련, 2019년)



화재안전특별조사 추진상황 설명회(2019년)



건강달리기 대회 참가(2019년)



어린이날 소방안전캠페인(2019년)



반부패 청렴 실천 결의대회(2019년)



직원들과 대화의 시간(2019년)



직원들과 대화의 시간(2019년)



화목보일러 특별 안전점검(2019년)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육(만중초등학교, 2019년)



리프트 사고 대비 특별구조훈련(2019년)



소방안전강사 역량강화 협의회 회의(2019년)



상지영서대 협업 안전컨설팅(2019년)



피난약자시설 현지 안전점검(2019년)



현충탑 참배(2019년)

문막 재활용품 재생공장 화재

(2017년 3월 16일 / 전 직원 비상소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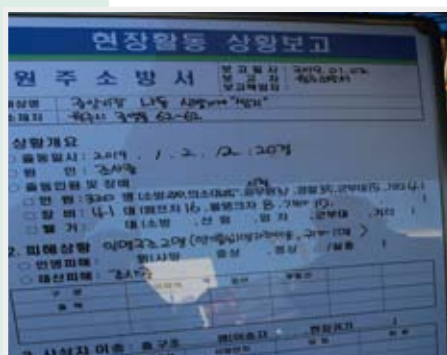
문막 재활용품 재생공장 화재

(2018년 5월 28일 / 전 직원 비상소집)



중앙시장 화재

(2019년 1월 2일 1차 화재, 1월 3일 2차 화재 / 전 직원 비상소집)



원주소방서 반곡청사 신설

(2019년 11월 5일 반곡청사 준공식)



더 많은 시대별 사진첩은 QR코드로 확인하세요



04

부록

1. 역대 소방서장 현황	344
2. 원주소방 연표	346
3. 각종 통계	353
4. 시민들의 감사편지	371
5. 참고문헌(자료출처)	389
6. 편집후기	390

역대 소방서장 현황



초대 명예 서장
김영덕



1대 서장
소방경감 문태섭
70. 5. 7. ~ 70. 7. 10.



2대 서장
소방경정 임재선
70. 7. 11. ~ 74. 6. 14.



3대 서장
소방총경 진중환
74. 6. 15. ~ 76. 9. 2.



4대 서장
소방총경 김건수
76. 9. 3. ~ 77. 12. 19.



5대 서장
소방경정 김석준
77. 12. 20. ~ 79. 7. 19.



6대 서장
소방정 김행교
79. 7. 20. ~ 82. 6. 30.



7대 서장
소방정 김진호
82. 7. 1. ~ 86. 12. 31



8대 서장
소방정 김용익
87. 1. 1. ~ 88. 6. 30.



9대 서장
소방정 김성환
88. 7. 1. ~ 91. 5. 14



10대 서장
소방정 나승환
91. 5. 15. ~ 92. 10. 16.



11대 서장
소방정 강수인
92. 10. 17. ~ 94. 10. 26.



12대 서장
소방정 이종구
94. 10. 27. ~ 96. 6. 30.



13대 서장
소방정 지병일
96. 7. 1. ~ 98. 3. 31.



14대 서장
소방정 홍순창
98. 4. 1. ~ 00. 1. 4.



15대 서장
소방정 윤용근
00. 1. 5. ~ 00. 12. 31.



16대 서장
소방정 김전수
01. 1. 1. ~ 03. 7. 29



17대 서장
소방정 조근희
03. 7. 30. ~ 06. 1. 5



18대 서장
소방정 김전수
06. 1. 6. ~ 08. 6. 30.



19대 서장
소방정 조근희
08. 7. 1. ~ 10. 8. 1.



20대 서장
소방정 박창진
10. 8. 2. ~ 11. 10. 9.



21대 서장
소방정 김시균
11. 10. 10. ~ 13. 6. 30.



22대 서장
소방정 김상철
13. 7. 1. ~ 15. 12. 31.



23대 서장
소방정 진형민
16. 1. 1. ~ 16. 12. 31.



24대 서장
소방정 원미숙
17. 1. 1. ~ 18. 6. 30



25대 서장
소방정 이병은
18. 7. 1. ~ 현재

원주소방 연표

일자	내용
1970. 5. 7	원주소방서 신설 대통령령 제4752호(1970. 3. 12.)에 의거 원주시 중앙동 207번지에 철근콘크리트조 1층 차고, 2층 사무실, 옥상 망루대를 증축하여 원주의용소방대에서 원주소방서로 승격·개서 (인원 : 14명(국가직 5명, 유급상비대원 9명))
1970. 11. 19	원주소방서 정원승인 3명(유급상비대원) - 정원 : 24명
1972. 1. 25	직할파출소 신설(본서 내) - 관할구역 : 원주시 일원 - 위치 : 원주소방서 1층(원주시 중앙동 207번지) - 시비 37,000원으로 칸막이벽을 설치하여 신설
1972. 1. 27	원주소방서 정원승인 5명(유급상비대원) - 정원 : 38명
1972. 8. 31	원주소방서 정원승인 및 조정 - 정원 : 40명(총경1, 경위 2명 증원, 소방원 1명 감원)
1975. 2. 7	우산파출소 건물 준공과 동시에 소방관파출소 설치시까지 소방관 파견대로 개소 - 건축비 : 지방비 1,440,000원 - 대지 : 시유지 350평 - 규모 : 연면적 42평
1975. 5. 24	우산 소방관파출소 정식 신설 원주소방서 직할파출소 관할구역 조정 - 평원동, 일산동, 명륜동, 봉산1·2동, 개운동, 관설동, 반곡동, 행구동, 무실동, 원인동, 학성1·2동 원주소방서 우산파출소 관할구역 조정 - 우산동, 단계동, 태장1동, 태장2동
1975. 8. 22	경찰산하의 소방을 민방위본부 발족과 동시 민방위본부 소방국 예하기관으로 기구개편
1976. 1. 7	원주소방서 직제조정 - 상비대원 30명을 지방고용원(소방수)으로 직급 상향조정,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신분을 변경함. - 총인원 : 47명
1977. 12. 28	파출소 등 명칭 변경 - 원주소방서 직할파출소 ⇒ 중앙 소방관 파출소 - 원주소방서 우산동파출소 ⇒ 우산 소방관 파출소
1980. 7. 14	원주소방서 중앙 소방관 파출소 관할구역 조정 - 원주시 일원, 중평동 추가
1980. 12. 30	전국 최초의 구급서비스 개시
1982. 4. 30	원주소방서 관할구역 조정 - 전과 동일, 원성군 소초면 일원추가

일자	내용
1982. 6. 1	원주소방서 우산파출소 관할구역 조정 - 전과 동일, 원성군 소초면 일원추가
1984. 3. 19	소방표지장규정에 따른 명칭변경 - 원주소방서 중앙소방관파출소 ⇒ 중앙파출소 - 원주소방서 우산소방관파출소 ⇒ 우산파출소
1985. 6. 3	원주소방서 단구파출소 신설 - 위치 : 원주시 단구동 195-1 - 구조 :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1층 - 규모 : 대지 986㎡, 연면적 194㎡ - 공사비 : 지방비 25,000,000원 - 관할구역 : 개운동, 단구동, 행구동, 관설동, 반곡동 원주소방서 중앙파출소 관할구역 조정 - 중평동, 원인동, 명륜동, 봉산 1·2동, 학성 1·2동, 무실동
1985. 12. 10	원주소방서 정원승인 및 관리규정 - 국가직 소방장 1명을 감축하고, 지방직 17명 증원 단구파출소 관서정원 : 13명 굴절사다리차 조작요원 : 2명 구급업무요원 : 2명 - 정원 : 63명(국가직 16명, 지방직 47명) - 현원 : 62명(국가직 16명, 지방직 46명)
1990. 2. 12	원주소방서 관할구역 조정 - 원주시 일원 및 원성군 소초면을 원주시 소초면 일원으로 조정
1990. 9. 6	원주소방서 정원승인 및 조정 - 지방소방사 정원 5명을 감축하고, 지방소방교 5명 보강 - 지방소방사 2명 증원 - 정원 : 66명(국가직 16명, 지방직 50명)
1991. 2. 24	원주소방서 청사 이전 - 장소 : 원주시 명륜2동 671번지 - 구조 :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지하 1층, 지상 3층 - 규모 : 연면적 2,333㎡, 대지 3,684㎡ ※ 청사 준공식 : 1991. 3. 13.
1991. 4. 23	원주소방서 관할구역 조정 - 원주시 일원, 원성군 소초면, 문막면 일원
1991. 5. 20	원주소방서 정원승인 - 소방행정기능 보강을 위한 관계규칙 공포 및 정원조정 - 부서별 정원승인 내역 명륜파출소 물탱크차 조작요원 : 2명 학성파출소 관서정원 : 13명(위 1, 장 2, 교 4, 사 6) 문막파출소 관서정원 : 9명(위 1, 장 2, 교 3, 사 3) - 원주소방서 정원 : 90명

일자	내용
1991. 5. 20	원주소방서 예하 파출소 관할구역 변경 - 명륜파출소 : 명륜동, 개운동, 단계동, 무실동, 원인동, 일산동 - 단구파출소 : 단구동, 행구동, 관설동, 봉산 2동, 반곡동 - 우산파출소 : 우산동, 태장 1·2동, 원주군 소초면
	원주소방서 문막파출소 신설 - 위치 : 원주군 문막면 문막리 225-7 - 면적 : 부지 478㎡, 연면적 221㎡ - 구조 :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지상 1층 - 사업비 : 73,697,000원 - 공사기간 : 1990. 10. 26. ~ 1991. 4. 24. - 소방력 : 인력 9명, 장비 3대(펌프차 2대, 구급차 1대)
	원주소방서 학성파출소 신설(임시개소 : 1991. 7. 19) - 장소 : 원주소방서 청사내 1층 휴게실 - 관할구역 : 중평동, 학성 1·2동, 봉산 1동 - 소방력 : 인력 11명, 장비 2대(펌프차 2대)
1991. 10. 1	원주소방서 정원승인 - 소방장비관리 인력 보강 문막파출소 펌프차 조작요원 4명(교 2, 사 2) 호저면 펌프차 조작요원 2명(원주군 정원 소방사 2명)
1991. 10. 5	원주소방서 학성파출소 1차 이전 - 위치 : 원주시 일산동 185-1(원주시청) 민방위지원본부 상황실 - 기간 : 1991. 10. 5. ~ 청사 준공시까지 - 소방력 배치 : 인력 11명, 장비 2대(펌프차 2대) - 통신시설 : 전용회선 : 1회선, 일반 · 행정전화 각 1대
1991. 10. 22	원주소방서 소방훈련탑 준공 - 위치 : 원주시 명륜동 671(원주소방서 후정) - 구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지하 1층, 지상 7층 - 규모 : 연면적 330㎡ - 공사기간 : 1991. 4. 10. ~ 10. 20. - 공사비 : 시비 180,000,000원 - 층별 용도 : 1층 - 사무실, 대기실 2층 - 화장실, 샤워실 3~7층 - 인명구조 훈련장
1992. 1. 1	소방행정체제 개편관련 법령개정으로 소방업무에 대한 책임 및 소방관련 공무원의 임용권이 시장·군수에서 도지사로 이관 ※ 시·군소방서 및 소방관련 지방공무원 도 이관 : 569명 (소방직 539명, 기능직 28명, 고용직 2명)
	원주소방서 관할구역 조정 - 원주시, 원주군 일원

일자	내용
1992. 1. 1	원주소방서 명륜파출소 관할구역 조정 - 전과 동일, 원주군중 흥업면·귀래면 일원 추가
	원주소방서 단구파출소 관할구역 조정 - 전과 동일, 원주군중 판부면·신림면 일원 추가
	원주소방서 우산파출소 관할구역 조정 - 전과 동일, 원주군중 호저면 일원 추가
	원주소방서 문막파출소 관할구역 조정 - 전과 동일, 원주군중 지정면·부론면 일원 추가
1992. 2. 1	부론119지역대 신설
1992. 4. 1	소방업무의 광역체제전환으로 기존 소방과를 폐지하고 소방본부를 발족하여 소방행정과와 방호과를 둠 - 소방행정과 : 소방행정계, 소방감찰계, 장비계 - 방호과 : 방호계, 예방계, 소방교육계
1992. 6. 30	원주소방서 정원승인 : 13명 - 문막파출소 펌프차 조작요원 : 2명 - 황성파출소 관서정원 : 11명 - 정원 : 115명
1992. 7. 1	원주소방서 황성파출소 신설 - 위치 : 황성군 황성읍 읍하 1리 450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 지하 1층, 지상 2층 - 규모 : 부지 722㎡, 연면적 290㎡ - 건축비 : 160,000,000원 - 공사기간 : 1991. 12. 21. ~ 1992. 7. 8. - 소방력 : 인력 11명(위 1, 장 2, 교 4, 사 4), 장비 2대(펌프차 2대)
1992. 12. 31	원주소방서 관할구역 조정 - 황성군 중 황성읍·우천면·공근면 일원 추가
1993. 3. 27	원주소방서 정원승인 - 소방장비 조작요원 정원승인 명륜파출소 고가사다리차 조작요원 4명 우산(소초) 2.5톤 펌프차 조작요원 2명 - 정원 : 121명
1993. 9. 15	원주소방서 정원승인 5명 - 소방장비 조작요원 정원승인 본서 : 3명 황성파출소 구급차 조작 1명 우산파출소 구급차 조작 1명 - 정원 : 126명(국가직 16명, 지방직 110명)

일자	내용	
1993. 12. 7	학성파출소 2차 이전(청사 완공으로 이전) - 장소 : 원주시 학성 1동 213-9 - 구조 :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지하 1층, 지상 1층 - 규모 : 부지 495㎡, 연면적 257㎡ - 건축비 : 150,000,000원 - 공사기간 : 1993. 7. 23. ~ 1993. 11. 5. ※ 준공식 : 1993. 12. 15.	
1994. 5. 20	원주소방서 정원승인 9명 - 본서 3명(구조대요원) - 우산파출소(구급차조작) 1명 - 황성파출소(구급차조작) 1명 - 황성파출소(대형펌프차조작요원, 우천) 4명 - 조정후 정원 135명(국가직 16명, 지방직 119명)	
1994. 5. 25	원주소방서 119구조대 임시 발대 - 위치 : 원주시 명륜동 671번지 소방훈련탑 1층 - 소방력 : 9명(위 1, 장 1, 교 6, 사 1), 장비 1대(구조공작차, 구급차) - 관할구역 : 원주소방서 관할과 동일 ※ 119구조대 발대식 : 1994. 11. 24.	
1995. 3. 20	광역소방체제 일원화에 의한 황성군 편입 - 편입지역 : 황성군 6개 면(둔내, 갑천, 청일, 공근, 서원, 강림) - 편입면적 : 715.67km ² - 편입규모 : 인구 20,621명, 가구 5,734호 - 소방력 편입 : 인력 6명, 장비 5대 - 관할구역 조정	
	명칭	관할구역
	명륜파출소	명륜 1·2동, 개운동, 단계동, 무살동, 원인동, 일산동, 원주구 흥업면, 귀래면
	학성파출소	중평동, 학성 1·2동, 봉산 1동
	단구파출소	단구동, 행구동, 관설동, 봉산 2동, 반곡동, 원주군 판부면, 신림면
	우산파출소	우산동, 태장 1·2동, 원주군 소초면, 호저면
	문막파출소	원주군 문막읍 지정면, 부론면
	황성파출소	황성읍, 우천면, 안흥면, 둔내면, 갑천면, 청일면, 공근면, 서원면, 강림면
	119구조대	원주시, 황성군 일원
1995. 5. 10	명륜·우산·단구 파출소장 직급 상향조정	

일자	내용
1995. 7. 24	원주소방서 태장 고속도로 구급대 운영 - 장소 : 원주시 태장동 고속도로 톨게이트 - 명칭 : 고속도로 구급대 - 소방력 : 4명(정원승인 안됨), 장비 : 구급차 1대 ※ 태장파출소로 설치승인(내무부 소방 13800-231, 1995. 5. 23.)이 되었으나 고속도로 구급대로 먼저 운용이 되고 1998년 2월 19일에 태장파출소가 개소
	방호과 구조구급계 신설 - 개정일 : 1994. 12. 31 - 계 설치일 : 1995. 7. 24 - 정원 : 3명(위 1, 장 1, 교 1)
1996. 3. 19	소방서과장 직급 상향조정 : 소방경 ⇒ 소방령
1996. 9. 25	원주소방서 정원승인 : 37명 - 조정후 정원 : 190명
1996. 12. 26	원주소방서 둔내 고속도로 구급대 운영 - 장소 : 원주시 둔내면 고속도로 톨게이트 - 명칭 : 고속도로 구급대 - 소방력 : 4명(정원승인 안됨), 장비 : 구급차 1대 ※ 둔내파출소로 설치승인(내무부 13800-325, 1996. 9. 3.)이 되었으나 고속도로 구급대로 먼저 운용이 되고 2000년 7월 15일에 둔내파출소가 개소
1998. 1. 17	원주소방서 태장파출소 신설 - 개소 : 원주시 태장 2동 1810번지 - 관할구역 : 원주시 소초면·호저면(만종리 제외)·태장1·2동 일원
1998. 7. 18	청일출장소 청사 준공식 - 위치 : 황성군 청일면 유동리 1037-6 ※ 부지 기증자 : 김봉희(남, 당시 56세), 황성군 청일면 유동 2리 - 구조 :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가 1층 - 규모 : 부지 396㎡, 연면적 132㎡ - 공사기간 : 1997. 9. 3. ~ 1998. 5. 1. - 사업비 : 총 145,000,000원(도비 1억 4천, 군비 2천 5백만) - 소방력 : 인력 2명, 장비 1대(펌프차)
1998. 9. 16	원주소방서 태장·둔내 고속도로 구급대 철수 - 지방조직 개편관련 인원감축

일자	내용
1998. 11. 18.	원주소방서 산악구조대 발대 - 전국 최초의 인명구조견 배치, 산악구조차량 1대 배치
2000. 7. 15.	원주소방서 둔내파출소 신설 - 위치 : 황성군 둔내면 우용리 649-16
2000. 12. 20.	귀래출장소 신설 - 위치 : 귀래면 운남리 555-11
2003. 1. 1.	원주소방서 소방행정과에 정보통신계 신설 - 2과 5계 ⇒ 2과 6계
2003. 1. 28.	원주소방서 신림농촌형파출소 시범 운영 - 개소 :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519-14번지
2003. 11. 17.	방호구조과 화재조사계 신설(2과 6계 → 2과 7계)
2003. 11. 27.	부론 출장소 신설 - 장소 : 부론면 법천리 1451-16
2004. 10. 29.	우산파출소 재건축 - 장소 : 우산동 411-35
2005. 8. 26.	예방과(예방계, 안전계, 화재조사계) 신설(2과 7계 → 3과 8계)
2005. 12. 20.	지정출장소 신설 - 장소 : 지정면 간현리 910-2
2006. 9. 29.	소방파출소 및 소방출장소 명칭변경 - 파출소 ⇒ 119안전센터, 출장소 ⇒ 119지역대
2008. 8. 8.	조직개편(3과 8계 → 3과 6계) - 3과(소방행정과, 예방안전과, 현장대응과) - 6계(행정계, 예산장비계, 예방계, 소방민원계, 대응관리계, 진압조사계)
2009. 6. 23.	소방기구개편(3과 8담당 -> 2과 1대 8담당) 및 기능조정 - 현장대응 기능 및 안전관리를 위한 현장지휘대 신설
2010. 4. 2.	황성소방서 개서로 인한 소방기구개편 및 관할구역 조정 - 원주시 : 원주소방서 - 황성군 : 황성소방서
2011. 12. 23.	신림안전센터 승격
2012. 7. 13.	조직개편(4과 7계 3진압구조대, 1구급대)
2015. 4. 10.	현장대응과에서 119구조대 분리
2016. 11. 4.	흥업119안전센터 신설
2018. 4. 23.	명륜119안전센터 신설
2019. 10. 8.	조직개편 - 정원조정 : 이체 34명(명륜안전센터 ▶ 혁신안전센터) - 직제순 조정 : 소방행정과, 예방안전과, 방호구조과, 현장대응과 - 원주소방서 직할센터 구급대 보강 : 이체 9명 - 화재조사업무 강원소방본부 이관(본부 광역화재조사계 신설) - 원주소방서 조직도 : 4과 7계 1구조대 8안전센터 4지역대(정원 306명, 현원 271명)
2019. 10. 24.	원주소방서 청사 이전(반곡동) - 준공식 : 11월 5일

각종 통계

소방공무원 인원

구분	계	소방총경	소방경정	소방경감	소방경위	소방사	소방장	소방원
1970년	14	-	-	1	-	3	1	9
1971년	-	-	-	-	-	-	-	-
1972년	-	-	-	-	-	-	-	-
1973년	-	-	-	-	-	-	-	-
1974년	-	-	-	-	-	-	-	-
1975년	13	1	-	-	-	2	1	9
1976년	44	1	-	-	1	2	2	37
1977년	48	1	-	2	2	4	2	37
1978년	44	1	-	1	2	3	3	34

구분	계	국가직							지방직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소방교	소방사
1979년	47	1	-	2	2	4	2	6	2	28
1980년	45	-	1	1	1	4	2	6	2	28
1981년	45	-	1	1	1	3	2	7	2	28

구분	계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1982년	45	1	-	2	1	5	8	28
1983년	46	1	-	2	-	5	8	30
1984년	-	-	-	-	-	-	-	-
1985년	62	-	-	-	-	-	-	-
1986년	-	-	-	-	-	-	-	-
1987년	-	-	-	-	-	-	-	-
1988년	63	1	-	2	4	7	18	31
1989년	-	-	-	-	-	-	-	-
1990년	89	1	-	2	6	11	28	41
1991년	80	-	-	-	-	-	-	-
1992년	68	1	-	2	6	12	32	45
1993년	122	1	-	2	7	14	40	58
1994년	135	1	-	2	9	16	45	62
1995년	152	1	-	2	12	17	48	72
1996년	189	1	2	5	12	17	65	87
1997년	162	1	2	5	10	19	52	73
1998년	146	1	2	5	9	20	47	62
1999년	144	1	2	5	9	20	45	62
2000년	143	1	2	5	9	20	44	62
2001년	152	1	2	5	8	27	49	60
2002년	161	1	2	6	9	30	59	54
2003년	167	1	2	7	9	39	68	41
2004년	301	1	2	7	16	72	112	91
2005년	178	1	3	8	11	42	62	51
2006년	230	1	3	8	11	40	59	58
2007년	230	1	3	8	13	31	78	96
2008년	234	1	3	9	12	32	81	96
2009년	248	1	3	10	17	35	86	96
2010년	200	1	3	9	20	60	58	49
2011년	196	1	3	9	15	33	67	68
2012년	198	1	4	9	17	34	64	69
2013년	198	1	4	9	17	34	64	69
2014년	198	1	4	15	17	34	64	63
2015년	203	1	4	16	17	36	65	64
2016년	231	1	4	17	20	39	78	72
2017년	243	1	4	17	20	42	82	77
2018년	255	1	4	18	58	60	82	32
2019년	287	1	4	18	58	71	85	50

※ 출처 : 원주소방서 소방행정과, 원주시 '원주통계연보', 행정안전부 '한국도시통계: 소방공무원 현황(1979-2000)'

소방 차량

구분	보유대수	주요장비
1970년	4	펌프차 1, 탱크차 1, 지프차 2
1971년	6	펌프차 2, 탱크차 2, 지프차 2
1972년	6	펌프차 2, 탱크차 1, 사다리방수포차 1, 지프차 1, 선전차 1
1974년	7	펌프차 3, 사다리방수포차 1, 화학방수차 1, 지프차 1, 선전차 1
1975년	7	펌프차 1, 탱크부펌프차 2, 펌프부탱크차 3, 지프차 1
1976년	8	펌프차 3, 소형펌프차 2, 펌프부탱크차 1, 지프차 1, 수송차 1
1977년	8	펌프차 5, 소형펌프차 1, 지프차 1, 수송차 1
1978년	12	펌프차 2, 탱크부펌프차 3, 탱크차 1, 소형펌프차 1, 펌프부탱크차 3, 지프차 1, 수송차 1
1979년	11	탱크부펌프차 6, 탱크차 1, 지프차 2, 세단 1, 수송차 1
1981년	12	탱크부펌프차 7, 탱크차 1, 지프차 1, 세단 1, 수송차 1, 급수차 1
1991년	25	굴절차(16m) 1, 화학차(경) 1, 배연조명차 1, 펌프차(대형) 6, 펌프차(소형) 4, 펌프차(농촌형) 3, 물탱크차 1, 구급차 3, 지휘차 1, 순찰차 1, 승용차 2, 화물차 1
1992년	16	굴절차(16m) 1, 화학차(경) 1, 배연조명차 1, 펌프차(대형) 5, 펌프차(소형) 1, 물탱크차 1, 구급차 1, 지휘차 1, 순찰차 1, 승용차 2, 화물차 1
1993년	33	고가차(32m) 1, 굴절차(16m) 1, 화학차(중) 1, 배연조명차 1, 펌프차(대형) 9, 펌프차(소형) 5, 펌프차(농촌형) 3, 물탱크차 1, 구급차 5, 지휘차 1, 순찰차 1, 다목적차 1, 승용차 2, 화물차 1
1994년	34	고가차(32m) 1, 굴절차(16m) 1, 화학차(경) 1, 배연조명차 1, 펌프차(대형) 9, 펌프차(소형) 5, 펌프차(농촌형) 3, 물탱크차 1, 구급차 5, 지휘차 1, 순찰차 1, 다목적차 1, 진단차 1, 승용차 2, 화물차 1
1995년	43	고가차(32m) 1, 굴절차(16m) 1, 화학차(경) 1, 배연조명차 1, 펌프차(대형) 11, 펌프차(중형) 5, 펌프차(소형) 5, 펌프차(농촌형) 3, 물탱크차 1, 구급차 7, 지휘차 1, 순찰차 1, 다목적차 1, 진단차 1, 승용차 2, 화물차 1
1996년	47	고가차(46m) 1, 굴절차(16m) 1, 화학차(경) 1, 배연조명차 1, 펌프차(대형) 10, 펌프차(중형) 6, 펌프차(소형) 5, 펌프차(농촌형) 3, 물탱크차 1, 구급차 11, 지휘차 1, 순찰차 1, 다목적차 1, 진단차 1, 승용차 2, 화물차 1
1997년	49	고가차(52m) 1, 굴절차(16m) 1, 화학차(경) 1, 배연차 1, 구조공작차 1, 굴삭기 1, 펌프차(대형) 10, 펌프차(중형) 8, 펌프차(소형) 7, 물탱크차 1, 구급차(A형) 4, 구급차(B형) 7, 지휘차 1, 순찰차 1, 진단차 1, 승용차 2, 화물차 1
1998년	61	고가차(52m) 1, 굴절차(16m) 1, 화학차(고성능) 1, 화학차(일반) 1, 배연차 1, 구조공작차 1, 굴삭기 1, 펌프차(대형) 10, 펌프차(중형) 13, 펌프차(소형) 4, 펌프차(농촌형) 1, 물탱크차 1, 구급차(A형) 14, 구급차(B형) 4, 지휘차 1, 순찰차 1, 진단차 1, 승용차 2, 승합차 1, 화물차 1
1999년	61	고가차(52m) 1, 굴절차(16m) 1, 화학차(고성능) 1, 화학차(일반) 1, 배연차 1, 구조공작차 1, 굴삭기 1, 펌프차(대형) 10, 펌프차(중형) 13, 펌프차(소형) 4, 펌프차(농촌형) 1, 물탱크차 1, 구급차(A형) 14, 구급차(B형) 4, 지휘차 1, 순찰차 1, 진단차 1, 승용차 2, 승합차 1, 화물차 1
2000년	61	고가차(52m) 1, 굴절차(16m) 1, 화학차(고성능) 1, 화학차(일반) 1, 배연차 1, 구조공작차 1, 굴삭기 1, 펌프차(대형) 9, 펌프차(중형) 15, 펌프차(소형) 4, 물탱크차 1, 구급차(A형) 13, 구급차(B형) 5, 지휘차 1, 순찰차 1, 진단차 1, 승용차 2, 승합차 1, 화물차 1
2001년	45	고가차(52m) 1, 굴절차(16m) 1, 화학차(고성능) 1, 배연차 1, 구조공작차 1, 굴삭기 1, 펌프차(대형) 4, 펌프차(중형) 10, 펌프차(소형) 3, 물탱크차 1, 구급차(A형) 11, 구급차(B형) 1, 지휘차 1, 순찰차 1, 진단차 2, 승용차 2, 화물차 1, 기타 2
2002년	44	고가차(50m) 1, 굴절차(25m) 1, 화학차(고성능) 1, 배연차 1, 구조공작차 1, 굴삭기 1, 펌프차(대형) 4, 펌프차(중형) 9, 펌프차(소형) 3, 물탱크차 1, 구급차(A형) 12, 지휘차 1, 순찰차 1, 진단차 2, 승용차 2, 화물차 1, 기타 2
2003년	47	고가차(50m) 1, 굴절차(18m이하) 1, 화학차(고성능) 1, 배연차 1, 구조공작차 1, 굴삭기 1, 펌프차(대형) 4, 펌프차(중형) 10, 펌프차(소형) 3, 물탱크차 1, 구급차(A형) 11, 구급차(B형) 1, 지휘차 1, 순찰차 1, 진단차 3, 승용차 2, 화물차 1, 기타 3
2004년	50	고가차(50m) 1, 굴절차(18m이하) 1, 화학차(고성능) 1, 배연차 1, 구조공작차 1, 굴삭기 1, 펌프차(대형) 4, 펌프차(중형) 10, 펌프차(소형) 3, 물탱크차 1, 구급차(A형) 11, 구급차(B형) 1, 지휘차 1, 순찰차 1, 진단차 3, 승용차 2, 화물차 1, 기타 6

구분	보유대수	주요장비
2005년	49	고가차(50m) 1, 굴절차(27m) 1, 화학차(고성능) 1, 배연차 1, 구조공작차 1, 굴삭기 1, 펌프차(대형) 4, 펌프차(중형) 10, 펌프차(소형) 3, 물탱크차 1, 구급차(A형) 11, 구급차(B형) 1, 지휘차 1, 순찰차 1, 진단차 3, 승용차 2, 화물차 1, 기타 5
2006년	75	고가차(50m) 1, 굴절차(27m) 2, 화학차(고성능) 1, 화학차(일반) 1, 배연차 1, 구조차(일반) 2, 구조차(산악) 2, 굴삭기 1, 펌프차(대형) 5, 펌프차(중형) 23, 물탱크차 2, 구급차(B형) 20, 지휘차 1, 장비운반차 1, 트레일러(공기충전기) 1, 순찰차 1, 화물차 1, 행정차 2, 기타 8
2007년	77	고가차(50m) 1, 굴절차(27m) 2, 화학차(고성능) 1, 화학차(일반) 1, 배연차 1, 구조차(일반) 2, 구조차(산악) 2, 굴삭기 1, 펌프차(대형) 5, 펌프차(중형) 22, 물탱크차 2, 구급차(B형) 20, 지휘차 1, 장비운반차 1, 트레일러(공기충전기) 1, 트레일러(보트운반) 1, 순찰차 1, 화물차 1, 행정차 2, 기타 8
2008년	76	고가차(50m) 1, 굴절차(27m) 2, 화학차(고성능) 1, 화학차(일반) 1, 배연차 1, 구조차(일반) 2, 구조차(산악) 2, 굴삭기 1, 펌프차(대형) 4, 펌프차(중형) 22, 물탱크차 2, 구급차(B형) 20, 지휘차 1, 장비운반차 1, 트레일러(공기충전기) 1, 트레일러(보트운반) 1, 순찰차 1, 화물차 1, 행정차 2, 기타 8
2009년	76	고가차(50m) 1, 굴절차(27m) 2, 화학차(고성능) 1, 화학차(일반) 1, 배연차 1, 구조차(일반) 2, 구조차(산악) 1, 굴삭기 1, 이동안전체험차 1, 펌프차(중형) 3, 펌프차(중형) 23, 물탱크차 2, 구급차(B형) 20, 지휘차 1, 장비운반차 1, 트레일러(공기충전기) 1, 트레일러(보트운반) 1, 순찰차 1, 화물차 1, 행정차 2, 기타 8
2010년	50	고가차(50m) 1, 굴절차(27m) 1, 화학차(고성능) 1, 배연차 1, 구조차(일반) 1, 구조차(산악) 1, 굴삭기 1, 이동안전체험차 1, 펌프차(중형) 15, 물탱크차 2, 구급차(B형) 10, 지휘차 1, 장비운반차 1, 트레일러(공기충전기) 1, 트레일러(보트운반) 1, 순찰차 1, 화재조사차 1, 진단차 4, 화물차 2, 행정차 2, 기타 1
2011년	50	고가차(50m) 1, 굴절차(27m) 1, 화학차(고성능) 1, 배연차 1, 구조차(일반) 1, 구조차(산악) 1, 굴삭기 1, 이동안전체험차 1, 펌프차(중형) 15, 물탱크차 2, 구급차(승합형) 10, 지휘차 1, 장비운반차 1, 트레일러(공기충전기) 1, 트레일러(보트운반) 1, 순찰차 1, 화재조사차 1, 진단차 4, 화물차 2, 행정차 2, 기타 1
2012년	50	고가차(50m) 1, 굴절차(27m) 1, 화학차(고성능) 1, 배연차 1, 구조차(일반) 1, 구조차(산악) 1, 굴삭기 1, 이동안전체험차 1, 펌프차(중형) 15, 물탱크차 2, 구급차(승합형) 10, 지휘차 1, 장비운반차 1, 트레일러(공기충전기) 1, 트레일러(보트운반) 1, 순찰차 1, 화재조사차 1, 진단차 4, 화물차 2, 행정차 2, 기타 1
2013년	51	고가차(50m) 1, 굴절차(27m) 1, 화학차(고성능) 1, 화학차(일반) 1, 배연차 1, 구조차(일반) 1, 구조차(산악) 1, 굴삭기 1, 이동안전체험차 1, 펌프차(중형) 15, 물탱크차 2, 구급차(승합형) 10, 지휘차 1, 장비운반차 1, 트레일러(공기충전기) 1, 트레일러(보트운반) 1, 순찰차 1, 화재조사차 1, 진단차 4, 화물차 2, 행정차 2, 기타 1
2014년	51	고가차(50m) 1, 굴절차(27m) 1, 화학차(고성능) 1, 배연차 1, 구조차(일반) 1, 구조차(산악) 1, 굴삭기 1, 이동안전체험차 1, 펌프차(중형) 15, 물탱크차 2, 구급차(승합형) 11, 지휘차 1, 장비운반차 1, 트레일러(공기충전기) 1, 트레일러(보트운반) 1, 순찰차 1, 화재조사차 1, 진단차 4, 화물차 2, 행정차 2, 기타 1
2015년	50	고가차(50m) 1, 굴절차(27m) 1, 화학차(고성능) 1, 배연차 1, 구조차(일반) 1, 구조차(산악) 1, 굴삭기 1, 이동안전체험차 1, 펌프차(중형) 15, 물탱크차 2, 구급차(승합형) 10, 지휘차 1, 장비운반차 1, 트레일러(공기충전기) 1, 트레일러(보트운반) 1, 순찰차 1, 화재조사차 1, 진단차 4, 화물차 2, 행정차 2, 기타 1
2016년	54	고가차(50m) 1, 굴절차(27m) 1, 화학차(고성능) 1, 배연차 1, 구조공작차 1, 굴삭기 1, 이동안전체험차 1, 펌프차(중형) 16, 물탱크차 2, 구급차(승합형) 11, 지휘차 1, 장비운반차 1, 트레일러(공기충전기) 1, 트레일러(보트운반) 1, 순찰차 1, 화재조사차 1, 진단차 4, 화물차 2, 행정차 2, 기타 1
2017년	53	고가차(50m) 1, 굴절차(27m) 1, 화학차(고성능) 1, 배연차 1, 구조공작차 1, 굴삭기 1, 이동안전체험차 1, 펌프차(중형) 16, 물탱크차 2, 구급차(승합형) 13, 지휘차 1, 장비운반차 1, 트레일러(보트운반) 1, 순찰차 1, 화재조사차 1, 진단차 5, 화물차 2, 행정차 2, 기타 1
2019년	56	고가차(50m) 1, 굴절차(27m) 1, 화학차(고성능) 1, 배연차 1, 구조공작차 1, 굴삭기 1, 이동안전체험차 1, 펌프차(중형) 16, 물탱크차 3, 구급차(승합형) 12, 지휘차 1, 장비운반차 1, 트레일러(보트운반) 1, 순찰차 1, 화재조사차 1, 진단차 5, 화물차 2, 행정차 2, 수난구조장비운반차 1, 소방버스 1, 생활안전구조차 1, 산악구조차 1
2020년		안전체험차 보강(예정), 굴삭기 보강(예정)

※ 출처 : 원주소방서 예산장비계, 원주시청 홈페이지 '통계연보'

소방관 1인당 담당인구

구분	담당인구	소방관 수	원주시 인구	구분	담당인구	소방관 수	원주시 인구
1970년	14,325	14	200,556	1995년	1,566	152	238,027
1971년	-	-	204,138	1996년	1,298	189	245,398
1972년	-	-	206,721	1997년	1,576	162	255,259
1973년	-	-	205,939	1998년	1,788	146	261,076
1974년	-	-	208,065	1999년	1,846	144	265,833
1975년	14,960	13	194,484	2000년	1,894	143	270,891
1976년	4,428	44	194,813	2001년	1,811	152	275,217
1977년	4,109	48	197,234	2002년	1,727	161	277,987
1978년	4,526	44	199,152	2003년	1,689	167	282,025
1979년	4,251	47	199,815	2004년	951	301	286,136
1980년	4,416	45	198,715	2005년	1,630	178	290,073
1981년	4,437	45	199,662	2006년	1,288	230	296,251
1982년	4,492	45	202,150	2007년	1,309	230	301,101
1983년	4,491	46	206,607	2008년	1,309	234	306,350
1984년	-	-	209,427	2009년	1,251	248	310,276
1985년	3,316	62	205,643	2010년	1,585	200	317,094
1986년	-	-	209,988	2011년	1,648	196	323,026
1987년	-	-	211,482	2012년	1,648	198	326,321
1988년	3,407	63	214,636	2013년	1,653	198	327,381
1989년	-	-	217,769	2014년	1,667	198	330,134
1990년	2,530	89	225,174	2015년	1,655	203	336,031
1991년	-	-	213,866	2016년	1,477	231	341,130
1992년	3,247	68	220,811	2017년	1,418	243	344,614
1993년	1,858	122	226,705	2018년	1,362	255	347,421
1994년	1,713	135	231,227	2019년 11월	1,261	287	348,158

※ 출처 : 원주소방서 소방행정과, 원주시 '원주통계연보', 행정안전부 '한국도시통계: 소방공무원 현황(1979~2000)'

현장활동(화재)

구분	발생(건)			피해액(천원)			인명피해(명)		
	계	실화	방화	계	부동산	동산	계	사망	부상
1970년	14	-	-	205	-	-	0	-	-
1971년	27	-	-	5,107	-	-	28	8	20
1972년	11	-	-	2,195	-	-	0	-	-
1973년	12	-	-	-	-	-	2	-	2
1974년	21	-	-	17,714	-	-	0	-	-
1975년	22	19	2	1,222	648	574	2	-	2
1976년	17	13	-	33,868	17,151	16,717	2	-	2
1977년	12	10	-	1,466	1,097	369	2	1	1
1978년	19	17	1	34,762	15,341	19,421	4	-	4
1979년	15	12	-	2,919	941	1,978	2	1	1
1980년	14	9	1	7,042	4,536	2,506	1	-	1
1981년	26	22	4	24,386	13,128	11,258	7	5	2
1982년	21	16	2	30,310	13,909	16,401	3	1	2
1983년	26	16	3	22,918	15,539	7,379	7	2	5
1984년	30	27	2	79,118	21,243	57,875	1	-	1
1985년	25	25	-	23,879	18,076	5,803	0	-	-
1986년	42	38	4	11,979	4,822	7,157	9	1	8
1987년	41	37	2	20,097	5,236	14,861	4	-	4
1988년	44	35	4	37,864	9,961	27,903	4	1	3
1989년	51	41	3	116,740	68,992	47,748	3	-	3
1990년	48	40	4	24,959	3,868	21,091	8	1	7
1991년	62	49	8	80,999	17,119	63,880	20	6	14
1992년	91	68	14	250,436	62,219	188,217	44	15	29
1993년	76	69	6	207,412	55,271	152,141	11	8	3
1994년	111	103	8	382,702	127,240	255,462	18	7	11
1995년	113	56	6	216,683	53,767	162,916	7	2	5
1996년	107	34	9	313,722	127,427	186,295	9	1	8
1997년	132	20	13	645,359	330,981	314,378	12	3	9
1998년	181	109	13	1,450,562	924,692	525,870	22	10	12
1999년	219	157	8	1,598,609	797,950	800,659	11	1	10
2000년	254	200	16	2,109,925	1,090,085	1,019,840	13	3	10
2001년	237	188	17	1,764,386	1,026,248	738,138	14	3	11
2002년	275	273	2	1,151,377	530,925	620,452	16	5	11
2003년	303	250	26	1,243,231	600,436	642,795	21	4	17
2004년	270	237	25	1,297,628	726,842	570,786	12	-	12
2005년	266	237	26	1,806,162	962,547	843,615	12	1	11
2006년	331	158	39	1,758,435	963,098	795,337	30	6	24
2007년	531	472	36	2,548,920	1,382,755	1,166,165	16	-	16
2008년	564	491	38	2,309,937	1,151,197	1,158,740	19	2	17
2009년	608	506	38	2,617,165	1,425,057	1,192,108	22	7	15
2010년	417	337	17	2,248,432	1,153,160	1,095,272	10	3	7
2011년	386	336	9	1,474,259	679,168	795,091	10	2	8
2012년	375	315	19	1,415,260	860,372	554,888	16	2	14
2013년	326	251	9	1,609,375	952,818	656,557	33	-	33
2014년	367	323	11	2,367,735	1,211,569	1,156,166	20	1	19
2015년	349	316	12	3,235,759	1,582,573	1,653,186	28	3	25
2016년	393	355	14	1,905,510	1,083,528	821,982	20	2	18
2017년	385	375	10	2,731,839	1,182,839	1,549,144	23	3	20
2018년	361	354	7	3,856,736	1,525,776	2,330,960	17	4	13

※ 출처 : 원주소방서 화재조사계, 원주시 '원주통계연보'

현장활동(구조)

※ 2015년 7월 생·활안전구조활동 개시

구분	출동건수	구조(처리)건수				구조인원	미처리
		소계	인명구조	안전조치	기타		
1994년	9	9	9	-	-	10	-
1995년	194	76	68	-	7	141	119
1996년	316	108	105	-	3	190	208
1997년	272	90	89	-	1	176	182
1998년	435	201	175	-	26	480	235
1999년	476	198	155	43	-	286	292
2000년	918	446	170	154	122	295	472
2001년	636	95	-	-	95	130	263
2002년	1,232	1,040	525	319	196	884	192
2003년	380	219	139	44	36	421	161
2004년	995	571	311	179	81	794	427
2005년	1,079	594	289	274	31	504	420
2006년	1,194	671	279	257	135	439	523
2007년	964	702	567	135	-	567	122
2008년	1,504	837	271	379	73	471	667
2009년	2,964	1,942	259	1,391	292	627	922
2010년	2,954	2,171	440	1,139	592	639	783
2011년	3,035	1,952	510	1,032	238	693	1,083
2012년	2,793	1,983	392	1,179	239	493	810
2013년	1,221	950	176	541	165	131	271
2014년	1,302	1,143	124	811	174	50	159
2015년	1,225	975	126	734	87	138	250
2016년	2,887	2,080	377	1,455	182	422	807
2017년	3,809	2,740	374	2,003	333	492	1,069
2018년	4,946	3,806	464	2,748	543	491	1,140

※ 출처 : 강원도 소방본부 구조활동시스템, 원주시 '원주통계연보'

현장활동(생활안전구조, 생활민원)

구분	동물포획					벌집제거	잠금장치 개방	금수지원	예방경계
	소 계	개	고양이	멧돼지	기타				
2012년	148	·	·	·	·	1,213	272	174	4
2013년	287	·	·	·	·	694	279	98	2
2014년	347	·	·	·	·	1,089	340	174	19
2015년	363	·	·	·	·	933	342	205	49
2016년	360	160	96	7	97	1,245	330	143	38
2017년	581	346	91	50	94	1,412	410	205	52
2018년	592	344	101	29	118	1,711	376	82	87

※ 출처 : 강원도소방본부 구조구급활동 시스템 통계자료, 강원소방 100년사

현장활동(구급)

구분	신고건수	이송건수	구급환자 유형별				
			만성질환	급성질환	기타	교통사고	사고부상
1993년	1,360	1,029	222	324	235	142	173
1994년	2,721	2,308	494	626	471	720	190
1995년	3,403	2,581	541	672	588	880	266
1996년	5,032	3,465	569	861	810	943	547
1997년	5,951	4,122	670	1,118	898	1,126	654
1998년	7,174	5,235	863	1,396	1,346	1,280	696
1999년	9,748	7,279	1,280	1,831	1,686	1,766	1,181
2000년	8,033	5,857	1,093	1,691	1,358	1,440	714
2001년	8,321	6,190	-	2,206	2,628	1,417	271
2002년	8,812	6,452	-	2,020	2,839	-	1,764
2003년	9,791	6,737	1,387	1,667	1,537	1,431	1,127
2004년	10,371	7,441	1,717	2,371	1,919	1,229	605
2005년	13,440	9,803	2,261	3,002	2,529	1,688	998
2006년	13,759	9,781	952	3,955	2,131	1,892	1,393
2007년	14,603	10,467	660	5,846	1,343	2,087	1,202
2008년	15,610	10,976	747	4,899	2,634	1,831	1,411
2009년	17,735	11,345	707	4,502	4,666	1,946	80
2010년	16,268	10,983	682	4,390	2,735	1,585	2,014
2011년	13,773	9,250	578	3,853	3,716	1,369	41
2012년	14,524	9,797	782	4,272	3,368	1,412	4,780
2013년	15,086	10,072	1,529	3,446	4,014	1,360	-
2014년	15,829	10,723	1,831	3,576	4,217	1,460	-
2015년	16,498	11,466	2,890	3,772	3,382	1,945	-
2016년	16,852	11,458	3,943	3,518	3,021	1,420	-
구분	신고건수	이송건수	이송환자 유형별			그 외	
			심정지	외 상	심뇌혈관 질환		
2017년	18,220	11,885	194	3,714	2,024	5,953	
2018년	18,895	12,232	220	3,877	1,483	6,652	

※ 출처 : 강원도 소방본부 구급활동 시스템 통계자료, 원주시 '원주통계연보'

소방대상물

구분	총계	아파트 및 기숙사	근린생활 시설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 설	그 외
1999년	4,613	129	2,619	36	120	12	118	143	61	1,510
2000년	4,219	120	2,589	29	101	15	107	99	55	1,196
2001년	5,645	150	3,368	43	129	15	152	155	80	1,698
2002년	5,279	140	3,384	30	113	16	144	108	66	1,379
2003년	5,656	140	3,627	28	122	20	171	110	77	1,462
2004년	5,823	146	3,888	149	-	31	180	110	83	1,336
2005년	6,573	149	4,218	176	196	31	197	117	198	1,399
2006년	7,950	176	4,730	221	-	34	227	175	474	2,074
2007년	8,228	186	4,842	228	-	35	229	182	484	2,207
2008년	8,623	195	5,068	255	-	37	248	186	575	2,227
2009년	9,253	205	5,521	266	-	39	254	187	606	2,343
2010년	7,940	190	4,949	220	-	35	238	126	405	1,887
2011년	7,976	193	5,206	20	-	24	22	122	389	2,108
2012년	8,234	200	5,262	30	-	31	218	138	385	2,092
2013년	8,294	201	3,543	52	-	31	225	142	391	3,835
2014년	10,818	226	6,425	63	185	36	20	122	437	3,407
2015년	12,544	232	7,558	57	180	32	4	127	437	4,023
2016년	13,134	221	8,058	59	180	32	4	127	437	4,122
2017년	13,567	224	8,031	46	180	35	6	130	443	4,472
2018년	13,374	225	7,990	46	180	33	6	131	442	4,321

※ 출처 : 원주소방서 예방안전과, 원주시 '원주통계연보', 강원도소방본부 '연도별 예방소방행정 통계자료'

위험물 취급소

구분	총계	제조소	주요취급소					저장소				
			소계	주유	판매	이송	일반	소계	옥내	옥외	옥내	그 외
2001년	862	4	858	130	-	-	728	-	-	-	-	-
2002년	894	4	890	132	-	-	758	-	-	-	-	-
2003년	1,041	4	1,037	142	-	-	895	-	-	-	-	-
2004년	1,081	4	1,077	146	-	-	931	-	-	-	-	-
2005년	1,656	6	287	171	-	1	115	1,363	29	308	288	478
2006년	1,314	6	240	139	-	1	100	1,068	29	265	211	392
2007년	1,256	3	219	125	-	1	93	1,034	30	244	198	398
2008년	1,260	3	244	153	-	1	90	1,013	33	243	196	384
2009년	1,225	3	242	157	-	1	84	980	33	250	189	369
2010년	1,186	2	241	154	4	1	82	943	32	252	183	342
2011년	1,122	3	236	156	4	-	76	883	30	255	171	301
2012년	1,076	3	230	158	4	1	67	843	28	247	165	295
2013년	1,056	3	229	160	4	1	64	824	29	245	161	287
2014년	1,037	3	231	162	5	1	63	803	30	244	155	274
2015년	1,019	4	233	163	6	1	63	782	32	244	145	266
2016년	1,006	4	229	161	6	1	61	773	32	250	135	267
2017년	1,003	6	224	161	6	1	56	773	34	250	130	359
2018년	994	6	217	158	7	-	52	771	35	261	129	346

※ 출처 : 원주소방서 예방안전과, 원주시 '원주통계연보', 강원도소방본부 '연도별 예방소방행정 통계자료'

공사상자

연도	합계		화재		구조		구급		생활안전		지원활동	
	순직	공상	순직	공상	순직	공상	순직	공상	순직	공상	순직	공상
00년		1										
01년		3		1				1				
02년		3						1				
03년	1	14		2		1		8				
04년		3						1				
05년		3										
06년		10		5				2				
07년		6		2				2		1		
08년		9		2		1		3		2		
09년		13		2				1		6		1
10년		7		1						2		
11년		2						1				
12년		5						2		1		
13년		4				1		2		1		
14년		4		1						2		
15년		2		1								
16년		3						3				
17년		2						1				
18년		2		1				1				
19년		2						1				

연도	교육훈련		장비점검		체력단련		예방활동		출퇴근		기타	
	순직	공상	순직	공상	순직	공상	순직	공상	순직	공상	순직	공상
00년												
01년										1		
02년		1										1
03년		1			1	1				1		
04년								2				
05년						1				1		1
06년		1				1						1
07년										1		
08년		1										
09년										3		
10년		1				2						1
11년						1						
12년										2		
13년												
14년												1
15년												1
16년												
17년						1						
18년												
19년						1						

※ 출처 : 원주소방서 소방행정과

주요화재 목록

순번	일자	주소	피해	
			인명(명)	재산(천원)
1	1973. 12. 10.	원주시 경인골프공업사		29,153
2	1981. 12. 9.	원주시 중앙동 갈채싸롱		564
3	1988. 11. 3.	황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농협창고		76,707
4	1992. 10. 4.	원주시 우산동 왕국화관(방화)	사망14, 부상25	5,360
5	1997. 12. 23.	황성군 공근면 삼환기업(방화)		83,487
6	1998. 4. 16.	황성군 황성읍 황성스포렉스 볼링장		344,282
7	1998. 8. 14.	원주시 개운동 알리앙스예식장		299,670
8	1998. 10. 20.	원주시 소초면 평장리 (주)세흥		98,950
9	1999. 3. 21.	원주시 소초면 한아름양계장		93,469
10	1999. 4. 9.	원주시 행구동 백천레스토랑		84,919
11	1999. 12. 6.	원주시 행구동 연암사		139,299
12	2000. 3. 3.	원주시 명륜동 단구아파트 앞 상가		139,475
13	2000. 5. 14.	황성군 서원면 석화리 162번지		127,940
14	2000. 7. 11.	원주시 무실동 687-1번지		228,827
15	2000. 7. 17.	황성군 공근면 성암광학		1,371,551
16	2000. 8. 31.	황성군 우천면 양정리 해주산업		154,467
17	2000. 10. 10.	원주시 단구동 북원부페		315,378
18	2000. 10. 27.	원주시 우산동 동우빌딩(방화)		168,093
19	2000. 11. 5.	원주시 귀래면 백련사(방화)		106,843
20	2001. 1. 12.	원주시 단구동 대명제지		227,191
21	2001. 3. 19.	황성군 청일면 청일잠비농장		171,975
22	2001. 7. 22.	황성군 황성읍 (주)진우1공장		1,298,450
23	2001. 10. 4.	원주시 단계동 새롬마트(방화)		93,724
24	2001. 12. 17.	원주시 문막읍 궁촌리 산 47-5번지		247,220
25	2002. 1. 28.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백일수산		143,500
26	2002. 2. 2.	황성군 황성읍 (주)텔레마트		171,180

순번	일자	주소	피해	
			인명(명)	재산(천원)
27	2002. 2. 16.	원주시 소초면 장양리 삼호제지		88,069
28	2002. 3. 11.	원주시 지정면 월송리 일진농장		92,800
29	2002. 3. 21.	원주시 단계동 동진상사		93,853
30	2003. 9. 30.	원주시 소초면 학곡리 구룡사		100,000
31	2004. 11. 11.	원주시 행구동 산내들		96,184
32	2005. 6. 1.	원주시 인동 흥화브라운빌		94,724
33	2006. 6. 23.	원주시 무실동 중앙고속도로 유조차		119,425
34	2006. 11. 25.	원주시 문막읍 동화리 (주)원주수지		260,817
35	2008. 11. 26.	원주시 개운동 집수리닷컴인테리어		227,560
36	2009. 1. 31.	원주시 소초면 흥양리 낭떠타운		192,284
37	2010. 2. 1.	원주시 문막읍 동화리 강원테크노파크		386,028
38	2010. 3. 21.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보루네오가구		722,852
39	2011. 12. 27.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한마음클럽		194,309
40	2013. 2. 14.	원주시 중앙동 38-2번지		199,641
41	2015. 3. 20.	원주시 호저면 광격리 (주)원주종합수지		1,551,041
42	2015. 11. 1.	원주시 호저면 옥산리 (주)마루이엔티		121,807
43	2015. 12. 16.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 탱크로리	사망1	137,845
44	2016. 3. 18.	원주시 중앙동 관광호텔	부상6	419,379
45	2017. 3. 16.	원주시 흥업면 대안리 원탑기업		326,646
46	2017. 4. 6.	원주시 태장동 아모르웨딩홀 연회장		143,986
47	2017. 8. 11.	원주시 부론면 흥호리 한림축산		620,934
48	2018. 5. 28.	원주시 흥업면 대안리 원탑기업		292,238
49	2018. 7. 13.	원주시 소초면 장양리 엠앤에스		675,675
50	2018. 7. 23.	원주시 문막읍 궁촌리 천지테크		406,118
51	2019. 1. 2.	원주시 중앙동 중앙시장	부상7	4,158,524
52	2019. 1. 3.	원주시 중앙동 중앙시민전통시장	부상3	548,773

※ 출처 : 원주소방서 화재조사계

하트세이버 수여 현황

연도	총 인원	일시	신고내용	계급	성명
2019년	13	1. 21. 02:19	34세 남성 일상생활 중 심정지	소방교	주재용
				소방사	구장권
				소방사	심대룡
		4. 5. 11:34	40대 남성 산책 중 심정지	소방교	최철민
				소방교	박철인
				소방교	김대훈
				소방교	임수진
				소방사	김종인
		5. 20. 17:27	49세 남성 일상생활 중 심정지	소방장	이승기
				소방교	전찬호
				소방교	이왕우
				소방장	조성식
				소방사	신지운
2018년	26	2. 5. 14:32	40대 남성 업무 중 심정지	소방위	유홍열
				소방교	황현석
				소방교	긴대훈
		3. 2. 21:26	60대 남성 음주 중 심정지	소방장	임창희
				소방교	신소희
				소방사	이형식
				소방교	김기웅
				소방사	김홍철
				소방사	김명석
		5. 27. 15:47	60대 남성 운동경기 중 심정지	소방장	임창희
				소방교	신소희
				소방사	이형식
				소방교	김기웅
				소방교	김기승
		6. 30. 13:20	20대 남성 시험응시 도중 심정지	소방장	정연희
				소방사	김달현
				소방사	김종인
		7. 22. 06:01	60대 남성 산책 중 심정지	소방장	정연희
				소방사	김달현
				소방사	김종인
				소방교	최철민
		12. 18. 05:38	47세 남성 일상생활 중 심정지	소방교	김대훈
				소방장	임창희
				소방장	김기웅
				소방교	이형식
				소방교	전찬호
2017년	24	3. 8. 07:24	75세 여성 질병으로 인한 심정지	소방교	김대균
				소방사	신소희
				소방사	김기승
				소방사	이형식
				소방장	이윤범
		3. 9. 17:52	40대 남성 일상생활 중 심정지	소방사	이기훈
				소방교	김대균
				소방사	신소희
		3. 12. 16:50	70대 남성 산책 중 심정지	소방사	이형식
				소방장	유정호
				소방위	정진화
				소방위	심준택
				소방위	김은하수

연도	총 인원	일시	신고내용	계급	성명
2017년	24	6. 5. 05:41	51세 남성 일상생활 중 심정지	소방장	임창희
				소방사	신소희
				소방장	이윤범
				소방교	김기승
				소방사	장재석
		4. 13. 17:57	50대 남성 운동경기 중 심정지	소방사	이형식
				소방장	김성일
				소방교	정영훈
				소방사	황현석
				소방교	정연희
				소방교	김호경
				소방사	김달현
		12. 18. 13:04	50대 남성 일상생활 중 심정지	소방교	허현규
				소방사	고백규
				소방교	김대균
		12. 28. 1:51	60대 남성 전기 작업 중 심정지	소방교	조진현
				소방교	이왕우
				소방사	배주성
				소방사	장세용
				소방사	김홍철
				소방사	김홍철

※ 출처 : 원주소방서 구조구급계

소방용수시설 현황

구분	계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
		소계	지상식	지하식		
06년	610	585	434	155	19	6
07년	615	594	469	125	15	6
08년	618	604	513	91	8	6
09년	625	616	548	68	3	6
10년	632	623	578	45	3	6
11년	639	630	588	42	3	6
12년	645	639	600	39	0	6
13년	653	648	612	36	0	5
14년	682	677	646	31	0	5
15년	759	754	723	31	0	5
16년	774	769	740	29	0	5
17년	773	768	748	20	0	5
18년	773	768	743	25	0	5

※ 출처 : 원주소방서 방호구조과

안전사고 발생 현황

연도	총계	출동	현장활동	귀소	체력단련	차량운행	기타
2018년	9	4	2	3	·	·	·
2017년	13	5	1	·	2	3	2
2016년	9	3	4	·	·	2	·
2015년	11	4	6	1	·	·	·
2014년	11	3	4	4	·	·	·
2013년	3	1	2	·	·	·	·
2012년	5	2	3	·	·	·	·
2010년	4	·	2	·	2	·	·
2009년	16	1	10	·	·	·	5

※ 출처 : 원주소방서 현장대응과

안전사고 세부 내용

순번	일시	장소	활동	중별	내용
1	2018.11.20(화) 03:00	행구동 내과병원	화재진압활동	안전사고	전화 정리 중 석고보드(10m*2m)가 주저 앉으면서 경추, 요추 타박상 발생
2	2018.08.21(화) 20:00	흥업면 사제리 1484	구급출동	교통사고	주차를 위해 후진 중 나무 그루터기에 앞 범퍼가 걸려 파손
3	2018.08.02(목) 19:00	판부면 일반도로	구급귀소	교통사고	자동차 전용도로 주행 중 고라니 출몰로 충돌
4	2018.07.13(금) 10:00	중앙동 원주관광 호텔 진입로	화재출동	교통사고	호텔 정문에 주차된 승용차량 추돌
5	2018.06.30(토) 10:00	원동 교차로	구급이송	교통사고	단구구급대 환자1명 원주 기독병원 이송도중 택시와충돌하여 경상자 3명 발생
6	2018.05.15(화) 20:00	소초면	구조출동	교통사고	협소한 골목길 진행 중 가드레일에 뒷바퀴 부위가 긁힘
7	2018.05.05(토) 00:00	우산119안전센터 차고지 내	화재귀소	안전사고	차고지내 주차 후 차량에서 내리던중 발을 헛딛어 우측발목 인대파열
8	2018.03.04(일) 09:00	원주소방서 후정	화재귀소	교통사고	주차중 기어 후진을 주차로 오인하고 발을 떼고 무전기 수거 중 훈련탑과 충돌
9	2018.02.26(월) 17:00	단계동	구조출동	교통사고	좁은 골목길 모퉁이에 주차된 차량과 접촉사고
10	2017.11.04(토) 13:20	문막읍 다이소 삼거리 도로상	업무은행	교통사고	사무용품 구매차 구급차 운행 중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 변경하는 과정에서 1차선에서 오던 스파크차량을 확인하지 못하여 1차선으로 오던 스파크차량 조수석 및 뒷좌석 오른쪽 도어부분과 구급차량 운전석 쪽 범퍼 및 앞바퀴가 접촉되어 일부 파손됨
11	2017.09.18(월) 18:35	흥업면 흥업리 진광 카독크 앞 삼거리	업무은행	교통사고	상대차량(스포티지)이 2차선에서 진입차선으로 급작스런 차선변경으로 급정지하려 하였으나 그 후미를 추돌한 사고로 스포티지차량은 우측 뒷범퍼 및 후미등 파손, 흥업구급 차량은 앞범퍼 및 보닛 앞부분이 파손
12	2017.09.02(토) 13:20	원주소방서 후정	체력단련	안전사고	점심식사 후 족구경기 중 우측 종아리 근육 파열
13	2017.08.24.(목) 04:40	원주시 명륜동 원주의료원 교차로	화재출동	교통사고	직진 운행 중이던 카니발차량과 교차로 지점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임. 카니발차량 운전석 앞 범퍼, 웬다 부위와 화재조사차량 조수석 문짝 부분이 접촉되어 일부 파손됨.
14	2017.07.16(일) 19:55	원주 귀래면 귀래리 산 119-11	생활민원	기타사고	물탱크에 호스를 연결해 급수하던 중 물탱크 내부에 투입된 호스가 물탱크 천장 부분과 충돌되면서 물탱크 덮개가 닫혀 우측 팔이 덮개에 찍히는 사고가 발생됨
15	2017.07.16(일) 13:20	원주시 무실동 시청사거리	화재출동	교통사고	화재조사차량이 무실동 무실주공8단지 화재출동중 시청사거리 교차로에서 남원주IC방향으로 좌회전 서행 진입 시도 중 단계동에서 남원주IC방향으로 직진 운행 중이던 K5차량 운전석 뒷바퀴 웬다 부위와 화재조사차량 앞 범퍼가 접촉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임.
16	2017.06.15(목) 19:20	소초지역대 차고 앞	기타	안전사고	2017.6.15.18:30부터 상기정소에서 도장비검열준비를 위해 펌프차량 그라스 주입을 앞 바퀴부분, 엔진실, 펌프실과 뒤바퀴 쪽 그라스 주입을 모두 마친 후펌프차량 후미 사다리 밑부분의 판스프링 부위에 추가 그라스 주입 등 확인을 위해 몸을 숙여 관찰 후 몸을 일으켜 세워 돌아서던 중 사다리 밑 부분 돌출 부분에 이마 부위를 부딪히는사고가 발생됨.

순번	일시	장소	활동	중별	내용
17	2017.05.12(금) 14:35	시청로 267 남송사거리교차로	구조출동	교통사고	간헐리 수난사고 출동 중 상기 시간과 장소에서 원주궁전웨딩홀방향으로 진행하던 지휘차가 남송교차로 서행 진입 중 좌측도로 진행하는 차량이 모두 정차한 것을 확인하고 교차로 2/3지점통과 중 우측 편 신호가 직진신호로 바뀌면서 1차선과 2차선의 차량은 모두 정지하였으나 3차선에서 달려오던 지프 차량이 지휘차량의 조수석 앞바퀴 및 웬다 부분을 충돌한 교통사고
18	2017.05.09(화) 16:14	반곡동 푸른숨 아파트 주차장내	구조활동	교통사고	반곡동 구조출동(어린이의 의자에 얼굴 끼임) 중 푸른숨아파트 902단지 아래 블록으로 진입을 해야하나 위 블록으로 잘못 진입. 구조차량을 수정 이동 중 주차장 내 경계석을 구조공작차량의 뒷바퀴가 올라타면서 주차되어 있던 카니발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부위를 구조차량 조수석뒷바퀴 부분에 의해 충돌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임
19	2017.04.30(일) 19:14	원주시 원일로 136-52 지하상가 교차로	구급출동	교통사고	가슴통증 구급출동 건으로 환자는 식은땀 및 불안정한 상태로 지속적인 가슴통증 호소와 의식변화 추정되는 상황. 19:14경 상기장소에서 경광등 사이렌 취명하고 좌우안전을 확인 후 부득이하게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지하상가 사거리 (천사로 방향) 서행 통과 하던 중 3시 방향에서 신호만보며 진입하는 (원일로 방향) 마티즈 승용차가 구급차량 조수석 측면과 충돌한 교통사고임
20	2017.03.20(월) 13:58	원주시 원일로 164-2 삼성전기공사	구조활동	추락사고	상기 장소에서 화물승강기에 목 끼인 요구조자 인명구조 작업 중 추락방지용 지지대가휘어지면서요구조자와 구조대원이 함께 1층으로 추락 부상한 안전사고임
21	2017.02.09(목) 16:25	원주소방서 후정	체력단련	안전사고	상기 시간과 장소에서 체력단련 시간에 축구 운동을 하던 중 녹은 눈이 녹지 않은 일부 구간으로 축구공이 튕겨져 나가자 이를 잡기위해 가던 중 미끄러져 오른쪽 발목 위 부분이 꺾이면서 골절됨
22	2017.01.23(월) 14:06	원주시 판부면 거장이파트	주유은행	교통사고	상기 시간과 장소에서 현장대응과 물탱크차량이 연료주입을 위해 서곡주유소로 이동 중 거정2차아파트 교차로에서 앞서 주행하던 시내버스 차량이 승객 하차를 위해 우측으로 급히 빠지면서, 신호등 녹색신호에서 황색신호로 바뀌어 정차한 스파크 차량의 후미 추돌한 사고임
23	2016.12.14(수) 11:50	단구동 단구센터 차고 앞	훈련귀소	교통사고	단구안전센터 입고를 위해 차고 앞으로 진입도중 차고 옆 주차장에 주차된 SM5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및 웬더를 굴절차 후미 바스켓 가드로 충격함
24	2016.12.12(월) 18:52	무실동 대성중고등 학교 인근 도로	구급출동	교통사고	무실동 대성중고등학교 맞은편 시청방향 교통사고 구급 출동 중 현장도착 전 3차로에서 4차로 차선 변경 중 4차로로 주행중이던 트라제XG 차량과 접촉함
25	2016.12.06(금) 21:10	인동 성지병원 응급실 앞	구급이송	교통사고	원주시 성지병원에서 하지통증 환자를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으로 재이송을 위해 후진하던 중 구급차 뒤 쪽 사각부근에 정차되어있던 1톤 화물차량을 발견치 못하고 접촉함
26	2016.09.10(토) 12:24	호저면 무장리 492	구급활동	안전사고	산현초등학교 뒷 주택마당 벌쏘임 심정지 환자 심폐소생술 및 IV처치 중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수차례 부딪혀 통증 발생
27	2016.09.09(토) 12:24	단구동 신성미소지움 앞 교차로	구급활동	교통사고	구급출동 중 목적지 변경되어 신고 장소로 이동 중 신성미소지움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기 위해 1차선으로 진입중 2차선에 신호대기 중이던 승합차량 운전석 후방 범퍼와 구급차 조수석 차체 일부가 접촉함
28	2016.06.28(화) 11:30	개운동 주민자치센터	교육귀소	교통사고	이통장협의회 대상으로 기초소방시설 설치관련 교육을 마치고 귀서를 위해 지휘차량을 이동하던 중 옆에 주차된 승용차량 좌측 전방 범퍼와 지휘차 우측 차체가 접촉한 사고임

순번	일시	장소	활동	종별	내용
29	2016.04.16(토) 12:07	판부면 금대리 1333-12	구급활동	안전사고	자전거 낙상환자를 들것에 옮기던 중 허리가 삔끗하면서 통증이 지속 발생
30	2016.03.14(월) 17:00	관설동 청솔아파트	구급활동	안전사고	주들것 다리가 접하지 않아 점검 중 주들것이 이마 부위와 왼쪽 목, 어깨, 팔로 내려 앉으면서 부상
31	2016.01.11(월) 01:46	명륜동 명륜2차아파트	구급출동	교통사고	아파트 내부 진입중 주차중인 차량과 접촉사고
32	2015.12.03(일) 23:38	호저면 만종리 591	화재진압활동	안전사고	재활용폐기물아적장 화재진압시 진화활동 중 깨진 유리 파편에 좌측 허벅지 열상
33	2015.11.05(목) 13:46	중앙로 41도로상	구급이송	교통사고	구급이송 중 인동사거리 방향 1차선 진행 중 2차선에서 운행하던 오토바이와 구급차 후미 충돌
34	2015.09.19(토) 16:59	문막읍 동화리 큰골길12	화재진압활동	추락사고	에코그린 화재현장에서 파쇄기 기계실에 낙상
35	2015.07.23(목) 17:17	중앙고속도로 만종JC 진입로	구조출동중	교통사고	구조출동 중 중앙고속도로 만종JC 진입로 커브길에서 서행하는 앞 차량을 피하려다 갓길 가드레일과 구조차간 충돌
36	2015.07.21(화) 16:00	서원대로 아이린 뷔페 주차장	기타	교통사고	펌프차로 아이린뷔페 주차장 입구 소화전 조사를 위해 주차 중 승용차 앞 범퍼와 충돌
37	2015.04.27(월) 13:15	남산로 180 대성사우나 앞	민원출동	교통사고	대성사우나 인근에서 가스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펌프차로 출동, 화차하여 후진 중 차량 뒤쪽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와 헨다를 파손
38	2015.04.17(금) 05:30	신림면 신림 황둔로 747	화재진압활동	안전사고	주택화재 현장에서 화재진압 중 허리부상, 허리염좌 및 긴장
39	2015.03.28(토) 13:00	학성동 1092-2 단계사거리	구조귀소	교통사고	시간개방 인명구조, 구조차 귀소 중 단계 사거리에서 적색신호로 바뀌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2차선에 있던 승용차와 충돌
40	2015.03.26(목) 17:22	남원로 527 단구2차아파트 사거리	화재출동	교통사고	화재출동 중 사거리 진입 시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는 승용차 를 발견치 못하여 물탱크차가 승용차 뒷부분을 추돌
41	2015.03.19(목) 21:10	무실동 620-2 만대사거리	화재진압활동	안전사고	화재현장에서 잔화정리 중 도기를 옆으로 치우는 과정에서 깨진 도기에 왼손 안전장갑이 찢어지면서 왼손바닥에 3cm 열상
42	2015.01.17(토) 02:06	무실동 1651 뜨란채아파트	구급이송	교통사고	임산부 하혈환자 응급조치 후 환자를 태우고 우회전하던 중 통로가 좁아 우측 코너에 주차된 승용차 범퍼와 접촉사고
43	2014.12.30(화) 17:15	무실동 법조사거리	구조출동	교통사고	출동중인 소방차량을 따라가던 승용차량이 구조차량을 추월 후 신호등 직진정지 좌회전 신호를 보고 급정차하여 후방에서 추돌
44	2014.12.23(화) 20:20	오성마을길 75	구조귀소	교통사고	구조 종료 구서 준비 차 후진 중 인근 주차차량 충돌
45	2014.11.09(일) 10:04	무실동 교차로	화재귀소	교통사고	편도사차선도로 3차로로 귀서 중 횡단보도 무단횡단 자전거와 충돌
46	2014.08.11(월) 11:50	호산식당 인근도로	구급귀소	교통사고	구급귀소 중 좌회전 선행차량을 피하려고 후진 중 뒤에서 정차중인 승용차량 앞 범퍼 충돌

순번	일시	장소	활동	종별	내용
47	2014.07.20(일) 09:40	흥업면 주택	생활안전	안전사고	벽난로 연통내부 벌집 제거 중 얼굴, 양팔 1도 화상
48	2014.06.11(수) 02:22	여주시 청안터널 인근	구급귀소	교통사고	도로공사중인 구간 진입, 앞뒤타이어, 전면범퍼, 라디에이터 파손
49	2014.05.23(금) 21:35	일산로 20번길	구급이송	교통사고	원주기독병원 환자 이송 중 병원을 지나친 줄 알고 호진 중 승용차 충돌
50	2014.05.07(수) 11:21	무실동 골목길	구급출동	교통사고	구급출동 중 주차차량 충돌
51	2014.03.25(화) 19:33	호저면	화재진압활동	교통사고	조사차량 후진유도 중 도로 옆 배수로에 추락
52	2014.03.02(일) 09:13	진우아파트 단지내	구급출동	교통사고	현장도착 후진 중 주차차량 충돌
53	2014.02.12(수) 09:50	우리병원 앞	구급이송	교통사고	낙상 환자 이송 중 병원 앞 도로에서 U턴 중 승용차와 충돌
54	2013.06.21(금) 14:00	중앙고속도로	구조활동	안전사고	교통사고 요구조자 구조 중 어깨 목 등에 통증
55	2013.06.04(화) 15:31	단구동 교차로	구급출동	교통사고	교차로 좌회전 중 직진중인 승용차와 충돌
56	2013.03.02(월) 09:03	원주시	생활안전 구조활동	안전사고	고양이 구조활동 중 물림
57	2012.12.31(월) 06:50	단계동 교차로	구급이송	교통사고	역류성식도염 환자 병원이송, 교차로 적색신호 상태에서 진행 중 반대차선 좌회전 차량과 충돌
58	2012.08.28(화) 10:30	단계동 주택	생활안전 구조활동	안전사고	태풍볼라벤 영향으로 단독주택 옥상으로 쓰러진 나무를 치우고 잔가지 제거 중 나무가 밀리면서 부상
59	2012.06.13(수) 18:00	원주시	구급활동	안전사고	거동불가 환자 업고 내려오던 중 허리 통증
60	2012.05.02(수) 20:50	한정동 강변	구급출동	교통사고	1차로에서 2차로 변경 중 2차로 진행중 차량이 구급차량을 피하려고 하다가 방지턱을 넘어 가로수 충돌
61	2012.04.21(토) 19:59	크라운다방	구급활동중	안전사고	환자를 분리형 들것으로 지하층에서 1층으로 이동 중 부상
62	2010.05.09(일) 13:00	원주소방서 후정	체력단련	안전사고	원주소방서 후정에서 체력단련 중 우측 골반부 근육파열 부상을 당함
63	2010.04.30(금) 08:43	횡성군 안흥면 안흥2리 775번지	화재진압활동	안전사고	주택화재현장에서 화재진압 중 열허탈 증상 발생
64	2010.01.30(토) 16:19	원주소방서 후정	체력단련	안전사고	체력단련을 위해 족구 경기 중 우측발목 부상을 당함



받는 사람
소방대원 아저씨께

Roly Poly

She fell into a dream of flower fairy

-군마왕님 소방서 아저씨께-

안녕하세요? 저는 원주 교통초등학교에 다니는 한지윤
이라고 합니다 요즘 날씨가 영하로 내려 갈 정도로
무척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열심히 일하시는
아저씨가 저렇게 따뜻한 불이 나면 숙식활동, 아파도 역시
활동. 이렇게 바쁘신 하루하루를 보내시다 가는 날 저유는
지도 모르겠어요 아무리 나라를 위해서라 하더라도 건강이
세일 중이라니까 문 소리 잘 하세요 저도 코만 나라를
위해 열심히 노력할게요 아저씨처럼 말예요
다시한번 당부(?) 하겠지만은요 문 건강하세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지윤이, 느끼는 문이 아~주 아주
건강하답니다 힘이 넘쳐 흐를 정도로요 후후!

요즘 나라 경제가 어려운데 현내세금 시금도 힘들고
지치고 노력하고 계시겠지만은요 한사람, 한사람이 나라를
위해 온 마음을 바치면 우리나라 경제는 다시 살아나게
될꺼예요 살아나고 말고요

문조심하시고 감기 역시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열심히 일하시고 노력하세요 아저씨 힘내세요 힘내원하!

그런이만 줄이고 편지를 올게요 안녕히 계세요

-지윤 올림-

소방관 아저씨들께,

안녕하세요?

저는 교통초등학교에 다니는 5학년 한지윤의 강은지라고 해요.

아주 추운 겨울날이에요 그래서인지 눈이 펄펄 내리고 있었요

전 눈오날 우리반 아이들과 눈싸움을 하다가 눈이 눈에 들어가 눈물이 내리는
눈 만큼이나 펄펄 흘렸어요 그리고 학교 등굣 내려갈 길에서는 푸대를 가지고
신나게 설레를 달어요. 아주 재미 있었요

한편 소방관 아저씨들은 열심히 일을 하시지요?

우리가 염려하는 노는 만큼 아저씨들은 열심히 일을 하시지요 특히 겨울이라 한
재가 많이 발생하였을거예요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는 우리의 삶이 망쳐질거
같아요 그러나 소방관 아저씨들이 계시기에 우리의 삶이 위조 되는 거예요

어제다 TV에서 소방관 아저씨들이 불끄는 모습을 보니 참 멋진 일이라
생각했어요 아저씨! 한가지, 어려워할게 있는데요. 여가소방관은 없어요?

근데 저의 학교에 여가소방관이 있는데 무엇을 하는지, 또 왜냐
아저씨 언제 주한 곳에 불났을 때요 난을 피다가 갑자기 연기가 자욱
해서 불났을 했어요 아주 큰일났을 했죠? (아저씨?)

더 이상 불이 나지 않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불조심 실천을 하고 소방관
아저씨들은 화재 감시를 해야겠지요? 그러면 이마도 불과 생명을 배려하는
나쁜 불은 이제부터 존재하지 않을거예요

앞으로 '나 배려'라는 생각으로 불을 조심히 여기면 좋겠어요.

저는 앞으로 불조심을 하고 소방관 아저씨들의 고마움을 생각하며 불조심은
하지 않을게요 (약속)

그럼 열심히 일하시는 아저씨들을 생각하며 편지를 올릴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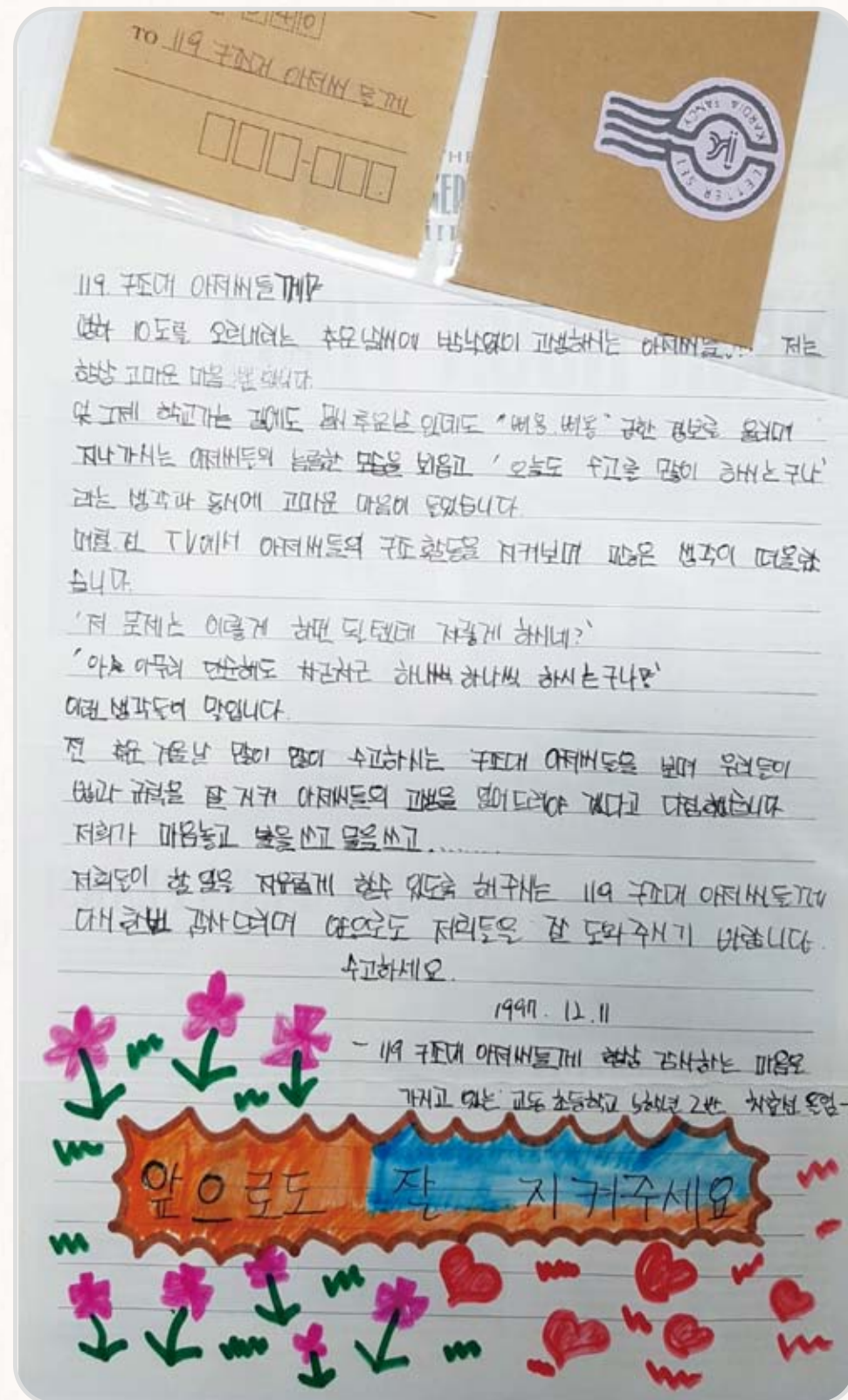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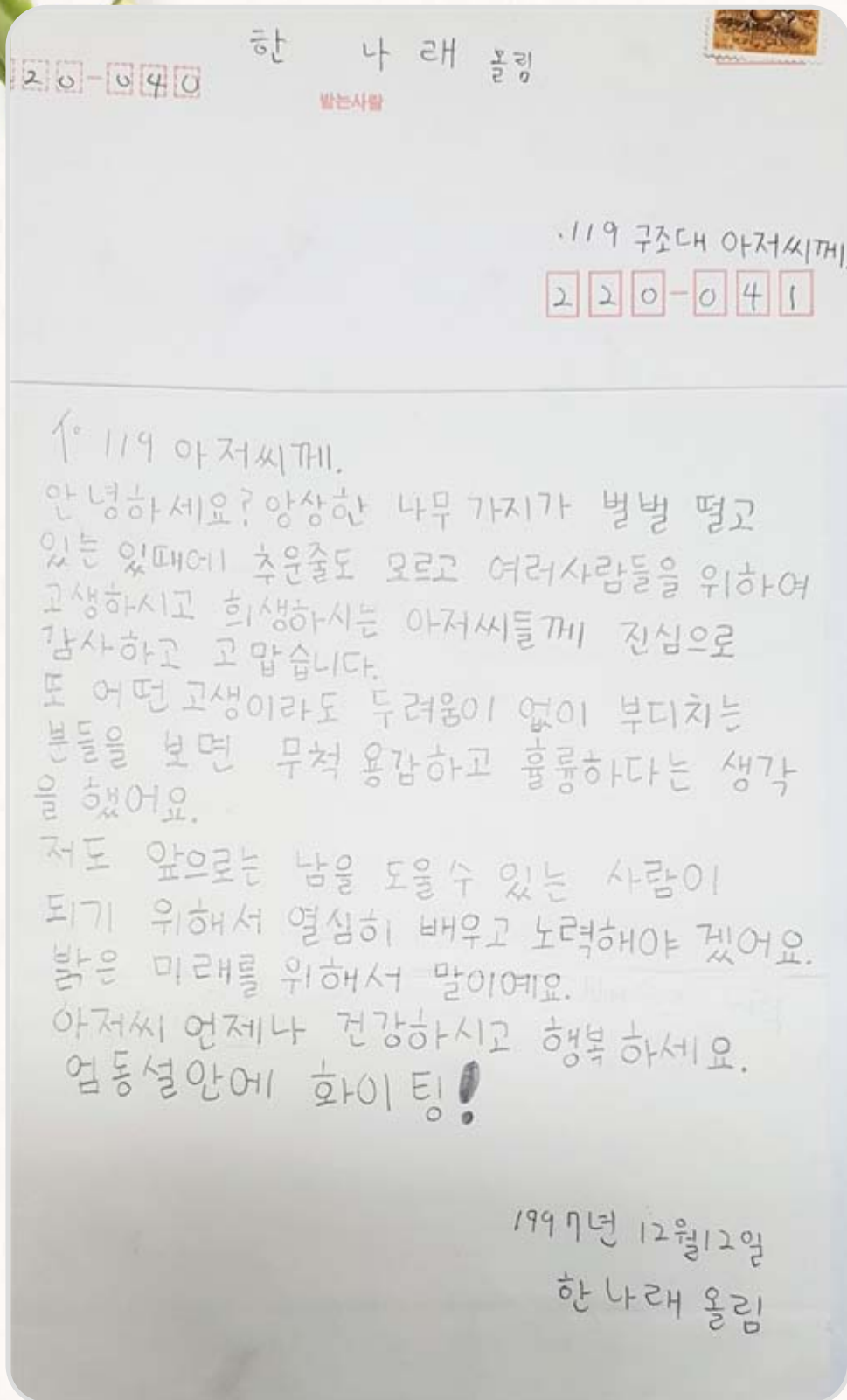
아참 소방관 아저씨들 힘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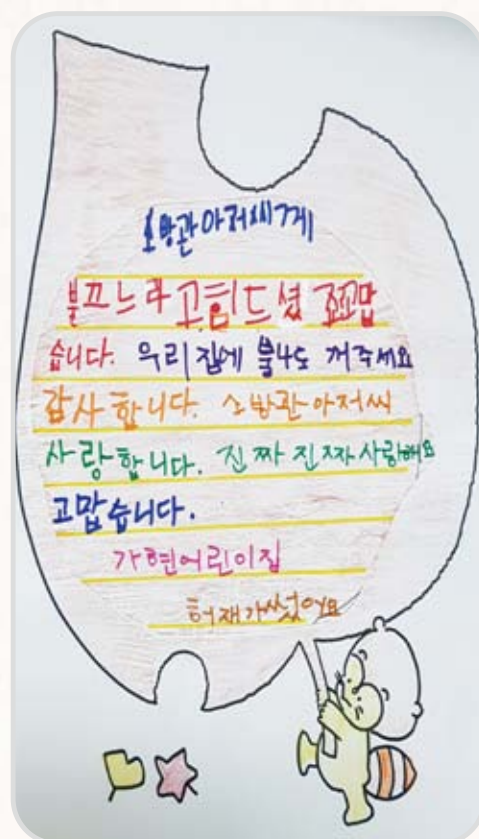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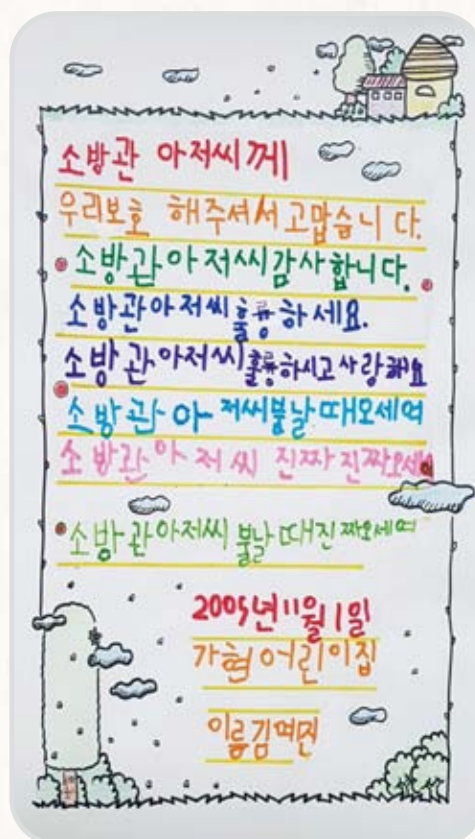
그럼 지윤, 안녕히계세요 감기 걸리지 마세요



1997.12.12

은지 올림





안녕하세요 ~♡

바람이 산들산을 불고 온 세상이 노랗게, 붉게 물들어 있는 아름다운
여유있는 계절에 저희 아이들의 가슴은 콩닥콩닥 뛰고 있습니다. 글은,
그림으로 아이들의 마음을 다 담을수는 없겠지만 저희 아이들의 사
랑스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전해드리고 싶어 작은 장엄을 담아 준비
하셨습니다.

여러가지 직업을 소개할때도 장래희망을 이야기할때도 아이들
에게 인기가 너무 많아서 아쉬요? 물론 저희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모습들은 작은 일부분이지만 아이들에게는 너무 맛있고 훌륭하신했
즐거움을 늘 잊지않고 힘내주세요. 화이팅!

프릴안에 응이종이 모이 앉아 제각기 다른 생각을 가진 아이
들에게도 바쁜 도심속에서 열심히 일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
는 어른들도 모두 등에서 알게 모르게 지켜주시는 분들에게 감사드
리고 있습니다. 쉽게 잊고 사는 요즘 119 소방의 힘을 믿어주시고
시원한 물마실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가련어린이집 친구들의 응원과 잊지 마세요. 아름다운 이
계절에 아이들의 마음속에, 가슴속에, 예쁜 추억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인지 아이들의 모습이 무척이나 밝게 느껴지네요. 맑은
눈썹에 담긴 사랑을 느껴보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셨
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Design by Paper? Made in Korea 2848-P131

119 군대 아버지께

살얼한 찬한 겨울 다가오는 12월에 동경하고 잘 지냈어요?

저는 무척이나 고독로움하고 6학년이 재학 중인 남승환이라고 합니다.

모름 많이 후회한 것 같아요. 그래도 언제나 우리들의 안전을 지켜주시느라 고생

하시는 아버지들의 모습을 보면 그런 후회 줄이나 하는 생각도 들곤 합니다.

TV에서 군대 아버지들의 모습을 많이 보았어요. '군복으로 119'라는 방송을 자

주 보거든요.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사람들을 구출해 내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

있어요.

저는 아직 사고를 당해 본적이 없이 마음을 놓고 있었지만, 그 모로로 몇 번 보더니

사고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일어날지 모르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어요.

또한 작은 벽구에서 비롯된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아침마다 119 군대 아버지들을 보고 그런 힘든일을 왜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차츰 커가면서 그일이 얼마나 보람된 일인지 알게 되었어요.

다른 사람들 도와주었을때의 그 보람, 그것을 느끼기 위해 하는 일은 아닌가요?

저도 도움을 준일이 있어요. 물론 도움 받은 열도 있었요. 도움을 주었을때는 기

쁘고 도움을 받았을 때는 대개 고맷지요.

아버지, 비록 힘들더라도 꼭 참고 열하세요. 아버지께서 힘든일은 저도 잘 알

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움을 받는 사람의 즐거움을 생각해 보세요.

'나 때문에 저 사람이 목숨 잃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생활해 보세요.

아버지께서 하는 일은 물론 즐거워 할 것입니다.

언제나 위험한 사람을 도와주고 곤경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며, 아픈 사람들을 도와

주는 군대 아버지께 새삼 고맷음을 느끼게 됩니다.

'119' 대한만큼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있는 번호 이잖아요.

전화에 세번의 숫자만 누르면 어렵없이 사여편을 켜고 달려오는 멋진 119

군대 아버지들. 모두들 감사하게 생각하자고요. 물론 저도요.

어제 본격적인 겨울이 다가왔네요.

물론같이 잘 지냈고 비워서 이만 줄입니다.

아버지, 힘내시고 안녕히 계세요.

1997년 12월 14일

남승환 올림

119 응급조대 아버지들께.

1호 1호를 포함한 마음으로 보내시며 생활하시는 고마운

아버지들께 원주시 명륜동 2동 초교 6~3에 재학중인

허수영 이란 아이가 편지를 쓰려고 합니다.

아침이 생생하고 눈이 펄펄 안도 항상 우리들을 위

해 일 해주시는 아버지들의 건강은 어떠신지요?

저는 아버지들 덕분에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쓰기전에 저는 아버지들께 용서받은

일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러지 않으나 옛날에

몇번 119를 누려서 장난을 쳤답니다. 그러곤 겁이

나서 곧 수화기를 놓으며 장난을 쳤었어요. 아무리

무험하더라도 우리들을 위해 목숨을 바쳐 일하

시는 아버지들께 편지를 쓰면서 낯이 붉혀졌습니다.

한사람은 장난전화. 또 다른 사람들은 이러저리 장

난전화에 묶여다니고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들은 왜 남을 구하는 직업은 갖게 되었는

지가 궁금해요.

아마도 여러 사람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위

해서 이겠지요?

저는 그런 아버지들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또 남들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멋지고 값있는 일인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부터 그런 장난전화는 하지 않도록

약속하겠습니다.

그럼 이 추운 겨울에도 항상 몸 건강하세요.

1997. 12. 12

수영 올림.

119 구조대 아저씨들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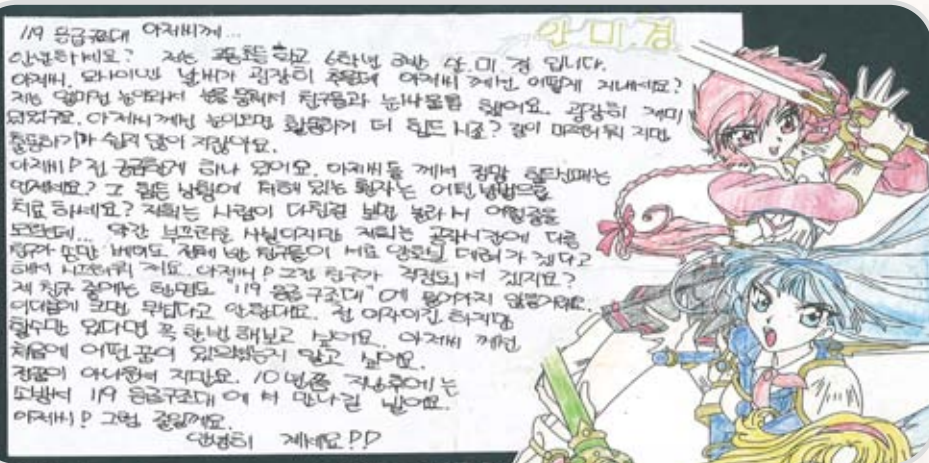
현하 10도를 오르내리는 추운 날씨에 밤낮없이 고생하시는 아저씨들께 저는 항상 고맙고 마음 편합니다.
 첫 번째 학교가는 길에도 물론 편하게 있는데 '배고 배고' 구한 편지를 올리고
 지나가시는 아저씨들의 눈빛을 보면서 '오늘도 수고하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일 TV에서 아저씨들의 구조 활동을 지켜보며 따뜻한 생각이 떠올라
 습니다.

'저 문제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저렇게 하시네?'
 '아니 아저씨 만능에도 한계는 있잖나' 하시는데
 어떤 생각도 많이 있습니다.

전 하루 7시간 많이 많이 수고하시는 구조대 아저씨들을 보며 우리들이
 배와 공부를 잘 해서 아저씨들의 고생을 덜어드려야겠다고 다짐합니다.
 저희가 마음놓고 배를 입고 물을 마시고
 저희들이 할 일을 저절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119 구조대 아저씨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아저씨들도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1997. 12. 11

- 119 구조대 아저씨들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고등초등학교 5학년 2반 최현진 올림



소방관 아저씨께 -

안녕하세요?

온 세상이 이렇게 뒤집힌 계절 겨울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고생하시는 아저씨들의 생활은 어떤
 지 궁금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늘 바쁘게 생활
 하시는 아저씨를 보면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
 다. 매일 힘들게 일하시면서 고생이 많은 것
 텐데... 지금 하시는 일에 흥미하시는 때는 없는
 거요? 그러나 그런 일은 없을 거라 믿습니다.
 전 힘들고 어려운 일은 별로 하고 싶지 않은
 데... 존경스럽습니다.

아침, 소방관 아저씨 우리의 생명을 지켜 주
 시는 것도 좋지만 먼저 아저씨들의 건강도
 생각하세요. 어느 무엇보다도 건강이 제일
 이니까요?

소방관 아저씨 힘든 일이 있어도 그때면
 저희들을 생각해 주세요. 그러면서 힘내서
 요!

아, 전 이제 할 말이 없네요.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
 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1997. 12. 12

유성현 올림



소방관 아저씨들께

아저씨, 안녕하세요? 저는 원주초등학교에 다니는 오상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얼마전 TV프로그램에서 소방서 아저씨들께서 불'속으로 뛰어들어가셔서 민영구조를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섭지않았어요?

저는 무난 겁이 많아서 집에서 가스불도 잘 켜지 못하고 보통아미들이 기분이라는 제란 후라이와 리면도 끓이지 못합니다. 그래도 소방관 아저씨께서 목숨을 아끼워 하시지 않으시고, 땀방울 흘리며 구하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살아있다는 것을 생각하니 무척 자랑스럽습니다.

평소저는 행동거지가 조금불안하고 털털거리는 편이라서 언제 어디서든지 열심히 활동하시는 아저씨들을 볼 때마다 무척 부끄럽고 가슴이 찡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많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겠다고 다짐했지만 작심삼일 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정말로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소방관 아저씨들처럼 제 마음의 불로 썩고 한결 가라앉은 마음으로, 한결 깨끗한 마음으로 생활할 것입니다.

아저씨! 힘내세요! 화이팅!

그럼, 안녕히 계세요.

소방관님 계-안녕하세요.

저는 산 내 들 유치원 마음나쁜미만

김시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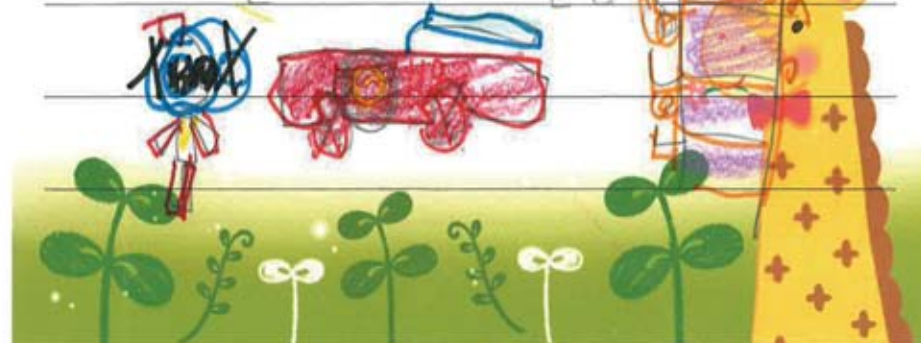
저의 동네에서 불이났을때

시수하게 줄동 해서 불 끄기까지

위험에 처했을때 사람들을 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해요~♡

2019 1월31일 김시우 올림



annaedle

2009. 3. 10.

년초 2월달에 새벽에 제천에서 원주로 넘어오는 길에 빙판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에 차가 심하게 부딪친 사고가 있었습니다. 안전벨트도 하지 않아 이마로 차 유리 다 깨지고 본네트와 차 안에서 연기 풀풀나고 정말 아무 생각도 못하다가 112와 119에 전화를 했습니다. 겨울 새벽이라 매우 추웠던 기억이 납니다. 빨리 달려와주신 119 구급대원분 정말 감사합니다. 직원분하고 군대 대신 근무하시는 분하고 두분께서 너무나 친절하게 해주셔서 새벽에 해장국이라도 사드시라도 밥값 좀 드리려고 했는데 너무나 정중히 사양하시는 모습에서 더욱 감동했습니다. 너무나 위급한 상황이라 정신이 없어서 다시 찾아뵙고 감사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하고 고맙습니다. 정부에서 이리 고단히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충분한 인력확충을 하여 이분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조금이라도 개선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1. 7. 20.

저는 어제 오전 9시쯤 집사람과 막내아들 친구 네명에서 치악산자연휴양림에서 출발하여 벼락바위를 경유하여 돌아 내려오는 코스를 설정하고 등산을 시작하였습니다. 1시간 20분을 오르자 오른쪽으로 원주시내가 한 눈에 들어오고 맑은 공기와 정상에 오른 즐거움에 우리 가족은 웃음 가득 행복한 산행의 기분을 만끽하고 벼락바위를 향해 다시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약 삼십분을 걸어 지날 때 왼쪽 눈높이 십미터 위쪽에 바위 하나를 무심코 보며 가던 길로 계속 걸었습니다. 매표소에서 받은 휴양림 안내도를 보면서 벼락바위를 지나 육백미터 지점에서 좌측으로 내려가는 안내도 상의 표시를 보며 걸어갔으나 좌측으로 꺾어내려가는 길은 보이지 않았고 길이 조금씩 좁아지고 험해지면서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그때 남자 두명이 우리를 앞질러 다급히 지나가는 모습을 보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분들도 길을 잘못들어 우왕좌왕하며 허겁지겁 우리의 시야에서 멀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우리들도 불길한 예감이 들어 오던 길로 되돌아가기로 하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때부터 길 아닌 길로 숲 속으로 방향감각을 잃기 시작하면서 산 속을 헤메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때 시간은 열두시 정도라 기억합니다. 휴양림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지금 상황을 이야기하고 협조를 부탁하였으나 성의없는 답변에 전화를 끊고 곧바로 119로 구조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배고프고 목말라하고 집사람은 태연한 척 했지만 당황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이 영력했습니다. 119구조대의 출동연락을 받고서야 조금은 마음이 놓였지만 전화가 잘 터지지않고 배터리는 점점 소진되고 수백번 목청이 터지도록 우리의 위치를 알리기 위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119구조대원과 수십통 통화를 하였지만 서로서로 답답하기만 하였습니다. 정확한 위치를 모르는 상태에서 소통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를 몇 시간이 지났나요 답답한 마음에 친구와 통화를 하고 위로를 받고 나름 친구도 애를 썼습니다. 헬기장까지 우리를 도우려왔다가 구조대와 연락이 되고 난 후에야 친구는 내려갔습니다. 어느덧 시간은 네시를 지나고 있었고 이리저리 헤메는 통에 팔 다리는 상처투성이가 되고 아이들은 그나마 침착하게 잘 견뎌주었습니다. 큼직한 야생동물의 변들을 여러군데에서 보았기에 혹시 우리가 구조의 손길이 늦어지면 이대로 밤이 오고 야생동물들의 활동이 시작되면 우리는 그냥 '야휴 끔직해!!' 오만가지의 불길한 생각!... 그 순간 구조대의 희미한 소리가 들리는 듯 하여 우리 가족 모두는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렇게 여러번 서로의 음성을 수교신하고 조금씩 가까워지는 소리를 확인하면서 그때서야 '살았구나!' 하는 한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구조대원을 상봉하니 구조대원은 땀으로 얼룩졌고 힘들게 길이 아닌 깊은 산 속을 수시간 구조의 신념을 보여주신 구조대원님들께 뭐라고 감

사의 인사를 드려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무사히 구조대원의 안내를 받으며 하산하였습니다. 동네 어귀에서 시원한 물 한잔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세상에서 제일 맛 좋은 생명수로 오랜 시간 기억 될 겁니다.

119산악구조대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2011년 7월 19일 119산악구조대원 여러분은 우리들의 영원한 영웅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이만 줄입니다.

2012. 3. 20.

오늘 오전 6시 40분에 119 부른 단구동 시민입니다. 새벽부터 아이가 심하게 복통을 호소하는데 남편은 출장중이고 저는 운전도 못하고 1336번으로 전화해서 아이의 상태를 말했더니 원주 기독교병원으로 가라하더군요.

바쁘신줄이지만 위낙 아이가 아파해서 119로 전화를 했더니 5분정도만에 도착해주셨고 병원까지 가는동안 친절하게 아이에게 이것저것 물어봐주시고 배도 만져보면서 아이의 상태를 파악해주시더라고요.

다행히 도착했을 때 통증이 사라진것같아 아침에 병원을 가기로하고 집으로 가려고했더니 또다시 집까지 데려다 주시고 꼼꼼하고 친절하게 챙겨주셔서 불안하지않게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세금넵게 감사하다고 느꼈습니다.;; 경황이 없어서 성함도 보지못했네요. 아무튼 오늘 이른아침에 저희 모녀를 도와주신 소방관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소방관님들의 무궁한 발전과 건강을 빕니다. 원주소방서 파이팅.....!!

2012. 4. 12.

지난 3월 10일 오랜만에 큰산인 치악산에 등산하고자 친구와 둘이서 구룡사, 세렘폭포, 사다리병창으로 올라, 비로봉, 계곡길 코스로 내려오던 중 오후4시경 세렘폭포 초입부근에서 넘어져 걸을수가 없었습니다. 친구가 119구조대에 신고하여, 감사하게도 국립공원 산악구조대 및 원주 119구조대의 도움으로 무사히 성지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 조치 후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나름 자주 산행하여 산행에는 자신이 있었으나 한순간 방심으로 오른쪽 다리(발목 위)가 골절되었으며, 현재는 서울에서 수술 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때 함께 해주신 세분의 원주소방서 119 구조대원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 별도로 응급 차량은 구룡사에서 대기, 구조대 차량으로 성지병원 후송

2012. 10. 22.

새 생명이 태어나는 시간, 도움을 주신 학생119안전센터 직원분께 감사의 글을 올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철원소방서 동송119안전센터에 근무하는 최승섭입니다.

지난 10월 10일 새벽 출근길에 안사람이 진통이 시작되었다는 전화를 했더군요. 예정일이 일주일이나 남았는데... 원거리 출퇴근을 하다보니 항상 긴장하고는 있었지만 벌써 진통이 시작되다니! 전화를 받던 지점이 흥천을 지난 곳이라, 원주 태장동까지는 수십분이 소요될 거리였습니다. 119에 신고를 하고, 춘천ic에서 회차를 하려는데 그날 출동하신 권혁진, 이난영 구급대원님께서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얼마나 반가운 목소리였는지 모릅니다.^^ 안사람은 병원이송 후, 11시 39분에 3.12kg의 건강한 남아를 출산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직장동료들이 병원까지 안전하게 이송을 해줘서 이렇게 건강한 아이를 출산했다하니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는것 같았습니다. 그 날 도움을 주신 권혁진,이난영 반장님께 감사의 맘을 전하고 싶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수일 내에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 2. 11.

안녕하세요!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은 마음에, 원주소방서 홈페이지를 찾아서 인사 올립니다. 지난 2월 6일 오후 4시경, 단구동 한일아파트 집에서 와이프가 둘째딸(튼튼이)을 출산했습니다. 12시경, 와이프가 진통이 오는 것 같다는 느낌을 전했을 때, 현장 영업사원인 저는 인제 부근에 있었고 업무 중이었기 때문에 복귀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렸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가 오후 4시 20분, 와이프는 1~2분 전 화장실 앞에서 둘째를 이미 낳았습니다. 양수가 터지고 태반도 흘러내려 있는 현장은 차마 설명기도 어렵습니다. 쪼그려 앉아서 땀줄도 자르지 못한 채 어찌할 바 모르는 와이프와, 그 앞에서 자지러지게 울고 있는 첫째를 보며 저 역시 당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순간 119가 떠올랐고, 지역번호도 없이 무작정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방서가 연결되었고,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상담사가 어떤 말을 했는지조차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시키는대로 움직이고, 기다렸습니다. 2~3분만에 도착한 소방요원들, 여성 1분과 남성 2분으로 기억합니다. 그들은 제 나이보다도 어려 보였습니다만 침착하게 아기를 받아주고, 와이프를 옮길 것에 태워주고, 병원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 분들의 움직임에 저희도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서, 산모도 아기도 모두 건강히 퇴원했습니다. 3.78kg의 우량아로 태어난 둘째딸은 아빠를 닮아서 그렇게 성격이 급했나봅니다. 제대로 된 진통도 준비할 시간도 없이 순식간에 태어났으니까요. 그렇게 당황할 수 밖에 없었던 시간에 소방요원들의 발 빠른 조치 덕분에 모두가 무사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 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기에, 저희가 믿고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의 이런 마음이 그 분들에게 작은 보람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구정 기간 동안 편히 쉬셨는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된 활동에 큰 보람이 항상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튼튼이 아버지, 다시 한번 인사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 7. 1.

경황이 없어 이제야 글을 올립니다. 6월 17일 오후 3시 산달이 다 되어가는 임산부인 아내가 병원을 가기위해 나서려 현관문을 나오던 중 저에게 전화를 걸어 다죽어가는 목소리로 빨리 오라 해서 전 병원에서 출산하러 들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여주에서 근무하는 전 웃으면서 운전하며 가고있는데 또 아내의 전화가 와서 죽겠다며 울고불고 고통스러운 모습에 어찌할바를 몰라 1층에 계신 아버지께 빨리 올라가 보시라고 하고 급히 원주로 향하였습니다. 학생동 119에 신고한 사람도 다름 아닌 아내였습니다. 집에서 아이를 출산하게 되어 다급하였는데 병원에 도착해보니 원주시 학생동 소방대원님들이 산모와 아기를 무사히 기독교병원으로 신속히 대응해 주셔서 둘다 무사했습니다 정말 큰일날뻔했습니다. 학생동 소방대원님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아기도 산모도 모두 건강을 되찾아 경황이 없어 이제야 글로나마 인사드립니다^^

2017. 9. 4.

먼저 이렇게 출근하여 글을 적습니다. 고맙습니다. 2일 원주 구조대님 덕분에 이렇게 무사히 집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뻘 너무 고맙기도 하고 면목이 없어 인사도 제대로 못한 듯합니다. 체력 하나만은 누구보다 장담하였는데, 그날만

은 그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 다리에 근육경련이 일어나면 피를 뿔더라도 못 움직인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때의 심정으로는 뉴스에서 나오는 것처럼 사람이 산에서 죽을 수도 있구나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늦은 시간 어머니, 아이들 모두 걱정은 하고 있는데 의지할 곳은 어느 곳도 없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도움을 요청하였는데 저 하나로 인해 고생해주신 구조대분들께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구조대분 및 소방관님들 또한 그 고마움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그런 일이 없었기에 준비도 소홀하였고 전네는 물 한모금도 따뜻한 말 한마디도 고마운 마음 뿐이었습니다. 내려올 때에도 혹시나 넘어질까 끝까지 잡아주시며, 심리적 안정으로 틈틈히 전화해주시고, 도착을 하였을 때에도 집에까지 갈수는 있으려나 걱정해주시는 모습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복귀하는 모습에.....

저 또한 예전 소방관이 꿈이었는데 그날만은 가슴에 적힌 이름표 보기에다 부끄러웠습니다. 다시 한 번 늦은 시간까지 수고해주신 구조대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왠지 따뜻한 마음까지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던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다음 기회에는 또 다른 모습으로 뵙기를 기원합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2018. 5. 14

2018.5.13. 오후 원주시 섬재길 98-49에서 온 가족이 양봉 벌 쏘임에 의하여 구급차를 요청했던 신고자입니다. 뒷밭에 1년 농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부모님과 함께 관리기로 밭을 일구던 중 어머님께서 옆밭에서 운영하는 양봉 벌들에 의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어 아버님과 제가 함께 어머님을 구조하기 위하여 혼비백산하고 있던 중 어머님은 머리와 얼굴, 목, 팔 등에 50여방, 저도 30여방 정도 쏘였고 아버님과 저의 아내도 여러 방을 쏘인 상황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119 구급대에 구조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휴일에 쉬지도 못하고 안전재난관리에 여념이 없으신 소방공무원들께서 신속하게 사건현장에 도착하셔서 우리 가족은 원주의료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아무런 후유증 없이 저녁에 무사히 귀가하게 되었습니다. 경황이 없어 출동하신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도 못드렸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소방공무원 여러분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 7. 4.

제가 어제 교통사고를 났었는데 출근하던 소방관이라고 하시면서 많은 도움을 주셨기에 <칭찬합니다>에 글을 올립니다. 어제는 경황이 없어서 가시는 것도 모르고 감사의 인사도 못 드렸습니다. 연락처도 모르고해서 저 대신 119에 접수해 주신게 생각나 오늘 다시 119에 전화해 상황을 설명드렸더니 근무처를 알려주셨습니다. 당연히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밤 10시까지 근무하다보니 잠을 내기 어려워 글로 대신하려 합니다. 운전을 시작하고 20년을 넘기며 처음 접한 사고에 어찌할 바를 몰라 발만 동동거리고, 피해자분을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지 머릿속이 하얏는데 사고접수 절차부터 피해자분의 안전을 위해 주위도 정돈해 주시고, 응급처치도 해 주시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피해자분께 너무나무 엄청엄청 죄송하고, 사고는 제가 냈고, 당연히 큰 잘못을 했지만 저도 겁에 질렸고 주위에 많은 따가운 시선도 느꼈는데 소방관님의 위로의 한마디에 저를 뻔했습니다~ㅠㅠ

항상 고생하시고 희생하신다고 머릿속으로만 인지하다 이렇게 가까이서 뵙게 되고, 도움을 받고보니 소방관에 대한 무한신뢰와 듬직함을 뼈속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늘 건강하십시오!

2018. 7. 17.

안녕하세요. 17일 새벽 화재로 출동해주신 소방관대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남깁니다. 원주 봉산동에 사찰 화재로 새벽 많은 대원분들이 출동하셨는데 너무 갑작스럽고 처참한 화재현장에서 너무 경황이 없고 너무 당황을 해서 임무를 마치고 가시는 대원님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도 못한 것이 너무나 마음에 걸리고 자꾸만 생각이 납니다. 사실 티비속에서나 봐오고 현상에서의 노고를 간접적으로 봐오던 터라 소방관대원님들의 감사함을 모르고 살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현장에서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서 믿을 건 오직 소방관대원님들뿐이고 그 분들의 도움으로 화재를 진압하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고 너무나 든든하고 감사함에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더운 날씨에 땀에 젖은 머리와 얼굴 너무나 무거운 장비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착용하고 모든 임무를 마친 후 티백터백 지친 발걸음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감사하고 그 모습이 너무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한 분께 못했던 그 순간이 너무나 후회되고 마음이 아픕니다. 꼭 전해주세요. 늘 감사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겠다고

2019. 9. 16

지난 12일 치악산에 올랐다가 양 무릎이 너무 아파 산 중턱에서 더 이상 내려올 수 없어 계단에 주저앉았는데, 그 때 시간이 저녁 6시 30분으로 산에는 아무도 없고 주위는 이미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는 어찌할 수 없어 많은 고민 끝에 119에 도움 요청을 드렸고, 원주 소방서 소속의 김용현 소방관님, 김진현 소방관님, 김승우 소방관님 그리고 마진우 의무 소방관님이 저를 도와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위 네 분의 소방관님들께서는 원주에서 저한테 오시는 동안 여러 번 전화를 주셔서 저를 안심시켜주셨고 추석 연휴에 식사도 못하시고 험한 산 속까지 출동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불쾌한 기색없이 친절하게 저를 도와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있는 곳에서 차량이 있는 곳까지 내려가는 길은 좁고 경사가 심해 성인이 혼자 내려가기도 어려운 코스이기 때문에 들것으로 저를 나를 수 없어 85kg이나 나가는 저를 소방관님들이 돌아가면서 저를 업고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을 통해 소방관님들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구조를 하시는 모습을 많이 보았지만 소방관님의 등에 업힌 채로 소방관님의 거친 숨소리와 박동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소방관님들이 얼마나 힘들게 수고를 하시는지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힘들게 저를 업고 내려가시면서 오히려 저를 걱정하시는 모습, 서로 저를 업으시려고 자원하시는 모습 등을 보면서 무언가 가슴 속에서 치밀어오는 감동, 존경심 등의 깊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소방관님들의 2시간 30분의 헌신적인 희생으로 무사히 내려왔고, 저를 병원으로 데려가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한 분이 대기하고 계신 것을 보고 한 번 더 놀랐습니다. (죄송스럽게 이분의 성함을 여쭙어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고 친절한 소방관님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PS. 1. 소방관님들께 민폐를 끼쳤다고 집사람에게 많이 혼났습니다^^

PS 2. 규정상 안 된다고 해서 커피 한 잔도 대접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고 죄송했습니다. 최소한 도움을 받은 사람은 소방관님들께 커피 한잔 정도는 대접할 수 있게 법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방관 국가직 전환이 하루 빨리 이루어져 소방관님들에 대한 처우가 조금이라도 좋아지기를 응원합니다!!!

더 많은 감사편지는 원주소방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참고문헌

- 대한민국 정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나라일터
-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 소방방재청 「한국소방행정사」, 2009년
- 강원도소방본부, 「강원소방 100년사」, 2019년
- 강원도소방본부, 「예방소방행정 통계자료」, 2016년~2018년
- 강원도소방본부, 「강원소방사」, 2007년
- 경상북도소방본부, 「경북소방 행정사」, 2017년
- 원주시청 홈페이지, 원주 통계연보, 1965년~2018년
- 원주소방서 소방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1993년 ~ 2018년
- 원주소방서 각 과별 통계자료

편집후기



원주소방서의 반세기 역사를 찾아 정리하고 기록하는 것은 가슴 설레는 시간여행이었습니다. 흩어져있던 50여년의 기억과 추억 그리고 역사의 발자취를 하나 하나 찾아가면서 우리는 역사 속 선배 소방인들의 열정과 헌신을 느낄 수 있었고, 원주소방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사진자료를 통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소방의 역사를 알게 되면서 사진 한 장 한 장에 담긴 소중한 역사와 추억의 이야기를 모두 담고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책자 발간을 목전에 둔 지금, 담아내지 못한 이야기가 너무도 많음에 아쉬움과 서운함마저 듭니다. 우리는 그동안 전자적 문서처리의 편리함으로 인해 과거의 기록들에 대한 관심과 관리를 소홀히 해 왔던게 사실입니다. 이번 책자 발간을 계기로 원주소방인 모두가 과거는 물론 앞으로 만들어질 역사에 대한 체계적 관리에도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지난 1년여간 원주소방 반세기 발자취와 주요성과를 담아내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많은 고민과 노력의 시간을 함께한 TF팀 모두는 물론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자료수집에 협조해 주신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금은 다른 관서에서 근무하고 계시지만 원주소방 50년사 발간에 함께했던 양양소방서 김동훈 과장님, 소방본부 김대성 반장님, 평창소방서 이훈 반장님, 홍천소방서 이호주 반장님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끝으로 이번 「원주소방 50년사」를 시작으로 60년, 70년을 넘어 100년사가 만들어지고 이 책에 담지 못한 소중한 기록과 앞으로 만들어 나갈 원주소방서의 새로운 역사가 함께 공존하는 공감과 공유의 장이 지속 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2019. 11. TF팀 일동

편집위원

총괄	원주소방서장	이병은
기획지원	소방행정과장	최봉식
	소방경	이창근
집필·편집	소방위	용정진
	소방장	맹정아
	소방교	황서현
자료수집	소방위	임현탁
	소방교	이영범
	소방교	최배형



원주소방서
WONJU FIRE STATION



9 791195 574087
ISBN 979-11-955740-8-7